장편소설

윤 원 삼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차 례

제 1 장. 의 혹

1

불비를 쏟아붓던 여름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있었다. 오룡덕등판에서 떼를 지어 풀을 뜯는 젖소들의 희여거뭇한 그림자들은 동쪽으로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져있었다. 그것들은 아찔한 절벽아래로 유유히 흘러내리는 소영천물가에 비껴 흐느적거렸다. 때때로 파도를 일으켜 젖소들의 무수한 그림자들을 마구 흐트러뜨리며 검실검실한 장딴지를 씻어대던 미현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돌렸다. 한마을 젖소방목공으로 같이 일하는 김은섭이 잠풍한 물가의 너럭바위우에서 축산대학교재를 탐독하고있었다. 그는 함흥농업대학(통신) 축산과 3학년생이였다.

《은섭형, 내 한가지 물을게 대답해주겠소?》

은섭은 미현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해서 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군 하는 미현이였다. 그는 자기의 물음에 의아해하며 눈을 껌벅거리는 은섭에게 덮어놓고 재촉하였다.

《대답해주겠다고 약속하오, 어서!》

《무언데?…》

《글쎄 약속하겠소, 예?—》

《내가 대답할수 있는거라면 기꺼이.》

《그럼 약속했소다, 됐소!》

이상하게도 전에없이 들떠서 벙글거리며 미현은 너럭바위에 올라와 은섭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다.

《저 은섭형, 우리 총각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오?》

《사랑을?… 넌 또 엉뚱한걸 묻는구나, 응?》

《어쨌든 약속하지 않았소. 그래 어떻게 하오, 예?》

《허허 참, 이런 변이라구야.》
은섭은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지었다.
《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건다?》
《어랍쇼, 경험이 없다구요? 아니 은섭형, 형님이 우리 누이한테 고백했다는걸 내가 모르는줄 알고 시치미를 떼오?》
《아니, 내가? 여, 누가 듣겠다. 조용조용 말해.》
《들으면 뭘하우? 괜히 그렇게 귀밑을 붉히지 마오, 매부!》
《너 정말 이러겠어, 응?…》
은섭은 금시 때릴것처럼 주먹을 쳐들었다. 그의 위협에 미현은 벌써부터 《아갸갸.》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달아나버렸다.
《형님, 오늘은 내가 지지만 다음번엔 처남대접을 받을걸, 허허허…》
《녀석두…》
김은섭은 이렇게 나무람하며 혼자 벙글거렸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자기가 아니라 미현이 누이 미화의 고백으로 하여 지금도 가슴을 진정할수 없는 그날 밤의 황홀경이 떠올랐다.
작년 여름이였다. 푸르스름한 달빛이 흘러내리는 소영천동뚝으로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다.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고 도예술단으로 돌아가는 정미화를 바래워주려고 은섭이 역으로 함께 나가는것이였다.
원래 미화는 고향마을 영천리에서 양방목공으로 일하던 처녀였다. 그는 리예술소조원으로서 은섭이와 혼성2중창을 부르군 했었다. 그들은 마을사람들로부터 《꾀꼬리들》로 불리우다가 서로 헤여졌다. 3년전에 미화가 도예술단 성악배우로 뽑혀갔던것이다.
《도예술단에도 총각들이 많겠지?》
영천역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행길에 나설 때 은섭이가 물었다. 미화는 구태여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은섭의 물음이 되새겨지며 가슴이 활랑거렸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말없이 걸어가던 미화는 슬며시 걸음을 멈추고 은섭이를 쳐다보았다.
《은섭동무, 우리 다시 동뚝으로 올라가자요.》
《렬차시간이 몇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늦지 않겠소?》
《새벽차가 있지 않아요.》
정미화는 앞으로 7시간후에 도착하는 새벽차로 떠나갈 잡도리였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마음먹은것처럼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

고 선뜻 되돌아서는것이였다.

어느새 소영천동뚝에 올라서서 어서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의 시선에 끌려 은섭은 천천히 뒤좇아갔다.

그들은 다시금 어깨를 나란히하고 거닐었다. 이밤따라 달빛은 한결 교교하고 논벌에서 울어예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아름다운 노래가락처럼 흥그럽게 들려왔다. 훈훈한 바람에 실려 처녀의 향수냄새가 풍기여서인지 은섭은 전에없이 가슴이 울렁거렸다. 마치 대자연의 고요한 숨결마저 약동하는 젊음을 속삭이라고 떠미는듯 하였다. 은섭은 지금 미화에 대한 불타는 애정을 품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화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좀처럼 토로하지 못했다. 과연 내가 미화를 사랑할수 있을만큼 떳떳한 존재인가? 아니, 내가 그의 사랑을 받을만 한 자격이 있는가?… 농촌마을에서 젖소방목이나 하는 자기를 미화가 어찌 생각하랴싶어 은섭은 저도 모르게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은섭동무, 동문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미화가 물으며 쳐다보았다. 마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듯 한 그의 시선에 은섭은 속으로 흠칠 놀랐다.

《저 — 사실은…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하마트면 자기의 속심을 다 털어놓을번 한 자신을 다잡고 은섭은 말머리를 돌렸다.

《미화동무, 동무네 집에 예술단 총각들이 찾아온다며?》

미화는 생글생글 웃었다.

《동무는 이때까지 그런걸 생각했나요?》

《농촌에서는 보기 드문 미남들이라면서?》

《호호호… 그래요, 정말 그래요. 키가 크고 눈이 억실억실하게 생긴 호남아들이지요. 동문 질투하는건가요? 호호호…》

례의 그 부드럽고 은근한 목소리로 조용히 웃는 미화의 생기도는 모습은 현란한 달빛에 어울려 한결 매력적이였다. 살결맑은 갸름한 얼굴이며 윤기도는 물결형의 까만 머리에도 청춘의 젊음이 한량없이 흘러넘쳤다. 연분홍색의 달린옷을 입은 날씬하면서도 시원하게 생긴 그의 아름다운 몸매는 광대가 불거지고 바그라질사 한 중키의 은섭에게 있어서 언제나 매혹적인 미모였다.

《뭐 질투까지야… 그래 약속한 동무는 있소?》

그바람에 미화는 발끈하였다.

《아이참, 동문 날더러 언제까지 롱담하라는거예요? 나는 동무한테서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차시간을 미룬게 아니예요.》

《그럼 저?…》

《그래요! 나는 동무의 진심을 듣고싶어요, 진심을!》

《진심을?!》

《어서요, 어서! 네?－》

미화는 은섭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서 쳐다보았는데 그러는 그의 눈에서는 서로 자기를 바쳐 위해주는 한생의 길동무가 되였으면 하는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고있었다.

은섭은 선뜻 토로하지 못했다. 너무나 가슴벅찬 행복이 찾아드는 바람에 그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실로 은섭은 그의 사랑을 얼마나 고대하였던가. 한마을에서 소꿉시절부터 정든 미화였고 차차로 이성의 감정이 눈뜨면서부터 가슴속에 남몰래 자리잡힌 그였다. 오늘도 래일도 미화의 곁에 자기를 나란히 세워보며 일생의 행복을 공상하면서도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이였다. 도예술단에서 노래부르는 미화는 어느모로 보나 은섭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상한 존재였고 한날 방목공에 불과한 자기는 생활감정의 아름다운 그 령역에서 더욱 불만을 자아낼 대상이라고 비관해마지 않았던 은섭이였다. 그는 무한히 바라면서도 억지로 단념하군 한 바로 그것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자기의 심장에 육박해오는 바람에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해볕에 끄슬은 검실검실한 그의 얼굴은 불덩이같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산판을 메주밟듯 한 방목공의 억센 두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는것처럼 후들거렸다. 은섭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 미화의 눈을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그저 고르롭지 못한 후더운 숨결로 내심의 진정을 터뜨릴뿐이였다.

《어째서 눈길을 피해요? 한때 양방목공이였던 내가 동무의 생활과 리상을 얼마나 사랑한다는걸 몰라서 그래요? 고향을 떠난 나의 몫까지 다하여 그처럼 헌신하는 동무를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한다는것을 눈치차리지 못했어요?》

《?!…》

미화는 더욱 열정적으로 속삭이였다.

《은섭동무, 동무는 정말 나의 심정을 아니, 나의 마음을 그래 모

른단 말이예요? 아니면 그것을 자기것으로 받아들일수 없을만큼 내가 미워요, 네?—》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은섭은 황황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뒤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어째서 터놓지 못해요?》

《동문 우리 집을 잘 알고있지 않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였다는것두…》

은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전쟁시기 조국을 배반하고 적기관에서 만행을 감행했다는 아버지로 해서 못내 자책을 받고있었다.

《아이참,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화는 《죄지은 아버지때문에 보다 성실하게 살려는 동무의 깨끗한 그 마음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해요.》라고 말하려다가 그보다도 더 거세차게 북받치는 심금을 토로하였다.

《은섭동무, 나는 가정환경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녀성이 아니예요. 그런데 동무가 나를?…》

《아 아니, 미화동무.》 은섭은 황황히 부르짖었다. 《동무는 내가 누구보다도 동무를 잘 알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지 않소.》

《그래요. 나도 동무를 동무이상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김은섭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다잡으며 조용히 미화의 두손을 잡았다. 순간 미화는 흐느낌인지 비명인지 분간 못할 가느다란 혀아래소리를 내며 은섭이를 쳐다보았다.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그만에야 미화가 고백하였다.

《은섭동무, 나의 진정을 받아줘요. 어느때나 동무와 함께 숨쉬며 변함없을 나의 마음을!… 그래 동무는 그렇게도 나를 모른단 말이예요?》

《미화동무! 나 역시 동무없이는… 그렇소, 나는 영원히 동무와 함께 있겠소. 동무만을!》

은섭은 그의 두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영원히 놓지 않으려는듯한 그의 억센 손길에 미화는 가슴이 어찌나 몹시 울렁거렸는지 다리가 막 떨리였다.

《은섭동무, 고마와요!》

미화는 더없는 환희에 잠겨 고개를 젖히였다. 그때 저도 모르게 방싯이 열려진 그의 입술에서는 행복의 흐느낌과 같은 짧은 환성이 새여나왔다. …

그때로부터 벌써 1년세월이 흘렀다. 미화에 대한 련모의 정은 나날이 두터워졌지만 지금껏 그 누구한테도 비밀에 붙이고있었다. 그런데 미현이녀석이 눈치를 차리다니?…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은섭은 때식을 끓이려는 어머니를 도와 부엌아궁이앞에 앉아 불을 지피였다.

《참 은섭아, 우물집 미화한테서 편지가 왔다.》

소매를 걷고 동자질하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편지요?》

《응,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어서 보려무나.》

《그래요?》

은섭은 방안으로 들어가 아래방 한쪽구석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앉은뱅이책상우에서 미화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다시 부엌으로 내려온 그는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편지를 읽었다.

《…그리운 은섭동무, 나는 지난 밤에 동무와 함께 젖소무리를 방목하는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동녘에 연줄연줄 누워있는 수정산 등마루에 거무푸릿한 새벽빛이 어렸을 때 우리는 방목길에 나섰어요. 동무가 이름지은 〈천상뿔대왕〉이 인솔하는 젖소들은 활주로같이 긴 행렬을 이루고 걸음을 다그쳤어요. 눈앞에 무성한 풀판을 그리며 〈음메!—〉, 〈음메!—〉하는 젖소들의 구성진 영각소리들은 새날의 활기를 불러오지 않겠어요. 저 멀리까지 메아리치는 젖소들의 영각소리들이 어떻게나 경쾌하게 울려퍼지는지 우리들이 탄 말들도 사뿐사뿐 춤추듯 걸어가지 않겠어요. 실로 가슴부푼 희망찬 새날의 방목길이였어요.

동무는 황부루를 타고 나는 준마를 몰고…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젖소들의 뒤를 따랐어요. 올해에는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서 영천탄광 로동자들에게도 보내주자며 동무는 자기딴의 방도를 토로했어요. 나는 홀린듯 귀를 강구고있는데 행렬의 맨앞에서 〈천상뿔대왕〉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겠어요. 땅을 울리며 따르던 젖소무리도 바위처럼 우

뚝 멈춰서서 〈대왕〉만 쳐다보는것이였어요.

나는 준마에 박차를 가하여 〈대왕〉한테로 달려갔어요. 〈천상뿔대왕〉은 종종 무지개가 서군 하는 칠색소의 갈림길앞에서 어느 길로 들어섰으면 좋을지 몰라 주춤거리고있었어요. 나는 〈대왕〉을 동무가 계획한 좌측길로 들어서게 하고 준마를 몰아 우측길로 내달렸어요.

그쪽 수정산줄기에는 지난 시기 내가 양들을 방목하군 했던 풀판들이 있었어요. 여러해 지난 지금은 더 무성하리라는 생각에 한번 다녀오고싶었어요.

아닐세라 우중충한 수정산 왁새골에는 다릅나무를 비롯한 집짐승먹이감들이 많았지만 그보다도 추위에 견딜성이 강한 다수확품종인 큰조아재비풀들이 더 무성하게 자랐더군요. 나는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겨울먹이풀밭을 알아낸것이 너무나 기뻐서 동무한테로 정신없이 말을 몰아갔어요.

박차를 가하며 달려간 젖소방목지에서는 동무를 찾을수 없었어요. 나는 산정에 올라가서 동무를 불렀어요.

〈은섭동무!— 큰조아재비풀판을 찾았어요!—〉

몇번인가 거듭 소리쳤지만 대답하지 않는것이 아니겠어요. 재차 고함치는데 누구인가 나를 흔들어대는것이였어요. 곁에 있는 언니가 나를 깨웠어요. 그는 나에게 은섭동무가 누구인가며 놀려주지 않겠나요. 나는 그에게 고향땅에서 대학교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젖소방목공이라고 했어요.

참 은섭동무, 동무에게 필요한 대학교재들을 구해놓았어요. 이제 〈축산편람〉만 얻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고향마을로 내려가겠어요. 동무를 보고싶은 심정까지 합하여 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나는 꿈에서 보았던것처럼 동무와 함께 젖소방목도 해보고…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듯한 부부방목공처럼 보이겠지요? 나는 화려한 극장무대보다 록음이 짙은 산속의 방목지가 더 그리워요. 양방목공으로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익혔던 타성인지 아니면 동무가 한생을 바쳐갈 일터여서인지 이내 마음은 줄곧 고향땅의 풀밭으로만 끌려가는군요. 젖소들을 이끌며 말림갓을 메주밟듯 하는 동무의 억센 모습에서 앞날의 축산일군을 그려볼적이면 나는 막 달려가고싶어요. 우리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은섭동무의 평생

의 소원을 하루빨리 앞당기고싶은 충동을 나는 정말 누를수 없어요.
은섭동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날더러 혼기를 놓친다며 어서 시집가라고 재촉해요. 어제도 어머님이 도예술단에까지 찾아와서 사처에서 좋은 총각들이 나선다며 언제까지 독신생활을 하겠는가고 야단하지 않았겠나요. 그래 나는 나에게는 애인이 있다, 노래부르는 배우가 아니라 장차 부부방목공을 희망하는 나에게 있어서 은섭동무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말하려다가 주저하고말았어요. 혹시 은섭동무의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볼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혔던거예요.
은섭동무, 동무의 어머니는 우리들의 관계를 알고계시는지요? 저를 한식솔로 받아들이겠는지 나는 몹시 궁금합니다. …》
미화의 편지를 읽은 김은섭은 한동안 부엌아궁이안의 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 하고는 잠시 바재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우물집 미화가 어떻습니까?》
《어떤가구? 그건 무슨 소리니?》
양혜심은 동자질하던 일손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은섭은 귀밑을 붉히고 공연히 부엌아궁이속의 불만 헤집어놓았다.
《그가 어머니 마음에 드는가 하는겁니다.》
혜심은 그제서야 눈치를 차리고 방긋이 미소하였다.
《미화야 나무랄데 없는 처녀지. 그런데 그가 너한테 오겠다더냐?》
《어머니만 좋다면…》
《그래?… 거 참, 모를 소리구나?…》
혜심은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물동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2

그날 밤 아들의 곁에 누운 양혜심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미화도 우리 집 래력을 잘 알겠는데?… 은섭이 아버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군《치안대》대장으로 만행하다가 월남도주했다

는것을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한 집에 시집오려 하다니? 설사 미화는 개의치 않아해도 아마 그 집 부모들은… 혜심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는 미화를 사랑하는 아들의 혼사문제가 은근히 걱정되였다.

《호―》

가슴을 긁어내리는 한숨이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새여나와 혜심은 슬그머니 눈을 떴다. 칠흑같이 컴컴한 방안은 가슴속의 아픔을 한결 더하여주며 그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남편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신혼시기의 남편

그들이 결혼한 이후 닷새째되는 날에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해방의 기쁨에 삶의 활기가 넘쳐나는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원까지 풀어주시지 않는가! 장군님의 은덕이 너무나 고마와서 마을사람들은 온밤 징을 치며 춤을 추었다. 대대로 지주놈의 작인으로 수모받으며 입에 풀칠조차 못하던 농민들이 토지개혁법령을 환영하는 표어판을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며 마을길을 돌고돌았다. 앞집 열바네 아버지가 날라리를 불어대는 가운데 뒤집 일월쇠며 칠성도리들이 열두발상모를 돌리며 어깨춤을 추었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낙네들이며 커다란 놋대야를 징처럼 두드려대는 로친네들을 따라가며 령감들도 《얼씨구 좋다!》하며 어깨를 들썩들썩했다. 마을 조무래기들도 토지개혁을 환영하는 농악대를 따라다니며 장밤 해해호호하였다. 온 마을이 며칠동안 노래와 춤가락으로 이어지는 속에서 토지분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어느날 토지를 분여받은 석근이부부는 그날 저녁 분여말뚝곁에서 어둡도록 떠나지 못했다.

《여보, 올가을엔 맨선참으로 낟알을 걷어들여 장군님께 햇쌀을 올리자구.》

《그러자요. 장군님께 올린 다음에 쌀밥을 짓는게 도리지요.》

《그리구 집도 짓구 송아지도 장만하면 장지주 보란듯이 살수 있지.》

장지주놈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사무친 남편이였다. 해방전에 시부

모들은 얼마 안되는 땅을 자작하면서 장지주놈의 윤두소를 부렸다. 어느날 그놈의 윤두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는 바람에 시부모들은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몇해째 빚을 물지 못하여 땅을 떼우게 되였다. 시아버지는 지주놈에게 한해만 더 말미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지주놈은 딱 잡아떼며 땅을 내놓지 않겠으면 아들을 머슴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시아버지는 당시 함흥영생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머슴으로 만들수 없어 지주놈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악착한 장지주놈은 세 목숨이 달려있는 자작지를 종내 빼앗고말았다.

그날 저녁이였다. 동네 술장사과부네 집으로 찾아간 시아버지는 화김에 외상술을 마셨다. 거나해지자 더욱 절망에 빠져버린 시아버지는 지주놈에 대한 반항심을 억제할수 없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복수심이 극도에 오른 시아버지는 그날 밤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래 옥고를 치르게 된 시아버지는 이듬해 봄에 함흥감옥에서 비참하게도 옥사하였다. 뒤이어 시어머니도 병고에 시달리다가 이내 돌아가고말았다.

하루아침에 혈혈단신 고아가 되여버린 남편은 더는 공부할수 없게 되였다. 그가 고향에 내려와 품팔이를 하려고들자 곁집에서 사는 큰아버지가 막아나섰다. 공부하는 아들을 머슴살이시키지 않으려다가 옥사당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원한을 어찌 잊을손가며 큰아버지자신이 학비를 대주었다.

남편은 마지못해 몇달 더 공부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장지주놈의 땅을 부치며 근근히 연명하는 큰아버지네를 더는 고생시킬수 없었다. 남편은 큰아버지 몰래 온천 이모네 집에 가서 바다벌이를 하다가 그해 겨울부터 고원탄광에 들어가 일하였다. 이듬해 여름에 조국이 해방되였다.

남편은 고향에 돌아왔다. 해방은 그에게 새생활의 환희와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면서 돌아간 부모님들에 대한 비애를 더하여주었다. 쓰라린 과거는 그로 하여금 이 땅과 거기에 깃든 조상들의 념원을 잊을수 없게 하였다. 그는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평생 땅과 함께 살아갈것을 결심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한 남편에게 있어서 토지개혁이 어찌 크나큰 충동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여보, 시집오기 전에는 교단에 서있은 당신인줄 알면서도 자꾸 함께 농사를 짓고싶구만, 응?》

분여말뚝곁에 앉아서 남편은 축축한 흙을 움켜잡으며 말하였다.

《그래요?… 당신의 심정이 그렇다면 마다하지 않겠어요.》

선뜻 이렇게 호응해나서는 안해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남편은 그의 가늘고 하얀 손을 잡아 어루만지였다.

《갓난애기손같은 연약한 이걸루 땅을 다루게 되는데?… 부모님네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가?》

《제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인데요 뭐.》

《고맙소. 그럼 래일부터 거름을 져나르구 땅을 갈자구.》

다음날 어뜩새벽부터 땅과 호흡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실로 보람차고 긍지로운 로동의 나날을 보내며 그해 가을을 맞이하였다.

알알이 영근 낟알을 걷어들이고 너도나도 애국미헌납에 떨쳐나섰다. 지난봄에 토지개혁 농촌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였던 큰아버지도 애국미를 싣고 맨선참에서 소달구지를 몰아갔는데 그의 벼가마니들우에는 《**김일성**장군 만세!》표어판이 나붙어있었다. 그뒤로 열다섯 달구지가 행렬을 이루어 읍으로 올라갔다. 마을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며 거리가 들썩하게 농악을 울리였다. 새납을 불고 징을 치는 그들의 환송에 부림소마저 화답하는듯 《음메!－》, 《음메!－》 청아하게 영각하였다. 온 마을이 기쁨으로 끓어번졌다.

큰아버지는 읍에서 애국미를 헌납하는 마을사람들을 일일이 돌봐주고 맨 마지막으로 떠났다. 날은 어느새 어두워졌다. 그때에야 마을뒤 모래둔덕길에 들어서던 큰아버지는 뜻밖에도 반동놈들의 습격에 치명상을 당하였다.

석근이부부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신음하는 큰아버지곁에서 날이 지새도록 떠나지 않고 간호하였다.

불행을 예고하는 이튿날 아침이였다. 매봉산마루에 솟은 태양은 창문을 밝게 비치였다. 조용히 침상에 누워있던 큰아버지는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혜심이 다급히 그의 등을 받들어주자 큰아버지는 남편더러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는것이였다.

활짝 열어놓은 문밖에서는 이른아침의 엷은 안개가 피여나고있었다. 함주벌의 남쪽단 성천강류역에 자리잡은 드넓은 상태벌이 희미하게 내다보이였다.

《석근아, 나를 좀 부축여주렴. 저 벌을 좀 밟아보게.》

석근이부부는 근심에 싸여 만류하며 안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다. 아마 그때 림종을 선언한 의사라 할지라도 큰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망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을것이다.

석근이부부는 눈물을 삼키며 큰아버지를 담가에 모셨다. 앞에는 혜심이 서고 남편은 뒤에서 들었다. 동구길을 벗어나는 그들 담가일행을 부드러운 안개마저 감돌며 보살펴주는듯 하였다. 이불을 등받이로 비껴누워있는 큰아버지는 머리를 돌려 담가밑의 거무축축한 땅만 내려다보았다. 대대손손 지주놈의 학정밑에서 농사군들과 함께 치욕을 당하던 농토였다. 실로 이 땅에 그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쓰라린 원한이 깃들어있는가. 큰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며늘애야, 저쪽 너희네들이 분여받은 포전으로 가자꾸나.》

앞에서 담가를 들고가는 혜심에게 하는 큰아버지의 말이였다. 혜심은 발걸음을 조심히 옮겨놓으며 《김석근 1 000평》이라고 밝힌 저들의 분여말뚝앞으로 다가갔다.

《이젠 여게다 좀 내려놔주렴.》

큰아버지는 석근이네 포전에 안기였다. 그는 안깐힘으로 팔을 놀려 한줌의 흙을 움켜잡았다. 거기에 하많은 사연을 더듬어붓는듯 그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볼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그의 눈물은 손에 움켜잡은 한줌의 검은 흙에 피방울처럼 굴러내리며 스며들었다.

《얘들아, 너, 너희네 아버지는 바로 이, 이 땅을 품고 저세상으로 갔다. 이, 이 땅을…》

북받치는 원한에 목이 메여 큰아버지는 잠시 침묵하고나서 석근이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여해주신 이, 이 땅을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해. 다시는…》

그리고 큰아버지는 무엇인가 말을 이으려다가 조용히 엎드리며 두팔을 벌려 땅을 부여안는것이였다.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큰아버지!》

김석근이 안아일으켰으나 치명상을 입은 큰아버지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였다.

마을뒤 소나무재에 큰아버지를 안치한 남편은 차차로 더 과묵해지더니 마침내 어떤 용단을 내렸다. 그는 보안서원이 되리라 결심했던것이였다.

군보안서로 찾아간 남편은 검푸른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여도 돌아올줄 몰랐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밖으로 나온 양혜심은 동구길을 벗어나 성천강동뚝에 올라섰다. 북쪽 멀리 10리밖의 읍으로 통하는 동뚝길에는 행인이 뜸하였다. 이따금 물고기함지를 이고 함흥시장마당에 다녀오는 장사군녀인들이 지나가군 하였다. 혜심은 성천강의 물바람에 옷고름을 날리며 자꾸자꾸 걸어 마중하러 올라갔다. 드디여 어둠의 적막속에서 귀에 익은 발걸음소리가 가까와오더니 키가 훤칠한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인제야 오셔요?》

《당신이요?》 약간 석쉼한 음성이였다. 《밤길에 여기까지 나오다니, 당신두 참…》

《그래, 가셨던 일은 잘되였어요?》

어둠속에서 보이는 남편의 길둥그런 얼굴은 락심천만해하는 기색이였다. 아닐세라 그는 메밀눈을 껌벅거리며 한스러워하였다.

《허 참, 그놈의 영생중학교를 다닌게 말썽이구만.》

군보안서에서는 남편이 함흥영생중학교출신이기때문에 입대가 고려된다는것이였다.

함흥영생중학교는 그리스도교학교로서 미국선교사 윌리암 스코트가 경영하였다. 미중앙정보국 크레마대좌도 그의 말을 따르는 처지인데 그러한 선교사여서 1944년초에 일제는 일미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윌리암 스코트를 조선에서 추방하였다. 함흥시에서 살던 스코트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영생중학교는 일본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주로 매판자본가들과 악질지주들의 자식들이 공부한 함흥영생중학교는 악명높은 민족반역자들을 수많이 길러낸것으로써 학교이름을 날리였다.

1946년 3월에 있은 함흥학생소동의 주모자인 안병덕이도 바로 함흥영생중학교출신인데 그를 비롯한 영생중학교출신 악질반동들은 해방직후 매우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학생들속에서 반공모략선전을 감행하였고 현물세창고와 학교들을 방화하였다. 그자들은 원자탄은 미국만 소유하고있다면서 미국강대성을 설교하였으며 북반부에도 불원간 《유엔조선위원단》이 들어와서 미국식 새 정치를 펼친다고 악선전하였다. 《연필을 달라면 총을 주고 쌀을 달라면 탄약을 주는 공

산독재 물러나앉으라.》고 부르짖은 그자들은 일부 친미친일 자산계급 출신 학생들로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감행했던것이였다.

자기가 그 사건의 주모자들과 동창생이기때문에 보안서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남편은 실망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굳힌 결심을 쉽사리 포기하고 물러설 남편이 아니였다.

그후 여러번 군보안서로 찾아갔지만 남편은 끝내 보안서원이 되지 못했다.

어쩔수 없었던 남편은 결심을 포기하고 다시금 농사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영생중학교 동창생이 찾아왔다.

《아니, 이거 지용수가 아닌가, 응?!》

뜨락에서 농쟁기를 손질하던 남편이 맞아주며 하는 소리였다. 회색제낀옷에 비단넥타이를 맨 지용수는 쥐눈을 한 턱이 뾰족한 청년이였다. 그는 토스레바지를 정갱이 드러나게 말아올리고 보습을 수리하던 남편의 못박힌 손을 반갑게 마주잡았다.

《우리 사자팀의 한다 하는 쎈타포드가 농군이 되였구만. 참 그럴듯해.》

《허허허… 우리 라이트윙은 신사가 되였는걸. 그래 지금 어데서 무슨 일을 하나?》

남편의 물음에 지용수는 검은색양가죽들가방을 쳐들며 대답하였다.

《어때? 멋쟁이지? 림업성 지도원이야.》

《어랍쇼?! 거 참 대단한 간분걸! 출세를 축하하네!》

《우리 아버지의 덕분일세.》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에 함흥목재상으로 유명하였다. 시내에 제재소를 두고 멀리 장진과 연사일대의 산판까지 가지고있었다. 그바람에 지용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판을 오르내렸고 목재업에 일찍부터 눈이 밝았다. 해방후에 산림이 국유화되여 함흥제재소만 경영한 그의 아버지는 평양에 있는 목재업자들의 알선으로 아들을 림업성에 취직시켰던것이였다.

《그래 부친께서는 무고한가? 제재소도 경영하구?》

《그럭저럭 지내지. 그런데 자넨 살림을 시작했다면서?》

《지난해에 결혼했네. 참 여보, 인사하오. 동창친구요.》

부엌문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서있던 양혜심이 깍듯이 머리숙여 인사

하였다. 초면례의를 나누자 지용수는 머리를 기웃하였다.

《부인을 어디서 꼭 본듯 한데 고향은 어딥니까?》

《강원도 철원이예요. 전 모르겠는데요.》

《철원? 철원태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글쎄 무슨 연줄로 우리 쎈타포드의 배필로 되였는지 거참 수수께끼입니다?》

지용수는 석근이를 돌아보았다. 김석근은 벙글벙글 웃으며 대답하였다.

《우리가 원산에 나가서 원산공립중학교 축구팀과 축구경기를 한적 있지 않나?》

《그때 경기장에 원산루시여곡중학교 녀학생들까지 수많이 와서 저쪽을 응원했었지. 하지만 우리가 1:3으로 이겼거던.》

《그때 주심이 생각나나?》

《생각나구말구. 서울 기계다리네 축구팀에서 맹활약한 라이트윈너를 내가 왜 모르겠나. 지금은 인민군대가 되였다는데 그래 그 사람이 어쨌다는건가?》

김석근은 안해를 턱질하며 대답하였다.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친동생일세.》

《음!ㅡ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네의 머리받기에 매혹되여 매부로 삼았던게구만!》

남달리 도약력이 강한 김석근의 머리받기는 그만큼 전도유망한 재주였다.

《하지만 저사람을 이 집에 들여오기까지는 이 주먹과 더불어 내 발도 단단히 한몫 했다니까.》

《훼방군이 생겼던게군.》

《그런 녀석들이 나져서 어지간히 품을 먹였네.》

《그렇지만 자네야 태권도 6단이 아니나.》

《저쪽 녀석들도 만만치 않습데.》

《누구들인데?…》

《송도원 려관집 도련님친구들인데 자네도 그 도련님을 알거네.》

《무쇠주먹 최일남이 말인가?》

김석근은 그저 벌쭉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사람이 제 친구들을 꾀드겨서 훼방을 놓게 했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최일남이 그녀석도 자네 부인을 욕심냈던게군.》

《저 사람이 루시여곡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따랐다누만.》
《아! 그렇소?! 인제야 기억나누만.》
지용수는 비로소 자기 안해의 사진첩에서 본 양혜심이 생각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안해가 루시여곡중학교를 다닐적에 숱한 사진을 찍었는데 원산 송도원 백사장에서 둘이 기념촬영한 바로 거기에 수영복차림을 한 양혜심이 있다는것이였다.
《그래요?! 용수씨는 그럼 안추월언니의 주인이란 말씀입니까?》
양혜심은 중학교 동창생언니를 만난것처럼 반가와하였다.
《허허허… 그러고보니 처제나 다름없는데 어째서 나를 제꺽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처제도 언니랑 같이 원산경기장에서 뽈을 차는 나를 보았겠는데?…》
《미안해요. 보긴 보았겠지만 기억되지 않아서…》
《하긴 11명의 선수들을 다 알아볼수는 없지. 어쨌든 우리는 밭은 친척이 되였으니 잔치인사를 단단히 해야겠소.》
《어서 들어가요. 변변치는 못해도…》
얼마후에 혜심이 차린 저녁상에 그들은 마주앉았다. 권커니작커니 술잔을 비우며 즐겁게 회포를 나누었다.
《그런데 우리 사자팀의 쎈타하프는 지금 어데 있나?》
지용수가 묻는 사자팀의 쎈타하프란 해방전 함흥영생중학교 축구팀의 주장이였던 중앙방어수 5번 안병덕이를 말하는것이였다. 당시 지용수는 우측공격수 7번선수였고 그와 발을 맞춘 중앙공격수 9번이 바로 김석근이였다.
석근은 그에게 우울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나도 그가 함흥학생소동이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나는 안군때문에 요시찰인이 되고말았네.》
《음… 함흥학생소동의 주모자와 뽈을 찬 동창이니까… 그래 보안서원이 자네뒤에 붙었나?》
《붙었겠지. 어쨌든 나는 그때문에 보안서원이 못되였거던.》
《그럼 자네가 보안서원이 되려 했단 말인가?》
김석근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군보안서에서 부결맞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카― 나같은 놈은 이젠 아무데도 써주지 않네.》

《그렇다?…》 지용수도 쭉— 소리나게 술잔을 비웠다. 《이 사람, 쎈타포드, 사자팀의 쎈타포드가 그렇게 절망해서야 되나. 지금 이남에 간 레프트윈은 거기서 축구협회성원으로 맹활약을 하고있네.》

《안예숙이 말인가?》

《그래 그래, 11번 말이야.》 벌써 거나해졌지만 지용수는 음성을 높이지 않았다. 《김군, 자네도 월남하게. 안예숙이를 찾아가게나.》

《거긴 싫네.》

《왜?》

《돈이 있나.》

《돈? 월남기간 객비는 내가 대주지.》

《거기 가선 어떻게 먹고? 안예숙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것두 구차한노릇이지. 난 여기서 농사나 짓겠네.》

《자넨 신혼생활에 재밀 붙였구만, 응? 그러니까 시국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전혀 깜깜이겠지?》

지용수는 명태자반을 집으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어딘가 귀맛을 돋구며 무척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김석근은 호기심어린 신중한 낯색을 지었다.

《그래, 시국이 어떻게 돼간다는건가?》

저으기 궁금해하는 그의 관심사에 지용수는 술기운과 더불어 들떠진 마음으로 흥이 나서 대답하였다.

《자네도 알겠지만 지금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하고있지 않나.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말이야.》

그는 김석근이 부어준 술잔을 들어 쭉— 소리나게 비우고 말을 이었다.

《오늘은 절반땅 남반부에 자유세계를 세우고있지만 미군은 장차 여기 북반부에도 미국식자유세계를 건설할 작정이라누만. 아니, 중국, 쏘련을 비롯한 전아시아를 미국식자유세계로 전변시키려고 한단 말이네.》

《전아시아를?…》

《왜, 놀라운가?》 지용수는 또다시 한잔을 비우고 고사리볶음을 집었다. 《이 사람 석근이, 미국은 장차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거네.》

《뭐?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허허허… 자넨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응? 허파에 바람든 사람처럼 주정한다니까.》

김석근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대였다.

《아니, 이 사람이?》 지용수가 발끈하였다. 《그건 내 소리가 아니네. 일전에 서울에서 보낸 특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호수〉 문제는 미국방성—공화당 로장이며 미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장군이 내놓은 전략인데 그것이 트루맨정부의 정책으로 집행되고있다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아시아 특히 극동지역부터 미국식자유세계로 만들 계획이라네. 자, 이래도 허파에 바람든 소린가?》

지용수는 세계지배주의인 《트루맨주의》를 몽상하는 미국 지배층의 전략적동향과 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 지배층안에는 세계지배를 위한 대외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크게 두 파로 갈라져있었다. 대통령 하리 트루맨과 미국무장관 딘 애치슨을 주축으로 하는 국무성—민주당 패거리들은 《유럽중심주의》를 부르짖었고 전 대통령 후버와 련합국군 총사령관이며 미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를 비롯한 국방성—공화당패거리들은 《아시아제일주의》를 주장하였다.

맥아더의 주장은 아시아를 손에 넣지 못하면 세계전체를 잃고만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리권을 지키기 위하여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당시 8억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야말로 《앞으로 1 000년의 세계력사의 전진을 결정할것》이라고 하였다.

트루맨대통령은 자기네 민주당정부의 정책에 늘 왼새끼만 꼬는 맥아더가 매우 불쾌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의 주장을 꺾을수 없었다. 트루맨정부는 실제상 《아시아제일주의자》들에 끌리여 그들의 주장대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아시아 특히 극동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였다.

태평양을 안전한 《미국의 호수》로 만들려는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은 아시아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세계제패의 전략적요충지로 되였다. 당시 미국무성의 고문으로 취임한 공화당의 악명높은 전쟁상인 죤 포스터 덜레스는 조선을 아시아대륙이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으로 보았다. 단검을 쥐여야 고기덩어리를 베여먹을수 있다는 조선단검론에 편승하여 맥아더는 일본이 《장래의 도약대》라면 《조선은 대륙에로의 건늠다리》로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규정했던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트루맨정부는 조선을 불이 붙을 곳으로 확정하고 조선반도에서부터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을 개시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직후 무엇보다먼저 괴뢰륙해공군의 무력기관을 조작하고 병력을 확보하며 장비를 미국식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광분하였던것이다.

지용수는 바로 이러한 정세를 알고 말하는것이였다.

《석근이, 지금 남조선에는 군사영어학교가 생겼네. 앞으로 새로 조직될 남조선국방경비대의 핵심들을 육성보장하기 위한 군사학교이네.

지금 그 학교에서는 채병덕이나 정일권은 물론 리후락이며 장도영과 같은 일본륙군사관학교출신들도 재학하고있네. 그러니 그 학교가 어떤 급이라는걸 알만하지 않나.》

《출세》의 길로 유혹하는 그 학교는 이미 지난봄에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개편되였는데 지용수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말하였다.

《자네도 윌리암 스코트선생을 기억하고있겠지? 영생중학교 경영주였던 미국선교사 말이네. 그가 지금 군사영어학교에서 영조교관으로 있다는데 찾아가면 크게 도와줄걸세.》

지용수는 명태자반을 맛나게 씹으며 석근이를 바라보았다.

《어떤가? 나라를 위한 큰일에 한번 뛰여들 생각이 없나? 군사영어학교만 나오면 장성이 되겠는데 스코트선생을 찾아갈 생각은 없나?》

《호기심이 나는데?…》 김석근은 천천히 술잔을 들어 쭈욱 마셨다.
《크— 군보안서에서 의심하는 꼴을 생각하면 당장 찾아가고싶지만 나같은건 거기 나가도 천덕꾸러기되고말겠지. 가난뱅이자식이거던.》

《자유세계 미국신사들은 일본놈들과는 달라.》

《모르겠어.》 김석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국사람인들 돈없는 나같은 농사군을 출세시켜주겠나.》

《자네야 남아다운데가 있지 않나. 군대는 자네같은 사람이 적임자인데 미국어른들이 그걸 몰라보겠나.》

《어쨌든 싫네. 난 농사나 지어먹게 된 팔잔데 괜히 들떠서 돌아치다가 저 사람까지 고생시킬수 있지.》

김석근은 이러며 안해쪽으로 턱질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다하는 애처가가 되였구만. 자네처럼 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해의 치마폭에서 뛰쳐날수 없지.》

《허허허… 그런지도 모르지. 자, 우리 술이나 들자구.》
어느덧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

어둡고 적막한 방안에서 그때를 회고한 양혜심은 땅이 꺼질듯 한 한숨을 내불었다. 지용수가 그처럼 월남하자고 부추겼지만 끝내 도리머리를 지은 남편이 변절하여 반역의 길을 걷다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기관에 근무하면서 만행하다가 패주하는 적들을 따라 남반부로 도주한 남편을 생각하며 혜심은 또다시 한숨을 내불었다.
(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다나니 이런 비극을 겪는데 이 원쑤를 어떻게 갚는담.)
가슴이 터질듯 한 분노를 느끼면 느낄수록 조선을 북과 남으로 분렬시킨 미제가 저주로왔다.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였고 바로 그때문에 남편을 잃은 양혜심이 어찌 미제를 피맺힌 철천지원쑤로 저주하지 않으랴. 미국놈들을 증오하며 남편을 원망하면 할수록 그는 전쟁의 참화로 가슴속에 멍이 든 상처가 더더욱 아프게 도지는 바람에 온밤 잠들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뒤산 저 멀리에서는 고즈넉한 밤의 정적을 울리며 부엉이가 울어대였다. 지금따라 별로 구슬프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혜심의 가슴을 한량없이 처량하게 굴며 지용수가 찾아왔던 그날 밤의 남편을 실로 애절히 더듬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 떠나가는 지용수를 바래울적에도 월남하라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이였는데 어째서 그런 길에 들어섰는지?…

3

《어머니, 왜 잠들지 못해요?》
곁에 누운 은섭이도 궁싯거렸다. 혜심은 어둠속에서 아들의 거뭇한 륜곽을 바라보며 무거운 어조로 말하였다.
《은섭아, 우린 남들보다 떳떳치 못한 제 처지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어머닌 또 그 소리군요.》

《죄를 지은 아버지의 자식일수록 마음두 더 곱구 일두 더 성실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남들한테 조그마한 아픔도 주지 말아야 하구 또 남한테 해되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해. 너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못되였는데 너까지 그러면 이 에미는 정말 못산다.》

《어머니, 알겠어요. 내 꼭 어머니가 바라는 사람이 될게 지내 마음쓰지 말아요. 그런데 어머니.》

은섭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것 같아서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어머니, 어째서인지 나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비록 적기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했다고 하지만 해방후에 〈밭갈이노래〉를 그처럼 좋아했다는 아버지이고보면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땅을 주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공화국을 배반할수 있겠나요. 아버지도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럴수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자꾸 〈밭갈이노래〉만 부르고싶은데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적기관에 복무하면서 우리 일을 했을수도 있지 않아요. 네, 어머니?》

《우리 일을?…》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누구보다 혜심이 바라는것이였다. 그는 어둠속에서 눈을 간잔지런히 뜨고 적기관에서 복무한 남편의 모습에서 남몰래 우리 일을 했음직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아무리 곰곰히 더듬어보아도 그런 자취는 엿볼수 없었다. 혜심은 호— 한숨을 내불고 조용히 말하였다.

《은섭아, 〈밭갈이노래〉를 부르군 한 그때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그때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도 너처럼 믿고싶지만…》

혜심은 이렇게밖에 말할수 없게 만든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러웠다.

《밭갈이노래》를 그처럼 좋아하던 남편이?…

전쟁전야의 그해 봄은 류달리 화창하였다. 상태벌의 대지는 례년에 없이 일찍부터 땅김을 말아올렸고 개울가의 물버들은 나날이 몰라보게 푸르러졌다. 잠풍한 날씨는 따사로운 해빛에 만물을 소생시키며 밭

갈이철을 불러오는것이였다. 씨붙임을 예고하는 봄빛은 겨울을 난 농부들의 심정을 논으로, 밭으로 떠밀며 바야흐로 질어가고있었다.

별들이 총총한 검푸른 밤하늘에 희읍스름한 새벽기운이 비낄 때 남편은 둥글황소를 앞세우고 벌로 나갔다. 동구밖에 나서면 누누한 안개가 서린 무연한 논벌이 맞아주며 그의 가슴을 흐뭇하게 굴었다. 남편은 즐겁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가 그 세계에 깊숙이 심취되여 어느새 입밖으로 《밭갈이노래》를 건드러지게 넘기였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 가세
…

지난달에 은섭이 태여난 후부터 스스로 울려나오는 남편의 흥그러운 노래가락은 동구앞 박우물로 동이 이고 나오는 혜심이로 하여금 생의 희열에 넘치게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가꿔 황소도 장만하고 합각지붕을 얹은 기와집에서 은섭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그들부부였다.

혜심은 정성껏 조반을 지어 함지에 담아 이고 봄갈이하는 남편한테로 찾아나간다. 행길을 벗어나 보도랑을 따라 한참 걸어가느라면 아침해빛에 서서히 걷히는 우유빛안개발속에서 보탑을 잡고 황소를 따르는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이 차차로 선명해졌다.

논머리에 이른 혜심은 이른봄의 풀개구리들이 뛰노는 맑은 이슬밭에 옥당목보자기를 펴놓고 음식을 차렸다.

《여보, 조반을 들어요.》

살뜰한 안해의 정성에 남편은 애무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때문에 이슬밭을 차누만.》 하고는 안해의 등에 업혀나온 애기부터 풀어 안았다. 《우리 귀동자 조반을 자셨나?》

《이제 천천히 먹여요.》

《저런, 우리 귀염둥이도 나때문에 배를 곯누만. 어서 젖부터 물리오.》

김석근 1000평

은섭이 젖을 물어야 밥술을 드는 남편이였다.

《참, 당신두… 들에서도 그러시네.》

혜심이 곱게 눈을 빨고 은섭이를 안으면 남편은 삶의 희망이 전부 애기한테 있기나 하는것처럼 류달리 기뻐하였다. 그는 은섭이가 배불리 빨면 들던 밥술도 내려놓고 무릎에 안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그들부부는 결혼한 후 4년동안이나 애기를 보지 못했었다. 애기가 설지 않는 자신을 죄송스러워하는 안해에게 남편은 늘 대범하게 굴군 했었다. 하지만 녀인들의 잔등에 업힌 애기를 볼적이면 가던 걸음도 멈추고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군 하던 남편이였다. 그렇듯 남몰래 무척 원하던 애기가 비로소 생겨서인지 아들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실로 지극하였다. 그가 어찌나 귀여워했으면 아들애를 업고 보탑을 잡군 했겠는가.

행복에 겨운 로동의 나날은 어느새 여름에로 흘러갔다.

그날도 애기를 업고 제초기를 밀고있은 6월의 맑은 아침이였다. 문득 논머리에 두명의 낯선 장정들이 찾아왔다. 혜심에게 자기는 그저 남편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물날은 회색양복에 허름한 맥고모를 쓴 중년의 사나이였다. 키가 꺽두룩한 인상좋은 그 사나이와 함께 매우 다부지게 생긴 청년이 왔다. 남편은 그를 주동무라고 불렀다. 그때 혜심은 남편이 그들과 4년째 만나군 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들은 애기를 업고 제초기를 미는 남편에게 즐겁게 롱질하였다.

《석근이 이 사람, 치마를 바꿔입게. 그런 정도면 모성애를 찜쪄먹겠네.》

키 큰 사나이의 시까스름에 주동무라는 젊은이도 너스레를 떨었다.

《자넨 밤이 되면 애기한테 젖을 물리고 잠들겠구만. 심봉사 울고 가겠는걸.》

《허허허… 원래 아버지란 그런게야.》

안해한테 등에 업었던 애기를 넘겨주며 남편은 껄껄거렸다.

《아니, 그렇게만 볼수 없네.》 다부지게 생긴 주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애기만큼 순결하고 정직한 존재는 없거던. 그래서 애기를 좋아하는건데… 석근이, 내 말이 틀리나?》

《글쎄 그런지도 모르지.》

남편이 하는 대척에 그의 곁에 있는 맥고모를 쓴 키큰 사나이가 벙

글거리며 말하였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석근동무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싶어한다는 소린데 영원히 정직한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 일생을 조국에 바치는거지. 아주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혜심은 귀밑을 붉히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을거야요.》

《아니,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정직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석근동무?》

《하긴 은혜를 절감하는 사람은 변심없이 헌신하는 법이지요.》

《석근이, 자네 말을 듣고나니 나도 힘이 생기네. 역시 자넨 괜찮은 친구야!》

주동무가 춰주는 바람에 남편은 못내 어색해하였다.

《지내 그러지 말게. 우리 집사람이 웃겠네.》

그들은 마을쪽으로 걸어가며 한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마을앞 오리천다리목에서 친구들과 헤여지더니 곧 돌아왔다.

혜심은 남편한테 친구들을 왜 그렇게 이내 떠나보냈는가며 점심이나 대접할걸 그랬다고 못내 섭섭해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도 미안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배가로 들떠져서 제법 노래까지 부르는것이였다.

…
주인된 새땅엔 기쁨도 넘실넘실
새로 푼 논에는 봄물결 출렁출렁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묵이랴 밭갈이 가세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러불러
…

장군님은덕에 천만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땅을 걸구며 곡식을 가꾸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해종일 논김을 매고 6월의 보름달이 매봉산 꼭대기에 두둥

실 떠올랐을 때 혜심이부부는 둥글황소를 앞세우고 포전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삐거덕, 널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웬 사람이 와 있었다. 달빛속에서 그를 알아보고 남편이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거 처남이 아니요!》

혜심이도 인차 알아보았다.

《오빠!…》

해방후 보안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후 지금은 보위성 정찰참모로 복무하고있는 오빠가 군복차림으로 마주오며 반기였다.

《인제야 들어오누만, 응?》 남편과 인사말을 나누며 오빠는 빈정거렸다.

《축구단에서도 이렇게 늦도록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일에 밤걸음하다니, 농사일이 그렇게도 재미나는가?!》

《여부가 있소. 장군님께서 주신 땅인데!…》

《참, 그렇겠구만. 응! 허허허…》

《오빠, 어서 들어가요. 내 인차 저녁을 지을게.》

혜심이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며 정주간에서 둘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강구었다.

《내 이번 출장길에 매부한테 꼭 할말이 있어서 들렸네.》

《무슨 말인데?…》

《지금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네. 적들은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북진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네.》

《북진소동을?…》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네. …》

조선을 아시아침략의 단겁으로, 건늠다리로 확정한 미제가 자기 야망의 앞잡이로 될 남조선 괴뢰《정부》를 조작함과 동시에 저들의 대포밥인 괴뢰군편성과 그의 강화에 열을 올린데 대하여 오빠는 비교적 상세히 말하고나서 계속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초시기부터 미제는 〈북조선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잘 무장된 10만의 병력〉을 빨리 육성하는것이라며 그것을 리승만괴뢰〈정부〉의 중심과업으로 지정했네. 상전의 지령에 따라 리

승만이 긁어모은 괴뢰륙해공군의 병력은 현재 근 16만명에 달하네.》
《벌써요?》
《리승만역적은 일찌기 쳐칠이 즐겨 인용했던 영국속담 〈우리들에게 연장을 달라! 그러면 일은 우리가 하리다〉라는 구절을 되뇌이면서 괴뢰군 무장장비들을 더욱 가속적으로 현대화했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미국제장비들로 무장했는데 고도로 미국화된 괴뢰 〈국군〉을 두고 맥아더가 무어라 지껄인줄 아나?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라며 〈남조선의 한개 련대는 북조선의 한개 려단에 대항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네. 그러한 맥아더이길래 그는 트루맨정부에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워야 한다며 〈북벌〉군사행동을 시급히 개시하자고 압박한단 말이네.》
지난 시기 맥아더군단의 련대보급장교(후방부련대장)에 불과했던 트루맨은 제노라하는 옛 군단장의 거만한 요구가 아니꼬왔지만 다같이 세계제패에 환장한자들인지라 곧 《북벌》을 당면과제로 내세웠다고 오빠는 말하였다. 미제가 침략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두뇌진으로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부단히 수정완성한것이며 그 계획에 의하면 작전을 1949년 7～8월경에 전《전선(38도선)》에서 동시에 감행하기로 된것과 주공격은 《서부전선》 김석원의 1사단이 담당한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며 오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적들은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매부, 좀 생각되는게 없나?》
남편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천천히 대척하였다.
《나도 처남처럼 군복을 입고싶은 욕망이 나지만… 그런데 처남, 요즘도 38도선에서 〈작은 전쟁〉이 일어나오? 듣자니까…》
지난해, 1949년도에 일으키려 했던 《북벌》전쟁계획에 따라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은 《북진》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지 않았는가며 남편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제법 아는 소리를 하였다. 38도선에서 일으킨 적들의 끊임없는 무장침습은 공화국경비대의 반격으로 그때마다 좌절되였다는것이였다. 이기면 내처 《북진》할 38도선에서의 《작은 전쟁》은 적들의 완전한 패배로 끝장나는 바람에 미제가 세운 1949년 7～8월 《북벌》계획은 총파탄되였다고 하였다.

《처남, 그래도 적들의 무장침공이 계속됩니까?》

《38도선에선 조용한 날이 별로 없네. 점점 더 심해지네.》

《그통에 적들은 간첩, 암해분자들을 더 많이 침투시키겠는데…》

남편은 저으기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물론이지. 우리에 대한 적들의 침략적야망은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네.》

지난해에 일으키게 된 전쟁계획이 파탄되자 미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국제장비로 무장된 모습만 보아도 공산군이 벌벌 떨게라며 극구 찬양한 남조선괴뢰군을 재평가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빠는 미제가 전쟁도발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작전을 벌렸다고 말하였다. 그 작전은 전과 같이 조선을 모르는 맥아더사령부의 장성들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선의 지리와 풍습에 밝고 만주와 조선, 연해주 등지에서 실전경험을 가지고있는 전 일본군장교들로 감행하였다는것이였다. 그들이 완성한 《북벌》계획에 의하면 조선전쟁을 1950년 7월 이전으로 미루어 일으키되 처음부터 미군을 전면적으로 개입시키는것과 함께 유엔을 발동하여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참전시키는것이였다.

미제는 계획대로 전쟁준비를 다그쳐 1950년 5월까지 끝낸것으로 보았다. 바로 그러한 때에 미중앙정보국 국장 히렌케티가 중국에 의한 《대만해방》에 관한 정보를 백악관에 제출하였고 미국주재 남조선대사 장면은 《리승만〈정부〉의 붕괴》에 대한 급보와 《북진》개시를 허용해달라면서 미제의 무력간섭을 애걸한 리승만의 요청을 상전에게 보고하였다.

대만과 남조선 두 괴뢰들을 살려주어야 했던 트루맨대통령은 예정된 조선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대통령특사 덜레스를 비롯한 고위급전쟁광신자들을 급파하여 극동에서의 전쟁준비상태를 최종적으로 검열, 시찰하고 전쟁개시날자를 정하게 하였다.

서울에 기여든 덜레스는 대통령의 막료들과 함께 《시찰》한 38도선이며 남조선 괴뢰《국회》연단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광신적인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그후 덜레스는 《북벌계획》을 재검토하고 리승만도당에게 예정대로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것과 동시에 《북조선에서 먼저 침

입》했다는 역선전을 하며 《국군》은 어떤 일이 있어도 2주일은 견지할것 등을 지시하고 그러면 미국은 그 시간을 리용하여 유엔에 제소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미륙해공군을 동원하리라는것을 다시 확언해주었다.

6월 21일 오전에 도꾜에 날아간 덜레스는 다음날부터 맥아더와 미국방장관 죤슨,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들과 비밀회담을 가지고 남조선의 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50년 6월 25일(일요일)을 전쟁개시날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던것이다. …

물론 혜심의 오빠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멀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게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니 매부, 나라의 정세가 이처럼 엄중해지는데도 농사를 짓고 있어야 옳겠소? 물론 농사를 짓는것도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매부같은 청장년들한테는 조국보위사업이 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소, 매부?》

남편은 고개를 수굿하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매부가 동의하면 우리 정찰국산하에서 복무할수 있지. 매부같이 날파람있고 주먹이 센 청년들이 우리 정찰국에 필요하단 말이네.》

남편은 여전히 함구무언하다가 딴전을 부렸다.

《여보, 저녁식사가 안됐소? 됐으면 어서 들여오오.》

《이보게 석근이, 말 좀 하라구. 미국놈들이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하는데 그래 피가 끓지 않나. 응, 매부?》

남편은 그제서야 뜨직뜨직 대척하였다.

《내가 아니면 조국을 지킬 사람이 없겠소?》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매분 언제부터 나라도 몰라보는 사람이 되였소, 응?》

《뭐라구요?》 남편은 두눈을 흡뜨고 오빠를 쏘아보았다. 《에익참, 처남두― 글쎄 누가 나같은 사람을 군대에 받아들이겠소?》

《가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때 양혜심이 저녁상을 차렸지만 오빠는 밥술을 들념을 안하고 재차 물었다.

《그래 매부는 어째서 입대하지 못한다는거요, 응?》

《오빠, 그럴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요.》

남편을 대신해서 혜심이 말하였다. 그는 남편이 보안서원이 되려다가 부결맞은 사유를 알려주었다. 오빠는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거 정말 모를 일이군. 영생중학교출신이여서 부결되다니? 그러나 인민군대에서는 받아줄거네.》

《처남, 가슴을 긁는 소리는 그만하구 식사나 합시다.》

이튿날 아침 오빠는 떠나갔다. 그는 남편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도 인민군대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며 입대하라고 권고하였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도리머리를 저으며 오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후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혜심이부부는 논김을 매면서 오전해를 보내고있었다.

《여보, 오빠의 말처럼 인민군대에서는 받아줄수도 있지 않을가요?》

《전초선에 서있는 인민군대야 더하겠지.》

《그럴가요?》

《여보, 이젠 좀 쉬자구.》

《벌써요?》

《애기한테 젖 줄 시간이 됐는데두?》

남편은 흙묻은 손을 씻고 저벅저벅 논물을 차며 애기를 눕혀놓은 논머리둔덕으로 나갔다.

《아이참, 방금전에 먹였는데 또 물리라네. …》

《어쨌든 나와 좀 쉬오. 애기가 지내 오래동안 혼자 있다니까.》

남편은 포단속에서 새근새근 자고있는 애기를 가만가만 안아들었다. 애기는 어느새 귀잠에서 깨여나 머루알같은 까만 눈으로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은섭아—》 남편은 속삭이듯이 애기를 부르며 엉너리를 쳤다. 《올로로로—》

애기는 캐득캐득 웃어대며 포단속에서 뛰쳐날것처럼 손발을 버둥거렸다. 때때로 아버지의 배를 차며 발버둥질을 치기도 하였다.

《허허— 은섭이 이녀석이 나처럼 뽈을 차고싶어하누만, 응?》 남편은 한쪽손으로 오동통한 애기발을 잡고 뽈을 차는 흉내를 내였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허허허…》

바로 그때였다. 동해기슭에 높이 솟은 매봉산상공으로 까마귀같은

비행기가 날아들며 하늘을 아츠럽게 썰었다.
《응?…》
남편의 흥그러운 웃음소리는 마치 작두에 동강나듯이 뚝 짤리웠고 생활의 희열이 넘쳐나던 그의 얼굴은 경악과 의혹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영문모를 전혀 낯선 비행기들은 함흥상공에서 미친것처럼 급강하하더니 뒤이어 일어나는 굉음과 폭연…
남편이 안은 애기마저 와뜰와뜰 놀라며 울어대였다.
《여보, 이게 웬 비행기들이예요?》
안해의 물음에 남편은 골살을 찌프린 컴컴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저건 미국놈들의 비행기요, 미국놈들의…》
《며칠전에 전쟁이 일어났다더니 미국놈들의 비행기가 날아드는군요.》
《그렇소. 이건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우린 그놈들과 싸워야 하오.》
혜심이도 무거운 낯색을 지었다. 그는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화가 강요될 살인과 방화, 파괴와 도살의 재난이 들이닥치게 되였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미제의 주도세밀한 전쟁도발계획에 따라 감행된 전쟁은 평화스러운 혜심이네 부락에서도 청장년들이 너도나도 전선으로 탄원하게 하였다.
《여보, 당신도 입대하겠지요?》
저녁상을 물린 남편을 바라보며 양혜심은 근심에 싸여 물었다. 남편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폭음소리에 얼굴을 찌프리고 대답하였다.
《누가 나같은 놈을 받아주겠소.》
《전쟁인데두요?》
《그러니 더욱 믿지 못할게요, 넨장…》
움쭉 자리를 털고일어난 남편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외양간에 들려 소를 꺼낸 그는 그길로 또다시 밭으로 나가는것이였다. 혜심이도 애기를 둘러업고 남편의 뒤를 따랐다.
앞내벌 가담밭에는 강냉이포기들이 허리를 쳤다. 앞에서는 혜심이 소를 이끌었고 남편은 뒤에서 후치를 놓았다. 낫가락같은 초생달이 어둠속에 묻혀 신음하듯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들부부는 오래동안 말없이 일하였다, 사래긴 밭을 돌고 또 돌면서…

이윽고 혜심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오늘은 세포위원장네 둘째도 전선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대척.
《이랴! 쩌쩌쩌…》
하지만 혜심은 소를 멈춰세웠다.
《와, 와-》
쉬고 하자는 안해의 청에 남편은 묵묵히 응하였다.
그들은 밭머리 둔덕진 잔디밭에 나란히 앉았다. 그날 밤에 불어드는 마파람은 별로 눅눅하였다.
《여보, 어쩐지 전 자꾸 불안해져요.》
혜심의 말에 남편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젠 동네에 당신밖에 없는데 군대에 탄원하지 않아도 일없을가요?》
《내가 없어도 인민군대는 이기니 걱정마오.》
《승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민군대를 기피하는것이 수치스럽지 않나요.》
《수치스럽다구?… 에익 참, 어쨌든 나는 군대에 나가지 않겠소.》
남편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하였다. 혜심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여해주신 땅을 지키려고 그리고 돌아간 부모님들과 큰아버지의 원한을 잊지 못하며 한때 그렇게도 열렬히 보안서원이 되기를 갈망했던 남편이 아니였던가. 보탑을 잡았던 손에 무기를 다루며 이 땅에 깃든 선친들의 원한을 씻으리라 마음먹었던 남편이였었다. 땅을 분여받은 날 저녁늦도록 분여지말뚝곁에서 떠나지 못하며 고마움에 젖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어찌하여 그처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것인가? 보안서원이 되지 못한 생활적계기와 불신이 아무리 충격적이라 할지라도 한낱 개인감정에 불과한 그것이 어찌 조국이라는 엄청난 숭고한 감정을 초월할수 있으랴.
조국은 누구에게나 자기자신보다 귀중한것이다. 조국이 있어 나가 존재하고 바로 그것이 있어 살아도 죽어서도 나의 존엄과 인격이 담보되기에 예로부터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초보적인 인격도 존엄도 짓밟히는 피눈물나는 노예살이하느

니 죽어서도 자기를 안아주고 지켜주는 유일무이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것이 진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킬줄 아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 조국이고 조국이 나라고도 하거늘 어쩌면 남편이 자기를 지킬줄 모르랴싶었다.

《여보, 당신은 누구보다 나라없이 산 과거처지를 잘 알지 않나요. 만일 사사로운 어떤 개인감정에 포로되여 영원한 생명을 희롱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뭐.》

혜심은 이때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념두에 두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였다. 쪼각달이 으스름히 비치는 잔디밭우에 앉아 쑥대잎으로 잔등을 철썩철썩 때리며 모기를 쫓고있던 남편은 안해의 그 말에 한결 침통한 기상을 짓더니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머리에 무성하게 자란 이름모를 잡초들을 걷어차며 새김질하는 황소곁으로 다가갔다.

《이랴! 쩌쩌…》

지금따라 별로 감때사납게 휘두르는 그의 채찍에 황소는 구슬프게 영각하였다.

《음메!―》

으스름한 달빛속에서 다만 형체만 뚜렷한 남편을 바라보며 양혜심은 깊은 한숨을 내그었다.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아니, 오빠가 그를 잘못 보았다는 말인데?… 혜심은 언제인가 오빠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석근이를 소개하던 일이 떠올랐다.

6년전 그날은 원산루시여곽중학교를 다니는 혜심이가 원산 고모네집에서 짧은 봄방학을 보내던 어느날이였다. 원산공립중학교 운동장에서 함흥에서 온 석근이네 축구경기를 보고 안추월언니랑 같이 교문밖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오빠가 달려왔다. 주심을 섰던 오빠는 무엇이 그리도 급하게 제기되였던지 미처 축구양말도 벗지 못한채였다.

《혜심아, 나 좀 보자.》

양혜심은 동무들속에서 나와 오빠앞으로 다가갔다. 오빠는 그에게 다른데로 가지 말고 송도사진관앞에서 자기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는 올 때처럼 다급히 뛰여가버리는것이였다.

혜심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오빠의 요구에 저으기 어리둥절해졌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방금전에 자기를 따르는, 그래서 더 싫어진 최일남이네 축구팀을 보기 좋게 이긴 함흥청년들의 매혹적인 축구경기를 보아서인지 흔히 처녀들이 받군 하는 가슴울렁이는 예감을 동반하는 그런 호기심이였다.

그는 송도사진관앞에서 오빠를 기다렸다. 어느덧 오후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좋이 한시간나마 기다린 오빠가 드디여 나타났는데 아닐세라 남몰래 그랬으면 하기도 한 바로 그 청년을 데리고오지 않았는가. 남달리 높이 도약하여 재치있는 머리받기로 두번씩이나 꼴잉한 인상깊은 그 청년을!… 혜심은 저도 모르게 마음끌리는 그 청년앞에서 별로 부끄럼을 타며 소개를 받았다.

《내 동생이네. 올해에 졸업반일세.》

《그렇습니까. 김석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혜심은 귀밑을 붉히며 얼굴을 들지 못했다.

《넌 왜 그러고있니? 인사법도 잊은게지?》

곁에 있는 오빠가 이러며 동생을 대신하였다.

《양혜심이라구 부른다네. 언제인가 함흥에서 내 동생을 두고 말한적 있지 않나. 바로 그 동생이네.》

혜심의 오빠 양혜봉은 이미 3년전에 함흥영생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학창시절에 그는 학교축구팀에서 석근이랑 같이 뽈을 찬적이 있었다. 지금은 서울축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하지만 후비선발과 관련하여 함흥에도 가끔 내려오군 해서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 만나군 하는 사이였다. 혜봉은 전에없이 의미심장한 눈길로 석근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 이제부터 서로 알고지내게 되였는데 우리 사진이나 한장 찍으세.》

《허허, 이거 초면에…》

김석근이 어색해하면서도 그가 이끄는대로 사진기앞에 나섰다. 오빠는 한사코 석근이와 동생을 어깨나란히 앉히고 자기는 뒤에 서서 찍게 하였다.

사진관에서 나오자 혜심은 그만 저도 모르게 헤여지기 싫은 자기나름의 속심을 드러내고말았다.

《저… 언제 떠나겠습니까?》

그러자 석근이 앞서 오빠가 먼저 대척하였다.

《떠나다니? 오늘 저녁에는 고모네 집에서 쉬게 되였으니 군을 데리고 먼저 가거라. 나는 육고집에 들렸다 가겠으니 고모한테도 일러라, 네 방에 모시겠다고.》

《녜?—》

철원읍에 집이 있는 혜심은 석근이를 자기가 기숙하고있는 원산 고모네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바람에 저으기 당황해하였다. 초면부지의 총각을 들이면 고모네가 어떻게 여길가싶었다. 이따금 최일남이 찾아와서 오해를 받군 했는데 석근이를 데리고가서 재우기까지 하겠다면 고모네는 말할것도 없고 온 이웃들이 빗볼수 있었다. 혜심의 배필이 어떻다는둥, 지어는 행실이 어떻다는 오해까지 받을수 있는데 오빠는 그런 뒤소리까지 꿈에 네뚜리로 여기는것 같았다.

《그렇게 놀랄건 없어. 오빠의 친구라면 고모도 리해할거야.》

그리고 석근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인차 뒤따라서겠으니 너무 어성버성해하지 말라구.》

《아니 혜봉형, 육고집에도 우리 같이 갑시다.》

《아 아, 그러지 마오. 난 또 다른데도 들릴데가 있다니까. 안됐지만 이번만은 내 말을 좀 들어주게.》

오빠는 이러며 그냥 석근이의 등을 떠밀었다. 석근이는 마지못해 혜심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시원스레 길둥그런 석근이가 이제 무슨 말부터 꺼낼가싶은데 드디여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심씨, 아무래도 전 우리 동무들이 든 송도원려관으로 가야 될가봅니다. 우린 래일 아침차로 떠나게 되였는데 려관에서 동무들이 기다릴것 같기도 하고 또 초면부지에 어떻게 고모네 집에까지 폐를 끼치겠습니까.》

석근이가 따라서는것을 은근히 걱정하다가도 막상 돌아서겠다는 말을 들으니 인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순간을 놓칠듯 한 아쉬움에 사로잡혀 혜심은 응수하였다.

《때때로 고모네 집에 오빠의 친구들이 다녀가군 해서 그렇게 미안해하실건 없지만…》

혜심은 부지중 이렇게 지어내여 말하다가 그러는 자신이 너무나 놀

라와서 이내 말머리를 돌렸다.

《오빠가 오면 나를 질책하겠는데 이쪽 얼굴도 좀 고려해줘야지요 뭐.》

《하긴… 그럼 우리는 좀 천천히 갑시다. 혜봉형님이 먼저 들어서게.》

혜심은 머리를 끄덕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해안선 유보도쪽으로 돌렸다.

황혼이 깃든 동해는 조용히 굼실거리고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유보도를 거닐며 송도원쪽으로 올라갔다.

《저, 석근씨는 고향이 함흥이나요?》

《아닙니다. 함주군 상태리라고 자그마한 촌락에서 삽니다. 혜심씨네 집은 철원읍에 있다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석근씨 부모님네들도 농사를 짓겠지요?》

그바람에 김석근은 무거운 낯색을 짓고 묵묵히 걸어갔다. 지금 석근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고 없는 자그마한 오막살이집에서 혼자 살았다. 큰아버지가 대주는 몇푼 안되는 학비로 자취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학교를 다니고있었다. 아직 이런 내막을 모르는 혜심이였지만 그의 침통해하는 표정에서 그 어떤 상서롭지 못한 사연이 느껴졌다.

《제가 공연히 가슴속의 상처를 건드린것 같은데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돌아간 부모님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석근이는 스스로 자기네가 당한 기막힌 불행을 조용조용 말하였다. 혜심은 비로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지주집 머슴으로 보내지 않았다는것과 바로 그것이 화가 되여 부모님네들이 다 잘못되였다는것을 알고 실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정말 훌륭한 부모들이였다. 자식을 공부시키려는 그들의 심정이 하도 눈물겨워 풀죽으로 끼니를 에워가는 큰아버지마저 학비를 대여준다니 그 또한 얼마나 고마운 가문인가. 석근이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서 공부하며 성장하거늘 그의 가슴속에 들어차는 체험의 결정체들이 얼마나 정갈하고 값비싼것이랴싶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동정심을 자아내는 그의 불

우한 운명은 혜심이로 하여금 무엇인가 위해주고 도와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비록 자기네 부모님네들이 철원읍에서 그리 넉넉히 살지 못하는 자작농에 불과하지만 집에서 보내오는 용돈을 덜어서라도 석근이의 학비를 보태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석근이를 대하는 혜심의 심정은 류달리 애틋하였다. 그래 송도원 유보도를 거닐 때에도, 고모네 집에서 하루밤을 쉬게 할 때에도 별로 어색해하거나 부끄럼을 타지 않았다. 마치 소꿉시절의 친지를 만난것처럼 다정하게 굴었고 손우의 오빠를 대하는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

이튿날 아침 고모네 집에서 떠나는 석근이를 바래우며 혜심은 역에까지 나갔다. 시간이 되였을 때 그는 석근이앞에 회중시계를 내밀었다. 김석근은 못내 의아해하며 좀처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건 제가 쓰던 시계인데 그렇다고 안 받으면 실례지요 뭐.》

《아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만난 기념으로 받아줘요.》

그 말에 깃든 혜심의 심정을 감득했는지 석근이는 어쩌면 저들의 장래와 련결될듯 한 그 기념품을 감사히 받았다.

《고마워요!》

《혜심씨!…》

그들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아직 내색하지 않는 서로의 정과 정을 나누며 헤여졌다.

그때 떠나는 렬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사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석근이의 뜨거운 목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가슴에 울려왔다.

그러는 속에서 영원한 길동무처럼 안겨드는 잊을수 없는 그의 모습— 승강대에서 중학생모자를 벗어쥐고 손저어흔드는 석근이!… 그 모습은 회억할수록 끌려가는 마음과 더불어 더 애틋이 자리잡은 초상이였다.

그후 혜심은 그에게 송도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었고 문안편지와 함께 약간의 송금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서울에 올라가있는 오빠가 혜심이를 찾아왔다. 그는 함흥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석근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석근이는 학비난에 허덕이다가 종내 학교공부

를 그만두고 서해바다벌이를 하다가 고원탄광에 가서 일하고있다는것이였다. 거기서 로자를 마련하고 서울이나 도꾜로 가서 고학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오빠는 장차 자기네 축구팀에 끌어오자 해도 돈이 있어야겠기에 석근이를 한동안 탄광에 있게 할수밖에 없다면서 혜심이더러 한번 찾아가보는것이 좋겠다고 일렀다.

혜심은 여름방학을 기다렸다. 그때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용돈을 절약하며 푼푼이 모아두던차에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돌아왔다. 고향읍 철원에 가서 그에게 찾아갈 준비를 다긎는데 해방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해방된 나라의 현실은 혜심에게도 무한한 정신적앙양을 일으키며 가슴부푼 리상과 새로운 포부를 안겨주었다. 서울이나 도꾜로 가서 고학하려던 석근이도 필경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을진대 어찌 그와 함께 손잡고 나가지 않으랴. 함흥이면 어떠랴, 고원이면 어떠랴. 그가 있는 곳에 나도 있어서 새 조국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싶은 크나큰 충동에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이였다.

혜심은 어느날 철원읍 고향집에서 결단코 떠났다. 렬차운행이 두절된 철길을 따라 걷고걷고 또 걸었다. 며칠낮 며칠밤을 이어 고원탄광에 이르렀지만 혜심은 거기서 석근이를 만날수 없었다. 김석근은 고향마을 상태리로 돌아갔다는것이였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으나 결코 후회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혜심은 아니였다. 자그마한 농촌부락에서라도 고상한 리상과 아름다운 포부를 지니면 능히 보람찬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고 발길을 돌려 다시 석근이네 고향마을로 향하였다.

길손들에게 물어가며 찾아간 석근이네 고향마을은 고원탄광에서 동쪽으로 백수십리 상거한 성천강류역에 위치하고있었다. 드디여 혜심은 저녁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키높이 자란 백양나무며 아카시아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는 나지막한 모래둔덕을 지나 석근이네 마을에 들어섰다.

집집마다 솟아있는 판자굴뚝들에서는 겨끔내기로 저녁연기가 솟구쳐오르고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녀인들의 웃음소리들에도 해방의 기쁨이 넘쳐흘렀다. 멀리 동구길에서는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부림소들의 영각소리가 전야에 울려퍼지는가 하면 알낳이한 닭들

이 꼬꼬댁—꼬— 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술래잡기에 정신을 판 조무래기들이 네거리도 좁다하게 뛰노는데 노란 명주저고리에 다홍치마를 받쳐입은 처녀들은 벌써부터 리선전실쪽으로 쏘다니고있었다. 해방은 여기에서도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하였다.

혜심은 흥그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마을 서쪽에 있는 석근이네 집앞에 이르렀다. 자그마한 삽짝문앞에서 주인을 찾았지만 그도 해방의 기쁨에 휩싸여 나돌아다니는지 감감 무소식이였다. 대문앞에서 한참 서성거리고있을 때 석근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게 누구요. 응?!》

《석근씨!…》

그들은 다같이 상봉의 격정에 사로잡혀 뜨겁게 손을 맞잡았다. 너무나 힘들게 찾아와서인지 아니면 너무나 가슴부푼 리상을 품고 와서인지 혜심은 마치 오래동안 헤여진 오빠를 만난것처럼 허물없이 대하였다.

《자, 어서 들어가기요. 이게 우리 집이요.》

그러나 《우리 집》에는 석근이 혼자밖에 없었다.

《하지만 걱정마오. 나는 오늘 밤을 성인학교에서 패겠으니 여기서 혼자 편안히 로독을 푸오.》

《성인학교요? 그건 무슨 학교인데 밤을 패요?》

《문맹퇴치사업을 하는 학교인데 철원에는 생기지 않았소?》

《제가 떠날 때까지는…》

《하긴 여기에도 며칠전에 생겼소. 리인민위원장한테서 과업받고 내가 조직했소.》

그는 혜심에게 부락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대하여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벌써부터 3.7제소작료와 관련한 해설선전사업이며 미신타파운동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마을에서는 새 조국건설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석근씨, 저도 석근씨를 따라가겠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자리를 뜨려는 그에게 혜심은 말하였다.

《피곤하겠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오. 혜심씨가 마다하지 않으면 래일에도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니예요. 전 석근씨가 하는 일을 보고싶어요. 저도 하루빨리 하

고싶고요.》

그때부터 혜심은 석근이와 함께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발벗고나섰으며 그러는 과정에 새 조국건설에 헌신하는 석근이의 사람됨됨을 더 깊이 알게 되여 마침내 이듬해 봄에 그와 가정을 이루었던것이다. 당시 혜심의 눈에 비낀 석근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였다. 오빠가 평양에서 새로 조직되는 체육단에 가자 해도 《지금은 성인학교사업을 하는것이 더 급선무요.》 하는가 하면 영생중학교 동창생들이 찾아와 서울체육단에서 부른다 해도 《앞으로 땅까지 나눠준다는데 아버지의 원한이 깃든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나겠소.》 하며 제땅에서 실컷 농사를 지어 장군님은덕에 보답하겠다는것이였다.

그처럼 순결하고 갸륵한 마음으로 살아오던 남편인데 글쎄 인민군대탄원을 회피하다니? 아무리 군보안서에서 믿어주지 않는다 한들 체육단까지 마다하고 애국사업에 떨쳐나설 때 품었던 본래의 결심을 어떻게 저버릴수 있으랴?… 혜심은 조국을 해방하시고 땅까지 분여해주신 그 은정을 일생토록 잊지 않고 보답하리라 믿어마지 않던 남편이 조국과 자기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무엇인가 저희들의 앞날에 조국의 시련과 더불어 크나큰 불행이 미칠듯 한 예감을 받으며 혜심은 또다시 한숨을 날렸다. 아닐세라 그의 두려운 그 예감은 그로부터 몇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다음날 저녁부터 더 뚜렷한 형체로 나타나는것이 아닌가.

집에 찾아온 난구집 손님과 더불어

다음날도 해종일 논벌에서 김을 잡은 혜심이부부는 저녁 어슬녘에야 일손을 놓았다. 만풍년수로뚝에서 풀을 뜯던 황소를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들부부는 초상 치르는 상제처럼 묵묵히 걸었다.

혜심이 애기를 안은 남편을 따라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누구인가 뒤따라서며 알은체를 하였다.

《인제야 오우?》

《응, 교준동무요?》

남편이 반가이 맞는 교준동무란 이웃 난구집에 다니군 하는 손님이였다. 그전에 난구집 할아버지가 소개해주어서 사귀게 된 사

람이였다.

《아주머니도 그새 잘있었소?》 푸접이 좋은 한교준은 혜심에게도 반갑게 인사하며 수다를 떨었다. 《아주머니, 이걸 좀 보우. 그래 이게 뭘것 같소? 글쎄 내가 뭘 가져왔나 어디 맞혀보라니까.》

교준은 하얀 보자기에 싼 손짐을 내보이며 벙글거렸다. 혜심은 별로 능글맞게 보이는 그에게 마지못해 대꾸하였다.

《아이참, 제가 어떻게…》

《아, 그럴수 있지. 내가 은섭이 옷을 사오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으니. 자, 받소. 색동옷이요.》

그래도 혜심은 시무룩이 바라보면서 선뜻 받지 않았다. 눈썰미빠른 석근이 어색한 분위기가 생길세라 한발 나섰다.

《이거 정말 고맙소. 귀중히 건사해두었다가 돌잔치때부터 입혀야겠군.》

《허허허… 그때 가서 또 사올게 지금부터 입히라구.》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줄줄은 정말 몰랐소. 자, 어서 들어가기요.》 남편이 토방에 올라서며 말하였다. 《여보, 상팔형님네 집에 가서 술부터 받아오라구.》

《술은 여기 있네. 한병 차고왔지.》

《이거 오늘 어떻게 된 일이요, 응?》

《그럴만한 일이 있네. 우리 마시면서 얘기하자구.》

얼마후 혜심은 주안상을 차려놓고 다시 정주에 나가 저녁동자질을 하였다.

그들은 권커니작커니 하며 즐겁게 마시였다.

《그래 우리 집에 오면서 술은 왜 차고왔소?》

남편이 묻는 말이였다.

《응, 그것 말이요?》

한교준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나서 대척하였다.

《자네가 우리 사람이 된걸 축하해서이네.》

《우리 사람이라니? 그건 또 무슨 뻐꾸기같은 소리요?》

《음, 이제 알게 되지.》

한교준은 석근이 부어준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는 양복 속주머니에서 편지를 한통 꺼내여 남편한테 주었다. 부엌과 안방사이에 간

막이벽이 없는 정주간을 등지고앉은 남편은 그 편지를 보고나서 즉시 재털이에 소각해버리는것이였다.
《그래 안병덕형님은 지금 어데 있소?》
안병덕이 보낸 편지여서인지 남편의 그 물음에 한교준은 가볍게 술상을 탁 쳤다.
《석근인 이런 일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앞으론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구. 내가 책임자이니 나하구만 통하면 되오.》
《음, 그런데 자넨 비료공장에 있지 않더군.》
《응?…》 한교준은 취기마저 사라진듯 보리눈을 올롱하게 치켜뜨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임자가 그럼 나를 알아보았다는건가?》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술잔부터 비웠다.
《자네가 난구집에서 안병덕의 소개신을 내놓으며 비료공장 인수원으로 있다하지 않았나. 그런데 일전에 흥남화학공장 최기택이 나를 찾아와서 자네한테 전해달라며 무슨 편지쪽지를 내놓더구만. 그래 자네를 기다렸는데 어데 나타나오. 하는 수없어 내가 짬을 내여 비료공장에 찾아갔는데 자재과에서도 한교준이라는 인수원은 없다고 하질 않나. 하는 수없어 나는 그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있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빼람안에서 그 편지를 꺼내여 교준이한테 주었다. 한교준이 그걸 읽고나더니 역시 재털이에 인차 소각해버리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편지를 오늘까지 가지고있다니, 쯔쯔쯔…》 한교준은 또다시 쪽 소릴 내며 술잔을 비웠다. 《흥남비료공장이야 워낙 큰 공장이여서 종업원이 무려 2만명이 넘는다니까. 그들속에서 나를 찾자면 조련치 않지. 앞으로 나를 만날 일이 있거들랑 비료공장 앞에 있는 막걸리집 주인을 찾게. 그러면 나를 쉽게 만날수 있네. 알겠지?》
《자넨 정말 깊숙이 자리잡았구만.》
《돌다리도 열번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는데 우리 일인즉 그런게야. 이제 자네도 그 준칙을 터득하게 될게요.》
문득 벽시계가 뎅뎅 두점을 쳤다. 취기가 올라 얼굴이 수수떡처럼 익은 한교준은 술잔을 들다말고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두시가 되였는가. 이보게 석근이, 래일 기택이한테 이걸 전해주게. 자네한테 찾아왔던 화학공장 최기택을 알겠지? 급한 소식이

니 늦잡지 말라구.》

이윽고 한교준은 난구집으로 가버렸다.

혜심은 남편앞에 마주앉았다.

《여보, 당신 일에 간참한다고 나쁘게 생각지 말아요. 정주에서 듣자니 너무나 끔찍한 일이여서 그러는데 그래, 안병덕이라는 사람은 당신한테 무슨 편지를 보냈어요? 말해주세요, 제발 솔직히 말해줘요.》

《그것 말이요? 그 량반이 날더러 지용수를 찾아달라누만.》

《아이참, 당신은 나를 속이고있어요. 그래 난구집 손님이 〈우리사람이 되였다〉는건 무슨 소리구 화학공장 최기택이한테 전해달라는 편지는 무슨 편지나요?》

그러나 남편은 어느새 구들에 누워 잠들고있었다. 술을 마시면 인차 잠들어버리는 남편이였다. 더는 어쩔수 없어서 혜심이도 애기를 끼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난구집 손님은 틀림없이 나쁜 놈인데 남편이 그놈과 손을 잡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다면?… 혜심은 반역의 길을 걷는것이 분명한 남편을 내쳐둘수 없었다. 남편을 돌려세우든가 아니면 자기가 죽든가 사생결단하리라 마음먹고 깨여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시간이 지나 《여보.》 하고 깨워도 드렁드렁 코를 골고 두세시간이 지나도 여전하였다. 그러는 속에서 방문이 훤해지는데 드디여 남편이 눈을 떴다.

혜심은 전에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난구집 손님과 무슨 일을 해요?》

《일은 무슨 일, 내가 그 사람의 신세를 지니까 나도 그를 도와주는거지.》

《아니예요. 당신은 지금 다른 길에 들어서고있어요. 실로 무서운 길에 들어서면서도 나를 속이고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오.》 하고 혜심이를 어떻게 안착시켰으면 좋을지 몰라하다가 김석근은 전에없이 힘주어 말하였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이 사랑할 때의 그 석근이란 말이요. 그것만 명심하면 되오, 알겠소?》

《당신은 또 거짓말을 하며 나를 얼리려고 해요.》

《허참, 녀자들이란… 그저 괜히 의심한다니까.》 남편은 딴전을 부렸다. 《가만, 그 량반이 뭐라 했던가? 그렇지, 화학공장 최기택이한

테 이걸 전해주라 했겠다. 빨리 찾아가봐야지.》
《아니, 제발 가지 말아요. 가서는 안돼요.》
혜심이 남편의 발목을 부여잡고 애절히 빌었건만 남편은 아침밥도 먹지 않고 떠나가는것이였다.
《여보!－》
대문앞까지 달려나간 혜심은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남편이 결코 좋은 사람으로 될수 없겠다는 좌절감에 어깨를 떨었다. 기필코 반역자의 안해로 되고말상싶은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혔다. 너무나 눈앞이 캄캄하여 막 죽고싶은 심경인데 방안에서 애기가 울어대였다. 어머니를 찾는 그 울음소리에 양혜심은 애기를 두고 죽을수 없는 자신을 의식하고 간신히 대문앞에서 일어났던것이였다. …
그때 일이 어제인듯 한데 은섭은 벌써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지금 아들의 곁에 누워서 날이 밝도록 잠 못이루는 혜심의 눈앞에는 어느덧 피덩이같은 은섭이를 오늘까지 키워오면서 겪은 가지가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4

어머니의 소원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적들이 쫓겨가자 혜심은 애기를 업고 철원 친정집에서 상태리로 돌아왔다.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건만 남편은 끝내 군《치안대》대장의 완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패주하는 적들을 따라 월남도주하였다. 양혜심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 해방후에 분여받은 은정어린 그 땅을 배반자의 가족이 부치게 내버려둘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혜심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그는 땅없이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옛날 고상팔부부처럼 물고기장사라도 하리라 마음먹었다.
어느날 혜심은 애기를 둘러업고 서호로 내려갔다. 거기서 가재미를

한합지 받아이고 함흥시로 올라가는데 사포다리밑에서 한부락 세포위원장을 만났다.

《아니, 이게 은섭이 어머니가 아니요, 응?》

서명호세포위원장이 이러며 다가서는 바람에 혜심은 어쩔수없이 멈춰섰다. 물고기함지를 이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세포위원장은 가볍게 책망하였다.

《지금은 바쁜 농번기인데 땅은 내쳐두고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소. 혼자힘으로 땅을 다루기가 헐치 않겠지만 그래도 전날같이 거름두 내구 논도 갈아야지.》

혜심은 그의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저같은 사람도 그 땅을 부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서명호세포위원장은 두눈을 커다랗게 떴다.

《세포위원장동진 우리 집을 잘 알지 않나요.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글쎄 나같은 배반자의 가족이 어떻게 부치겠나요.》

《그래서 이런 함지를 이고 길바닥에 나섰소? 그런데 아주머니, 아주머니한테서 그래 누가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기라도 하는가 말이요?》

혜심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 그 땅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인데 누가 내놓으라 하겠소. 장군님께서는 그 땅을 영원히 그 집에 주신것이니 다른 생각 말고 논밭을 가꾸자구, 응?》

혜심은 그만 눈물이 왈칵 북받쳤다. 그는 땅바닥에 물고기함지를 털썩 내려놓고 마구 어깨를 떨었다.

서명호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아주머니, 당은 아주머니를 차별하지 않소. 공화국정부의 시책도 변함이 없으니 우리 다같이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자구. 더구나 지금은 전쟁시기가 아니요. 전쟁승리를 위해서도 농사를 더 잘 지어야지. 어서 일어나라구.》

《세포위원장동지, 고마워요.》

양혜심은 서명호가 물러간 후에도 오래동안 떠나지 못했다.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자꾸자꾸 눈물을 흘리였다.

물고기함지를 이고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돌아온 혜심은 이튿날부터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알의 소출이라도 더 내려고 진거름도 가리지 않으며 땅을 걸구었다.

죄지은 가족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해서 장군님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던 다음해 어느날이였다. 저녁늦도록 논갈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혜심은 부엌에 방등불을 켜놓고 저녁을 지었다. 가마에 쌀을 안치는데 적기들이 날아왔다. 고공에서 울리는 둔중한 폭격기소리에 혜심은 방등불마저 죽이고 캄캄한 어둠속에서 밥물을 가늠한다, 무우를 썬다 하며 동자질을 하였다. 문득 짜르릉, 탕탕 하는 폭음과 더불어 부엌문짝이 떨어져나갔다. 적들은 함흥 성천교아래에 위치한 자그마한 촌락에 《B－29》편대 비행으로 무차별폭격을 가하였다. 혜심은 두살 되나마나한 은섭이를 안고 앞집 방공호로 뛰여가 대피하였다. 앞집 방공호에는 주인집 자녀들과 그 집에 온 함흥 피난민가족들을 비롯하여 열서너명의 주민들이 은페하고있었다. 연거퍼 터지는 폭음이 지심을 울리는 속에서 갑자기 방공호가 무너지면서 복판에 앉아있는 혜심의 모자를 옆으로 자빠뜨렸다. 방공호의 중심들보가 내려앉아 혜심의 몸통을 지지누르면서 생명을 압박하였다. 량면 압착기속에 끼운것처럼 지지눌리우는데 이제는 산소부족으로 하여 더는 호흡할수 없었다. 숨을 들이쉬면 팽팽한 고무뽈안에 바람을 넣는것처럼 내뿜어져서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몇분이 지났는지, 이제는 정신마저 혼몽해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옴과 동시에 매캐한 연기냄새가 났다. 혜심은 막혔던 숨을 후－ 내쉬였다. 부락 구조대원들이 방공호속에 묻힌 그들을 한명한명 끄집어내였다. 이미 두사람은 숨지고말았다.

밖으로 나온 혜심은 애기부터 살펴보았다. 은섭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있었지만 머리를 쳐들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후부터 은섭은 미열이 생기면서 기침을 깇군 하였다. 나날이 더 심하게 앓는 애한테 혜심은 여러가지 민간료법으로 약을 지어 먹였지만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이제는 피가래까지 뱉군 해서 혜심이 전전

궁궁하는데 옆집 영희네 후방가족 할머니가 찾아왔다. 그는 혜심에게 어서 병원으로 가라 했지만 선뜻 찾아가지 못하다가 은섭이 종종 까무라치는 바람에 군병원으로 올라갔다.

군병원에서 의사가 병력서를 작성할 때였다.

《그래 애기 아버지는 뭘합니까?》

의사의 질문에 혜심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저… 애아버지는 없어요.》

《군대에 나갔나요?》

《아, 아니. 그저 잘못되였어요.》

《그래요.》

젊은 녀의사는 더는 묻지 않았다. 뒤미처 은섭이를 진찰하더니 곧 협의진단을 내려 급히 도병원으로 의뢰하는것이였다.

함흥시에 있는 도병원에서는 그날로 입원시키고 은섭이를 집중치료하였다. 이름모를 갖가지 약들을 쓰는가 하면 페니실린같이 귀하고 값비싼 약들도 아끼지 않았다. 은섭의 병세가 점차 덜하여지는데 따라 양혜심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불안해졌다. 입원치료비를 물 일이 근심스러워서가 아니였다. 은섭의 병력서에 그저 《아버지 사망》이라고 적어놓게 한것이 가슴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 월남도주》라고 밝혔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약들을 써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느낌에 혜심은 진정할수 없었다. 가정환경을 기만하며 치료를 받다니? 나라와 인민을 속이며 배려를 받는 나같은 만행자가족을 두고 사람들이 과연 용서를 하겠는가. 적강점시기 만행한 역적의 가족이지만 차별하지 않고 땅을 부치게 하는 대해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량심을 기만하다니?… 나라의 혜택을 뼈에 사무치도록 고맙게 여기며 국가에 죄지은 사람의 가족일수록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 굳히는 혜심이로서는 더는 외면할수 없었다.

어느날 그는 담당의사를 찾아갔다. 의사에게 자기가 받는 량심의 가책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터놓았다.

《위급한 애기만 생각하다나니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했던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월남도주자의 자식인줄 알고…》

《그에 맞게 치료해달라 그 소리입니까?》 몸이 뚱뚱하고 늙수그레한 담당의사가 혜심의 말을 가로챘다. 《이것 보오, 은섭이 어머니.

우리 당의 보건정책도 가정환경이 어떻구 과거가 어떻소 하며 차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은섭이는 남반부같으면 집을 팔아도 안될만큼 한 거액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그리 알고 은섭이를 잘 키워주시오. 그게 당이 바라는것입니다.》

그후 은섭은 거의 한달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였다. 병원정문에서 담당의사와 작별하면서 혜심은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감사의 정을 입으로는 표현할수 없어서 그만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시책이 너무나 고마워서 조국을 배반한 남편과는 달리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리라는 굳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렇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은섭이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을 아들로 키우리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래일도 살아갈 결심이였다.

그의 그 결심은 은섭이 자라면서 점점 더 차돌같이 굳어졌다. 아들이 소학교에 입학할적에도, 소학교를 다니며 소년단에 입단할 때에도 아니,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오늘까지 실로 얼마나 많은 배려를 받아왔던가. 남편은 공화국을 배반했지만 공화국은 그의 아들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뜨거운 한품에 안아키우지 않았는가. 혜심은 단 한가지, 아들을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역군으로 키울 결심으로 오늘 이때까지 살아오는것이였다. 오늘 새벽에도 그 결심을 더욱 굳히면서 혜심은 깊은 잠에 든 아들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새벽 일찌기 방목을 떠날 아들한테 아침밥을 지어주고 점심밥곽을 안겨주어야 할 어머니된 자신의 의무감을 잊지 않고 그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5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 김은섭은 꽁무니에 밥곽을 차고 방목길에 나섰다. 새벽운무속에 잠긴 고즈넉한 산촌길에서 땅을 구르는 젖소들의 무수한 발굽소리들이며 길을 재촉하여 겨끔내기로 다그어대는 젖소들의 영각소리들로 하여 가을철방목의 새날은 삶의 활력이 넘

쳐 약동하였다.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무리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젖소들을 이끌고 은섭은 소영천동뚝을 따라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천상뿔대왕》이 따랐고 차례로 여러마리의 《장수뿔》들과 수하《병졸》들이 행렬을 이루었다. 아직 어둠이 우세를 차지한 무인지경 산골짜기였지만 《천상뿔대왕》과 그의 막료들인 《장수뿔》들의 《호위》를 받는듯 하여 은섭은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다.

어느덧 우중충한 수림속으로 행군하였다. 고개너머에 있는 무성한 풀판을 점령할 마지막릉선에 오를 때였다. 행렬의 뒤꽁무니에서 갑자기 젖소들의 소요가 일어났다. 숲속에서 승냥이가 나타나 젖소무리에 뛰여들었던것이였다. 어느새 자그마한 새끼젖소의 뒤다리를 물고 질질 끌면서 승냥이는 가둑나무 우거진 릉선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은섭은 황급히 소리쳐 《천상뿔》을 추격시켰다. 한편 그는 다른 몇마리의 《장수뿔》들을 이끌고 승냥이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있음직한 산정으로 내달렸다. 새끼젖소를 구원하고 승냥이를 사냥하려는 그의 작전은 정확하였다. 이미 《천상뿔》의 추격에 새끼젖소를 버리고 도망치던 승냥이는 은섭이가 거느린 《장수뿔》막료들과 맞다들게 되였던것이다. 승냥이는 우뚝 멈춰서서 《장수뿔》막료들을 살펴보더니 돌연히 몸을 돌려 서쪽골짜기방향으로 내리빼였다. 하지만 그쪽에는 《천상뿔대왕》이 숱한 《병졸》들을 거느리고 맞받아오고있었다. 승냥이는 또다시 멈춰섰다. 숨이 차서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는 그놈은 제놈이 사면포위를 당했다는것을 절감한 그제서야 당황해하며 좌왕우왕 뺑소니치려고 발광하였다. 젖소들의 포위가 좁혀지자 은섭은 공중에 채찍을 휘둘러 공격신호를 울렸다. 때를 이어 우두머리 《천상뿔》과 막료 《장수뿔》들이 네굽을 안고 승냥이에게로 육박해들었다. 맨 선참으로 《천상뿔대왕》이 맞받아오는 승냥이의 배때기를 세판게 받아넘겼다. 허양 공중재비로 저만큼 나동그라진 승냥이는 허연 창살같은 이발을 드러내고 단말마적발악을 하였다. 으르렁대며 땅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승냥이놈을 이번에는 《송곳뿔막료》가 들이받았다. 뒤미처 숱한 《장수뿔》들이 앞을 다투어 이리 받고 저리받아 한놈의 승냥이를 아주 요정내고말았다. 추격《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다.

은섭은 채찍을 휘갈겨 신호해서 이번에는 널려져있는 《전투성원》들이 자기곁에 모여들게 하였다. 숲속에서 들국화꽃을 꺾어 《전투공로자》들을 표창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선 《천상뿔》에게 다가가 이마를 다독여 치하해주고나서 귀가에 꽃송이를 꽂아주었다. 차례로 그렇게 표창하는데 동녘하늘에서 둥근 태양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황금빛발이 숲속을 가닥가닥 비치는 장쾌한 아침이였다.

《은섭형!—》

아침해빛에 황홀경을 이룬 수림속을 울리며 미현의 야무진 청이 골짜기를 메아리쳤다.

《빨리 내려오오!—》

은섭은 의아해하며 그쪽을 살펴보았다. 산릉선아래에서 미현이 허겁지겁 달려올라왔다. 은섭이앞에서 잠간 숨을 톺고나서 그는 다급히 말하였다.

《리에서 오늘부터 써클련습을 한다오.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도를 현지지도하시는데 우리 리에도 오실수 있다는거요. 그래 그이께 보여드릴 공연준비도 해야 한다며 은섭형을 빨리 내려보내라는거요. 은섭형이야 한다하는 독창가수가 아니요. 어서 내려가보오.》

《아니, 그게 정말이냐?》

《회관에서 기다리고있소. 빨리 가오, 빨리!》

미현이가 등을 떠밀며 독촉했지만 은섭은 선뜻 걸음을 뗄수 없었다.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들 글쎄 나같은것을 다 그이앞에 내세우려 하다니!… 믿어주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고마와서 은섭은 눈굽이 달아올랐다기보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싶은 충동이 배가로 강렬해짐을 누를수 없었다.

×

그후 어느날이였다.

울긋불긋 단풍든 수림이 병풍처럼 둘러싼 골짜기로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불어들었다. 아득히 높아진 파란 하늘가에서는 오후의 태양이 따스하게 비쳤다. 은섭이 매일같이 방목길에 나서군 하는 소영천

동뚝길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까만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반쯤 열어놓은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그이께서는 오룡덕등판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강구시였다. 들으실수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로동의 희열에 잠겨 생을 즐기는 우아한 노래가락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로고를 잊으시고 감명깊게 감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더러 승용차를 세우라 이르시고는 친히 차에서 내리시여 계속되는 웬 청년의 노래에 심취되시였다.

…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러불러
장군님은덕에 천만년 보답하세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충성의 한마음 밭갈이 가세

방목공청년의 노래소리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멀리 산울림되였다. 장군님께서는 방목지에서 울려퍼지는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만면에 해빛같은 밝은 미소를 띠우시였다.

《저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고마워서 부르는 저 〈밭갈이노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깊은 의리감을 매우 진실하게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고 저 노래를 즐겨부르는것입니다. 어제 저녁 리예술공연에서 저 노래를 불렀더라면 참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더구나 〈밭갈이노래〉는 리내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노래가 아닙니까. 농민들앞에서 바로 저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책임비서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수행하는 군당책임비서는 그이께 정중히 대답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방목지에서 〈밭갈이노래〉를 부르는 저 동무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참신합니까. 수령님의 은덕을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저렇게 깨끗하게 부를수 있는건데 그래 저 동무는 어

제 저녁에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목소리도 좋은 동무니까 틀림없이 예술소조활동을 할것입니다.》

영천리예술소조원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군당책임비서는 저으기 당황해하며 그이의 물으심에 선뜻 대답올리지 못하였다. 그는 여러명의 수행원들속에 끼여있는 영천리 당비서에게 시선을 보냈다. 리당비서는 한걸음 나서며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올렸다.

《저 동무는 김은섭이라고 젖소방목공청년으로서 우리 부락 예술소조원입니다. 독창을 하는 동문데 어제 저녁에는 〈소방울소리〉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동무는 〈소방울소리〉도 잘 불렀지만 〈밭갈이노래〉는 더 잘 부릅니다. 노래에 있는바와 같이 수령님은덕에 천만년 보답하려는 그 마음이 심장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섭동무는 입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불렀습니다. 때문에 노래의 깊은 의미가 그렇듯 손색없이 살아난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은섭동무는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시기…》

리당비서가 이렇게 말씀올리고 뒤말을 가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슴이 무거워지실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고개를 숙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의미심장한 그의 말에 자못 신중해지셨다.

《그래 전쟁시기 어쨌다는것입니까?》

리당비서는 그저 바재이기만 하였다. 그때 그의 뒤에 서있던 도안전국 최현무부국장이 그이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말씀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은섭동무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만행한 함주군 〈치안대〉대장의 아들입니다. 역적의 자식이지만 당의 의도대로 전혀 차별받지 않고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최상의 영예까지 받아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끼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의 노래는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번에는 리당비서가 말씀드렸다. 《은

섭동무는 일에서도 매우 성실한 동무입니다. 그는 자기네와 같은 반역자의 가족까지도 다 잘살게 해주는 공화국의 시책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그 은정에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금년에도 작년처럼 숱한 먹이풀밭을 조성했는데 모두 10정보나마 됩니다.》

그러면서 리당비서는 농장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어깨를 들이미는 은섭일뿐아니라 마을에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가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이께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의 어머니도 당의 사랑과 은덕을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려고 해마다 하루의 결근도 없이 농장일에 전심하는 열성농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 자식교양에 각별히 마음쓰는 어머니입니다.》

《정말 좋은 동무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위해주고싶고 아껴주고싶은 심정이 되시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소영천 동뚝우에 서있는 수원들의 곁에서 조용히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최현무대좌의 앞에서 멈춰서시였다.

《대좌동무, 수령님께서 찾으시려는 그 〈불새〉를 알아보았습니까?》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함흥지구에 전쟁시기에는 물론 해방후부터 《불새》의 이름으로 적구투쟁을 진행한 동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있다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그와 같은 이름없는 영웅들이 많은데 《불새》는 물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영웅들도 모두 찾아내여 조국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시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찾는 사업을 중시하시면서 최현무와 같은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기도 하시였다.

함경남도안전국 최현무부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네 안전부문 일군들에게 주신 과업을 수행하려고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하고있었다. 도산하 군안전부들만아니라 다른 도들에도 찾아다니며 우선

《불새》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똑똑한 자료를 쥐지 못한 최현무는 《불새》를 알아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께 무거운 심정으로 대답올리였다.

《〈불새〉는 함주군만아니라 멀리 풍산지역에서도 활동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새〉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는데 우리 도안전국자료에는 전쟁전부터 첩자로 흡수된 김석근이를 내무원으로 의심한 적간첩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자는 김석근이와 접선한 후부터 자기한테 미행자가 붙었다면서 그를 의심했다는것이지만 김석근이 〈불새〉와 관련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김석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새〉일수 있다는 자료 말입니다?》

《그런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으시는 〈불새〉를 꼭 알아내야 합니다. 〈불새〉의 종적이 묘연하면 할수록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물방울에 우주가 비끼듯이 극히 사소한 징후에서 《불새》의 전체를 알아낼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무를 바라보시며 동무에게는 《불새》와 관련될수 있는 자그마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적간첩으로부터 김석근이 내무원으로 의심받았다는것을 상기시키시고 그 자료를 소홀히 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간첩의 의심을 단순히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적간첩이 의심한 관련자료들을 더 폭이 넓게 알아보라고 다심히 깨우쳐주시면서 그이께서는 《불새》를 비롯한 전쟁시기 싸운 이름없는 영웅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사람들이라시며 그들을 찾을수 있는 일련의 방도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현무는 물론 모든 수행원들은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더욱 뜨겁게 느끼며 그이를 우러러 바라보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실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서는 승용차가 속력을 높이는데 따라 더 빨리 뒤로 물러가는 오룡덕등판의 방목지를 내다보시며 지금도 들려오는듯 한 은섭의 노래소리를 상기하시였다. 그러실수록 죄를 지은 아버지때문에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는 은섭의 심정이 더욱 갸륵하게 여겨지시였다. 해방후에나 출생했음직한 새 세대 은섭이가 근 30여년전의 그 노래를 그토록 실감있게 부르다니, 발갈이 봄철도 아닌 가을에 젖소들을 방목하면서도 《밭갈이노래》를 부른 새 세대 은섭이가 아닌가. 자식은 그토록 우리 당을 따르는데 그러한 그에게 반역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실수록 《밭갈이노래》를 그토록 좋아했다는 은섭의 아버지가 과연 우리를 배반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지워버릴수 없으시였다.

제 2 장. 검 은 자 취

1

어느덧 동녘이 훤히 밝아오고있었다. 도안전국사무실에서 밤도와 옛날문건들을 뒤져보던 최현무는 김석근이를 의심했다는 간첩 리병화의 진술서를 다시한번 읽어보았다. 그것은 해방후에 함흥시건설사업소에 잠복해있던 간첩 리병화가 1950년 8월에 진술한 자료였다.

리병화의 진술서

…내가 김석근이를 알게 된것은 1950년 5월말이였다. 나는 망책 《두더지》의 련락임무를 받고 찾아온 김석근과 함께 함흥 사포골 선술집에서 한대포 나누면서 임무를 전달받았다. 그때 김석근이 가지고 온《두더지》의 비밀암호쪽지에는 이제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개시되면 즉시 성천강철교를 폭파하라는 과업이 적혀있었다. 《R－1》폭파작전으로 하달된 그 임무는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책임고문 크레마대좌가 직접 우리 회양 대북첩보대에 준 특별지령이라면서 전쟁이 개시되여 3일내에 수행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나는 함흥시건설트레스트에 3년전부터 침투, 잠복해있다가 드디여 활약하게 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를 일일삼추로 고대하면서 수년간 잠복해있은 나에게 있어서 《R－1》폭파작전은 쥐구멍에 해드는 날과 같은 흥분을 자아내였다. 나는 임무를 받은 그날 저녁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저녁 9시경에 흥남화학공장 잠복망원 최기택을 찾아갔다. 《R－1》폭파작전계획에 의하면 최기택으로부

터 필요한 폭발물들을 접수하고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던것이다.

최기택은 《R－1》폭파작전명령을 전달받자 구세주를 만나기라도 한것처럼 희색이 만면해하였다. 그도 나처럼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희소식에 그처럼 들떠버리는것이였다. 그러한 최기택인지라 그는 즉석에서 3일안으로 폭약과 도화선들을 입수하여 우리 집에 가져다놓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사기충천해서 장차 《R－1》로부터 《R－2》,《R－3》으로 련발될 폭파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함흥시건설트레스트 미장작업반에 한 스무살 되나마나한 애숭이청년이 새로 들어왔다. 류달리 영민해보이는 그 애숭이는 나의 조력공으로 견습받게 되였는데 합숙생인 그는 나를 무척 따랐다. 밤이건 낮이건 때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술좌석을 마련하는가 하면 제집에서처럼 자기도 하는것이였다. 나는 그를 장차 망원으로 흡수할 계책으로 남달리 살뜰하게 보살펴주었다. 물론 나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그를 허물없이 대해주었는데 뜻밖에도 바로 그 애숭이 조성학이한테서 위험을 느끼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저녁에도 나는 조성학이와 같이 한잔 나누고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문득 녀편네가 깨우는 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밖으로 나가니 최기택이 와있었다. 일전에 3일안으로 폭발물들을 가져오겠다고 장담한 최기택은 열흘나마 감감무소식이다가 구질구질 비가 내리는 그날 밤(1950년 6월 17일 밤)에야 나타났던것이다. 나는 최기택이 지고온 등짐을 받아들고 뒤울안으로 가려다가 얼핏 웃방안을 훔쳐보았다. 순간 나의 눈길은 웃방에서 자고있는줄만 알았던 애숭이 조성학의 눈길과 부딪쳤다. 내가 직감한바 몰래 보는 애숭이의 시선은 렴탐군의 눈길이 틀림없었다.

(응?…) 나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혹시 저녀석이!…)

이럴 때 웃방에서 잠에 취한 조성학의 석쉼한 음성이 들려왔다.

《형님, 이 밤중에 자지 않구 어디로 가는거요?》

《넌 잠이나 자.》

나는 짐짓 태연한 거동으로 대척하고 뒤울안으로 들어갔다. 하

지만 그 폭발물들을 최기택이한테 도로 지워 그의 집에 감춰두게 하였다.

그후부터 나는 애숭이 조성학을 은밀히 경계하면서 지난날 그와의 관계를 여러모로 음미해보았다. 그럴수록 그 애숭이는 나한테 붙은 거마리로 인정되였다. 무엇보다 조성학이 우리 직장에 입직한 리유부터 그렇게 생각되였다. 내가 3년나마 잠복해있다가 드디여 활동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때를 같이하여 그가 입직하여 나의 견습공으로 달라붙지 않았는가. 《R－1》폭파작전을 준비하게 되자 조성학이 붙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비밀이 내무원들의 귀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다면 그 통로는 누구인가? 망책 《두더지》로 보기에는 한교준의 반공기질이 너무나 투철하고 망원 최기택 역시 철저한 반공남아가 아닌가. 그러나 김석근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석근이 나타나자 애숭이가 굴러들지 않았는가?… 나는 그때부터 김석근을 의심하며 경계하였다. …

이렇게 적혀있는 리병화의 진술서는 담당내무원이 요구했었던지 그 뒤부터는 글자들이 보다 큼직큼직하게 씌여져서 한결 선명하게 보이였다.

…소낙비가 쏟아지는 어느날이였다. 그날 나는 직장에서 일찌감치 퇴근하였다. 며칠전에 최기택이 가져온 폭약을 비가 새는 허름한 창고안에 숨겨두었는데 그것이 걱정스러웠던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곧바로 창고안에 들어갔다.

한쪽구석에 아무렇게나 덮어놓은 장작개비들을 들추며 폭약마대를 찾는데 불쑥 김석근이 찾아왔다. 마당에서 나를 찾는 그를 보자 저도 모르게 흠칠 놀라 얼른 밖으로 나갔다.

김석근은 나에게 말하였다, 자기는 《두더지》가 보내서 찾아왔다고.

마당에서 조심성없이 《두더지》소리를 하는 그의 행위는 김석근이 나와 같이 숨어사는 망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바싹 긴장해졌다.

그를 웃방에 앉혀놓고 나는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녀편네더러 술상을 차리게 하고 석근이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천정에 감춰둔 권총을 꺼내였다.

양복주머니에 권총을 집어넣고 석근이와 마주앉았다.

《그래 〈두더지〉가 무슨 일로 보냈나?》

김석근은 역시 조심성이란 전혀 없었다.

《〈R－1〉작전이 어떻게 진척되는가를 알아오라는거네.》

《〈R－1〉작전이?》

《폭약이랑 다 준비되였나?》

《폭약?》

우리 집에 비밀적인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될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지껄이다니? 김석근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관념이 전혀 없이 사는자가 분명해! 이건 틀림없어!

나는 불시에 권총을 빼들고 김석근의 이마빡을 겨누었다.

《너 살고프면 사실대로 말해. 넌 내무원이지?》

순간 김석근이 어떻게나 날랬던지 눈 깜빡할 사이에 권총을 잡은 나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는데 나는 찍소리 못하고 방바닥에 너부러졌다.

이때 나의 녀편네가 주안상을 들고 웃방에 들어왔다. 김석근은 이내 나의 손목을 놓아주었지만 팔이며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선뜻 일어나지 못했다. 녀편네가 놀라와하며 나를 부축여 일궈세우려 하였다. 나는 게면쩍은김에 《석근동무는 한다하는 팔씨름군이구만.》하면서 겨우 일어나앉았다.

《이젠 주안상이 들어왔는데 놀음은 그만하구 권총을 집어넣게.》

방바닥에 떨어져있는 권총을 집어 나한테 넘겨주며 김석근이 하는 말이였다.

녀편네가 물러가자 우리는 술상에 마주앉았다.

《병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자네 이거 어찌된 일이나?》

김석근의 물음에 나는 술잔을 비우고 응수하였다.

《나한테 거마리가 붙었네. 직장에서는 자네가 왔다가자 나흘만에 나에게 새 견습공을 붙였는데 그 애숭이청년이 나를 은밀히 감시하고 있단 말이요. 이건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니 내가 그래 자네를 의심하지 않을수 있겠나?》

《내무원으로?》
《그럼!》
《아니, 이자식이 아직도 주라를 함부로 놀려?》
석근이 이 말을 다하기 바쁘게 어느새 나의 뺨을 후려갈겼다.
《야 이놈아, 나를 내무원에 비겨? 그저 빨갱이라 해두 눈에 불이 이는데 나를 개같이 하대하는 내무원에 견주다니? 나는 그자들의 버림을 받은 버러지가 되고말았어, 버러지가.》
취기가 올라서인지 김석근은 점점 사나와졌다.
나는 얻어맞은 귀뺨을 매만지며 기죽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도 거기서 보안서원이 되려다가 오히려 그자들의 요시찰인이 되였다는것을 알고있수다. 그래 앙심을 품구 우리와 손을 잡았다는것도…》
《그런데 왜 총부림까지 했어?》
《나를 만나려고 우리 집에 온 기회에 한번 검토해보려구…》
《머저리같은 자식, 내가 안병덕의 신임을 받는다는것을 몰라?》
《안병덕이라니? 그게 누군데?…》
《자식, 회양 대북첩보대산하 함흥지구 총망책도 몰라? 그가 바로 나의 동창이구 우리 학교 축구팀의 주장인 쎈타하프였어. 나는 그의 쎈타포드였구.》
《그렇소?!》
《나는 바로 그 친구때문에 내무원들의 요시찰인이 된거야. 앞으로 때가 오면 한자리 톡톡히 받아내겠어.》
《받아내나새나, 어련히 한자리 주지 않으리. 정말 부럽구만.》
《그런데 말이야, 거 한교준이 있지?》
《망책 말이나?》
《응, 그 〈두더지〉 말이야. 지금은 그가 날더러 이래라저래라 하지만 이제 때가 오면 그자도 내 발밑에 깔릴걸.》
김석근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장담하였다.
《머지않아 전쟁이 터지구 안병덕형님이 북상하면 이 김석근이야 군경찰서장쯤은 문제없지.》
《그렇게 되면 나도 한자리 주오다.》
《병화를? 그래그래, 한자리 주지. 그때 가서 제기하라구, 응? 그

때가서 말이야.》

《이거 정말 고맙수.》

나는 석근의 잔에 또 술을 따랐다. 김석근은 남실거리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주욱 비웠다.

《카— 헌데 말이야, 〈R—1〉작전은 제대로 돼가겠지?》

《애숭이녀석이 붙었지만 나를 찜쪄먹을수야 없지. 〈두더지〉를 찾아가서 〈R—1〉작전은 념려말라구 전하오.》

《그러지. 그런데 〈두더지〉를 한번 만나자면 적어도 뒤서너번은 공걸음해야 하거던. 비겁하게스리 하루가 멀다하게 접선장소를 변경시키니 이거야 어디 피곤해서 해먹겠나. 어제는 흥남이라면 오늘은 함흥이다는 식이거던. 그의 거처지를 알면 곧바로 찾아가겠는데 자넨 〈두더지〉의 진짜소굴을 모르나?》

《우리같은 하바닥새 망원들은 모르오. 그저 자네같은 그의 련락병이나 만나는게 고작이지.》

《음, 그래? 내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나? 그런데 내 이전의 련락병은 누구였나?》

《〈팽이〉였지, 〈팽이〉. 반룡구역체신소 우편배달부 박창길이였네.》

《이젠 내가 련락원이 되였으니까 박창길이보다 나를 더 믿는다 그거구만, 응? 괜찮아. 〈두더지〉와 손잡고 일할만도 해!》

그후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R—1》폭파작전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개시 3일내에 폭파하게 된 《R—1》작전을 제 기일내에 수행하지 않았다. 애숭이 조성학을 거마리로 인정한 우리는 《R—1》폭파작전비밀을 알고있을것만 같은 내무원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예정기일보다 한달나마 늦잡아 1950년 8월 6일에 개시하였다.

성천강철교를 폭파하려고 나는 최기택이와 함께 동쪽경비초소로 접근하였다. 보초소안에 있는 철교경비대원을 살해하려고 뛰여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부터 잠복해있은듯 한 세명의 내무원들한테 그만 체포되고말았던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실패하고말았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뇌이고있

는데 과연 나의 이 예감이 전혀 무근거한것이겠는가?

김석근이 제아무리 안병덕의 신임을 받는다 어쩐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체포되고보니 그 의혹을 정말 누를수 없다. …

최현무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머리를 수긋하고 방안을 조용히 거니는 그의 머리속에서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갈마들었다. 간첩 리병화의 예감이 근거있는것이라면 한교준의 련락간첩 김석근은 우리 사람이라는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후 제2차 성천강철교폭파사건때에는 김석근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는가?…

함주군내무서로부터 성천강철교 제2차 폭파작전날자를 예고받은 도내무서는 1950년 8월 17일에 해당한 내무원들을 현지에 잠복시켰다. 그때 도내무국에서 근무한 나어린 최현무특무상사는 다른 두명의 내무원들과 함께 성천강철교 동쪽초소결에 잠복해있었다. 강 서쪽보초소주변에는 함주군 내무원들이 담당하고있었다.

동쪽보초소 가까이 동뚝밑에 숨어있은 현무네들은 잡초들이 우거진 풀밭에서 모기들이 어찌나 기승을 부리는지 잠시도 가만있을수 없었다. 왼쪽뺨을 때려 모기잡이를 하면 벌써 오른쪽뺨에서 살점을 물어뜯는 판이였다. 너무나 급해서 모래흙을 긁어 얼굴에 마구 비벼대는 속에서 이틀밤을 보내는데 총성은 서쪽보초소에서 터지였다. 그쪽을 기습한 적들은 함주군 내무원들에게 격멸소탕되였지만 그때 체포된 간첩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작전을 지휘한 《두더지》한교준과 김석근이를 놓쳤다는것이 판명되였다. 하지만 도내무국은 해첩들이 기여들군 하는 신포에서 새 정황이 제기되는 바람에 《두더지》건에서 손을 떼고 그 일을 함주군내무서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진행하는 바람에 함주군내무서에서《두더지》한교준과 김석근의 체포작전을 단락짓지 못했던것이다. 그래 석근이도 우리 손에서 벗어나 군경찰서장 (군《치안대》대장)까지 했는데?… 그러한 그를 간첩 리병화가 우리 사람으로 의심했다니?… 최현무는 방안을 거닐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젓다가 우뚝 멈춰섰다.

(가만, 리병화에게 거마리로 붙었다는 애숭이 조성학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조성학이 우리가 파견한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 김석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것을 알아낼수 있지 않을가싶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도내무국에서 근무한 최현무자신은 조성학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낼수 없었다. 혹시 함주군내무서에서 파견한 내무원이 아닐가 하는 생각에 그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함주군안전부장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그도 조성학이라는 사람을 모르고있었다. 그렇지만 군안전부장은 전쟁전부터 근무한 오랜 일군들에게 물어 알아보겠노라 하였다. 송수화기를 놓은 최현무는 조성학이와 관련한 자료가 더 없을가 해서 물날은 옛날문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눈여겨보았다.

어느덧 오전해는 하늘중천에 높이 솟아올랐다.

정오가 가까와오는무렵에 문득 출입문이 똑똑 울리였다.

《예― 들어오시오.》

뒤이어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함주군안전부장이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은 그는 아침에 현무의 전화를 받고 조성학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자기네 감찰과장인 주창섭이 바로 조성학이였다고 하였다. 그때 주창섭은 전쟁시기 희생된 함주군내무서장 김국성의 지시에 따라 조성학이라는 가명으로 간첩 리병화에게 접근한적이 있지만 자기 역시 김석근을 첩자로 알고있다는것이였다.

《음, 그렇습니까.》

현무는 저으기 실망하였다.

《하지만 부국장동무.》

함주군안전부장은 서류가방속에서 오래된 자그마한 글쪽지들을 꺼내놓았다. 전부《불새》의 이름으로 보고한 비밀쪽지들이였다. 1949년 10월 5일로 밝힌 글쪽지에는 흥남제약공장 로동자 함병구와 함흥사진관 로두섭, 함주군 고양리 조매월들이 잠복간첩이라는것이 적혀있었고 1950년 6월 2일에 보낸 비밀쪽지에는 함흥시건설사업소 미장공 리병화와 화학공장 자재인수원 최기택은 《R―1》성천강철교폭파임무를 받은 잠복간첩들이라고 밝혀져있었다. 다른 몇개의 비밀쪽지들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였다.

《그런데 부국장동무.》 함주군안전부장은 최현무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불새〉는 이렇듯 숱한 간첩들을 들춰냈지만 그자들과 함께

책동한 김석근의 이름만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어는 〈R－1〉 작전에까지 참가한 석근인데 그 〈불새〉가 김석근의 정체를 몰랐다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현무 역시 동감으로 고개를 끄덕이였지만 선뜻 응수하지 않았다.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는 그의 뇌리에서는 지난밤에 보았던 리병화의 진술서가 상기되였다. 김석근이를 의심한 리병화의 진술서는 그가 《불새》일수 있다는 예감을 더하여주었다.

이윽고 최현무는 천천히 말하였다.

《그런데 〈불새〉의 비밀쪽지를 받군 한 사람이 있었겠는데 그게 누구인지? 그를 알아낼수는 없습니까?》

《그 어느 문건에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

최현무부국장은 여러모로 속생각을 굴리였다. 《불새》는 분명 자기와 련결된 비밀통로를 가지고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것은 《불새》뿐아니라 그와 내통한 관련인자신도 깊숙이 은페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럴수록 비밀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영원한 비밀로 묻혀있게 되였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그들모두가 잘못된것은 아닌지?… 현무는 낯색을 흐리고 잠자코 있다가 함주군안전부장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만일 김석근이 〈두더지〉의 첩자라면 그 〈불새〉의 시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을것입니다. 〈불새〉의 비밀쪽지에 응당 김석근이 간첩으로 적혀있어야겠는데 그의 이름이 없다는것은 그 〈불새〉가 바로 김석근자신인 경우에 있을수 있는 현상이라고 믿고싶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예측을 뒤집어놓을수 있는 반증선들이 결코 허약하지는 않으나 그 〈불새〉를 김석근으로 가정하고 알아보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함주군안전부장도 머리를 주억거렸다.

《저도 그런 각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2

가을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있었다. 최현무대좌는 은섭이네 집 토방에 걸터앉아서 그의 어머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먼 산속으로 방목을 나간 아들은 말할것도 없고 가까운 영천벌에서 벼가을을 한다는 어머니마저 어둠이 깃들어야 일손을 걷는 모양이였다. 매일같이 그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그들모자의 수고가 헤아려진 최현무는 죄지은 사람의 가족이여서 더욱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들에게 군《치안대》대장과 같은 역적이 있다는것이 못내 가슴아팠다. 그는《밭갈이노래》를 즐겨부르는 은섭이네들에게 지금 알려진 김석근이와 같은 역적이 아니라 애국적인 김석근이 있어주기를 원했다.

그럴수록 간첩 리병화가 의심한 김석근이 적기관에서 활동한 《불새》가 아닐가 하는 의혹이 한결 깊이 갈마들었다. 그는 《불새》를 더 빨리 찾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토방에서 일어났다. 은섭이 어머니를 찾아 논벌로 나가려는데 삐거덕 쪽대문이 열렸다.

머리에 물날은 수수한 수건을 쓴 녀인이 들어왔다. 손에 낫을 든 그가 바로 최현무가 찾아온 양혜심이였다. 영천벌에서 벼가을을 하던 혜심은 집에서 웬 안전원이 찾아와 기다린다는 바람에 일손을 걷고 전에 없이 일찌기 들어온것이였다.

그는 낯선 최현무대좌를 은연중 두려움이 깃든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최현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주머니,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최현무라고 도안전국에서 부국장으로 일합니다.》

너무나 의외의 일에 혜심은 길다란 속눈섭을 치켜뜨며 더욱 어리둥절해하였다.

《우리 집에요?》

아직도 자기 귀를 의심하는듯 한 혜심에게 최현무는 한결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어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은섭이가 부른 노래소리를 들으신 사연이며 그후 리당일군을 통하여 해방직후 토지개혁당시 은섭이 아버지가 《밭갈이노래》를 즐겨불렀다는 사실까지 친히 료해하신데 대해서 그는 상세히 말하였다.

《아주머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제 우리 일군들에게 또다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름모르는 영웅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찾는 사업을 계속 내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 집 주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토지개혁을 그처럼 기뻐하였고 또 보안서원까지 되려고 한 은섭이 아버지가 우리를 배반했다니 정말 모를 일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해방전 생활이라든가 그의 계급적토대 등 어느모로 보나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아닐수 있다고 보고계십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함흥지구에도 해방후부터 전쟁시기까지 누구도 모르게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조금이라도 짐작이 가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글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우리 주인같은 사람까지 알아보라고…》

혜심은 종내 말끝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북받치는 뜨거운 눈물에 어깨를 떨었다. 진정할래야 진정할수 없는 격정에 그는 울음을 머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렇게 믿어주시니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반역의 길을 걸은 그 죄를 어떻게 씻겠나요. 가슴이 터져요!》

혜심은 《호-》한숨을 내긋고 맥없이 토방에 앉았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해방후에 〈밭갈이노래〉를 그처럼 좋아한 은섭이 아버지를 어찌 그렇게만 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장군님의 은덕을 잊지 않구 보답하려고 노력한 은섭이 아버지가 아니였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반을 모른다는 말도 있는데 은섭이 아버지야말로 장군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머니?》
《사실 우리 주인은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저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떨쳐나서게 했습니다.》
그때를 더듬으며 양혜심은 조용조용 말을 이었다.

…해방후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그해 봄이였다.
그날도 김석근은 새벽닭이 홰를 치며 다긎는 소리에 일손을 잡았다. 퇴비장에서 지게에 거름을 듬뿍 담아지고 분여지로 나가는 그의 마음은 흥그러웠다. 잔등에서 김을 날리는 시크무레한 거름냄새는 이해의 풍년작황을 속삭이는듯 하였고 새벽어스름속에서 손저어 부르는듯 한 분여틀은 분에 넘치는 행복한 생활을 기약해주고있었다. 한뙈기의 땅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천덕꾸러기 김봉구의 자식이 땅의 주인으로 어엿한 농부가 되지 않았는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그 은혜, 그 은정을 가슴에 새길수록 분여지를 더 잘 걸구고싶은 마음이였다. 김석근은 부지런히 거름을 날랐다.
어느덧 동녘이 훤히 밝아왔다. 벌써 일곱번째 거름짐을 나르며 그는 마을길에 나섰다. 철철 땀을 흘리며 갈림길에 들어서던 그는 장돌뱅이 고상팔부부와 마주쳤다. 키가 작달막하고 딱 바그라지게 생긴 젊은 고상팔은 가슴노리에 겨우 자기 머리가 닿는 키가 꺽두룩한 안해를 달고 나섰다. 그들은 저마끔 일제시기 어물장사를 하던 물고기지게와 함지를 지고이고 하였다. 오늘 새벽에도 일찌감치 서호부두로 물고기를 받으러 가는 차림새였다. 김석근은 그들을 멈춰세우고 길가에 거름지게를 벗어놓았다.
《형님은 지금도 어물장사를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찌겠나, 배운게 그겐걸.》
《형님, 금년에는 토지도 분여받지 않았나요. 이젠 착실히 농사를 짓자요.》
《아무렴, 그래야지. 하지만 금년엔 글렀어.》
《글렀다니요, 왜요?》
《음… 난 자네처럼 힘꼴을 쓰지 못해. 그런데다 소가 있길 하나 달구지가 있길 하나. 무슨 수로 거름을 나르고 논을 갈겠나. 그래 금년

한헨 물고기장사나 해서 소나 한필 장만할가 한다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그의 안해가 코방귀를 놓았다.
《흥, 소를 장만해? 술독에나 빠지지 말았으면…》
《쯔쯔쯔, 아무데서나 투정질이야?》
고상팔은 감때사납게 눈을 찔 갈겼다. 오늘 새벽에도 억지다짐으로 안해를 끌고나온 모양이였다.
원래 그는 술밖에 모르는 알건달이였다. 해방전에는 선친들이 물려준 서너마지기 되나마나한 땅까지 팔아버리며 술집에 찾아다닌 고상팔이였다. 집일은 전부 안해한테 떠맡기고 줄창 나돌아다니다가 용돈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서호부두로 찾아가는것이였다. 가정살림은 이를데없이 구차하였다. 올망졸망한 3남매를 거느린 그의 안해는 삯김이며 삯빨래 같은 품팔이를 하다못해 쪽박을 차고 문전구걸에 나서는 일이 뜨문하였다.
손끝에 흙이 묻는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주정뱅이 고상팔에게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땅을 주시였다.
그때 고상팔은 분여말뚝을 부여안고 얼마나 오래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가. 한낱 다모토리집밖에 모르는 자기같은 술망나니마저 농사군으로 믿어주시며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던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다고… 그는 세상에 다시한번 농사군으로 태여난듯한 감격에 목이 메여 얼마나 비상한 결심을 가졌던가. 장군님께서 되찾아주신 참된 농부의 자격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고상팔은 맹세했었다.
그날부터 그는 땅과 친숙해지려고 무진애를 썼다. 쇠스랑이로 눅진눅진한 이랑도 찍어보고 뜨락의 퇴비무지도 헤쳐보았다. 다년간 모르고 산 습습한 흙냄새는 좀처럼 정다와지지 않으며 때때로 다모토리의 시큼털털한 향취를 못 견디게 하였다. 저도 모르게 골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퀘퀘한 진거름냄새는 한잔 마시고싶은 욕망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부추기였다. 그는 하루해를 간신히 지탱하고나서 《이번은 정말 마지막이다.》하고 속다짐하며 외딴집 다모토리에 입술을 맞추었다. 취기는 그로 하여금 어방없는 거인으로 변장시키며 절대적인 쾌감을 자아내였다. 마시며 졸며 하면서 밤을 팬 그는 그자신도 다잡을수없이 다리를 꼬며 거름짐을 지였다. 억지로 하는 로동은

그에게 무쌍한 고역이였다. 자연 길가에 멈춰서게 되고 아직도 게슴츠레한 그의 눈길은 벌써 다모토리의 딴집에 매달려있었다. 《참, 내가 해장술을 안했구만.》 하는 구실이 너무나 신통하여 고상팔은 무릎까지 딱 치고 얼른 지게를 벗어버렸다. 계속되는 술잔, 취기에 빠져버린 무아몽중의 나날들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다시 이어지군 하는것이였다.

오늘도 그는 다모토리 외딴집과 결별할수 없어 거기에 밀어넣을 밑천을 장만하려고 물고기를 받으러 가는 길이였다.

《형님, 좀 생각해보우.》 김석근은 그에게 안타까운 어조로 말하였다. 《형님이 이렇게 일손을 놓으면 아까운 포전이 묵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땅이요, 예?—》

《글쎄 나두 잊지 않고있다니까. 그렇지만…》

《형님, 그러지 말구 우리 농사를 잘 지어서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자요. 사람이란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주보는 그의 절절한 눈길을 피하면서도 고상팔은 집요하게 변명하였다.

《이 사람 석근이, 나두 농사를 잘 짓자구 소를 장만하자는거라니까.》

《정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어서 돌아가자요. 거름도 날라주고 논도 내가 갈아드릴테니 형님은 제발 이 놀음을 그만두우.》 김석근은 그의 팔목을 잡았다. 《저 거름짐부터 형님네 논에 내겠으니 우리 힘을 합쳐서 땅을 가꾸자요.》

김석근은 그의 팔목을 잡아끌며 벗어놓은 거름지게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억센 손아귀에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고상팔은 앙탈을 부렸다.

《아니, 이걸 놔. 글쎄 놓으라니까.》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장군님의 은정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주머니도 어서 들어갑시다.》

《정말 고마워요.》

너럭함지를 이고 장대같이 서있던 그의 안해는 소리없이 눈굽을 훔치며 따라섰다. 그날부터 김석근은 고상팔부부를 이끌며 그네들의 영농준비부터 다그쳤다. 퇴비를 반출하고 논갈이를 서둘러 씨붙임에 달

라붙었던것이였다.

고상팔이 억지로 한해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철에 낟알을 걷어들이고보니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되였다. 웃방에 하나가득 쌀가마니들을 쌓아놓고있으니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없어졌다. 눈보라이는 한겨울에 그 머나먼 서호에 가서 동태짐을 지고 어물장사에 발바닥이 부르트군 한 고역도 면했겠다, 쩍하면 이웃집 솟을대문을 두드리며 끼니쌀을 꾸러 다니던 안해의 구걸걸음도 없어지니 정말 인제야 사람답게 사는듯 하였다. 고상팔은 저도 모르게 종종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군 했는데 바로 김석근이 즐겨부르던 《밭갈이노래》를 그처럼 흥겹게 부르군 했던것이다. 논이나 밭갈이할적에는 물론 모내기며 김매기, 가을걷이할적에도 곁에서 함께 일하군 한 김석근이한테서 너무나 듣고 들어온 노래여서 이제는 고상팔이 자신도 석근이처럼 그 노래를 저절로 부르게 되는것이였다.

이듬해 한겨울 이른새벽이였다. 고상팔은 큼직한 삼태기를 들고 개똥 주으러 다니면서도 흥얼흥얼 코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다. 지난날에는 남몰래 투전집을 찾으려고 골목골목을 도적고양이마냥 쏘다녔지만 지금은 얼어붙은 산분을 찾아 온 동네를 메주밟듯 하는것이였다.

그러기를 2년, 그해 겨울에도 고상팔은 매일같이 안해의 품에서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 산분을 줏군 했는데 그럴 때면 늘 석근이와 마주치군 하였다. 김석근이 역시 개똥삼태기를 들고다녔다.

《이보게 석근이, 임자덕에 이 고상팔이도 이젠 사람구실을 하게 되였는데 옛날처럼 그저 무소속으로 있을수야 없지 않나.》 새벽보름달이 환한 길가에서 개똥을 주으며 고상팔이 신이 나서 하는 말이였다. 《지난해에는 문맹까지 퇴치했겠다, 내라구 왜 입당하지 못하겠나.》

《…》

《자넨 로동당에 들겠지?》

《그런데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아니, 임자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상팔형님은 꼭 로동당원이 되여야 합니다.》

《음, 자네 말이라면…》

고상팔은 머리를 주억거렸다. …

후날 고상팔은 석근이 깨우쳐준대로 로동당원이 되려고 성실히 일했을뿐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에서 맨 선참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고 혜심은 말하였다.

《그때의 우리 주인을 생각하면 저도 은섭이 아버지를 우리 사람으로 믿고싶어요. 그렇지만…》

《아주머니, 지금 우리들이 알아낸 옛날자료들도 이 집 주인이 좋은 사람일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데 아주머니는 혹시 집주인이 전쟁전이나 전쟁시기 함주군내무서 사람들과 만나는것을 본적 없습니까?》

《저자신부터 군내무서일군들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일겝니다. 해방후에 우리 주인은 보안서원이 되려다가 못된 다음부터 군보안서사람들과 앙숙을 져서 점점 엇서나갔습니다.》

《엇서나가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혜심은 대답하기조차 괴로운듯 한동안 침침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나직이 말을 떼였다.

《땅을 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을 그렇게도 고맙게 여기던 그가 점차 난구집아바이와 무릎을 마주하고 남반부에 도주한 동창생들이 어떻소 하며 아무 말이나 거림낌없이 망탕하더니 나중에는 불순분자들이 분명한 외지사람들과 휩쓸려다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들과 손잡고 남의 눈을 피해가며 못할 일을 하는것 같더니 종내 인민군대 탄원도 기피하고…》

혜심의 음성은 한결 괴롭게 울리였다.

갈 림 길

조국은 뜻밖에도 참으로 엄중한 시련의 고비를 겪게 되였다. 물론 혜심이자신은 일시적인 난관이라고 굳이 믿고있었지만 모든것이 북쪽으로 향하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전경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였다. 예나 다름없이 전쟁승리를 위하여 너도나도 가을걷이 다긎던 농민들이 포전마다 누렇게 무르익은 곡식들을 내쳐두고 손때절은 옥답과 웃음넘치던 정든 집들을 뒤에 두고 떠나가버리는것이였다.

여기저기서 찌그덕거리는 아츠러운 달구지소리, 걸음을 재촉하며 아이들을 다긎는 녀인들의 덤비는 목소리들로 적막하던 촌락의 행길들이 여지없이 부산스러워졌다.

해안가까이 밀려든 적들의 둔중한 함포소리며 상공에서 때없이 폭발하는 놈들의 조명탄들은 북으로 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었다. 벌에서 숨가쁘게 달려들어온 혜심은 남보다 뒤늦은 후퇴길에 오르려고 거의 정신없이 쪽대문을 열었다.

《여보, 당신은 왜 그러고있어요? 다들 후퇴를 하는데…》

남편은 외계의 소요와는 담벽을 쌓고 마당 한쪽구석에 살구나무묘목을 한대 심고있었다.

땅속에 뿌리를 묻고 발로 꾹꾹 눌러 다지는 그에게 혜심은 어서 후퇴하자고 재촉했지만 남편은 들은척도 안했다.

《정 그렇다면…》

혜심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혼자서라도 인민군대를 따라가리라 마음먹고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장농안에서 귀중품함을 꺼내여 공민증부터 찾았는데 하얀 미농지에 싸서 보관했던 공민증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농짝안의 의복가지들을 들추며 공민증을 찾는데 남편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뭘 찾소?》

《공민증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건 찾지 마오. 내가 치웠소.》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아래목에 눕혀놓은 은섭이를 안았다.

《어디다 치웠어요? 이리 줘요.》

《뭘 하려구?》

《글쎄 줘요.》

《이젠 그게 필요없어.》

《네?— 그럼 당신은?…》

인민군대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한다고 해서 공화국이 아주 없

어지는것처럼 여기는 남편을 혜심은 공포와 전률에 휩싸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 태연자약하였다.

《이젠 딴세상이 되오.》

《그래 아주 없앴나요?》

남편은 그 물음에 담긴 무서운 의미를 전혀 모르는것처럼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였다.

《어마나?—》 혜심은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공민증을 없애다니?》

새삶의 생존과 존엄을 담보해주는 공화국을 저버리다니?

《아니, 그럴수 없어요. 공민증을 일시 다른 곳에 보관했겠지요, 네? 여보?》

그래주었으면 하는 안해의 절절한 얼굴을 바라보며 남편은 골살을 찌프리고 묵묵히 서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주 없앤건 아니지요, 네?》

남편은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어째서인지 평소의 그답지 않게 버럭 화를 내였다.

《제발 그만하오!》

그리고 방안에서 나가려고 휙 돌아섰다. 혜심은 다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여보, 우리 공민증을 가지고 공화국을 따라가자요. 인민군대를 따라가자요. 비록 공민된 도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더러워진 량심을 씻어보자요.》

《인민군대를?… 내가 이제 어떻게 인민군대를 따라가겠소. 기왕 내친 걸음인데… 그럭저럭 살아가느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혜심은 울음머금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나라도 떠나겠어요. 나에게는 당신의 사랑보다 인간의 도리와 량심이 더 귀중해요. 애기를 줘요.》

혜심이 손을 내밀었다.

《여보!》 남편은 혜심의 손목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안되오! 나에게는 당신이 귀중하오!》

《손을 놓아요!》

《여보!》

애절한 남편의 호소가 오히려 혜심이로 하여금 자제할수 없게 하였다.
《당신은 변절자예요.》
《어쨌든 못 가오.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요!》
억센 그의 손아귀에서 혜심은 종내 빠져나갈수 없었다. 그리하여 괴롭고 안타까운 눈물로 항변을 터뜨리며 그는 방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시각에 인생의 갈림길에 직면한 남편의 운명은 깊어지는 밤과 더불어 시시각각으로 심각해졌다. 벽가에 걸린 괘종이 뗑뗑… 12시를 알린 이후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적들의 조명탄광선에 환히 드러난 거뭇한 형체는 혜심이 전혀 예견치 못했던 지용수의 모습이였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성급히 남편을 찾았다.
《석근이 있나?》
안해로부터 야기된 가정불화에 침통하게 앉아있던 남편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것처럼 헤덤비며 반가와하였다. 그는 자리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며 내심의 기쁨을 조금도 감추지 않는 격정에 가까운 환성을 질렀다.
《용수군, 자네가 왔구만, 응? 자네가!…》 남편은 그의 손을 감개무량하게 잡아 이끌어앉히고 혜심에게 흥분되여 일렀다. 《여보, 어서 술상을!…》
한뉘 과묵하고 침울한 기분일것 같던 남편은 혜심이 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생기와 그런 활력에 휩싸여버리는것이였다.
《술상을?… 여보, 지금이 어느때라구 술상인가.》
지용수가 비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강요하였다.
《어서 신발을 신게, 어서!》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용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후퇴를 하자나?》
《후퇴를? 어디로? 아니, 우리가 왜 후퇴한단 말인가, 응? 우리 세상이 왔는데…》
그 바람에 양혜심은 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보았다. 악의 섬광이 번뜩이는 눈길이였다. 잔인한 복수를 노리는 사나운 기상이였다.
《여보게 석근이, 자네도 공화국치하에서 의심을 받으며 기를 못폈지. 이젠 우리 사자팀의 용맹을 떨치세!》

남편은 더욱 의아해하였다.

《왜 그렇게 멍청해있나? 지금 빨갱이녀석들이 눈이 뒤집혀 도망치고있는데 그놈들을 그저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나. 우리두 원산 양호단패처럼 〈치안대〉를 뭇고 빨갱이들을 잡잔 말이야.》

《그럼 날더러 사람잡이하란 말인가?》

웅글은 남편의 목소리에 지용수는 버럭 화를 내였다.

《에끼, 이 사람? 빨갱이도 사람인가?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들이지.》 지용수는 자기도 림업성에서 온갖 수모를 받으며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탄원을 기피하고 원산 처가집에 가서 은신을 하고있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다면서 그는 석근이를 부추겼다. 《이 사람 석근이, 미군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들앞에서 인정받아야 할게 아닌가. 지금부터 활약해서 공로를 세워야 미군이 좋아한단 말이네.》

《공로를?…》

《어서 신발을 신게. 우리도 출세해야 할게 아닌가.》

지용수는 석근의 등을 밀며 독촉하였다. 김석근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근심어린 어조로 대척하였다.

《우리가 출세하자면 미군한테 잘 뵈여야 할건 뻔하지만 그러나 그 일만은 좀 생각해봐야겠네.》

남편은 끝내 응해나서지 않았다.

《이런 밥통같은 친구라구야, 쯧쯧쯧…》

지용수는 혀를 차고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밖에서는 적기들이 더 아츠럽게 하늘을 썰며 야수적인 폭격을 가했고 후퇴길에 오른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소리들은 점점 다급하게 울리였다.

컴컴한 방안에 앉아서 뻐금뻐금 담배질만 하는 남편의 입에서는 땅이 꺼질듯 한 한숨소리만 높아졌다. 이제라도 인민군대를 따라가자고 혜심이 그토록 간절히 애원했지만 남편은 들은척도 안했다.

어둠속에서 타는 담배불이 뻥긋거리는데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의 고뇌어린 표정에 혜심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할 걸음이 현실적으로 예감되면서 혜심이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리게 하는것이였다.

3

사 자 입 묵

적들이 함흥지구를 강점한 이튿날 아침이였다. 피빛으로 얼룩진 동녘하늘가에 멍이 든 살점같은 구름쪼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져있었다. 매봉산너머에서 신음하며 솟아오르는듯 한 둥근해도 전에없이 음산해 보이였다. 풍요한 가을철로 어데 가나 생기롭던 전야에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김석근은 강물까지 살벌하게 출렁거리는 성천강동뚝을 따라 함흥으로 올라가고있었다. 지용수와 함께 《함흥시북한공사》로 찾아가는 걸음이였다.

일시적강점시기 적들이 조직한 《함흥시북한공사》는 《유엔군사령부》정보국 한국인공작반에 소속되여 함흥지구 비밀경찰(《C. I. C.》)임무를 수행하였다. 약 30여명의 기본성원에 수많은 밀정을 둔 함흥지구 《C. I. C.》책임자가 바로 석근의 동창이며 영생중학교 축구팀의 주장이였던 안병덕이였다.

그는 어제 지용수로부터 인민군대도 기피하고 후퇴도 하지 않은 석근이 소식을 들었었다. 자상히 알아볼수록 석근이는 의심할바 없는 반공성원이였다. 비록 두해 하급생이긴 하지만 축구팀의 한다하는 공격수인 김석근이를 어찌 안병덕이 믿지 못하랴. 기질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남달리 용맹스럽고 강의한 그를 《C. I. C.》에 흡수할 목적하에 안병덕은 석근이를 급히 호출했던것이였다.

시내복판에 틀고앉은 《함흥시북한공사》에 들어선 김석근은 어마어마하게 꾸려놓은 너렁청한 사무실에서 안병덕이와 5년만에 상봉하였다. 옛 상급생이며 막역했던 축구동료를 깍듯이 존대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그는 안병덕의 꿋꿋한 눈살에 은연중 몸이 굳어지며 저으기 위압되였다.

《석근이 이 사람, 자넨 지금 영생중학교때 축구친구를 만나는게 아니라 함흥지구 〈C. I. C.〉공작실에서 대장의 검토를 받는다는걸

알아야 해. 그래 자넨 왜 공산치하에서 보안서원이 되려 했나?》
《출세를 할가 해서였네.》
안병덕은 그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챘다.
《석근이! 우선 말투부터 고쳐. 여긴 축구장이 아니라 〈C. I. C.〉 대장방이야.》
중키의 다부진 체구에 짝지발모양으로 치째진 꼬리눈의 독기어린 사나운 그 시선에 김석근은 가슴이 선뜩하였다. 이제 그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석근은 어제 지용수한테서 들어 보다 깊이 알고있는 병덕의 경력이 상기되였다.
가명 안호영(안병덕)은 1925년 3월 4일생이였다. 함흥시 성천동 출신으로서 부친 안상철의 둘째아들이였다. 아버지가 개인병원을 경영하여 부유하게 사는 바람에 안병덕은 함흥영생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연희전문학교까지 다녔었다.
미국선교사 윌리암 스코트가 경영한 함흥영생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실존주의철학을 숭배한 안병덕은 새 모자도 째서 쓰군 한 축구망나니였다. 무서운 싸움군인 그는 폭주를 즐겨했고 방탕한 생활에 물젖었다. 광신적인 색정으로 서울연희전문학교에서 스스로 퇴학하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해방직전까지 개인병원을 경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환자들을 치료함메 하면서 녀자장난만 일삼았다.
해방후에 안병덕은 시내와 주변농촌 불량배들을 규합하여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1946년도 함흥학생소동을 주모하였다. 그후 월남도주한 그는 1948년도에 벌써 남조선《대한청년단》중앙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때 그는 북출신 월남자들로 조직된 간첩테로단체인 대북첩보단의 단장 장도영에게 흡수되였다.
평북도출신 장도영은 미군정청 국방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이였던 죤 무쵸가 첩보테로단을 조직할 때 그에게 반공투사로 한생을 바치겠다고 맹약한 악질주구이다. 그의 충견이 된 안병덕은 장도영의 소개로 괴뢰국무총리 리범석이 총지휘하는 《북송첩보대》에 흡수되였다. 안병덕은 미극동군 맥아더사령부의 정보국장 월로우비가 조작한 《미극동사령부 (G—2)》소속 《남조선련락사무소(K. L. O.)》제주도훈련소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 그후 38도선부근에 파견되여 대북침투 간첩공작반에서 임무를 받고 함흥, 원산지구에 침투하군 했었다. 도시

와 농촌, 어촌들에서 파괴암해공작을 하며 애국자들을 테로, 학살한 안병덕은 그 《공로》로 하여 동부지구 대북침투 간첩공작반에서 함흥지구 망책으로 맹활약하였다.

미군이 북반부를 침공하게 되자 안병덕은 스스로 스승으로 섬기는 옛 함흥시 영생중학교 경영자인 스코트를 찾아갔다. 그에게 함흥시 경찰서장의 자리를 달라며 《빨갱이숙청》에서 백골, 화랑도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노라고 맹약하였다. 스코트 《선교사》는 고향친구인 크레마대좌와 모의하고 안병덕을 장도영의 대북첩보대에서 소환하여 함흥시 《대한청년단》단장의 면사포를 쓴 함흥지구 《C. I. C.》 대장으로 출세시켰다.

안병덕은 함흥시에 기여들자 옛 중학교동료들과 함흥학생소동때의 반공투사들로 《C. I. C.》첩자들을 규합하였다. 워낙 조폭하고 잔인한 기질인데다가 권력까지 틀어쥔 그에게서 이제 무슨 놀음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다. 약간이라도 제 비위에 거슬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수 있는 악당이라는것을 김석근이도 잘 알고있었다. 그는 급기야 태도를 바꾸었다.

《대장님, 공산치하에서 나는 요시찰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미국선교사님이 경영한 함흥영생중학교출신이라는것과 함흥학생소동의 주모자인 대장님과 친분관계를 맺은것이 원인이였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버림받고 짓밟힌 나는 황소처럼 일만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월남하지 않았어?》

《안해를 끌고 38도선을 넘을수 없어서…》

《음, 자네가 애처가란건 알고있어.》

안병덕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럼 우리가 올걸 고대했어?》

《그에 대해선 지용수도 보증할수 있지만 보다는 한교준이 더 잘 압니다. 대장님은 제가 한교준이와 손잡고 어떻게 싸웠다는걸 모릅니까?》

《묻는 말이나 대답해. 그래 한교준이와 언제부터 손을 잡았지?》

《1948년도부터 대장님의 소개신을 받고 그와 손을 잡고 활동했지만 한교준이 나를 정식으로 자기 망에 흡수한것은 지난 7월초였습니다.》

《음, 오래동안 검토했구만.》

안병덕은 그러한 한교준이 미더웠던지 혼자소리로 《괜찮아.》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안병덕이 《대북첩보대》동부지구 간첩공작반에서 함흥지구담당 총망책으로 활약할 때 한교준은 그의 수하 B조망책으로 신임받고있었다.

해방후부터 함흥기관구 수리공으로 침투, 잠복해있으면서 흥남비료공장 인수원으로 둔갑하군 한 한교준은 어느날 련락간첩이 전해준 안병덕의 소개신을 가지고 석근이를 찾아왔다. 그것이 1948년 5월 난구집에서 만난 첫 접선인데 그때부터 김석근이 그와 손을 잡게 되였다. 그러나 조심성 많고 교활한 교준은 그후 안병덕이 다시한번 보증하며 석근이를 흡수하라고 했지만 그를 자기 망에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다른 망원들에게 암호화된 비밀편지를 전달하는것과 같은 단순하고 안전한 심부름을 시키면서 오래동안 검토하였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후인 1950년 7월에 석근이를 정식 자기 망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날로부터 두달 되나마나한 후퇴직전에 꼬리를 감추었던것이다. 하지만 지금쯤은 다시 나타났을 한교준이를 안병덕이 어찌 신임하지 않으랴. 그래 김석근은 교준이와 자기 관계를 안병덕이 더 깊이 상기하며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안병덕은 더 묻지 않고 마치 석근이의 머리통을 다시한번 투시해보기라도 하는것처럼 한동안 묵묵히 쏘아보기만 하였다.

이윽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뚜벅뚜벅 걸어 석근이 앞에 다가선 안병덕은 입술에 힘을 주어 돼지주둥이를 하고 주먹을 쳐들더니 갑자기 석근의 배를 쿡 찔렀다.

《자넨 여전히 나의 쎈타포드야.》 조심성많은 한교준이 2년나마 검토하고 흡수한 석근이를 더 이상 알아볼것이 없다는듯 혼자 시물거렸다. 《됐어. 이젠 가자구.》

안병덕은 석근이를 데리고 자기 상관인 주철순한테로 찾아갔다. 함경남도 경찰국장이며 《C. I. C.》대장인 주철순은 45살난 마산출신 악당인데 그 잔인성으로 하여 《대한민국》중앙 치안국장 장택산의 총애를 받고있었다. 첩보활동으로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그는 미10군단 첩보대에서 파견한 대위 켈폰고문의 지령에 따라 함경남도 특히 함흥지구를 거머쥐고있었다.

안병덕의 소개로 독거미같은 그놈의 믿음까지 얻은 김석근은 거기서 함흥지구《C. I. C.》요원으로 흡수되였을뿐아니라 과분하게도

함주군 경찰서장 (함주군《치안대》대장)의 중책을 걸머메였다고 저으기 황송해하기까지 하였다.

그후 일련의 《절차상요구》에 따라 무시무시하고 가장 잔인무도한 비밀경찰사업요강을 접수하고 서약서를 남긴 다음 김석근은 곧 출발하였다. 오후의 태양이 구름속에 묻혀 한결 음산해보일 때 그는 성천강다리밖에 있는 함주군 《치안대》본부에 들어섰다.

일제시기 군경찰서로 쓰던 단층벽돌집 양지쪽에 자리잡은 《치안대》대장의 방에서 그는 대원들부터 료해하였다. 개별적으로 불러들여 담화하면서 그는 그때마다 머리속에 인물표를 새겨넣었다.

오 인 범

1931. 2. 10생.
함주읍출신.
부유한 농사군 과부로친네의 외아들. 미혼.
해방전. 소학교 졸업.
해방후. 함흥고중 2년 중퇴.
현재. 군 《치안대》대원.
특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함.
우울한 표정, 도고한 자세…

담화를 끝낸 김석근은 그를 돌려보내면서 말하였다.

《인범이, 오늘 밤엔 자네 집에서 자겠네. 닭을 비틀게.》

등이 구불사한 어깨에 보총을 메고 출입문앞으로 다가가던 오인범은 우뚝 멈춰섰다. 잠시 말없이 무슨 속궁리를 놓던 그는 돌아도 보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우리 집엔 닭이 없소.》

《없다?… 거 대접이 아주 그럴듯한데?》 석근은 불끈하여 책상을 쾅 쳤다. 《그럼 쥐라도 잡아!》

《나는 고양이가 아니요!》

《이것 봐라, 제법 맞서는데?…》

석근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설 때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미처 출입문이 열리며 난쟁이같은 땅딸보

치안

가 들어섰다. 어데서 구해입었는지 물날은 괴뢰군병사복에 《치안대》 완장을 두른 청년이였다. 옆구리에 권총까지 찬 그는 아직도 푸들쩍거리는 수닭을 가지고 깍듯이 인사하였다.

《대장님의 부임을 축하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초면인사를 이렇게 받은 김석근은 슬그머니 물러가는 오인범을 바라보다말고 땅딸보와 마주앉았다.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석근의 기억속에 새겨진 그의 인물표는 간단명료하였다.

장 욱 세

1926. 12. 14생.
함주읍 지주 장구익의 넷째.
1946. 5. 4 부친과 함께 월남.
1950. 10. 21 귀향. 군《치안대》대원으로 맹활약.
광적인 복수심과 야수적인 학살 시도.
...

그는 석근이 책상우에 직접 자기 필적으로 작성한《군내 빨갱이들의 명단》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거의 절반은 가둬넣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좋아, 안내해!》

이렇게 군《치안대》대장의 임무를 시작한 김석근은 그로부터 사흘후에 고향마을로 내려갔다. 집에서 기다리고있을 안해와 아들애가 그리웠던것이다.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이였다. 쪽대문을 열고 앞마당에 들어선 김석근은 인적기를 내며 아들애부터 찾았다.

《우리 귀염둥이 있나?》

방등불에 창호지가 벌건 정지문이 열리며 안해가 맞아주었다.

《인제야 돌아와요?》

간신히 들리는 안해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울리였다. 전과 달리 그리 반가와하지 않는 안해를 굳이 나무람하지 않으며 김석근은 방안에 들어갔다. 아직 때식을 끓이지 않아 싸늘해진 아래목에 애기포단을 깔

고 잠든 은섭이 누워있었다. 석근은 애기곁으로 다가가 두손으로 아들애를 넌떡 받들어안았다. 잠에서 깨여난 은섭은 머루알같은 까만 눈으로 낯선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다가 아마 무서움에 그랬음직한 문득스러운 울음을 터뜨리였다.

《오 오, 울지 말어. 아버지야, 아버지라는데두…》

석근은 애기를 달래며 방안을 빙빙 돌아갔다.

은섭은 좀체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리 줘요, 애기를.》

안해한테 은섭이를 마지못해 넘겨준 김석근은 애기가 추위를 탄다며 밖으로 나갔다. 허청간에서 폭탄파편쪼각에 허리가 뭉청 끊어진 보습목을 들고나와 패기 시작하였다. 한참 도끼날을 먹이니 땀이 즐벅하였다. 그는 웃동을 벗어붙이고 땔나무를 장만하였다. 어느새 장작개비들이 무득해졌다.

김석근은 방안을 빨리 덥혀야겠다고 서두르며 한아름 가려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벽가에 방등불을 켜놓고 동자질을 하던 안해가 그를 돌아보다가 어마지두 놀라는것이였다.

《어마나?—》

물묻은 오동통한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숨질듯 한 비명을 지르는 안해의 겁먹은 시선은 장작을 안고 내의바람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가슴팍에 쏠리고있었다. 찰나에 비로소 흠칫 몸을 떨며 김석근은 당황해하였다. 급히 허리를 굽혀 가슴을 감추며 그는 장작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보여줘요. 무엇을 의미하는 입묵이예요?》

경악의 충격을 다잡은 안해의 담담한 목소리였다. 안해는 한걸음 다가서며 남편앞에 위엄있게 막아섰다. 그러한 안해의 눈길에서 벗어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앞으로 어차피 들장나고야말 일인데 조용히 납득시키는것이 보다 현명한 처신이라고 김석근은 판단하였다.

《여보, 이건 본의아닌 강요에 굴복한짓이요.》

《어쨌든 보여줘요.》

김석근은 고분고분 순응하는것으로써 자기 말의 진실을 증명하고싶었다. 솔직성은 언제나 안해의 공감을 자아내지 않았던가. 김석

근은 천천히 내의를 걷어올렸다. 그의 탄력있는 앞가슴에는 먹이를 노리고 입을 째지게 벌린 광신적인 사자가 그려져있었고 갈구리같은 발톱이 달린 사자의 앞다리에 《C. I. C. 》라고 새겨놓았다. 물론 안병덕이 발기하여 반공을 맹세한 입묵이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안해는 그만 《악!ㅡ》하는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며 졸도하고말았다.

너무나 엄청난 실태앞에 김석근은 가슴이 철렁했다기보다 두억시니의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청하니 서있었다.

4

저 멀리 아득한 수면에서 굼실거리며 밀려오는 파도마냥 서서히 찾아드는 의식에 양혜심은 눈을 떴다.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있는 그의 머리맡에는 남편이 앉아있었다. 혜심은 선명하게 안겨오는 남편을 바라보다말고 맥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여보, 이걸 좀 마시오, 어서!》

김석근은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안해한테 먹이려고 저으기 애를 썼다. 그러나 혜심은 입을 다문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석근은 안타까왔다.

《애기를 봐서도 기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소. 억지로라도 좀 드오!》

여전히 기척없이 누워있으면서 혜심은 잦아드는 절망감에 하염없이 골몰하였다. 그럴수록 생에 대한 허무감이 갈마들면서 남편과 하직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반역자의 안해로 사느니 죽어서도 사람다운 혜심으로 남고싶었다. 아니, 자기가 죽어 역적인 아버지로 해서 가해질 아들애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줄수만 있다면… 그때따라 곁에서 은섭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젖을 찾아 어머니의 품에 안기려는 은섭의 울음소리는 혜심의 가슴을 아츠럽게 긁었다. 기력이 쇠진해진 그는 안깐힘을 쓰며 일어나앉았다. 젖을 물리고 애기를 내려다보는 혜심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굴러내렸다. 어머니없이 은섭이 어떻게 살아나랴싶은 애절한 마음이 눈물에 담겨 흘러내렸다.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관련되는 새로운 그 비통함이 어쩌나 강렬했

던지 차마 애기를 두고 눈을 감을수 없는 심경이였다.

(아, 나는 어쩌면 좋담?…)

혜심은 애기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돌연 안타까운 그 심정을 참을 길이 없어 그는 젖을 빠는 애기에게 와락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

미련과 절망

그후 어느날이였다. 서켠하늘가에 어지럽게 찢어진 넝마갈은 구름쪼각들에 락조의 잔광이 비껴 피빛으로 물든 음산한 저녁이였다. 혜심은 텅 빈 썰렁한 방안에 외롭게 앉아서 손바느질로 애기버선을 짓고있었다.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분명 누구인가 온것 같은데 들어올줄 몰랐다. 혜심은 문밖에 귀를 강구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출입문에 댄 손바닥만 한 유리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뜻밖에도 부락 세포위원장네 어머니가 와서 토방앞에서 서성거리고있지 않는가? 세포위원장 서명호는 부락《치안대》놈들에게 체포되여 지금 정순이네 광에 갇히워있었다. 혜심은 유리쪼각밖을 내다보다말고 방안에 우두머니 서있었다. 세포위원장의 어머니가 어째서 찾아왔을가싶어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드디여 주인을 찾는 늙은이의 석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누가 없나?》

마치 못된짓을 하다가 들장난 죄인같이 흠칠 놀라며 혜심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며 알은체를 하였다.

《어머니 오셨나요.》

《음, 애어미나.》 늙은이는 전과는 달리 무척 엄엄한 낯색으로 정주간에 들어섰다. 《은섭이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았나?》

《네ㅡ》

꺼져들어가는 모기소리만 한 음성으로 대답하는 혜심에게 늙은이는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문앞 토방에서 내려서 마당으로 걸어가던 그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왔다. 다시 문앞에 다가선

늙은이는 그저 되돌아가자니 참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내가 은섭이 아버지한테 따지려고 했지만… 애어미도 알겠지만 우리 성남이 아버지가 붙잡혀있지 않나. 듣자니 오늘래일로 죽인다는데 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인다는거나, 응?》
《네?— 사람을 죽여요?》
혜심은 공포감에 질려 쌍겹진 두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때까지 서로 코를 맞대구 살았는데 무슨 원쑤졌다고 그러는거나?》 늙은이는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우리 아들이 세포위원장을 하면서 저네 소를 잡아먹었나, 닭을 비틀었나. 저네들을 위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구 돌아쳤는데 그게 죽을 죄나?… 에구— 하늘도 무심하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응?》
《그래요. 세포위원장동진 죄가 없어요.》
《없지, 없구말구. 그러니 어서 내놔야 할게 아니나.》
《어머니, 내가 우리 애아버지를 찾아가 말해보겠어요. 세포위원장동지야 사람이 무던하구 착하기만 했는데 그걸 누구인들 모르겠나요. 애아버지도 알면 도와줄거예요.》
《무조건 내놓게 하라구. 그러지 않으면 벼락을 맞아, 벼락을!》
늙은이는 획 돌아섰다.
혜심은 즉시 남편을 찾아 군으로 올라갔다. 애기를 둘러업고 어둑어둑해지는 밤길을 걸어 그가 남편과 만난 곳은 그리 넓지 않은 군《치안대》대장의 방안이였다.
시꺼먼 가죽잠바를 구해입은 남편은 책상머리에 마주앉아서 안해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었다. 혜심은 남편과 단 둘이 앉아있는 조용한 틈을 타서 서둘러 이야기하였다.
《여보, 부락에서는 사람을 죽인대요.》
남편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태연할가싶었다.
《오늘래일하면서 세포위원장동지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러자 남편은 갑작스럽게 책상을 쾅 쳤다. 혜심의 놀람과 동시에 잔등에서 은섭이까지 울음을 터뜨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남편은 꽥 소리질렀다.
《여보, 정신있소, 응? 여기가 어딘줄 알구 아직까지 〈동지〉요?》

그제서야 머리끝이 오싹해진 혜심은 저들의 말을 누가 엿듣지나 않는가싶어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끼리니 말해요. 여보, 세포위원장을 살려줘요, 네?―》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변화가 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쏘아보는듯 한 남편이였으나 그래도 고향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리라는 미련을 가지고 혜심은 간절히 애원하였다.

《생각해봐요. 세포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란걸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지 않나요. 글쎄 그가 무슨 죄를 졌다구 죽이려고 해요? 살려줘요, 그를 놓아줘요!》

《여보, 그는 진짜 빨갱이요. 세포위원장이 아니요, 응?》

《아이참, 당신이 어쩌면?…》

《됐소, 그만하오!》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당신이 알고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요. 어제날의 김석근이 아니란 말이요!》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버리려고 하였다. 혜심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당신도 사람이 아니나요. 토지를 분여받고 그렇게도 기뻐하던 당신이였고 나라의 혜택에 보답하려고 그렇게도 성실히 일한 당신이 아니였나요.》

《그러나 나는 빨갱이치하에서 버림을 받았소.》

《아니예요. 당신이 버림받은것이 아니라 당신이 배은망덕하며 사람의 도리를 저바렸어요. 그래 버림받았다고 하는 당신이 화를 입은게 뭐예요? 세포위원장이 당신한테 무슨 해를 주었나요? 그분들이 앞장에 서서 땅을 분여해주었구 그분들이 우리 땅을 지켜주지 않았나요. 사람의 도리를 지켜요, 의리를 지켜요!》

《닥쳐!》

뜻밖에도 남편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지거리가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 혜심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이제는 그가 안해의 인격마저 존중할줄 모르는 무뢰한이 되였단 말인가?

《나는 당신의 안해된 자격으로 감히 선언해요. 당신이 아무리 변해도 공화국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은섭의 어머니된 립장에서 강조하는거예요. 머지않아 당신은 은섭에게 안겨준 불행이상의 치욕을 당할거예요.》

《뭣이?》
순간 혜심의 눈앞에서 번개불이 번쩍하였다. 철썩, 순식간에 들이닥친 남편의 손바닥에 그의 뺨은 백랍같이 질렸다.
《어디 다시한번 말해봐, 응?》
도끼눈을 하고 노려보는 사나운 눈빛, 거기서 혜심은 남편의 가슴팍에 새긴 사자입묵이 떠올랐다.
《아!…》
혜심은 쓰러졌다. 마지막미련마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재차 엄습하는 절망감에 그는 어깨를 떨었다. 피눈물을 삼키였다. …

《그후 저는 애기를 업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친정집으로 떠나고말았어요. 남편과 영원히 결별한 심정으로 애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추억에 최현무는 한결 무거운 심정이였다.
《그래 서명호세포위원장은 피살되였습니까?》
《아니예요. 그는 사형장에서 부상당하고 살아났어요.》
《음, 그가 살아났단 말이지요?》
《지금도 계셔요. 그래 우리 모녀가 거기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살수 없어 여기로 친척을 찾아왔어요. 친정집도 모두 여기 와서 삽니다.》
《남편의 고향에서 뜬 아주머니의 심정은 충분히 리해됩니다. 그런데 세포위원장이 사형장에서 살아났다는데 거기에 혹시 남편과 관련되는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가요?》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흔적은 꼬물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인이 세포위원장동지를 끌구나갔답니다. 내가 찾아갔던 바로 그날 밤으로 내려왔다더군요. 〈치안대〉놈을 데리구…》
《그렇습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 현무는 서명호를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이튿날 그는 석근이네 고향으로 내려가 서명호아바이와 마주앉았다. 이제는 머리에 허연 서리가 내린 명호아바이는 그가 찾아온 리유를 듣자 펄쩍 뛰였다.

아니웨다. 그는 무서운 역적이였지요!

지난 시기 곡간으로 쓰던 정순이네 토벽광에는 서명호와 여러 명의 《빨갱이》가족들이 감금되여있었다. 후퇴를 못한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바람벽에 성에가 허옇게 불린 캄캄한 류치장에서 한밤중의 추위에 떨고있었다. 오늘도 고추가루물 고문을 당한 서명호는 황소바람이 불어드는 출입문앞에 막아앉아 불안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것은 바로 전선원호미에 대한 불안이였다. 마을뒤 사질덕에 감춰묻은 전선원호미를 적들이 찾아내면 랑패가 아닌가. 놈들은 그 비밀장소를 알아내지 못해 도끼눈을 하고 발광하였다.

그와 동시에 류치장에서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야수적인 고문에 매달리는 적들이였다.

또다시 류치장밖에서 언땅을 울리는 투박하고 거치른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덜커덩거리며 자물쇠를 여는 무딘 소리, 뒤이어 아츠러운 삐거덕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서명호, 나왓!》

악청의 호령질이였다. 서명호는 깊어지는 밤과 더불어 더해지는 동통을 이겨내며 거연히 일어났다.

이번에는 정순이네 집 부엌 고문장이 아니라 책상을 들여놓은 웃방으로 끌리워갔다. 불빛이 환한 방안에서 서명호는 뜻밖에도 김석근이와 마주섰다. 그는 놀라왔다. 아니,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른 김봉구의 아들이 《치안대》완장을 두르다니?… 서명호는 참을수 없었다.

《석근이 이놈! 네 애비의 피줄은 어디다 버리고 그 완장을 둘렀어, 응? 이놈!》

《여기는 인민위원회가 아닙니다. 분별없이 굴지 마십시오.》

서명호는 발을 탕 굴렀다.

《네 이놈! 우리가 다 죽은줄 아느냐, 응? 이 역적놈아!》

《닥쳐!》

석근이곁에 서있던 부락《치안대》대장놈이 꽥 소리쳤다.

《지금두 세포위원장인줄 알아?》

주먹을 쳐드는 그에게 석근이 말하였다.

《그러지 마오. 그래두 부락어른이 아니요.》

김석근은 친절하게 대하였다. 《나는 그래도 도와주려구 이렇게 우정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의 할머니가 부탁하길래 거절할수 없었습니다.》

《닥쳐라! 네놈은 머지않아 인민의 심판을 받을거다!》

《자꾸 그러지 말고 쌀을 감춰둔 비밀장소나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줄수 있습니다.》

《이 개같은 놈아! 서명호가 어떤 사람인줄 아직두 몰라?》 그는 솥뚜껑같은 오른손을 쳐들어 김석근의 왼뺨을 후려갈겼다. 《내앞에서 썩 사라지지 못할가?》

다시한번 발을 구르는데 부락《치안대》대장놈의 짐승같은 악청이 터지며 야수적인 폭행이 란발되였다. 서명호는 얼굴에 피가 랑자하였다. 폭행이 가해지는데 따라 이리저리 비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를 지켜보던 김석근은 군《치안대》에서 달고내려온 《치안대》대원에게 분부하였다.

《오인범이, 이놈을 끌고 나를 따라와!》

방 한쪽구석에서 리《치안대》놈들의 잔인한 광경에 겁을 집어먹은듯 한 안경쟁이 오인범은 감때사납게 휙 나가버리는 석근에게 어리둥절한 놀란 눈길을 던졌다.

《예?－》

그에게 김석근은 버럭 화를 내며 짧은 한마디로 독촉했는데 그것으로 서명호를 총살해버리겠다는 자기 결심을 명백히 암시하였다. 아닐세라 그는 자기가 직접 집행하겠다며 줄레줄레 따라서는 부락《치안대》놈들더러 서명호가 불지 않은 쌀수색이나 빨리 하라고 호령하였다. 오늘 밤중으로 당장 찾아놓으라는 바람에 부락《치안대》놈들은 너나할것 없이 쌀수색에 다몰리웠다.

앞에는 김석근이 걸어가고 서명호의 뒤에서는 오인범이 따라섰다.

그들은 칠흑같은 어둠이 도사린 상태벌의 포전길에 나섰다. 묵묵히 걸어가던 김석근이 문득 침묵을 깨뜨렸다.
《인범이, 자넨 공화국치하에서 어떻게 살았나?》
오인범은 갑작스러운 그의 물음에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 김석근이 걸음발을 늦추며 다시금 질문하였다.
《말하자면 〈빨갱이〉치하에서 어떻게 고생했는가 말이네.》
《고생이요?》
오인범은 또 입을 다물어버렸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묵묵히 걸어갔다.
《인범이, 자넨 왜 대답이 없나?》
앞에서 들리는 김석근의 재촉이였다. 오인범은 실로 뜨직이 입을 열었다.
《예?—》
《공화국치하에서 어떻게 고생했나 말이야.》
《저, 나는…》
《괜찮아, 어서 말하게.》
《저… 나는 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좋았다는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공화국은 나에게 그렇게 해롭지 않았소.》
《음, 그래?》
김석근이 멈춰섰다. 그의 뒤에서 끌려가던 서명호도 걸음을 멈추었고 오인범이도 우뚝 서버렸다.
《해롭지 않았다? 자네 몸에는 아직도 〈빨갱이〉잔재가 있구만, 응?》
김석근은 서명호만 남겨두고 인범이더러 따라서라며 사격위치를 정하였다.
《자, 여기서 저 〈빨갱이〉를 쏘게. 자기 몸에서 공산잔재를 없애구 반공투사가 되겠다는 담보를 주게.》
오인범은 와뜰 놀랐다.

《내가 사람을 죽여? 아니, 나는 못 쏘겠소!》
《잔말말구 쏴! 빨리!》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 김석근은 오인범을 위협하였다. 어둠속에 확대되여보이는 시꺼먼 총구에 오인범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어서 쏴!》
《나는 근시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두 쏴! 쏘라니까?》
김석근은 막무가내였다. 그의 잔인한 손탁에서 더는 벗어날수 없게 된 오인범은 와들와들 떨면서 보총을 들어올렸다. 그는 벌써 제정신이 아닌 헛소리를 치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여보시오, 뛰시오! 빨리 도망치시오!》
뒤이어 발사되는 아츠러운 총소리.
《이자식이?…》
철썩, 김석근이 인범의 따귀를 갈겼다. 그는 왈패스럽게 뚜벅뚜벅 걸어 서명호앞으로 다가갔다. 불과 서너발자국앞에서 멈춰선 그는 한동안 서명호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빨갱이〉들과는 달리 시비선악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서명호의 앞에 권총을 내대였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는 서명호의 힘찬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지는가운데 어지러운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

《나는 그때 장딴지에 부상을 당했수다. 석근이 그놈이 쏜 총알에 맞았지요.》
서명호로인의 말에 최현무는 고개를 기웃하였다.
《다른데 다친데는 없었습니까?》
《그놈이 결김에 눈먼 총질을 했지요. 인범이놈을 잡아먹을것처럼 다몰아대던 놈이였으니까…》
최현무는 그럴수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더구나 권총사격에 능하지 못한 석근일수 있지.
《어쨌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나는 그날 밤으로 절룩거리며 집에 찾아와 무우움에 은신했수다. 석근이 그놈은 더는 얼씬하지 않았소.》

《음, 그런데 오인범이란 사람은 그후 어떻게 되였습니까?》

《글쎄?… 그 사람이 좀 량심적인데는 있었지만 아마 석근의 손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거우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좋겠는데…》

《왜요? 아직도 김석근이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더 알구프면 백영달이를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도 군〈치안대〉대원으로 날치다가 인민군대가 재진격했을 때 자수한 사람인데 지금은 자상리에서 삽니다. 읍에서 살기가 급하니 처가집마을로 이사했나봅니다.》

《그렇습니까.》

최현무는 상태리에서 10여리밖에 있는 자상리로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5

그날 오후였다. 최현무는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자상리협동벌에서 벼가을하던 백영달이와 마주앉았다.

메뚜기들이 뛰노는 논두렁에 풀춤을 깔고앉은 백영달은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다가 뜨직뜨직 대척하였다.

《솔직한 심정으루 나는 치욕스런 과거를 상기하는것이 정말 괴롭습니다만 대좌동지가 이렇게 논벌에까지 찾아와서 굳이 물으니 피할수 없구만요.》

치욕의 인생

당시 37살난 백영달은 미군의 《엠－완》총을 메고 함주읍 뺑덕거리를 왔다갔다하면서 철공소 땜쟁이네 집을 감시하고있었다. 낫가락같은 초저녁의 상현달이 떠오르는데 등뒤에서 누구인가 뚜걱뚜걱 다가오더니 례의 그 거치른 음성으로 물었다.

《여기서 뭘해?》

꺼먼 가죽잠바를 입고 목이 긴 괴뢰군군화까지 얻어신은 김석근이였다.

백영달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져서 그의 앞에 말뚝처럼 멈춰섰다.

《예, 감시하고있습니다.》

《뭘?》

《저… 저 집, 철공소 땜쟁이네 집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물음에 백영달은 곁에서 누가 엿듣는 사람이 있지 않을가싶어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았다.

《대장님, 이 집 철공소 땜쟁이는 매우 수상한 놈입니다. 이틀이 멀다하게 해가 지면 어디론가 몰래 갔다오군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 집에 인민군대 부상병을 숨겨놓은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해들이느라고…》

《그런데 왜 미행하지 않았어?》

《아까 그의 뒤를 밟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자식!…》

김석근은 철썩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이자식아, 그래가지구두 술만 처먹겠다구 해?》

백영달은 술이라면 제 녀편네까지 팔아먹을 《위인》이다.

원래 백영달은 해방전에 함주읍의 부유한 중농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가 스물둬살난 해에 부친을 잃고 세대주구실을 하게 되였는데 그때부터 자주 술집을 찾아다니게 되였다. 처음에는 쌀이며 수수 같은 낟알들을 퍼내다가 점차 투전판에 끼여들면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부림소는 물론 문전 옥답까지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알짜 건달뱅이투전군이 된 그는 부친이 사망해서 불과 칠팔년어간에 세정보나마되는 부침땅을 전부 떼우고 종내 함주읍 지주 장구익의 소작농으로 저락되고 말았던것이다. 가난한 소작농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술집과 등지지 못하다가 조국해방을 맞았다.

그는 해방후에 토지를 분여받았지만 손발에 흙물을 묻히는것

이 죽기보다 더 싫었다. 포전에는 녀편네와 더불어 조무래기 자식들만 내몰면서 허송세월하였다. 무슨 장사를 한답시며 돌아치기도 하고 부림소 거간군으로 장마당에 붙어있기도 하다가 전쟁을 겪게 되였다.

저저마다 전선으로 탄원했지만 백영달은 인민군대에도 나가지 않고 집을 떠나 줄창 돌아치기만 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남으로 도주한 지주 장구익의 둘째아들 장욱세가 함주읍에 기여들었는데 백영달은 바로 그놈의 손탁에 걸려들었다.

장욱세는 지난 시기 자기네 소작인의 건달기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는 백영달에게 알짜 건달을 부리면서 술만 처먹을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군《치안대》완장을 두르는 길이였다. 백영달은 그의 달콤한 권고에 군침을 삼키면서 미국제 《엠―완》 총을 멘 작자였다.

김석근은 그러한 그를 노려보며 다시금 다그어대였다.

《네놈이 빨갱이를 놓치구두 〈치안대〉대원이야? 응, 이자식?》

그는 악이 치받쳐서 백영달의 면상을 마구 사정없이 조겨대였다.

백영달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쥔채 비명을 질렀다.

《대, 대장님, 이제 그놈을 잡겠습니다. 땜쟁이놈을 꼭 잡겠습니다.》

그럴 때 저쪽에서 인적기가 나며 바로 그 땜쟁이가 다가오고있었다.

《대장님, 저 저놈입니다.》

《음― 그래?》

김석근은 철공소 땜쟁이를 멈춰세웠다.

《당신이 땜쟁이요?》

손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들고있는 철공소 땜쟁이는 온곱지 않은 표정을 짓고 매우 거치른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소, 왜 그러오?》

《그 보따리를 풀어.》

《보따리를?…》

김석근은 자못 의아해하는 땜쟁이의 눈앞에 무슨 증명서를 내보이였다.

《보다싶이…》

《C. I. C. ?》

땜쟁이는 마지못해 보따리를 풀어 석근이 앞에 내밀었다.

그의 보자기속에는 둬되 되나마나한 흰쌀이 들어있었다. 땜쟁이는 그것을 네거리 가게방주인네 집에서 사오는것이라고 하였다.

《정보에 의하면 땜쟁이네 집에 인민군대 부상병이 숨어있다 하는데 이 쌀을 그래서 사들이는거겠지?》

김석근이 하는 말에 땜쟁이는 골살을 찌프리고 대답하였다.

《인민군대 부상병이 아니요. 내 조카는 군수공장 기계를 지고 후퇴하는 로동자대렬에서 도주한 도주자요. 기계를 가지고 탈주하다가 내무원놈들의 총탄을 맞은 부상자란 말이요.》

《내무원이라니?》

《바로 저 천의산 아니, 백운산 고개마루에서…》

네댓명의 내무원들이 천의산에서 백운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마영고개마루에 경기관총까지 걸어놓고 후퇴대렬에서 도주하는자들에게 몰사격한다는것이였다. 땜쟁이는 자기 조카가 바로 그들의 사격에 다리를 부상당한채 간신히 도망쳐왔다고 하였다.

《그게 사실이요?》

《거짓말이면 내 조카를 잡아가도 좋소.》

《음…》

김석근은 잠시 생각을 굴리고나서 고개를 쳐들었다.

《좋아. 래일이면 알아봐.》

래일이면 땜쟁이의 말을 확인할수 있으니 그리 알라는 의미였다.

그날 밤이였다. 군《치안대》건물에 들어선 김석근은 즉시 비상소집을 일으켰다. 백영달을 비롯해서 일여덟명의 군《치안대》대원들을 《빨갱이》소탕전 전투성원으로 선발했는데 그속에는 키가 꺽두룩하고 얼굴이 갱핏하게 생긴 오인범이도 있었다.

어느덧 상현달마저 자취를 감춘 캄캄한 밤이였다. 김석근은 무장한 악질대원들을 이끌고 읍에서 서북쪽으로 삼사십리 상거한 고양리쪽으

로 강행군하였다.

그들이 고양리를 지나 백운산줄기에 들어선것은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이였다. 김석근은 웬일인지 고양리에서 백운산쪽으로 들어가는 외통로 다리목에 오인범을 잠복시키는것이였다. 마영고개 내무원들이 《치안대》의 습격을 받으면 백운산쪽으로 도망치면 쳤지 벌방지대 고양리쪽으로 진출할리 만무한데 김석근은 굳이 고양리통로를 봉쇄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땀을 철철 흘리며 백운산줄기 마영고개마루 골짜기에 들어섰다. 수림속 오솔길을 따라 릉선으로 오르던 김석근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멀리 고개마루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발견했던것이였다. 그것은《치안대》대원모두의 눈에 비쳐든 내무원들의 모닥불이였다.

《음—》

어느새 권총을 꺼내여든 김석근이 뿌드득 이발을 갈며 그쪽을 한참동안 노려보았다.

《〈거마리〉!》

그의 부름에 대오의 선두에 서있는 《거마리》가 대답하며 한걸음 다가섰다.

《너는 석팔이, 동태를 데리고 릉선너머 풍송리 길목을 차단해.》

《옛.》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고개마루 모닥불을 향해 그들은 은밀히 접근하였다. 모닥불곁에 경기관총을 걸어놓고 다섯명의 《내무원》들이 모여앉았다. 그속에는 《치안대》완장을 두른자도 한명 있었다. 그들은 늦가을추위를 이겨내려함인지 아니면 주린 창자를 채우려함인지 술을 마시면서 삶은 소대가리를 뜯어먹고있었다.

숨소리를 죽여가며 그들곁으로 바싹 접근한 김석근은 갑자기 권총을 란사하며 사격구령을 내렸다. 그가 어찌나 사격술이 높았던지 련이어 네명의 《내무원》들이 즉사하였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명의

《내무원》은 대응사격할 엄두도 못내고 김석근이 예견했던대로 백운산쪽으로가 아니라 벌방지대 고양리방향으로 도망치는것이였다. 그를 추격하며 쏘아대는 군《치안대》들의 총탄에 그 한명의 《내무원》도 사살되였다.

김석근은 숨을 거둔 그들을 한명한명 돌아보며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약간이나마 숨이 붙어있으면 가차없이 총탄을 퍼붓군 했던것이였다. …

《이렇게 김석근은 실로 악랄하게 만행하였습니다.》 백영달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자기앞에 마주앉아있는 최현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후 나는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김석근이 무서워서 종종 꾀병을 앓으며 집에 드러눕군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무도 김석근은 역적이라는 소리겠습니다?》

《그가 저지른 만행이 어디 그것뿐인줄 압니까. 내가 직접 목격한것은 아니지만 그후 그는 고원빨찌산대원까지 체포하여 함흥지구〈C. I. C.〉에 넘겼다는데 헛소문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영달동무는 김석근이 권총을 아주 잘 쏘았다고 했는데 그건 동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겠소?》

《물론이지요. 그날 그가 권총을 빼들자 연거퍼 두명의 내무원들을 즉사시키는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소?…》

최현무는 고개를 기웃하였다. 서명호세포위원장을 쏠 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정 그랬는가? 아니, 살려줄 사람이라면 그가 달아날수 있게 다리부상도 입히지 않았겠는데? 숱한 내무원들을 살해한 김석근이지만 제 부락 세포위원장앞에서는 손이 좀 떨렸는가?…

《참 영달동무, 동무의 말에서도 오인범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그 사람의 행처를 알면…》

《나는 인민군대가 재진격해 나올 때 이미 사흘전부터 여기 처가집에 와서 숨어있었으니 전혀 알수 없지요.》

《음…》

최현무는 후— 한숨을 내불었다. 이제는 김석근의 자료를 더 알아

볼 가망이 없었다. 최현무는 알아보면 볼수록 무서운 반역자로 락인되는 김석근의 문제를 일단락 지을가 하다가 저도 모르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설사 김석근이 역적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고드리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자신의 마땅한 도리라고 현무는 인정하였다.

6

다음날 아침이였다. 혹시 함주군안전부에서 김석근에 대한 자료를 더 알아낼수 없을가 해서 최현무는 그리로 찾아갔다. 정문안에 들어서니 한결 무거운 마음이였다. 그의 외삼촌이 여기서 해방직후부터 군보안서장으로 일했는데 키가 후리후리한 김국성외삼촌은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 고원빨찌산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였던것이다. 지금도 외삼촌의 서글서글한 체취가 느껴지는듯 하여 현무는 깊은 생각에 잠겨 군안전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군안전부장은 그에게 체포된 반역자들의 진술서를 내놓았다.

장욱세의 진술서(1)에 의하면…

마영고개 《내무원》들을 사살한 김석근은 이튿날 오후 2시경에 함흥지구 《C. I. C.》사무실에 호출되였다. 안병덕이 그와 장욱세를 불렀던것이였다.

그들이 안병덕의 방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함흥지구《C. I. C.》거두들만 아니라 산하 각 군《치안대》대장들이 거의다 모여있었다.

김석근은 안병덕에게는 물론 흥남시《치안대》대장 지용수에게도 깍듯이 인사하였다.

《여, 석근이.》 지용수가 하는 말이였다. 《자넨 요즘 실적을 올린다면서?》

《이젠 빨갱이잡이도 손에 익어지네.》
《진작 그랬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
지용수는 후—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자넨 고양리에서 내무원들까지 소탕했더구만.》
김석근은 자꾸 자기를 춰주는것이 계면쩍었던지 말머리를 돌렸다.
《흥남에도 〈빨갱이〉들이 많겠지?》
《석근이, 자넨 그 고양리 〈치안대〉에 나의 4촌형이 있는줄 아나? 처4촌 말이야.》
《처4촌? 그게 누군데?》
《한교준이라고 거기 〈치안대〉대장을 했는데 어제 자네가 철직시켰다면서?》
《아니, 그 사람이 자네 처4촌이요? 이거 정말 우습게 되였구만, 응?》
《어떻든 난 자네가 그처럼 투철한 반공투사가 된것이 기쁘네. 자네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럴 때 출입문이 열렸다. 방안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묘지의 말뚝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들앞으로 함경남도경찰국장이며 《C. I. C.》대장인 주철순이 켈폰대위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군복을 입은 켈폰대위는 미10군단 첩보대 파견고문이였다.
그는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담당 최고고문인 크레마대좌의 지령을 하달하였다.
안병덕의 비서 박애숙의 통역에 의하면 며칠후에 미10군단 군단장이 함흥에 온다는것이였다. 그와 관련하여 군단장영접준비를 잘할데 대한 《C. I. C.》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함흥지구《C. I. C.》가 각《치안대》들과 련합작전하여 반공깜빠니야를 벌리는것이였다. 《빨갱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투옥과 무차별학살을 감행하며 특히 고원빨찌산을 제압하기 위한 정탐활동을 강화하라고 켈폰대위는 명령하였다. 고원빨찌산에 《C. I. C.》내조과(정탐과) 과원을 비롯한 밀정들을 박아넣게 하고 고원군《치안대》대장으로 장욱세를 임명하였다.
크레마대좌의 지령을 전달받고 함주군으로 돌아온 김석근은 그날 저

녁에 우선 장욱세송별회부터 마련하였다.

함주다방에서 진행한 송별회에서 장욱세는 마시고 붓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했다. 김석근에게 오늘의 송별회를 《빨갱이》들에 대한 《총살회》로 하자고 발기하였다. 김석근은 쾌히 호응하고 《실컷 마시고 실컷 죽이는것이 반공투사들의 최고쾌락》이라며 여간 미쳐날뛰지 않았다.

김석근이 감행하는 《포식포살》의 《송별회》는 뜻밖에도 밤늦게 돌아온 오인범의 술도락에 란장판이 벌어졌다.

술맛을 전혀 모르는것 같던 오인범이 장욱세한테 참으로 그럴듯한 도발을 걸었다. 중학당시 일문판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를 뜬금으로나마 보았는지 그는 거기서 나오는 술망나니들처럼 입으로 술병주둥이를 물고 단숨에 비우기내기를 하자고 이미 상당히 취기오른 장욱세에게 도전하였다. 하찮은 오인범이 승기를 겨루는 바람에 장욱세는 비위가 여간 상하지 않았다. 그는 오인범을 골탕먹이려고 오늘의 승벽에서 지는자는 상대자의 신발바닥을 핥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오인범이도 쌍수를 들었다. 그리하여 식탁우에 올라서서 술병을 물고 병나발을 부는 승벽내기가 진행되였는데 그 놀음에 김석근이는 말할것도 없고 다방안의 모든 《치안대》놈들모두가 너도나도하였다. 물었던 입에서 떨궈버린 술병들이 박살나는 소리, 욕지거리, 고함소리… 자정이 넘도록 란장판을 벌리는 가운데 장욱세도 만취되고 김석근이도 제정신이 아니였다. 지나친 폭주에 그들은 《포살의 쾌락》을 맛볼수 없게 되였다.

무어라 혀꼬부라진 소리로 김석근은 장욱세를 끌고갔다. 제딴엔 장욱세의 집으로 데려간다면서도 대구 반대쪽으로만 비틀걸음을 놓았다. 서로 밀고 닥치며 행길가에 나선 그들은 다리턱에 못미처 다같이 꼬꾸라지고말았다. 대통로에 넉장거리로 자빠져누워 세상없이 코를 골았다.

잠결에 추위를 타며 날이 밝도록 뒤치락거리던 김석근은 약간 정신이 들어 게슴츠레하니 눈을 떴다. 안개속같이 몽롱한 눈길에 다만 륜곽적으로만 얼른거리는 어떤 검은 형체가 곁에서 지금도 코고는 장욱세를 어루만지는것이였다. 까딱하기 싫어 그저 멍해있는데 이번에는 그 형체가 김석근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주머니를 뒤지

는것이였다.

그만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 김석근은 그놈의 손목을 덥석 끌어잡았다.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는 쓰리군은 함주일대 조무래기들의 《왕초》였다. 적강점시기 집없이 떠돌아다니며 조무래기 따기군으로 알려진 그 《왕초》는 다름아닌 바로 석근이네 부락 농근맹위원장의 셋째아들 윤경이였다. 김석근은 조무래기 《왕초》가 보잘것없는 존재였던지 그저 뺨이나 한대 답새기고 놓아주었다.

어느새 동녘이 희붐해졌다. 아직도 휘휘 내두르는 머리로 석근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구두발로 툭툭 차며 장욱세를 깨웠다. 보다는 추위에 정신이 들어 간신히 일어나앉던 장욱세는 또다시 행길에 자빠지는것이였다. 그에게 김석근은 지난밤에 따기군한테 호주머니를 털리웠는데 잃은것이 없는가 보라고 말하였다. 빨리 일궈세우려고 한 그의 말에 장욱세는 석근이 예상한 이상으로 펄쩍 놀라며 일어나앉았다. 그는 새벽어스름속에서도 당황해마지않는것이 분명한 허둥거리는 동작으로 주머니를 검열하였다. 아닐세라 그는 락심천만해하였다. 함주읍 《빨갱이》체포자명단을 따기맞혔다. 《포식포살》의 송별회로 미처 김석근이한테 넘겨주지 못한 명단이였다. 만일 그것이 《빨갱이》들의 손에 넘어가면 저마끔 숨어버리고말것이 아닌가. 자못 엄중한 실책이였다. 《C. I. C. 》에서 알면 장욱세는 군법에 걸릴것이다. 그는 석근의 발목을 부여안고 제발 이 일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리고 고원군《치안대》대장으로 가서 자기 과오를 만회하겠다고 하였다.

김석근은 《C. I. C. 》대원이 된 자격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즉시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길로 안병덕이한테 끌고갔다. 김석근은 더욱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함흥시《C. I. C. 》에서는 장욱세를 3일간 감금하였다. 장욱세는 용서받고 놓여났다. 고원군에 가서 어제날의 과오를 만회하겠다는 그의 비장한 각오가 그토록 큰 은을 냈던것이였다. 함흥지구《C. I. C. 》류치장에서 놓여난 장욱세의 가슴속에서는 안병덕이 앞에서 다진 반공의 언약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또 하나의 복수심이 끓어번졌다. 그것은 자기를 고발한 김석근에 대한 개인적인 적의감과 복수심이였다.

장욱세의 진술서(2)에 의하면…

어느날 저녁이였다. 김석근의 사무실에 문득 장욱세가 들어왔다. 얼굴에 분명히 비양기가 어린 웃는 낯으로 그는 말하였다.

《그동안 빨갱이잡이가 잘됩니까, 석근형?》

《자네가 어떻게?…》

장욱세는 그의 앞에 웬 증명서를 꺼내놓았다.

《이건 뭔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펼쳐보던 김석근은 자못 흥분어린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건 빨갱이신분증이구만, 응? 그것두 군내무서장 김국성의 신분증인데 이게 어떻게 자네 손에 들었나, 응?》

《아무리 난다긴다하는 국성이도 어제 내 덫에 걸렸거던. 앞으로 나의 〈부엉이〉는 더 값비싼 정보를 주겠으니 아무렴 이 장욱세가 석근형보다 못하겠소?》

《부엉이》라니? 욱세가 켈폰고문의 명령대로 벌써 고원빨찌산에 밀정을 박아넣었는가? 단단히 한몫 하는데!… 김석근은 못내 부러워하는 기색이였다.

장욱세는 한결 득의만면해서 빈정거렸다.

《석근형은 내가 고원군에 가서 과오를 씻겠다는 그날의 비장한 결심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장욱세를 잘 알수 있지요?》

《참, 사람두?… 지나간 일을 가지구 뭘 그러나. 그래 이걸 어떻게 쥐였나?》

《석근형은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체포했지만 안병덕대장은 그때 벌써 지금의 장욱세를 내다보았거던요. 그런데 석근형이 몰라주다니… 잊을수 없소!》

이제는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적의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김석근은 여전히 아량있게 굴었다.

《자넨 오늘따라 별스레 구는구만. 가슴에 사자입묵을 새긴 우리 〈C. I. C.〉대원은 그렇게 하는것이 화랑도정신이 아니나. 자네도

아마 그런 정황에서는 나처럼 행동할수밖에 없었을거네. 괜히 투정질을 말고 어서 신분증얘기나 하게.》

《그게 그렇게도 궁금하나? 하지만 석근형은 얻어먹을게 없습니다.》

《장욱세!》 김석근은 돌연히 사나운 눈빛이였다.

《크레마대좌의 지령으로 우린 서로 협력하게 되였지? 그래 김국성이 보통인물이 아니라는걸 모르는가? 그자의 활동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걸 자넨 알겠지?》

가슴을 찌르는듯 한 독기어린 맵짠 그의 눈길에 장욱세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대번에 기가 죽었다. 비로소 고분고분해진 장욱세는 김국성을 체포하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말하였다. 고원빨찌산소부대가 감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려고 고원읍《치안대》를 기습한 일이며 그 전투에서 자기가 발휘한 용맹과 더불어 허벅다리에 부상당한 김국성을 체포하던 때를 득의양양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래, 김국성을 어떻게 처리했나? 아직은 있겠지?》

《며칠 두고 〈비행기〉를 태울 작정입니다. 비밀을 빼내야지요.》

《어림두 없는 소리. 그놈이 자네앞에서 불어? 괜히 빨찌산습격을 받지 말구 〈C. I. C.〉에 넘겨주게.》

《진짜공로는 이제부턴데 왜 넘겨주겠습니까. 내 손에서 빨찌산근거지를 불지 않곤 못 견딜걸—》

《그러다가 놓치면?…》

《놓치다니?… 이 장욱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해보입니까?》

김석근은 안심할수 없었다. 그는 책상우에 있는 미국제군용전화기를 돌려 함흥지구 《C. I. C.》 안병덕이를 찾았다. 석근의 보고를 받은 안병덕은 즉시 전화를 바꾸게 하고 장욱세한테 명령하였다. 이제 찌프차를 보내겠으니 오늘 밤중으로 김국성을 당장 《C. I. C.》에 파송하라는것이였다. 장욱세는 찍소리 못했다. 전화기앞에서 물러난 그는 석근이를 찔 가로보고 나가버렸다.

신작로에서 기다리던 장욱세는 안병덕이 보내준 찌프차를 타고 고원군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김국성을 파송하려고 서두는데 안병덕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안병덕은 고원빨찌산의 기

습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날이 밝은 후에 떠나되 여러명의 무장한 《치안대》 대원들이 호송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가뜩이나 고원빨찌산의 기습을 두려워한 장욱세인지라 그는 무척 다행스러워하며 해가 뜬 다음날 아침에야 떠났다.
함흥지구《C. I. C. 》에 파송된 김국성은 안병덕의 야수적고문으로 3일후에 피살되였던것이였다. …

장욱세의 진술서를 읽은 최현무는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김국성외삼촌이 희생된 아픔으로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

가을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그는 함주군안전부에서 나왔다. 성천교를 지나 도안전국쪽으로 들어가는데 웬 처녀가 마주오며 인사하였다.
《대좌동지, 안녕하십니까?》
최현무는 걸음을 멈추고 낯선 그 처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동문 누군데?…》
곤색코트를 입은 그 처녀는 수집음을 타며 대답하였다.
《전 정미화라구 도예술단에 있습니다. 》
그제서야 최현무는 언제인가 함흥극장무대에서 노래부른 그 처녀를 보았던 기억이 살아났다.
《아, 동무가 〈종다리〉 노래를 부른 배우동무로구만. 이거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
《아이참…》
《오늘 저녁엔 공연이 없습니까?》
최현무는 그가 퇴근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미화는 시간을 받고 우정 최현무를 찾아다닌다는것이였다.
《나를요?…》
《네, 도안전국에서 대좌동지가 함주군안전부에 나가계신다기에 찾아가던중이였습니다. 》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 갑시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화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자는 눈치였다.

《그럼 어서 말하시오.》

《대좌동지.》 미화는 도안전국쪽으로 가면서 말하였다.

《저는 대좌동지가 은섭동무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아본다기에… 그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납니까?》

《혹시 그 집과 무슨?…》

《네, 저는 은섭동무와…》

미화는 귀밑을 붉혔다. 최현무는 그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렸다.

《음, 그런데…》

그는 낯색을 흐리고 잠시 말없이 걸어갔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최현무자신도 가슴이 무거워났다. 하지만 그는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미화의 눈길을 피할수 없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자료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동무들의 사랑에 암초로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물론 그래요. 하지만 은섭동무의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좌동지, 제가 한호실에 있는 동무를 통하여 적강점시기 함주군 〈치안대〉원으로 있었다는 사람을 한명 알게 되였는데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음, 그게 누군데?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함주군 자상리라구 읍에서 한 시오리 내려가있는 부락인데 거기에 백영달이란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백영달이?…》 현무는 이미 그를 만나보았지만 짐짓 내색하지 않았다. 서명호아바이가 소개한 백영달이도 석근이를 악질반동으로 인정한다는 소리를 미화앞에서 차마 할수 없었다. 너무나 아픈 말이

였다. 《미화동무, 그 사람을 내 꼭 만나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전… 안녕히 계셔요.》

머리를 숙여 단정히 인사하고 미화는 물러갔다.

그를 바라보는 최현무의 이마에는 밭이랑같은 주름발들이 돋아났다. 괴롭고 안타까울 때 생기는 주름살들이였다. 미화에게 만족을 줄수 없어서만 아니라 보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불새》를 찾았다는 기쁨의 보고를 드릴수 없는 자신이 괴로왔다. 무명의 영웅《불새》를 찾아 그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그이께 오늘까지도 《불새》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어떻게 올릴가 싶은 현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것이 전적으로 현무자신의 노력과 지혜가 부족한탓처럼 느껴지자 《불새》를 찾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리라 마음먹었다.

제 3 장. 량 심 과 배 반

1

최현무는 미화와 작별하고 도안전국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때까지 만나보았던 증인들을 한명한명 더듬어보았다. 그들의 증언을 여러모로 음미해보면서 석근이가 우리 사람일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럴수록 김석근은 역적이라는것밖에 없는데 언제인가 양혜심이 들려준 말이 가슴을 울리였다.

그렇다. 김석근이 우리를 배반했다고 락인하기에는 해방직후 그의 생활에서 나타난 애국심이 너무나 진실하지 않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보답하려고 자신만아니라 그처럼 고벽이 된 술망나니였던 고상팔의 가슴속에서도 의리감이 북받치게 한 석근이였다. 그더러 로동당원이 되여야 한다고 일깨워준 김석근이 공화국을 배반하다니? 혜심은 그가 반역의 길을 걷게 된 생활적계기는 군보안서에서 믿어주지 않은데 있었다고 보는데 그 말을 음미해볼수록 공감할수 없었다. 군보안서에서 김석근이 함흥영생중학교출신이라고 배제했다는 그자체가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을뿐아니라 설사 심히 그릇된 그러한 불신이 가해졌다 해도 그쯤한것에 반기를 들 김석근이 아니라고 현무는 인정하였다. 군보안서에서 이른바 따돌림을 받은 그 이후의 김석근은 여전히 생기에 넘쳐 《밭갈이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는가. 심금에서 가식없이 울려나온 그 노래소리가 그때당시 김석근의 진면모를 담보해주는것이라고 현무는 굳이 믿고싶었다. 하다면 어찌하여 그토록 깊은 의리감에 잠겨 성실히 농사지은 그가 분여지말뚝곁에서 안해와 더불어 결심한 지성의 애국미를 헌납하지 않았겠는가?… 최현무는 그때따라 김석근이를 만나려고 밭머리에까지 찾아왔다는 이름모를 그

네들이 상기되며 그들이 혹시 석근이로 하여금 위장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준 무명의 애국자들이 아닐가싶었다. 토지개혁을 압살하며 청소한 공화국을 뒤집으려고 반동들이 준동한 그 시기를 고려하면 전혀 무근거한 의혹이 아니였다. 더구나 우리 당과 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가 어찌 고상팔이더러 로동당원이 되라고 일깨워주었겠으며 그자신이 로동당원의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했으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 진짜 김석근이는 역적이 아니라고 보증해주는것만 같았다. 실로 우리 인민들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명영웅들이 있는가.

만일 김석근이도 그와 같은 숨은 애국자라면, 그러한 그를 천추에 용서 못할 반역자라고 처분한다면 우리는 인민을 희롱하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적지조를 모독하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 최현무는 도안전국 사무실에 들어섰다. 김석근이와 관련된 옛날문건들을 다시 보는데 도안전국장이 찾았다.

현무와 마주앉은 도안전국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한가지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적강점시기에 고원빨찌산부대에도 누군가 〈불새〉의 이름으로 적정을 통보해준 사실이 확인되였습니다.》

그 통보는 적강점시기 미10군단장이 함흥에 온다는 정보와 함께 보낸 적정이였다고 하면서 도안전국장은 김석근과 장욱세가 참가한 함흥지구《C. I. C.》 비상회의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회의에서 함흥주둔 미10군단 첩보대 파견고문 켈폰대위가 크레마대좌의 지령을 하달한데 대하여 언급한 도안전국장은 그 회의에서 포치한 반공깜빠니야작전의 일환으로 고원빨찌산부대에 함흥지구《C. I. C.》내조과(정탐과) 과원을 밀정으로 침투시킨다는 정보를 바로 《불새》가 보내주었다고 말하였다. 도안전국장은 그때 진행한 함흥지구《C. I. C.》 우두머리들만 모여든 군단장영접준비 비상회의에 김석근이도 참가했다는 사실과 정체불명의 그 《불새》가 보낸 정보가 함주군내무서의 비밀통로를 따라 김국성내무서장에게 입수되였다는것을 련관시켜보았다.

그바람에 최현무는 속으로 저으기 놀라와하였다.

(아니, 김국성외삼촌에게?… 그러면 그 《불새》는 희생된 외삼촌과 관련된 선이 아닌가!)

《부국장동무, 이미 확증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적구영웅 〈불새〉는 무엇보다 철저히 김국성내무서장의 전우라는것과 둘째는 그가 적어도 군단장영접준비회의에 참가할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시사해줍니다. 더구나 〈불새〉가 고원빨찌산에 비밀쪽지를 보낸 날자가 적들의 비상회의날자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즉시 통보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부국장동문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새〉가 김석근일수 있다는 예감이 보다 확고해집니다.》

《부국장동무도 그와 비슷한 자료를 쥐고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전쟁전에 침투한 잠복간첩들을 통보한 〈불새〉의 비밀쪽지들에 한교준의 망원으로 활동했다는 김석근의 이름이 없는것을 보아 그 〈불새〉가 김석근자신이기때문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추측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다고 보증하는 자료를 쥐지 못해서 실망했던것입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예측이 곧 사실이 아닌 이상 중요한것은 실제 자료로 고증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부국장동무…》

도안전국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무명영웅들을 찾는 사업에서 색안경을 쓰고 본다든가 지나치게 실무적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자신의 인간됨됨과 성격론리에 맞게 사고하며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자신들이 남의 심정, 남의 지향을 헤아려보고 그것을 자기자신의것으로 느낄줄 아는 인간, 심장이 그렇게 반응할줄 아는 인간이 됩시다. 더구나 안전일군들인 우리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녀야 사람을 볼줄 알고 벗과 원쑤를 똑바로 갈라볼수 있지 않습니까.》

현무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2

《가만.》 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도안전국장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 손에 큼직한 〈피스톤〉이 한놈 걸려들었는데 우리 같이

김석근에 대한 자료를 알아봅시다.》
그는 즉시 책상우에 있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과장을 부르더니 그는 갓 체포한 지용익을 자기 방에 데려오라고 일렀다. 적강점시기 함흥지구 《C. I. C.》내조과(정탐과) 과장이였던 지용익은 현재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대북첩보대 주임이였다.
《그놈이 어떻게?…》
《이제 모든걸 알게 될게요.》
도안전국장은 의아해하는 최현무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후 과장이 데려온 지용익은 도안전국장의 질문에 모든것을 죄다 털어놓았다.
《예, 저는 북한에 잠복하고있다는 망책 한교준이와 접선하려고 침투했습니다.》
《접선지점은 어딘가?》
역시 도안전국장이 물었다.
《덕성군 차일봉 곰바위굴입니다. 거기서 한교준의 망원 〈너구리〉와 접선하게 되였습니다.》
《망책 한교준은 어디에 있는가?》
《풍산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인지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가?》
절구통같이 실한 목대우에 어방없이 작은 상통이 달린 지용익은 유리쪼각같은 뱁새눈으로 도안전국장을 찔 흘겨보았다.
《우리 대한민국 〈화랑도〉들은 거짓말을 모르오.》
《그럼 〈화랑도〉의 침투목적은 뭔가?》

지용익의 실토

락조가 비낀 음침한 방안에서 지용익을 호출한 크레마는 그에게 비밀암호전신지를 내놓았다. 가슴을 찌르는듯 한 그의 눈총을 받으며 길다란 암호문을 읽어나가는 지용익의 살집좋은 상판은 점차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백운 특공대 풍산잠복. 자금과 지령 대기. 특공대장 백호 한교

준. 1975. 1. 9.》
아직 김석근의 행처를 모르고있은 지용익은 무엇보다 한교준이 살아있다는 정보만은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전후에 지용익은 한교준과 접선하려고 피스톤간첩 《두꺼비》를 침투시켰다. 하지만 《두꺼비》는 깊숙이 숨어있은 한교준이와 끝내 접선하지 못했다. 그래 《두꺼비》는 교준이가 1952년 2월말에 천의산에서 백운산 특공대가 괴멸될 때 죽은것으로 짐작하고 한교준은 그때 내무원들의 추격에 즉사했다고 보고했던것이다. 지용익은 《두꺼비》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
《각하, 이 정보는 가짭니다. 북한 빨갱이 정보기관에서 날린 허위정보입니다.》
전쟁시기 대좌였던 크레마소장은 한결 싸늘한 낯색을 지었다. 그가 자기를 질시한다는것을 대뜸 알아차린 지용익은 가슴이 선뜩하였다. 아니, 내가 그럼 그에게 한교준이 죽었다는 거짓보고를 했단 말인가? 만일 크레마소장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는 첩보활동에 엄중한 후과가 미치게 한 나를 결코 무사히 내쳐두지 않을게 아닌가. 지용익은 더럭 겁이 났다. 그는 늙다리 크레마소장에게 정보의 허위성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론증하려고 애를 썼다.
《만일 한교준이 살아있다면 그가 어째서 20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나타났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북한 빨갱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 날린 정보입니다, 소장님.》
이처럼 확신에 차서 판단하는 그에게 크레마는 또 한통의 다른 암호전신지를 내밀었다. 그것은 지용익을 더는 변론할수 없게 막다른 곤경에 몰아넣는 무서운 증거물이였다.
《…본부의 지령대로 깊숙이 잠복하고 때를 기다리겠음… 백호 한교준. 1968. 2. 4.》
지용익은 흠칫 놀랐다. 1968년이라면 《푸에블로》호사건이 있은 때였다. 그때 전쟁을 도발하려고 수많은 첩보대원들을 《북한》에 침투시켰는데 크레마도 자기 몰래 대북《피스톤》을 파견하여 한교준이와 접선했다는것을 지용익은 직감하였다. 여우같은 늙다리책략가인 크레마는 이미 그때부터 한교준이를 은페시키고 대북첩보대 중앙파견과 주임인 자기를 감시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만일 한교준이 살

아있다면 크레마의 감시경에 포착된 나의 운명은?… 지용익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각하, 제가 직접 〈피스톤〉을 파견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임무를 주십시오.》

거의 애걸하다싶이 간청하는 그를 묵묵히 쏘아보던 크레마는 위선적인 가동작으로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번에는 직접 한교준이와 접선하게 하고 그에게서 김석근이를 알아오게 하시오. 석근이를 〈북한〉게릴라 지대장으로 침투시킬 때 나는 그에게 특별임무를 주었소. 빨리 찾게 하시오.》

전쟁시기 김석근은 크레마의 특별신임을 받았다. 크레마는 그에게 《북한》게릴라 장교들의 정보를 제공할데 대한 비밀특별임무를 주었었다. 그런데 김석근은 행처불명이였다. 체포되였거나 죽었다는 소식도 없었다.

《명령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대북첩보대 최고고문의 신임을 회복할수 있는 말미를 얻고 지용익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그는 즉시 《피스톤》을 침투시켰다. 금년 1월 23일에 파견한 《피스톤》은 명령한 날자가 한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피스톤》2호를 그리고 또 3, 4호를 연거퍼 침투시켰다. 여전히 종무소식이였다. 다시금 《피스톤》5호를 비롯해서 17명을 동시에 내몰았다. 그들 역시 2달이 지나도 꿩구워먹은 자리였다. 지용익에 대한 크레마소장의 노염은 대북첩보대 중앙파견주임의 무능력에 랭소를 안기며 배가로 더하여졌다. 지용익은 극도로 긴장해졌다. 더는 자제할수 없었던 그는 드디여 자기가 직접 《피스톤》의 역할을 감당할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용익은 서뿔리 침투하지 않았다. 해상 및 공중과 지상통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결심을 채택하였다. 물과 하늘을 경계하는 그에게 있어서 역시 지상통로가 안전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연선지대에 나와서 분계선실태를 알아보고 타진하였다. 가장 믿음성있는 《Y》통로를 선택하고 그리로 먼저 다른 첩자를 침투시켜보았다. 안전성을 타진해줄 그 첩자는 뜻밖에도 《북한》민경한테 체포되였다. 지용익은 자리를 옮겨 개성통로를 시험해보았으나 거기에

서도 실패하였다. 다시《J》통로를 타진해보았더니 시험용 첩자는 성공하고 돌아왔다. 지용익은 그자를 앞세우고 분계선을 넘었다. 하지만 그처럼 여러번 타진해보고 안전성을 기하며 침투했으나 그는 함흥지구를 벗어나지 못했던것이다.

체포된 지용익은 여러가지 의혹을 품었다. 《북한》반탐이 아무리 강한들 첩보대에서 일생을 늙어오며 난다긴다하는 《족제비》인 자기를 제압하지는 못할게라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런데 그 《북한》에 침투되여 이틀만에 독안의 쥐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유령같은 한교준의 유인이라면?… 아니, 그럴수 없었다. 한교준이 살아있다는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은 지용익이였고 크레마소장한테 입수된 전신암호지를 북한 《빨갱이》들의 책략이라고 판단한 그가 아닌가. 더구나 그 어떤 망책과도 련계를 맺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침투한 지용익이로서는 체포된 자기의 운명이 영원한 미지의 수수께끼로 느껴지지 않을수 없었다. …

도안전국장의 방에서 나와 자기의 사무실에 들어간 최현무의 사색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다. 방금전에 목격한 지용익의 자백은 종잡을수 없는 의혹만 불러일으켰다. 김석근이 적게릴라 지대장으로 침투되였다? 크레마의 특별신임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김석근이 과연 우리사람이겠는가? 2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크레마는 김석근이를 믿고있지 않는가? 그는 김석근에게 누구도 모르게 또 다른 특별임무를 준것은 아닌지? 그 임무에 따라 김석근이 깊숙이 잠복해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크레마가 그를 찾는것 같기도 하였다. 하다면 김석근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김석근을 어찌 우리 사람으로 보겠는가?… 이러한 의혹에 도안전국장도 그럴듯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유령의 한교준이를 적발하면 석근의 행처가 밝혀질게라고 하였다. 미구하여 그들의 손에 걸릴 한교준으로부터 김석근이 크레마가 잠복시킨 망책으로 밝혀진다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비관하게만 예측하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간곡히 깨우쳐주셨는데 락망하다니… 최현무는 자신을 다잡으며 결심을 굳히였다. 김석근이 적들의 게릴라작전에 가담했다는것을 알고있는 이상 그때의 그를 알아내야 하지 않는가.

그러자면 적들의 게릴라작전때에 김석근이랑 같이 활동하다가 자수하여 지금은 새생활을 누리고있는 그런 관계자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마 적들의 게릴라부대가 괴멸당한 풍산일대에 그런 사람이 살고있을게라고 믿으며 최현무는 풍산군안전부로 찾아갈것을 계획하였다. 더구나 거기에서도 《불새》와 관련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것이 혹시 김석근이와도 관계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기도 하였다.

3

어느덧 동녘이 훤히 밝아왔다. 두메산골 풍산읍에서 하루밤을 보낸 최현무는 부랴부랴 자리를 걷었다. 오늘은 새벽일찍부터 먼길을 떠나야 했던것이다.

어제 그는 풍산군안전부에 들렸었다. 거기서 《불새》의 자료도 뒤져보았는데 그전에 이미 전화를 걸어 알고있는바와 같이 《불새》는 적게릴라부대의 이동을 통보해준 무명의 비밀쪽지에 적혀있는 대호였다. 풍산군안전부에서도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려고 각방으로 알아보고있지만 아직 자그마한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풍산군안전부의 도움으로 최현무는 어제 전쟁시기 적들의 게릴라에 가담했다가 자수한 사람을 한명 만나보았었다. 풍산읍에서 사는 그 사람은 자기는 김석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서 뜻밖에도 자기와 한부대에 있은 오인범을 만나보라는것이였다.

《오인범이라니? 아니, 그가 지금 어데 있소?》

그때 최현무는 이렇게 다우쳐물었었다. 이때까지 얼마나 찾고싶어했던가.

그 사람은 오인범이 풍산읍에서 멀리 떨어진 백산 까치봉골짜기에서 산다는것이였다. 함주군에서 살다가 4년전에 이사왔다는 오인범이, 그는 누구보다 김석근이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 아닌가. 서명호를 사형장에 끌고나갈 때 석근이의 강요에 항거했다는 오인범이니 그를 만나면 지금도 크레마가 찾고있는 김석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아넬것 같았다.

그리하여 읍려관에서 일찌기 아침식사를 끝낸 최현무는 아직 어둠이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에 길을 떠났다.

평상리에서 풍산군안전부의 승용차를 돌려보낸 그는 수림속 발구길로 들어섰다. 골짜기를 따라 오불꼬불하게 이어지는 희끄무레한 발구길은 새벽의 밝음을 보충해주었고 마가을의 잠풍한 날씨는 최현무의 행군을 한결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는 부지런히 걸어 이제는 수림속 오솔길을 톺아올랐다. 줄창 벗나무들이며 이깔나무들이 들어찬 수림속을 뚫고 고개 하나 넘어섰더니 벌써 오전해가 다 가버렸다. 다시금 깎아지른듯 한 골짜기에 들어선 그는 거기서 비로소 살림집들을 보았는데 어느 집이라 없이 모두가 동기와를 이였다. 매개의 집들에는 규모있게 짜갠 장작가리들이 처마높이 가려져있었으며 마가을의 태양이 정오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굴뚝들을 메우며 연기들이 흩날렸다. 이고장의 추위는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였다. 그보다 더욱 신기하게 보이는것은 골짜기를 따라 절벽같이 솟아있는 산릉선들에서 강냉이를 걷어들이는 풍경이였다. 사람도 붙기 어려운 산릉선에 밭을 일쿤것도 놀라운데 그 높고 험한 비탈밭에서 낟알을 실은 발구를 끌며 황소들이 메돼지처럼 오르내리였다. 풍산막바지에 처음으로 들어선 최현무는 마치 동화세계에 빠져버린듯 한 심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니 마치 독안에서 내다보는것만 같았다. 아닐세라 해는 이내 산너머에 기울어지고 깊디깊은 골짜기안에는 오후 4시가 되였는데 벌써 저녁어스름이 깃들었다. 이쯤되면 풍산군안전부장은 수림속에서 곰 같은 산짐승들이 기여나와 쏘다닐 때가 멀지 않았다고 했었다. 사람과 맞다들면 기어코 사지를 찢고야만다는 곰들이 전혀 무섭지 않는건 아니지만 이제 고개너머 30리밖에 있는 오인범을 만난다는 기대에 걸음발을 늦추지 않았다.

우중충한 곰산수림속으로 달빛이 흘러내렸다. 어디서 종종 해묵은 락엽들을 밟아대며 뭇짐승들이 어슬렁거리는듯 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현무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릉선으로 올라갔다. 산아래 골짜기에서 전등빛들이 아스라니 내려다보이였다. 최현무는 후— 숨을 내불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리소재지에서 30리 상거한 추락골부락에는 일여덟채의 동기와집들이 모여있었다. 오인범이네 집은 거기서도

제일 유측진 추락골막바지에 자리잡았다. 병풍처럼 둘러쳐져있는 가파로운 뒤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음직한 벗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메바위아래에 아늑하게 들어앉은 집앞에는 우산같은 커다란 다래나무가 있었다. 참나무울타리를 키높이 둘러쳤고 꺼멓게 색바랜 동기와지붕우에는 이름모를 풀대들이 드문드문 돋아있었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에서 연연히 흘러내리는 푸르스름한 달빛은 초저녁의 기운을 한결 생신하게 돋구는데 오인범이네 집안은 쥐죽은듯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지 아래방문은 전등빛이 환하였다.

최현무는 느릅나무삽짝문을 열고 마당안에 들어서서 주인을 찾았다. 아래방문이 열리더니 안주인이 나왔다. 그는 세대주를 찾는 최현무에게 애아버지는 약초를 캐러 나갔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제 올게라며 방안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는데 쪽대문밖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이 짖어대며 우르르 밀려들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개들은 낯선 최현무를 보고 계속 사납게 짖어대였다. 초저녁의 고요한 정적은 삽시에 부서지며 개들의 소요가 일어났다. 그것들이 어떻게나 소란을 피우는지 최현무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때 약초배낭을 멘 주인이 마당안에 들어섰다. 그는 한대중 독살스럽게 짖어대는 개들을 뭐라고 욕질하였다. 안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듯 사납게 물어제낄것처럼 발광하던 개들이 한결같이 주둥이를 다물어버리고 각기 토방밑에 있는 자기 우리로 들어가버렸다. 주인의 손때에 군견처럼 훈련받은 사냥개들이였다.

현무의 앞에 다가선 주인은 키가 크고 갈람한 사십대의 사나이인데 옛 오인범의 모상과는 달리 안경을 쓰지 않았다. 최현무는 속으로 이 사람이 혹시 자기가 찾는 오인범이 아니면 어쩌나싶은 걱정을 하며 물었다.

《집주인이 오인범동무가 맞습니까?》

주인은 집에 온 낯선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며 응수하였다.

《대좌동무는 어데 계시는데 저를 찾아왔습니까?》

《아, 그럼 동무가 오인범동무입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난 최현무라구 함남도안전국 부국장입니다.》

현무는 그의 앞에 신분증을 내밀었다. 오인범은 그의 신분증을 받아 불빛에 확인해보고서야 돌려주었다.

《도안전국에서 어떻게 저같은 사람을 다?…》

《뭐, 놀랄건 없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거, 정말 모를 일인데?— 어쨌든 들어갑시다.》
정주간 아래목에는 오인범의 어머니가 누워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손님한테 아래목을 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것이였다.
《어머니, 누워계셔요.》
오인범이 만류하였다.
《난 웃방에 올라가 눕겠다.》
《거긴 추워요, 어머니.》
《불을 땠는데 왜 춥겠니.》
《그래도 여기보단 못해요.》
《일없다. 내 걱정은 말고 손님을 잘 모셔라.》
그의 어머니는 종내 웃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두 참…》 오인범은 부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안해에게 일렀다.
《내가 오늘 신장병에 특효가 있는 금은화약초를 캐왔는데 어서 그것부터 달이오.》
《어머니는 방금전에 약을 잡숴어요.》
《그래두 또 대접해야겠소. 어머니가 요즘 말이 아니요.》
그러자 웃방에서 그의 어머니가 참녜하였다.
《그렇지 않다, 순희 애비야. 요즘 내 병은 오히려 훨씬 나아졌다.》
오인범은 들은척도 안했다. 그는 웃방에 있는 어머니가 못 듣게 음성을 낮춰 조용조용 말했다.
《쩍하면 도지는 병인데 어서 약부터 달이오.》
그러고나서 이번에는 현무한테 량해를 구했다.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아무래도 웃방에 불을 더 때야겠습니다.》
현무는 쾌히 받아들였다. 밖으로 나가는 오인범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무척 감심하였다, 오인범은 부모공대가 독실한 아들이라고…
최현무가 그러한 오인범이와 함께 안주인이 차린 주안상을 받은것은 얼마후였다.
《가만, 손님은 빈속이겠는데 먼저 이것부터 마시우다.》
오인범이 권하는 사발속에서는 황색의 꿀물이 넘실거렸다.

《오동문 벌도 칩니까?》
《예, 토봉만 한 30통을 놓았지요.》
《거 대단합니다.》
최현무는 단숨에 한사발을 쭈욱 들이켰다. 뜨끈한 꿀물이 전신에 퍼지는듯 스르르 열기가 올랐다. 기력이 생신하여 그는 함박접시에 볶아놓은 거무틱틱한 고기점을 들었다.
《거참, 별맛인데. 이건 무슨 고깁니까?》
《우리 〈왕호〉네가 사냥한 메돼지고기지요.》
《〈왕호〉네란 집의 사냥개들입니까?》
《예, 그놈들이 벌어들이지요.》
《오동문 참 그럴듯한데!—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그런 재미도 없이 무슨 멋에 살겠습니까. 자— 이젠 한잔 듭시다.》
최현무는 그가 부은 찔광이술을 천천히 마셨다.
《카!— 술맛도 별맛이구만! 그런데 오동문 왜 잔을 남기오?》
《손님도 조금씩 드우. 술이 쎈데 그러다간 한잔에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집에서 술을 마셔도 일없겠습니까, 도안전국대좌가?…》
《이거 오동무가 술맛없이 군다. 그래 동무가 한때 김석근이를 따라다녔다고 지금도 눈치를 보며 위축받는겁니까?》
술잔을 들던 오인범의 손은 입가에서 우뚝 굳어졌다. 그는 두눈을 흡떴다. 그의 두눈에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는거요?》하는 기색이 어려있는것 같더니 《하긴 도안전국 부국장이니 모를수 없겠지.》 하는것처럼 슬며시 눈을 내리깔다가 불현듯 고개를 쳐들며 반발하였다.
《뭐라구요? 내가 석근이때문에 위축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내가 말입니까? 이 오인범이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럼 동무는 어째서 내가 인범동무를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거요?》
《대좌동무, 그건 석근이때문이 아니라 나, 이 오인범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기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적게릴라포로병으로 억류되여있다가 도망쳤습니다.

그후 할수없어 자백하고 놓여난 인간입니다. 경계하지 않을수 있습니까? 나를 믿을수 있습니까?》

오인범은 후— 한숨을 내불고 잔을 비웠다.

《경계해도 무방하구 믿지 못해도 나는 할 소리없는 사람입니다.》

《인범동무, 동무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색안경쓰고 보누만, 응?》

최현무는 신중한 낯색을 지었다.

《나는 전쟁시기 김석근이를 알려고 찾아왔는데 동무가 나까지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볼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예?— 석근이를?》

오인범은 눈을 치켜뜨고 현무를 바라보다가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미 20여년전에 내무원들에게 포로되였을 때 하나도 숨김없이 죄다 자백하였습니다. 그 자백서에 나와 관련된 김석근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밝혀놓았는데 대좌동무는 뭘 더 요구합니까?》

이제는 더 말할것이 없다는듯 오인범은 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였다. 최현무는 그에게 자기는 그 자백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인범이가 포로되였던 사람이였다는것을 여직껏 모르고있었기때문이라는것도 그는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김석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있은것은 아닙니다. 그가 서명호를 끌고나가서 불과 서너발자국앞에서 권총을 쐈다고 하는데 어째서 빗맞혔다고 봅니까?》

《그거야…》 오인범은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제 고향사람이니까 우정 그랬지요. 예, 우정 그랬다고 나는 이미 자백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음, 23년전에 쓴 자백서에도 그렇게 밝혔단 말입니까? 동무는 이미 오래전에 벌써 김석근에게도 사람다운데가 있었다는걸 증명했구만.》

《나는 그저 사실대로 자백했을따름입니다.》

《또 서명호를 우정 살려준 석근이를 모른체 한 인범동무도 역시 좋은 사람으로 되는데 어째서 적들의 게릴라작전에까지 가담하게 되였습니까?》

오인범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좋은 사람으로 된다구요? 대좌동무의 귀에도 분명 그렇게 들렸겠지요? 바로 그래서 지난날 내가 해당 취급자들앞에서 김석근이를 보증할적마다 그들은 날더러 자기 죄를 감추고 애국자가 되려는 거짓진술을 한다며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후에도 리력기만자가 없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복잡한 전쟁시기야 더 말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 너무나 엄청난 나의 보증을 누가 믿어줄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나는 나를 둔갑하는 너절한 존재로 되고말았는데 이거 또 그 전철을 밟는구만요.》

오인범은 골살을 찌프리고 무척 괴로와하였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전쟁이 갓 끝난 전후시기에 겪었던 불행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오인범이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주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있었던 때였다. 하루는 짬을 내여 상태리 석근이네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그는 석근이네 가족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군《치안대》대장을 한 남편때문에 부락사람들과 이마를 맞대고 살수 없어 떠났다는 소리에 오인범은 정말 참을수 없었다.

함주읍으로 올라온 그는 즉시 군내무서에 찾아가서 내무서장을 만나려다가 무슨 회의를 하는 바람에 돌아서고말았다. 후에 만나리라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생각을 달리 먹고 읍분주소로 찾아갔다.

읍분주소에서 소장을 만나 그에게 김석근이 숨은 애국자라는것을 실감있게 보증하였다. 묵묵히 듣고있던 분주소장은 웬일인지 입가에 쓰거운 웃음을 짓더니 불쑥 질문하는것이였다.

《그러니 동무도 숨은 애국자라는거겠소?》

《예?-》

전쟁시기 포로되였을 때 진술할적에도 그런 취급을 당하며 모욕받았던 일이 기억나서 오인범은 귀밑을 붉혔다. 더없이 수치스러웠으나 석근이를 위해 꾹 참았다.

《소장동무, 내가 애국자로 대접받으려는것이 아닙니다. 적구에서 그렇듯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그에 대한 나의 도리를 지켜야 할 제가 아닙니까.》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누만, 응! 그런데 오인범이, 동무 말을 보

증할 사람이 있어?》

《아직은 없습니다.》

《없다? 동문 그래 석근이자 인범이구 인범이자 석근이 된다는걸 모르는가?》 하더니 짱 하고 책상을 쳤다. 《후퇴시기 〈치안대〉원으로 만행하다가 적게릴라대원으로 체포되였던 네가 뉘앞에서 감히 애국자인체 하는가, 엉?》

오인범은 더는 자제할수 없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분주소장을 향해 한쪽손을 쳐들고 단호히 말하였다.

《내 앞으로 기어이 밝혀놓을것이요. 본래의 김석근을 찾을 때 내 당신한테서 나를 모욕한 값을 톡톡히 받아낼테요. 명심하시오!》

집으로 돌아온 오인범은 그때부터 김석근에 대한 자기 도리를 다하려고 누구한테도 로출시켜서는 안되는, 자기 혼자만이 알고 수행해야 할 그 어떤 작전을 벌렸다. 그러던 도중 오인범은 어느날 함주읍에서 고양리 산골마을로 이사하였다. 함주읍분주소에서 취한 조치라는것을 오인범이 어찌 모르랴만 자기를 쫓은 읍분주소 소장이 그후 반혁명분자의 졸개로서 숙청되였다는것을 그는 오래동안 알지 못하였다. …

속으로 그때를 더듬은 오인범은 후— 한숨을 내불고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대좌동무, 김석근을 보증하려다가 더 나쁜 놈으로 제재받은 저의 가슴에 멍이 들어찼는데 무려 스무해나마 지나간 오늘에 와서 이 오인범이 또다시 애국자가 되려구 오그랑수를 쓴다는 험구를 들어야 옳겠습니까? 자칫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웃음가마리로 몰릴수 있다며 이젠 우리 어머니마저 질색합니다. 병환에 시달리는 어머니까지 지금생활이 좋다며 제발 조용히 살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빕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더는 묻지 마시오. 결국 김석근이자 나이고 나이자 석근이 되므로 내가 나쁜 사람인 이상 그도…》 하고 고개를 푹 숙였는데 그때 오인범의 입술은 경련이 일어나는것처럼 마구 떨리였다. 한동안 눈을 꾹 감고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전에없이 과격한 거동으로 술잔을 들이켰다. 또다시 콸콸 부어 제혼자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카! 그렇소, 석근이도 나쁜 놈이요! 역적이요, 역적이란 말입니다!》

방안이 드렁드렁 울리게 소리치고나서 오인범은 또 한잔을 삼켜버렸다.

《예, 나는 그놈이 제 고향사람까지 사형장에 끌고나간 살인마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정말 다른건 모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인범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어버렸다. 최현무는 멍이 든 그의 가슴을 더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루밤을 자고나면 죄다 말할게라고 보았지만 이튿날 아침에도 오인범은 여전히 한본새였다.

《대좌동무, 나는 김석근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대좌동무의 마음을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석근이를 보증할만큼 떳떳한 사람이 못됩니다. 나는 그럴만한 자격을 상실한 놈입니다. 그러니 나 아닌 다른 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인범은 농장에 나가 일할 잡도리로 대문밖에 있는 발구에 소를 메우는것이였다. 이 고장 산간지대에서는 지금 한창 강냉이를 걷어들이는 때여서 빨리 밭으로 나가야겠다고 하였다. 그는 최현무더러 그저 자기 집에서 푹 쉬고 가라고 권유하였다.

《인범동무.》 현무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동무는 김석근과 더불어 애국자로 될 동무자신부터 먼저 생각하는 오인범인가? 아니면 함께 싸운 전우를 위하고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볼줄 아는 오인범인가? 도대체 동무는 어떤 사람이요?》

현무가 어떻게나 저력있게 노성을 터뜨렸던지 발구에 소를 메우던 오인범이 돌처럼 우뚝 굳어졌다.

《인범동무, 동무는 김석근의 가족이 어떤 고충을 느끼건 그런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요. 가오, 어서 떠나시오. 자기만을 위한 길로 가란 말이요!》

《대좌동무!…》

오인범은 머리를 떨구었다. 가장 아픈데를 찔리운 사람처럼 괴로와하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금의 처지에서 나는 다르게 대답할수 없습니다. 대좌동무가 진짜 김석근이를 알려면 나를 만날것이 아니라 함주군 땜쟁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김석근이를 잘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심사숙고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성함은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어데서 일합니까?》

《주동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철공소 땜쟁이라고들 불렀습니다. 당시 함주군에 자그마한 철공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커다란 군농기계수리공장으로 되였더군요.》
《동무는 그를 만나보았습니까?》
오인범은 괴롭게 미간을 흐리였다.
《전후에 한번 공장에 찾아가보았지만 일시적 적강점시기 석근동무와 관계되는 주동학이는 못 만났습니다. 그때 공장에서는 적강점시기 밥벌이하자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 몇사람 만나게 해주었지만 내가 찾는 땜쟁이는 없더구만요.》
《음, 그러니 나는 더욱 곤난하겠군.》
《하지만 김석근동무를 아는 땜쟁이이기때문에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 그런데 동무는 그 땜쟁이가 김석근이와 관계된다는것은 어떻게 압니까?》
《대좌동무, 그렇게 자꾸 나를 캐여묻지 마시오. 어느날 김석근동무가 철공소 굴뚝밑에 몰래 감춰둔 비밀쪽지를 다름아닌 바로 그 땜쟁이가 꺼내가는것이 나의 눈에 한번 띄였던것입니다. 그러니 김석근이가 나보다 땜쟁이와 더 깊이 결탁되였다는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최현무는 철공소 땜쟁이가 석근이의 련락원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비밀쪽지를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게 누구일가싶어 오인범이한테 물었더니 그도 모른다는것이였다. 혹시 김석근이 《C. I. C.》성원이였으니 철공소 땜쟁이를 위장한 밀정으로 리용한것이 아닌가? 하다면 그 땜쟁이가 그전에 백영달의 말에서 나온 그 사람일수도 있지. 석근에게 백운산 마영고개에 잠복한 내무원들을 고해바친 사람이 바로 그 땜쟁이라면?… 그 역시 석근이와 다를바 없는 역적인것 같은데 김석근이 어째서 그러한 노복을 남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며 그림자처럼 달고다닌 인범이까지 그와 련결시키지 않았을가 하는 의혹이 갈마들기도 하였다.
《인범동무, 그 땜쟁이가 꺼내간 비밀쪽지는 우리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였습니까?》

오인범은 골살을 찌프리고 묵묵히 서있다가 영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때 반역의 길에 들어섰던 나고 실제로 적게릴라대원이였던 나의 말을 그래 누가 보증할수 있습니까?》

《오동무, 동문 몹시 이그러졌구만, 응? 자꾸 그렇게 빗나가지 마시오.》

《대좌동무, 나는 그전에 석근동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때 나는 매우 희극적인 인물로, 더러운 음모가로 배척받았습니다. 왜서인가 하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근동무이자 나이고 나자 석근동무인데 그러한 김석근동무를 애국자라고 하면 나 역시 애국자로 인정받겠다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를 보증할 사람이 한명도 없으니 결국 이 오인범이 뭐가 되였겠습니까. 당과 국가를 기만하는 음모가로 몰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존재로 배척받았습니다. 지어는 제 고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또 그 전철을 밟아야 합니까? 아니, 보증이 화가 되여 점점 더 더러운 인간쓰레기로 버림받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마는게 마음편하지요.》

《인범동무, 동무의 심정은 리해되지만 마음편하게 살려는 동무의 립장은 너무나 비렬하오. 남을 위해서는 자기를 바칠줄 아는 사람이 되여야 할게 아닙니까? 설사 단두대에 오른다 해도 할 소린 하구 내밀건 내미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할게 아니요.》

오인범은 한동안 골살을 찌프리고있다가 괴롭게 한숨을 내그었다.

《대좌동무, 정말 더는 괴롭히지 마시오. 진심으로 석근동무를 위하려면 나 아닌 다른 증인을 찾아주시오. 부탁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절한 그의 부탁에 현무는 더 요구할수 없었다.

《정 그렇다면…》

현무는 주동학이라는 철공소 땜쟁이를 찾을수밖에 없었다. 그는 후날 인범이를 도안전국에 불러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그와 작별하였다.

4

최현무는 이틀후에 함주군농기계수리공장에 들어섰지만 오인범이 말한것처럼 거기에는 김석근이를 아는 땜쟁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며칠 묵으면서 알아보았더니 로동자들로부터 일시적인 적강점시기 철공소 땜쟁이로 불리운 주동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하지만 그는 적강점시기에 없어졌다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그의 생사여부를 전혀 모르고있었다.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행처불명이 된 주동학이를 만날 길은 실로 묘연하였다. 날바다속에서 바늘을 찾는것과 같이 난감했으나 현무는 손을 뗄수 없었다.

그는 온밤 잠들지 못하며 추리하였다.

(그렇지, 주동학이가 석근이와 관계되는 인물이라면 양혜심이 알수 있지 않을가?)

약간의 실마리라도 잡히면 천리라도 추적하고싶은 심정이였다. 현무는 이튿날 아침 공장에서 떠나 영천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짧은 가을해가 정오를 가리킬 때 그는 혜심이네 집에 들어섰다. 마침 농장벌에서 들어온 양혜심은 전에없이 밝은 기색이였다.

《대좌동진 우리 주인때문에 이 고생이군요. 어서 들어가세요. 내 인차 점심을 끓여요.》

《나는 점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주머니도 일손이 바쁘겠는데 우리 식사부터 나눕시다.》

《원, 남의 일때문에 뛰면서도 밥곽을 들고 다니시다니요?》

부엌에 들어간 양혜심은 최현무가 그렇듯 만류했지만 점심상을 차렸다.

《그런데 은섭인 보이지 않누만. 어디 멀리 방목하러 나간게지요?》

《그 앤 올해에 우유생산계획을 200프로 하겠다며 아주 방목지에 나가산답니다.》

《참 기특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예술단 배우가 따르는게구만.》

《대좌동지도 그 애들의 관계를 압니까?》

《알지요. 이 집 주인을 찾는 길에서 미화동무도 만나게 되였는데 참, 아주머니는 혹시 주동학이라구 적강점시기 땜쟁이노릇을 한 사람을 모릅니까?》

《주동학이라구요?》 양혜심은 조용히 눈시울을 내리뜨리며 한동안 깊이 회억하였다. 《전혀 생각나지 않누만요. 전쟁전에 밭에서 일하는 우리 주인한테 웬 손님들이 찾아온적 있어요. 한사람은 키가 크고 나이 좀 들어뵈구 그와 같이 온 다른 사람은 우리 주인 나이에 아주 다부지게 생겼더군요. 서로 이야기과정에 그 젊은 사람보구 우리 주인이 그저 주동무라고 불렀는데 어디 주가성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나요.》

《그 사람이 땜쟁이노릇하는건 못 봤습니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내가 한번 우리 주인을 찾아 군〈치안대〉에 찾아간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호위원장을 살려내자고 밤길에 나선 일 말이지요?》

《네— 바로 그때 나는 남편과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이튿날 아침 집을 떠났어요. 강원도 친정집에 찾아가면서 빈손이 돼서 잠간 함주시장에 들렀댔습니다. 어물매대에서 마른 가재미를 한두름 사들고 나오는데 바로 그 주동무가 시장으로 들어오더군요. 흰 등산모같은걸 쓰고 잔등에는 허름한 궤짝을 멨더군요. 나는 그 사람의 눈에 뜨이는것이 싫어서 피해나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땜쟁이차림새 같기도 해요. 아니면 구두수리공이나 엿장사를 했는지 어쨌든 그러루한 차림새였어요.》

《음—》 짐작이 간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리고나서 최현무는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그 사람이 주동학일수 있지.》

그는 또다시 고개를 수긋하고 혼자생각에 골똘하다가 머리를 들었다.

《가만, 아주머니, 이거 국이 다 식었구려. 우리 식사부터 합시다.》

《참, 이 정신 보지. 국이 식는줄도 모르구… 내 얼른 덥혀와요.》

《아아, 됐습니다. 어서 듭시다.》

그는 혜심을 수고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술을 들었다. 하는수없이 양혜심이 마주앉았다.

상을 물리고나서 최현무는 식사과정에 떠오른 생각을 말하였다.

《내가 보건대 그 사람이 주동학인것 같은데 그후 오늘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까?》

양혜심은 《네ㅡ》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 사람이 밭에서 주인을 만나기 이전에는 본적 없습니까?》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럼 같이 왔다는 그 키 큰 사람은 못 봤습니까? 누구인지?…》

《네ㅡ 그 사람은 정말 말투부터 점잖구 아주 인상좋은 사람이였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인상이 좋았습니까? 주인하고는 구면입디까?》

《아니, 초면이였습니다. 키 큰 사람이 데리고와서 무어라 하더니 서로 인사를 나누는걸 보아 그 키 큰 사람이 소개시킨것이 분명합니다.》

《소개시켰단 말이지요? 전쟁전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사해주는것이 있어 최현무는 서둘러 물었다. 《참 아주머니, 집주인은 전쟁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농사만 지었습니까? 다른 취미는 없이 아니, 농사가 지향의 전부였습니까?》

양혜심은 가슴이 저린듯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전번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인은 원래 축구를 좋아했지만 그것도 마다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안서원이 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주인이 보안서원이 되려고 한것은 그에게 그럴만한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

1946년도의 김석근

그해 이른봄이였다. 어느날 오후 두엄짐을 지고 논으로 나가던 석근은 동구앞에서 함흥으로 올라가는 소꿉친구를 만났다.

《여 석근이, 함흥에 장군님이 오셨대! 축지법을 쓰신다는 **김일성**장군님 말이야!》

《정말이나?》

《그래 난 지금 함흥에 올라가는 길이야. 같이 가지 않겠어?》

《장군님을 뵙자구? 그런데 어디 계신줄 알구?》

《응, 함흥기관구에 찾아오셨다니까 거기 가면 뵈올수 있을게야.》

《그래! 여기서 좀 기다려. 같이 가자구.》

집에 가서 두엄짐을 벗어놓고 의복을 갈아입은 김석근은 부랴부랴 함흥으로 올라갔다. 고향마을소꿉친구와 함께 줄창 달려 함흥기관구에 갔으나 서운하게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거기에 오시지 않았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함흥기관구 정문앞에 맥을 놓고 앉아있는데 앞에서 영생중학교 동창생이 다가왔다. 그는 석근이를 보고 매우 반가와하였다. 김석근이 함흥기관구에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동창생은 친절히 알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늘 도인민위원회 회의실에 오셨는데 거기서 진행된 철도종업원집회에서 연설하시고 가셨다는것이였다.

《그럼 자네도 참가했겠구만, 응?》

《물론이지!》

《자넨 정말 대단하구만! 장군님까지 뵈왔으니!…》

김석근은 무척 부러워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던가, 로동계급이 되여야 사람값을 한다질 않았어. 아마 자네도 철도종업원이 되였더라면 오늘 장군님을 뵈았을거야.》

《그런데 이보게, 장군님이 키가 구척이시라더니 정말 그렇던가?》

《허허허… 자넨 영 촌놈이 되였구만, 응? 이 사람아, 이 세상에 키가 구척되는 거인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실로 거룩한 위인이시야. 글쎄 지금형편에서도 장차 우리 철도국에 축구단같은걸 조직해서 로동자들이 일도 하며 생활을 다채롭게 조직할데 대한 가르치심까지 주시였어. 모든데서 우리가 주인이라시며 건국사업에 로동계급이 앞장서라구 하셨어!》

《축구단까지 조직하라구 말씀하셨단 말인가?! 로동계급을 주인으로 내세우셨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만! 자네들의 앞날이 환히 내다뵈여!》

《석근이, 이제라도 촌구석에서 뛰쳐나오라구. 자네껜 좀 좋은 재간이 있나? 우리 국에 와서 축구단을 꾸리구 그걸 책임지면 자넨 아마 명성을 떨칠걸세. 중앙에도 뽑혀가구… 그래 마음이 동하지 않나?》

원래 축구라면 오금을 못쓰는 김석근에게 있어서 동창생의 권고는 가슴을 저으기 흥분시켰다. 그는 자기딴의 속구구를 하며 동창생에게

말하였다.
《좀 생각해보겠네. 그럼 후에 다시 만나자구.》
마을로 돌아온 김석근은 그길로 포전에 두엄을 내는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전야에 황혼이 깃든 저녁무렵에 백양나무동뚝길에서 석근이와 마주친 큰아버지는 두엄짐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음, 그러니 농사를 그만두겠단 말이지?》
《네, 원래 저야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큰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뻐금뻐금 담배질만 하였다.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지고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문득 큰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엄짐을 지려고 하였다. 석근이 그를 대신해서 포전에 두엄을 내고 둘은 다시금 백양나무동뚝길에 올랐다.
그전에 석근이 아버지가 포전에 나갈 때마다 다니군 했던 길이였다. 그래서인지 큰아버지는 문득 돌아간 아버지를 회억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한뙈기의 땅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너는 농사를 그만두겠단 말이지.》
가슴이 축축해졌으나 김석근은 말없이 걸어갔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생 땅을 다루며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큰아버지의 심정을 따르고도 싶었지만 축구는 그보다 한결 견인력이 있었다. 그는 좀처럼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큰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예전과는 달리 새벽부터 포전에 나가지 않는 석근이를 불러앉혔다.
《너 어제 함흥에 올라가서 그 소리는 못 들었느냐? 장군님께서 농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음, 참 시레비녀석같으니… 우정 장군님을 만나뵙겠다구 달려간 녀석이 그 말씀을 놓치다니? 이것 봐, 석근이.》 큰아버지는 전에없이 숭엄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밤에 철도국에서 나한테 친구가 찾아왔댔다. 그는 장군님께서 로동자들의 식량을 걱정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실 때 쌀배낭을 메고 오지 못하시다나니 동무들에게 당장 쌀을 내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다고… 그래 넌 장군님의 그 심정이 헤아려지지 않더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오래동안 산에서 싸우시다나니 쌀배낭을 메고 오지

못하셨다는 그 말씀이 심금을 울리지 않는가 말이다.》
김석근은 고개를 숙이였다. 큰아버지는 한결 절절하게 말하였다.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식량사정이 긴장하여 새 조국건설이 시련을 겪는다고 못내 걱정하고계신다. 식량이 부족한 어려운 틈을 타서 반동놈들의 책동도 우심해진다면서 그이께서는 함흥학생소동도 식량난이 제기된 기회를 악용해서 조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나라의 형편이 이러한즉 장군님께서는 식량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겠니? 그이께서는 하많은 국사로 밤을 패시면서도 좁쌀죽으로 끼니를 에우기도 하신다더라.》
《예?!ㅡ》
《석근아, 장군님덕분으로 지난 가을에 3.7제가 실시되여 너도 나도 쌀밥을 들면서도 나라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지.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그래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거냐? 너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원한많은 부모들의 심정을 대신해야 할 처지가 아니냐. 응, 석근이?…》
김석근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밥을 들게 하시고 자신께서는 좁쌀죽으로 끼니를 에우군 하시는 장군님! 그이께서 온 나라 인민의 식량을 걱정하시는데 내가 농사를 그만두려 하다니?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아프시면 쌀배낭을 메고 오지 못하셨다고 오히려 장군님께서 죄스러워하신단 말인가?! 한뙈기의 땅이 없어 생죽음을 당한 부모들의 처참한 운명을 생각하면 이 석근이야말로 그이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존재가 아닌가. 아무리 뽈을 차고싶은들 어찌 돌아간 부모들을 잊으랴싶었다. 저세상에서도 지켜보는듯 한 부모들의 몫까지 합쳐 보답해야 할 자신을 의식하고 김석근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큰아버지, 제가 결심을 달리 먹겠습니다.》
이튿날부터 김석근은 전보다 배가의 노력으로 두엄을 져날랐다.
포전마다 벼이삭들이 알알이 영근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토지개혁 농촌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했던 큰아버지가 애국미를 헌납하고 돌아오다가 반동놈들의 습격에 희생되였다. 김석근은 크나

큰 충격을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고 마련해주신 새 조국, 새생활을 전복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는 반동놈들인가! 함흥학생소동을 주도한 안병덕이 같은 악질반동분자들이 있는 한 큰아버지가 희생되는것과 같은 손실과 피해를 면할수 없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아니, 적들로부터 분여지와 새생활을 지켜야 했고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군님의 위업을 옹위해야겠다는 크나큰 충격에 김석근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해질무렵에 안해와 함께 마을뒤 모래둔덕에 안치한 큰아버지의 봉분을 찾아갔다. 큰아버지앞에 소주를 한잔 올리고 김석근은 말하였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바라시는대로 나는 평생을 농사일에 바치며 영명하신 장군님을 받들어가리라 마음다졌댔지만 오늘의 현실은 저로 하여금 손에 무기를 잡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 합니다. 이 세상에 계급적원쑤가 있는 한 우리 제도, 우리 생활을 전복하려는 적들의 책동은 계속될것이고 새 조국건설은 시련을 겪게 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우리 전진의 좌절을 노리는데 어떻게 참을수 있겠습니까, 큰아버지?》

김석근은 잠시 침묵하고나서 무척 비장한 어조로 토로하였다.

《적들과의 대결은 비록 생명이 위태로운 싸움이지만 장군님의 령도를 옹호하는 길에서 죽어도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버지, 이제부터 농사일은 안해한테 맡기고 저는 장군님을 옹위하는 1선결사대원이 되여 한생을 바치겠다는것을 큰아버지에게 맹세올립니다.》

김석근은 안해와 함께 큰아버지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그때부터 김석근은 보안서원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

이렇게 조용조용 회고하던 양혜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사람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봉분앞에서 그처럼 철석같이 맹세한 우리 주인이 글쎄 다른 길을 걷다니?… 때로는 남편을 믿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지만 그후 남편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잠시 입을 다문 혜심의 눈앞에는 난구집손님과 마주앉아 쑥덕공론

하던 남편이며 가슴팍에 《C. I. C.》발톱을 쳐든 사자입묵을 새긴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함주군《치안대》 사무실에서 남편한테 따귀를 얻어맞았던 일까지 회억되는 바람에 혜심은 골살을 찌프리고 침통하게 말하였다.

《우리 주인은 동무들을 잘못 만나서 보안서원도 못되고 그렇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동무들을 잘못 만났다니, 그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혜심은 호― 한숨을 내불었다.

《우리 주인은 함흥영생중학교 동창생들만 아니라 전쟁전부터 이웃난구집손님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 한교준이라구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음, 교준이?… 여기서도 한교준이와 맞다드는군.)

최현무는 그전에 도안전국에서 간첩 리병화의 진술서를 보았던 일이 떠올랐다. 해방후부터 잠복해있으면서 망책 《두더지》로 활약한 한교준은 성천강철교를 노린 《R―1》폭파작전을 감행하려다가 내무원들의 추격에서 간신히 도망친 교활한 간첩이였다. 뿐만아니라 얼마전에 도안전국에 체포된 대북첩보대 주임 지용익이 접선하려는 망책이 다름아닌 한교준인데 그자는 오늘까지 숨어있으면서 크레마의 지령을 기다리고있는 악질잠복간첩이다. 최현무는 바로 그자를 통하여 행처불명인 김석근이까지 찾으라는 크레마의 지령을 받고 침투했다는 지용익의 진술이 더듬어졌다. 그렇다면?… 적들도 찾고있는 김석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다시 이런 의혹이 갈마드는데 양혜심이 말을 이었다.

《우리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속으로는 은근히 애국자로 밝혀졌으면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은섭이 아버지가 우리 일을 하는것 같은 인상을 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혜심은 가슴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솟구치는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잠시 진정하고나서 현무를 쳐다보았다.

《대좌동지가 이처럼 마음쓰며 찾아다니는걸 보면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목격한데 의하면 우리 주인은 한교준이와 손을 잡은 그때부터 다른 길을 걸은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현무는 저으기 어리둥절해졌다. 과연 전쟁전부터 한교준이와 결탁한 석근이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가? 손을 털고 물러서고싶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단정해버릴수 없게 하는것이 과거의 김석근이였다. 그렇다, 김석근은 그토록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한창나이에 농사지을 결심까지 하였고 또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여 보안서원까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나쁜놈들과 사귀였다 한들 그렇게 쉽사리 변절할 처지가 아니지 않는가? 혹시 그가 한교준이와 손을 잡은것도 우리 일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밀려듦과 동시에 《불새》가 다름아닌 김석근일수 있다는 자료들이 상기되였다. 이미 한교준이까지 잠복간첩이라고 통보해준 《불새》가 오래동안 그자와 함께 간첩활동을 진행했다는 김석근의 이름만은 보내준 비밀쪽지마다에 적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불새》가 김국성내무서장과 련결된 비밀공작원이라는 증거자료들이 생각났다. 하다면?… 최현무는 아까부터 호기심을 자아낸 그 키 큰 사람을 더욱 알고싶었다.

《아주머니, 전쟁전에 논벌에서 만났다는 그 키 큰 사람 말입니다. 그후에 그 사람을 만났거나 본적은 없습니까?》

《녜—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현무는 속으로 여간 실망하지 않았다. 김석근이 보안서원이 되고싶어서 군보안서에 찾아다녔다기에 그 사람이 혹시? 하는 생각이 또다시 갈마들었다. 《아주머니, 그때 보았던 그 사람이 대체 어떻게 생겼습디까? 곰곰히 더듬어보십시오.》

양혜심은 눈을 간잔지런히 뜨고 한참이나 기억을 더듬었다.

《의복은 그저 로동자들이 입고다닌 물날은 대마직옷이구… 저— 그 사람의 눈섭우에 무슨 흠집이 있은것 같아요.》

《왼쪽에 말입니까?》

《아마 그런가봐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현무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되였다. 그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고나서 혜심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처녀처럼 볼우물이 패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웃으면 필경 볼우물이 패이군 했는데 다만 아주머니가

못 봤을따름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대좌동지는 그렇게까지 확신하는거예요?》

순간 최현무는 그 사람이 해방직후 함주군보안서장(전쟁시기 함주군 내무서장)이였던 자기 외삼촌이라고 말하려다가 내색하지 않았다.

《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좀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그렇다, 최현무는 이때 그 사람이 바로 김국성이라고 예측하였고 김석근에게 소개해준 청년이 틀림없는 주동학이라고 추리하였다. 오인범이 그래서 주동학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것 같기도 하였다.

(하다면 그렇듯 알고싶은 김석근이 문제는 역시 주동학이한테 달려있지 않는가!)

모든 비밀의 열쇠가 그에게 쥐여져있다는 생각에 현무의 가슴속에서는 다시금 주동학이를 찾고싶은 충동이 일었다.

5

주동학이 틀림없이 우리 사람이라면 김석근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함주군려관방에서 현무가 종잡을수 없는 의혹에 잠겨 오락가락하는데 문득 출입문에서 손기척소리가 나서 들어오라 하자 문이 열리며 중키에 다부지게 생긴 안전원이 나타났다. 한 서른댓살되나마나해보이는 중위는 현무앞에서 절도있게 인사하고나서 자기는 윤경이라고 하였다.

《그렇소? 이 밤중에 안전원동무가 어떻게?…》

《저는 대좌동지가 김석근의 연고자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동무가 적강점시기의 석근이와 무슨 연고라도 있단 소리요?》

《그렇습니다, 대좌동지. 제가 바로 적강점시기 김석근이를 사형처분했던 함주군 〈왕초〉입니다.》

그 바람에 최현무는 흠칠 놀랐다.

《뭐라구?》

그의 두눈은 무섭게 흡떠졌고 미간은 그보다 더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그때 중위동무는 몇살이였길래 감히 그런 말을 하는거요?》

《비록 10살난 애숭이였지만 그래도 저는 합주군 쓰리군대장이였습니다.》

《쓰리군대장이였다? 허허허… 동무가?…》

《그렇습니다, 대좌동지. 저는 결코 그때의 자기를 숨기고싶지 않습니다.》

나어린 윤경이 쓰리군의 길을 걷게 된것은 그에게 그럴만한 생활적환경이 조성되였기때문이였다. 아마 적들이 밀려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나이에 집없는 아이가 되여 방랑생활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다섯살때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한 그의 가정에는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미더운 부모들이 있었고 남달리 다심한 할머니와 정다운 두 형님들이 살고있었다. 그들 삼형제는 근면하고 성실한 부모들의 슬하에서 부러운것없이 배우며 뛰놀아대며 삶을 즐기였다.

토지개혁의 덕분으로 풍덩기와집을 쓰고살면서 옛날 지주집 부럽지 않게 살진 누렁소에 여러마리의 개와 닭들을 치고있었다. 하얀 회벽면들에 산뜻한 갈노전바닥이 어울려 한결 아늑해보이는 웃방에는 키높은 커다란 라지오축음기가 편수책상옆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녁때가 되면 늘 축음기를 틀어놓군 하였다. 《밭갈이노래》와 같은 해방의 새삶에 겨운 흥겨운 노래가락이 울려퍼지면 어느새 마을아낙네들과 로인들, 숱한 조무래기들이 모여든다. 넓다란 마당복판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멍석우에 둘러앉은 그들은 즐겁게 담소하며 노래들을 감상한다. 어느덧 저녁밤은 깊어가고 별들이 총총한 한여름의 검푸른 하늘가에서는 쟁반같은 보름달이 빛을 뿌리며 즐거움을 한결 돋구어주었다.

《자, 이젠 윤치록이 노래를 불러라. 여기 새장구도 있겠다 꽹과리도 있겠다, 어서요!…》

윤치록이란 바로 윤경의 아버지인데 그더러 어서 일어나라며 앞집 정순이네 할머니가 독촉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즐겁게 허허 웃으며 우스개를 피웠다.

《내 소린 돈먹은 소린데 어떻게 맹숭맹숭해서 부르겠소?》
《내 그럴줄 알고 탁배기 한병 가져왔다니까.》
이러며 열바네 어머니가 치마폭에 감싸온 탁배기병을 꺼내놓았다.
《안주는 이거면 되겠지.》
열바네 할아버지가 햇마늘을 가져왔다. 윤경의 아버지가 탁배기를 좋아한다는것을 이미부터 알고있는 동네사람들이였다.
아버지는 희색이 만면해서 한사발 주욱 들이켰다.
《얘 윤경아, 거 퉁소를 내오너라.》
모기불곁에 앉아있던 윤경은 얼른 일어나서 웃방으로 들어갔다. 라지오축음기곁에 세워놓은 아주깔퉁소를 내다주었더니 아버지는 거의 한발이나 되는 퉁소부터 불어대는것이였다. 역시 《신아우》곡부터 시작하였다.
멍석우에 앉아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노래에 심취되던 마을사람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것처럼 입을 모아 합창을 불렀다. 정순이네 할머니가 장구를 치고 바우돌네 아주머니가 꽹과리를 두드리는 속에서 한사람두사람 일어나더니 드디여 춤판이 벌어지는것이였다.
저녁마다 흥겨운 노래가락이 울려퍼지면서 세월은 흘러갔다. 그런데 미국놈들에 의해 이 평화스러운 윤경이네 부락에도 전쟁의 포화가 들씌워졌다.
밤마다 조무래기들의 놀이터로 되군 하던 네거리의 외등들도 꺼져버렸고 어린이들의 글읽는 소리 랑랑히 울려퍼지던 농가들의 불밝던 창문들에도 컴컴한 방공막들이 가리워지게 되였다.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청장년들은 너도나도 전선으로 탄원하였고 마을에 남은 녀인들과 로인들은 전선원호미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운데 윤경이와 같은 마을의 조무래기들은 여전히 책보자기를 들고 등교하였다.
아침등교때에는 의례히 리인민위원회앞에 있는 게시판으로 찾아가 남진하는 인민군대의 진격로에 따라 해방된 곳에 붉은색삼각기발이 꽂히는 조선지도를 쳐다보군 하였다.
그날도 윤경은 리인민위원회 게시판앞으로 다가갔다.
《히야!― 벌써 의정부가 해방됐네!》
윤경이 의정부가 어떤 곳인줄 모르면서도 그저 자꾸자꾸 해방되는

기쁨에 못이겨 환성을 질렀다.
사실 인민군대는 노도같이 진격하였다.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은 서울해방에 이어 수원, 평택, 천안을 연거퍼 해방하였다. 그러는데 따라 윤경이 찾아가군 하는 리인민위원회 게시판에는 해방의 붉은 기발들이 자꾸자꾸 꽂혀지였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윤경은 등교할적에는 물론 학교에서 돌아올적에도 그 게시판을 보고야 가던 길을 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자랑했던것처럼 논벌에서 들어온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남녘땅을 해방하는 인민군대의 위훈을 신이 나서 알려주군 하였다.
《어머니, 오늘은 대전이 해방되였어요!》
《아버지, 오늘은 현풍과 령산이 해방되였어요. 이제는 부산지구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방공막을 쳐놓은 웃방에서 숙제공부를 끝마치고 윤경이 잠들어서 한시간이 되나마나한데 아버지가 깨우는것이였다.
《얘 윤경아, 미국놈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피난을 가자.》
눈곱을 쥐여뜯으며 일어난 윤경은 어느새 쌀가마니들을 하나가득 실은 달구지를 따라 피난의 길로 올랐다. 아버지는 우리더러 먼저 떠나게 하고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그래 낟알을 듬뿍 실은 소달구지는 당시 16살난 맏형이 몰고갔다. 어머니와 둘째형 그리고 윤경은 쌀쌀한 가을밤에 선하품을 하며 무거운 걸음들을 옮겨놓았다. 동네를 벗어나 북쪽 함흥시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길섶에 숨어있던 웬 남자가 유령처럼 불쑥 나타나더니 달구지소를 몰아가는 맏형에게 다가들었다.
《아니, 윤치록이 아니구나?》
그는 같은 동네에서 사는 김성만이라는 청년이였다. 인민군대를 기피하고 어딘가에 숨어있던 그자는 윤경의 아버지를 붙들려고 했던 모양이였다. 당시 윤경의 아버지는 리농맹위원장사업을 하면서 리자위대 대장의 일까지 하고있었던것이였다.
《너의 아버지는 어디 갔어?》
김성만이 묻는 소리에 맏형은 아버지가 일깨워준것처럼 《아버지는

이미 어제 밤에 후퇴를 했소.》라고 대답하였다.
《쌍놈의 두상태기, 내 손에 잡히면 없는건데…》
김성만은 으득으득 이발을 갈며 또다시 길섶 어디엔가 몸을 감추었다. 아마 그놈은 후퇴길에 오른 《빨갱이》들을 잡으려고 아직 적들이 밀려들기 전부터 그처럼 악랄하게 책동하는것이리라는 생각에 어머니도 윤경이도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을수 없었다.
채찍을 휘두르며 소를 다그어 몰아대는데 김성만이 잠복해있는 바로 그쪽에서 《으악!》하는 단말마적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 많은 윤경이 살금살금 그쪽으로 다가갔더니 글쎄 웬 사람이 김성만을 처단하고 어디론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것이 아닌가. 그게 누구인가 알아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들고 주시했지만 허우대 큰 그 사나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낼수 없었다. 아버지를 잡으려고 한 김성만이를 처단하고 어둠속에 자취를 감춘 그 사람에 대한 흐뭇한 생각에 윤경은 힘든줄 모르고 걸음을 다우쳤다.
고향마을에서 한 10리 상거한 함흥시 만세교입구에 이르니 벌써 《치안대》완장을 낀 일여덟놈의 청장년들이 또 길목을 지키고있었다. 윤경이네 상태리며 함주읍사람들이 장진쪽으로 빠질수 있는 길목이였다.
저 멀리 흥남항바다쪽에서 적들이 쿵쿵 함포사격을 해대는 속에서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적비행기들이 날치며 조명탄들을 떨구어 사위를 대낮처럼 밝히고있었다. 윤경이네 낟알달구지는 《치안대》완장을 낀 그놈들한테 붙잡혀서 억류당하였다. 놈들은 《빨갱이》가족이기때문에 피난간다고 보면서 쌀은 물론 소까지 몰수한다는것이였다.
바로 그때였다. 다리쪽에서 키가 작달막한 《치안대》놈이 뛰여와서 황황히 부르짖었다.
《지용수형님, 이쪽으로 인민군대가 올라오오. 빨리 피하자요.》
그놈들의 우두머리인듯 한 지용수란 놈은 달구지곁에 서있는 윤경의 맏형에게 자기네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된다고 오금을 박았다. 하지만 윤경이네는 지용수네 패거리들이 도망치자 부랴부랴 소를 몰아 장진쪽으로 올라갔다. 성천강동뚝을 따라 소를 몰아가는데 문득 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때까지 달구지주변의 어둠속에 몸을 감추고 남몰래 따라온 윤경의 아버지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소

몰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달구지의 뒤꽁무니를 따라 나어린 윤경이도 온밤 끝없이 걷고 또 걸었다.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돌멩이에 걸쳐 어푸러지기도 하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대를 따라 북으로, 북으로 행군하였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적기들이 조명탄들을 떨구며 살판치고있었다. 쿵, 쿵 적들의 함포사격이 가해지는 소요속에서도 윤경은 끄덕끄덕 졸며 걷다가 강안쪽동뚝우에 파놓은 전호속에 툴렁 떨어지면서 코박살이하였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데는 없었으나 신발 한쪽이 벗겨져나갔다. 아무리 손더듬질하여도 지난달에 어머니가 갓 사다준 고무신발은 좀처럼 잡히질 않았다. 하는수 없어 윤경은 왼쪽신발을 잃고 맨발바람으로 걸어갔다. 길바닥의 갖가지 오물들에 발바닥이 쓰리고 아파났지만 그렇다고 칭얼거리며 눈물을 쥐여짤수 없는 형편이였다. 비록 10살난 윤경이지만 나어린 그에게도 후퇴의 준엄한 환경이 지배되여 그로 하여금 엉석부림의 막냉이로서가 아니라 시련을 겪는 조국의 운명과 함께 호흡하며 움직일줄 아는 그런 숨결이 맥박치고있는 모양이였다.

어느덧 동녘이 희붐해졌다. 모든것이 북으로, 북으로만 쏠리는듯 한 준엄한 그 시각에도 예나 다름없이 동녘이 훤해지더니 미구하여 해가 솟아올랐다. 군소재지를 지나 흑림천 4호발전소 촌락에 들어선 윤경이네는 거기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얼마간 머물게 되였다. 그때에야 한쪽신발을 잃고 맨발바람으로 따라온 윤경의 발바닥을 보고 그의 아버지는 미간을 흐리였다.

《녀석두, 발바닥이 이렇게 째져도 찍소리 안하다니!…》

아버지는 너무나 대견하여 막냉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주인집에서 벼짚을 한줌 얻은 아버지는 짚신 한짝을 삼았다. 한쪽에는 짚신을 신고 다른 한쪽발에는 고무신을 신은 윤경은 다시 부모네들을 따라나섰다.

해종일 걷고 또 걷는데 적비행기들은 피난가는 무고한 주민행렬에 마구 기총소사를 해대며 지랄하였다. 산촌의 좁다란 행길우에서 사람도 쓰러지고 소들도 쓰러졌다. 트루맨이나 맥아더와 같은 전쟁광신자들에게 고용된 미국비행사들은 그에도 성차지 않아 나팜탄을 떨구고 기관포까지 쏘아대며 연약한 부녀들과 나어린 어린이들마저 무차별적

으로 살해하였다. 천추에 용서못할 귀축같은 만행을 부리며 미제 살인귀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수많은 생명, 재산들을 무참히 빼앗아 가는것이였다. 그러나 적들은 인민군대를 따라 북행길에 오른 우리 인민들의 앞길을 결코 막을수는 없었다. 다시 돌아올 그날을 내다보며 총포탄이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 대오는 묵묵히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그속에서 윤경이네 가족은 흑림천을 건너 깊은 산골 봉세리에 도착하였다. 봉세리에는 상태리 윤가가문의 산당집이 있었는데 상태리 피난민가족들은 바로 그 집에 모이기로 되였다.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며 서기장, 녀맹위원장과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 윤경이네 가족도 전부 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것이였다. 적들의 폭격과 포격속에서 간난신고하며 꼬박 3일만에 도착한 그 집에서 상태리 피난민가족들은 목적지가 다른 세대주들과 헤여지게 되였다.

그들은 윤경이네가 달구지에 싣고온 식량들을 나누어메고 세대주들은 인민군대를 따라 멀리 황초령을 넘어 장진호반쪽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가족들은 더 깊은 산골마을인 고개너머 안세리로 찾아 들어갔다.

안세리로 들어가는 고개길은 천고의 가시덤불길이였다. 피난민가족들은 윤경이네 누렁소를 앞세우고 가파로운 릉선길을 톺아올랐다. 누렁소는 음메음메 영각을 쓰며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갔다.

고개넘고 또 넘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안세리초입에 있는 외딴집이였다. 이미 해는 지고 캄캄한 밤이여서 그들은 그 외딴집에서 하루밤을 묵기로 작정하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허청간이며 마당에서 잠을 깬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더는 북으로 갈수 없었다. 안세리 대도로를 따라 미국놈들의 땅크들이 밀려드는것이 외딴집마당에서도 빤히 내려다뵈였던것이다.

어딜 가나 적들이 살판치는 바람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죽어도 고향땅에 묻히자고 생각한 그들은 안세리 외딴집에서 돌아서서 고향으로 되돌아내려갔다. 밤낮으로 줄창 걸어 역시 사흘만에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자기네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채 《치안대》놈들한테 잡혀 적들이 감옥으로 쓰는 정순이네 뒤주창고안에 감금되였다.

나어린 10살난 윤경이도 가족들과 함께 감옥생활을 하게 되였다. 해질무렵에 갇히운 그들은 그날 저녁에도 굶었고 이튿날 아침에도 빈속으로 지냈다. 먹고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그러한 윤경에게 적들의 감옥에서 뛰쳐날수 있는 일루의 기회가 마련되였다. 늦은 아침 이 시각따라 변소보는 그에게 붙어서 감시하던 《치안대》놈이 일시 자리를 떴던것이였다.

윤경은 삼십륙계줄행랑을 놓았다. 멀리 5리밖에 있는 토막거리 고모네 집으로 찾아갔지만 고모네 집도 놈들한테 몰수당하고 누구도 없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안고 다시 30리길을 걸어 성천강너머 흥남시 구탄리에 있는 외가집에 들어섰다. 해방후에 농사를 잘 짓고 애국미까지 바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표창장을 받은 외삼촌은 부락세포위원장사업을 하고있었는데 그는 벌써 《빨갱이》로 체포되여 피살되였다. 집을 빼앗긴 외삼촌네 가족은 남의 집 웃방살이를 하고있었다. 그 집에도 있을수 없는 처지여서 윤경은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다시 길가에 나섰다. 이제는 찾아갈 곳도 없어 그는 어데라없이 그저 발이 내키는대로 걸음을 옮겼다.

구탄리에서 나와 함흥—흥남도로에 들어선 윤경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함흥으로 올라갈가, 흥남으로 내려갈가 하다가 함흥시에서 사는 5촌작은아버지가 떠올라 그 집에 찾아가고싶었다. 그러나 나어린 윤경에게도 함흥시건설사업소 지배인을 한 작은아버지네도 무사치 못할게라는 생각에 흥남쪽으로 돌아서고말았다.

흥남시에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전쟁전에 흥남시 서호부두에 내려와서 명태를 한달구지씩 받아가군 한 아버지를 따라 다닌적이 있어서 아주 생소한 고장은 아니였다.

아버지가 서호부두에서 물고기를 받아오군 했는데 전쟁전에는 참으로 살기 좋았었다. 여름내 땀을 철철 흘리며 농사를 짓다가도 물고기 생각나면 서호부두에 내려가서 고등어를 한달구지 실어와서 온 동네가 나누어먹군 했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철에는 명태를 달구지로 실어왔다. 그것들을 널바자에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온 겨울 명태국을 끓여먹군 하지 않았던가.

기억도 새로운 그날이였다. 아버지는 명태달구지에 동해 털게를 두가마니 실어왔다. 온 식구가 달라붙어 게살을 발가내고 그것으로 비

빔밥을 해서 즐겁게 먹던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저 기쁨만 안겨주던 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미국놈들이 살판치는 세상이 되였을가 하고 윤경은 어제날을 그리워하였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는무렵에 20리길을 축내여 흥남시에 들어선 윤경은 또다시 배가 출출하였다. 전쟁전에는 배고픈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미국살인마들이 들어와서부터는 하루도 출출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는 서호부두에 내려가서 물고기부스레기라도 주어먹을가 해서 흥남비료공장옆을 지나가며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때였다. 누구인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윤경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 너 〈둥굴〉이구나!》 한마을에서 사는 한살 손우 소꼽동무였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난 지금 흥남항에서 오는 길이야.》

《흥남항?… 거긴 왜?》

《이걸 슬쩍했지 뭐.》

《둥굴》은 어깨에 걸쳐멘 마대자루를 내보이였는데 그안에는 여러가지 통졸임통들이 들어있었다. 흥남항에 쌓아놓은 미국놈들의 식료품야적장을 습격했다며 《둥굴》은 으시대였다.

《이거면 며칠 먹을수 있어! 너 좀 가질래?》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니? 집에 가는 길이니?》

《쳇, 우리두 집을 몰수당했어.》

《그럼 친척집에 가니?》

《아니야, 〈대통〉한테 가.》

그가 말한 《대통》이란 윤경이보다 두살우인 한마을아이였다.

《〈대통〉이 지금 어데 있길래?》

《응, 지하아지트에 있지. 너도 갈래?》

그들의 지하아지트는 함주군에 있다면서 거기에 가서 같이 살자고 《둥굴》은 말하였다. 갈데없는 윤경은 마침 잘되였다고 생각하며 그를 따라 함주군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아지트는 함주읍에서 신상쪽으로 나가는 대도로를 따라 한 5리쯤 나가있는데 길을 가로질러간 수로의 암거였다. 여름철이면 층층 물이 고이겠지만 초겨울의 암거속은 텅텅 빈 상태로 말라

있었다.
　암거안은 열명나마 거처할수 있을만큼 넓었다. 윤경은 그들의 아지트를 더 잘 꾸리고 매일같이 미국놈들의 식료품창고를 습격하며 《치안대》놈들의 돈주머니를 훔쳐내는 쓰리군의 생활을 해나갔다. 그러는 과정에 집없는 아이들이 그들의 대오에 더 많이 합류하여 마침내 윤경이 《왕초》가 된 쓰리군패가 무어졌던것이였다.
　그들이 쓰리질하던 어느날이였다.

《왕초》의 증언

　장욱세가 발기한 이른바 포식포살의 주연이 벌어진 그날밤이였다.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길가에 뻗어버린 두 악당의 호주머니를 털다가 김석근이한테 붙잡힌 《왕초》는 그의 손탁에서 다행스럽게도 쉽게 놓여났다. 만취된 김석근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빠져나올수 있었다.
　《왕초》는 곧 자기 아지트로 돌아갔다. 함주—신상행 대통로를 가로질러간 암거는 윤경이 《왕초》가 되면서부터 함주군 소년따기군 우두머리들의 비밀집합장소로 되기도 하였다. 주로 집없이 방랑생활하는 아이들로 무어진 《왕초》부대는 거기서 그날의 벌이를 회계하였으며 바로 그속에서 다음날을 작전하고 군내 도처에 널려져있는 소부대 《붓도(소조대장)》들을 불러다가 새 과업을 주기도 하였다. 소년따기군들은 저들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암거를 《꿀통》이라고 명명하였다.
　《꿀통》에 돌아온 《왕초》는 희끄무레한 석유등잔밑에서 장욱세의 호주머니에서 쓰리한 로획물들을 회계하였다. 약이 오르게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왕초》는 두덜거리며 네겹으로 접혀있는 종이장을 펼쳤다. 뜻밖에도 거기에 자기네 둘째외삼촌의 이름까지 적혀있었다. 《왕초》는 그것이 군내 《빨갱이》명단임을 알아보고 즉시 각 지역 《붓도》들을 호출하였다.
　옹근 하루가 걸려 다 모인 《붓도》들에게 《왕초》는 《빨갱이》명단을 보여주었다. 어떤 아이는 자기 큰아버지 이름이 있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고모가 적혀있다고들 하면서 그들이 전부 피신하게 알

려주자고 하였다. 《왕초》는 그렇게 하기로 파업주었을뿐아니라 《치안대》악질두목들을 없애치우자고 말하였다. 《붓도》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모험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채 쌍수를 들어 지지하였다. 나어린 그들은 저마끔 고무풍선처럼 들떠서 그 어떤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흥남항에 가서 미군놈들의 식료품야적장에서 통졸임통들을 한배낭씩 쓰리한 세명의 《왕초》 일행은 기분들이 좋아서 함주읍에 들어섰다. 밤은 깊어 삼태성도 서켠하늘에 퍼그나 기울어졌다. 《꿀통》으로 가던 그들은 어느덧 함주읍에서 벗어나 무인지경 대통로에 나서는데 앞에서 김석근이 혼자 걸어가고있었다.

《〈붓도〉, 저놈이 우리 〈꿀통〉을 습격하러 오는게 아니야?》

《왕초》의 의혹에 수흥리《붓도》는 말할것도 없고 함주읍 《대통》도 그렇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안되겠어. 저놈을 살려두면 〈꿀통〉이 들장나.》

《왕초》의 말이였다.

《그럼 어쨌으면 좋니?》

《대통》의 질문에 《붓도》가 대꾸하였다.

《우리 죽여버리자꾸나.》

《뭐, 사람을 죽여?》 12살난 《대통》이 겁에 질려 말하였다. 《더구나 어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인다구 그러니. 저놈한테는 총도 있어.》

《넌 정말 겁쟁이구나. 몰래 숨었다가 뒤통수를 까버리면 돼.》

《대통》보다 한살 더 먹은 《붓도》의 말에 《왕초》가 지지하였다.

《옳아, 우리 그렇게 하자.》

그들보다 두세살아래지만 꾀많은 《왕초》가 행동안을 내놓았다. 《대통》은 김석근이 가는 길앞에 드러누워서 배아픈 시늉을 한다. 그러면 석근이 멈춰서서 볼게다. 그때 《왕초》와 《붓도》는 통졸임통으로 동시에 뒤통수를 깐다는 안이였다.

《붓도》가 그의 계획을 의심하였다.

《저놈이 세상없는 살인만데 〈대통〉이 배아프다 한들 돌봐주려구 할가?》

《체,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아.》
《대통》이 이렇게 말하며 자기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자빠졌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마.》
역시 《왕초》가 다른 안을 내놓았다.
그들은 즉시 움직이였다. 《왕초》와 《붓도》는 논벌을 에돌아 김석근이 앞으로 내달려 길가에 몸을 숨겼다. 으스름한 달빛속에서 허우대 큰 김석근의 거뭇한 형체가 눈앞에 접근해왔다. 《왕초》가 입술을 오그려 여우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을 신호로 하여 몰래 석근의 뒤를 밟던 《대통》이 기침하며 인적기를 내였다.
《아저씨, 같이 가요.》
아닐세라 김석근은 《왕초》의 계책대로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이였다. 길가에 숨어있던 《왕초》와 《붓도》는 이미 준비한 돌덩이들을 동시에 집어던졌다. 갑자기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김석근은 찍소리 못하고 뻐드러졌다. 그래놓고보니 《왕초》마저 더럭 겁이 났다.
《얘들아, 빨리 뛰자!》
《꿀통》을 향해 그들은 줄행랑을 놓았다. 한참 달려 멀리 도망쳤을 때 갑자기 《붓도》가 멈춰섰다.
《얘 〈왕초〉야, 저놈이 정말 죽었을가?》
그러자 겁이 많은 《대통》이 먼저 대꾸하였다.
《죽지 않구. 자, 빨리 도망치자.》
《이건 그저… 겁쟁이같은거.》 《붓도》가 성을 냈다. 《만일 저놈이 살아나면 너부터 죽어. 그놈이 너를 보지 않았니.》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마.》
《왕초》가 이러며 앞장섰다. 《대통》도 마지못해 따라섰다.
길바닥에 쓰러진 김석근은 분명히 죽었다.
《됐어, 이젠 가자마.》
역시 《대통》이 졸랐다.
《가만있어.》 《왕초》가 이러며 《붓도》를 쳐다보았다.
《우리 이놈의 가슴팍에 판결문을 써붙일가?》
《야!— 거 정말 멋지겠구나! 뭐라구 쓸가?》
《응?…》 《왕초》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머리를 짰다.

《참, 이렇게 쓰면 어때?》
《뭐라구?》
《저… 〈우리 사람을 죽이는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좋아! 거기다 우리 패를 대표해서 밑에다가 〈왕초〉라구 밝혀라.》
《붓도》가 신이 나서 종이장부터 내밀었다. 《왕초》는 석근의 호주머니에서 만년필을 뽑아들고 《대통》한테 말하였다.
《얘 〈대통〉, 너 성냥 있지? 이거 어디 새까매서 뵈니?》
할아버지의 대통에 담배를 담아주군 해서 《대통》으로 불리우는 12살난 소년은 《USA》상표가 붙은 라이타를 절컥 켰다.
그리하여 김석근의 시체에는 《우리 사람을 죽이는자는 이렇게 된다! 〈왕초〉》라는 글발이 붙었다.
《됐어, 이젠 가자마.》
여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대통》이 재촉할 때 신상쪽에서 찌프차 한대가 불을 켜고 달려왔다. 《왕초》일행은 부랴부랴 삼십륙계줄행랑을 놓으며 무연한 논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신작로에서 퍼그나 멀어졌는데 문득 귀청을 째는 총성들이 자지러지게 울렸다. 그들은 우뚝 멈추었다. 몰방으로 터지는 총성은 저 멀리 바로 《꿀통》근방에서였다. 그들은 저들의 비밀아지트가 격전장이 되는줄로 알고 가슴들이 철렁해졌다. 거기에는 이해 겨울나이용 숱한 쓰리물자들을 저축해두었다. 하지만 어느 애도 그것들을 빼낼 궁리는 못했다. 그저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였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예측과는 달리 찌프차에 탄 놈들과 다른 웬 사람이 맞불질하는 총성들이였다. 찌프차는 줄창 미친듯이 내달리고 필시 혼자인듯 한 웬 사람은 결사적으로 추격하는 교전이였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야음을 썰던 총성들은 멎어버리고 사위에서는 달리는 찌프차의 동음만 아츠럽게 울리였다.
거의 함주읍입구에 다달은 그 찌프차가 문득 멈춰섰다. 석근의 시체를 보고 멈춰선것 같았다. 《왕초》는 쾌재를 불렀다.
《잘코사니ㅡ 이!…》
신작로에 나선 그들은 《꿀통》쪽으로 걸어갔다. 방금전에 맞불질하던 어방에서 《붓도》가 먼저 흠칠하였다.
《아니, 이건 웬 시체야?》

아까 찌프차를 추격하며 쏘아대던 그 사람의 시체같았다. 커다란 개털모자를 쓰고 물날은 보위색반외투를 입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시장에서 종종 만나군 했던 철공소 땜쟁이였다. 《왕초》는 놀람과 애석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뇌이였다.
《참 좋은 아저씨가 죽었구나.》
추위에 떨며 시장에 쓰리하러 돌아치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귀마개며 엿같은걸 사주던 땜쟁이였다. 더구나 찌프차를 추격하다가 희생된 아저씨라고 보아져서 《왕초》는 그냥 지나칠수 없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철공소 땜쟁이를 맞들어 저들의 《꿀통》안에 안치해두었다.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가싶어 온통 상처투성이 된 그를 돌봐주며 밤을 지새웠다. 살려내려고 그렇듯 애를 쓰며 정성다했으나 땜쟁이는 종내 소생하지 못하였다. 어느새 날은 밝고 해가 떠올랐다. 침침한 암거속에도 해빛이 들비쳐들었다.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철공소 땜쟁이를 약간 둔덕진 밭에 안치하였다.
삽과 곡괭이를 둘러메고 저들의 《꿀통》으로 돌아오던 그들은 신작로에서 뜻밖에도 어제 밤에 처형한 김석근이 마주오고있는것을 보았다.
《아니, 저놈이 살았구나?!》
《왕초》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야, 빨리 도망치자!》
《붓도》의 재촉에 그들은 삽과 곡괭이들을 집어던지고 정신없이 줄행랑을 놓았다. 깊숙한 수로를 따라 북쪽 멀리 사마귀등판에 오른 그들은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며 김석근을 감시하였다. 석근은 어제 밤에 교전한 장소에서 오락가락하며 무엇인가 살펴보는것이였다. 《왕초》네는 김석근이 저러다가 《꿀통》을 뒤지면 어쩌나싶어 가슴을 조이는데 괘씸하게도 그놈은 종내 암거속에까지 들어가는것이였다. 《왕초》네가 락심천만해서 앉아있는데 한참후에 김석근이 나왔다. 암거우에 올라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놈은 터벅터벅 걸어 함주읍으로 되돌아가는것이였다. 하지만 《꿀통》은 폭로되였다. 게다가 김석근이 살아있는 이상 《왕초》네는 함주읍에서 전과 같이 마음놓고 활동할수 없게 되였다. 그들은 그날중으로 《꿀통》을 털고 흥남으로 옮겨앉았던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후에 흥남부두에서 김석근이를 다시 보게 될줄을 어떻게 알았으랴. …

여기까지 말한 옛 《왕초》는 입가에 쓰거운 웃음을 띄였다.
《대좌동지, 그때는 적들이 밀려나가는 때였습니다. 부두에는 도주하는 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저마다 먼저 배를 타겠다는 적들로 흥남부두는 수라장을 이루었는데 아, 글쎄 거기에서 나는 다시금 김석근이와 맞다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놈은 키가 껑두룩한 졸개 〈치안대〉 놈과 함께 배를 타러 나왔던것이였습니다.》
《왕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이거 뭐, 더 길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놈은 남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보증설수 있습니다. 아니, 그놈이 악질반동이라는것을 우리 쓰리군패거리들이 다 증명할수 있습니다.
대좌동지, 그래도 김석근이를 더 알아보아야겠습니까?》
최현무는 말이 없었다. 격분에 차서 단죄하는 윤경의 증언에서 그는 오히려 여러가지 의혹을 품었다. 김석근이 과연 어찌하여 그날밤의 교전장을 알아보았는가? 분명 그가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석근은 그 땜쟁이가 적들의 찌프차를 기습한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실로 놀라운 일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찌프차를 기습했는지?… 어쨌든 적들을 치려다가 희생된 그와 관련되는 김석근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철공소 땜쟁이가 적구투쟁을 진행한 우리 사람이라면 그와 결탁된 김석근은?…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수많은 의혹들은 최현무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역시 철공소 땜쟁이한테 있는것이 틀림없는데 그는 희생되지 않았는가?… 그가 주동학이 틀림없다면 김석근이 문제는?… 최현무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중위동무, 혹시 동무는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의 이름은 모르오?》
《예, 그저 우리는 땜쟁이아저씨로 통했습니다.》
《음— 그럼 동무는 부두에서 만난 김석근의 졸개가 누구인지 모르오?》

《키꺽다리 말입니까? 그 사람은 오인범이라구 우리 〈대통〉의 큰 이모 아들입니다.》
《그렇소? 그런데 오인범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였소?》
《그놈은 적장점시기 그림자처럼 김석근을 따라다녔는데 그놈이 〈대통〉의 이모 아들이 아니였더라면 우리 손에서 그렇게 무사치 못했을것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최현무는 윤경중위와는 다르게 생각하였다. 진짜 김석근이를 알려면 철공소 땜쟁이를 찾아야 한다던 오인범이, 바로 그에게도 진짜 오인범이 숨어있다고 최현무는 느꼈다. 적들을 추격하다가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가 진짜 석근이를 알고있는 주동학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되는 오인범을 어찌 그저 나쁜 사람으로만 보겠는가. 더구나 석근이자 자기고 자기자 김석근이 된다는 오인범이 아닌가.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와 같이 그 어떤 애국적인 소행을 했음직한 오인범인데 그는 진짜 석근이와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자수한 사람과는 달리 포로병으로서 마지못해 자백한 자기의 말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통감하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포로되였던 23년전에 자백한 바로 그때부터 체험한 쓰라린 교훈이였다. 하긴 적게릴라포로병이 되여 할수 없어 자백한 오인범이 같은 사람이 역적으로 인정받는 석근이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말을 누가 선뜻 믿어주랴. 아마 그래서 오인범은 포로되였을 때 쓴 자기의 자백서에도 진짜 석근이와 자기를 밝히지 못했을것이 아닌가. 최현무는 며칠전에 허천군안전부에서 오인범의 자백서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저 석근이를 따라다니며 죄를 졌다고 쓴 자백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인범이 이제 철공소 땜쟁이가 희생되였다는것을 알면 석근이를 보증할 사람은 유독 자기밖에 없다는것을 절감할게 아닌가. 현무는 멀지 않아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와 관련된 진짜 석근이가 밝혀질게라는 예감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만일 그가 우리 사람이라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하고 생각하던 최현무는 언제인가 양혜심이 들려준 말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마당에 살구나무를 심으면서 후퇴를 안한 남편이 농짝안에 간수한 공민증까지 치웠다고

했었지. 현무는 혹시? 하는 의혹이 갈마들어서 윤경에게 눈길을 보냈다.

《중위동무, 동무네 부락에 석근이네가 살던 집이 지금도 있소?》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 살구나무도 있겠지?》

《대좌동지가 그걸 어떻게?…》

《동무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 그 살구나무 밑을 파보오. 거기에 석근이 부부의 공민증이 묻혀있을수 있으니 잘 찾아보오.》

《예?— 제가 그들의 공민증을 찾으란 말입니까, 제가요?》

윤경은 자못 어처구니없어하였다.

《왜? 동무가 그들의 공민증을 찾아주면 안되오?》

《글쎄,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못하겠다 그거겠소?》

그렇다는듯 윤경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있었다. 현무는 한결 신중한 낯색을 지었다. 만일 김석근이 그 나무밑에 공민증을 정히 간수했다는것이 확인되면 윤경이도 석근이를 보는 눈이 달라질수 있지. 현무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엄하게 말하였다.

《중위동무, 만일 동무가 지금도 열살때 쓴 색안경으로 석근동무네를 본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소? 싫어도 찾아야 하오.》

현무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제 4 장. 김 석 근

1

최현무는 다시금 풍산군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인범을 도안전국에 부르려다가 그보다도 자기가 인범이를 찾아가는것이 나을게라고 보았다.

그가 풍산군 백산 까치봉골짜기 추락골부락에 있는 인범이네 집에 두번째로 들어선것은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이였다. 오인범은 웃방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있었다. 그는 느릅나무삽짝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무를 알아보고 전에없이 반가와하였다.

《아니, 대좌동무가 오셨군요!》

오인범은 벙글거리는 얼굴로 현무앞으로 다가서면서 그동안 무척 궁금했던 소식부터 물었다.

《주동학이 아니, 철공소 땜쟁이를 찾았습니까?》

《이거 콩밭에 서슬을 치는군. 그래, 앓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좀 차도가 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들은 전등빛이 환한 정주간에서 저녁상을 물리고 마주앉았다. 인범이네 가족들은 전부 그의 어머니가 있는 웃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요즘 줄창 그 생각뿐입니다.》 오인범이 말하였다. 《철공소 땜쟁이생각에 밤잠을 설치군 합니다.》

최현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희생되였습니다.》

《예?—》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언제 말입니까?》

《적강점시기 누구도 모르게 희생되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현무는 고개만 끄덕이였다.

오인범은 너무나 크나큰 손실에 심장이 찢어지는듯 하였다. 그는 후— 한숨을 내불고 슬픔에 잠긴 침통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었다.

밤은 서서히 깊어갔고 먼 산중에서는 소쩍새만 처량하게 울어대였다.
《이젠 진짜 김석근을 밝혀줄 사람은 오직 인범동무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최현무가 말하였다.
오인범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웃방으로 들어간 그는 장농속에 깊숙이 보관한 사진을 한장 들고나왔다. 뜻밖에도 괴뢰군 장교복차림의 김석근이와 괴뢰군 사병복을 입은 오인범이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부산 영도수용소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 운명을 같이하려는 비장한 각오가 비껴있었다.
《자, 이래두 내 말이 과장없이 진실하게 들리겠습니까? 이때까지 나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해준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기때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좌동무?》
그래서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그런 말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듯 한 눈길로 현무를 고집스럽게 쏘아보았다.
《인범동무, 누가 보증해주든말든 동무는 마땅히 자기 도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석근에 대한 자기 도리를!…》
저력있는 현무의 말에 오인범은 골살을 찌프리였다.
《자, 이 사진을 보시오.》
현무는 손에 든 사진을 흔들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니 동무야말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오.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석근의 운명을 두고 어쩌면 그처럼 방관시하는거요? 인간성이 없소. 정말 의리가 없소. 김석근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오늘에 와서도 그는 숱한 애국자들과 내무원들까지 살해한 천추에 용서못할 역적으로 락인되고있단 말이요. 그래도, 그래도 입을 다물고있어야 옳겠소? 동무한테는 과연 심장이 없소? 정의를 위해 박동하는 붉은 피가 없나 말이요, 예?》
《뭐라구요?》 오인범은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숱한 애국자들과 내무원들까지 살해했다구요?》
오인범은 하도 기가 차서 멍하고 앉아있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앙천대소하였다. 그러다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있던 그는 갑자기 주먹을 쳐들어 자기 무릎을 꽝 쳤다.
《아니요! 석근동지는 역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소, 내가, 내가 증언하겠소! 사실대로 말하겠단 말이요!》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방안이 떠나가게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

그날밤 오인범은 서명호를 학살한 김석근이와 함께 군《치안대》로 올라가고있었다. 자정이 넘은 함주벌은 무거운 정적속에서 신음하는듯 하였다.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그들의 발밑에서는 살얼음이 부서지는 아츠러운 발걸음소리들만 잦은가락으로 울리였다. 앞에서는 김석근이 걸어가는데 오인범은 그의 뒤에서 끌려가는듯 하였다. 허리를 구부정한채 고개를 숙이고 따라서는 그의 눈앞에서는 방금전에 서명호를 학살하던 잔인한 김석근의 모습이 사라질줄 몰랐다. 오인범은 소름이 끼쳤다. 자기더러 《빨갱이》를 죽이지 못한다고 미친듯이 발광하던 석근이였고 고향마을 이웃을 그렇게도 야수적으로 총살한 살인마였다. 오인범은 굶주린 승냥이이상으로 피를 즐기는 김석근이와 동행하는 자신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과연 나는 어찌하여 이런자와 운명을 같이하는가? 미래의 자신을 내다보니 심장이 터질듯 한데 앞에서 걸어가는 김석근이 문득 입을 열었다.

《자넨 아까 공화국치하가 좋았다 했지?》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해져서 대꾸하지 못했다. 김석근은 빈정거리는 어투로 물었다.

《그래, 무엇이 좋았나?》

아직도 살인에 성차지 않는 모양인지 김석근은 점점 로골적으로 도발하였다. 오인범은 이제 미칠 광적인 폭행을 예감하며 입을 꾹 다물고 걸음만 옮겼다.

《왜 말이 없나, 인범이? 공화국이 자네한테 뭘 주었나, 뭘?》

《뭘 주었는가구요?》

또다시 입을 다물어버린 오인범의 뇌리에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보낸 전쟁전의 생활들이 어제인듯 되살아났다.

무엇보다 잊을수 없는 함흥고급중학교에 입학했던 그날의 감격적인 사연부터 추억되였다. 그날따라 류달리 맑게 개인 여름날 아침이였다. 학교게시판에 입학자명단이 나붙을 초조한 시각은 각일각 다가왔다. 오인범은 게시판앞에 성을 쌓고 기다리는 수험생들속에 끼여 지꿎게

달라붙는 심연속에서 헤매이였다. 그럴수록 한낱 농사군녀인의 아들에 불과한 자기같은 사람을 고중에 붙여줄것 같지 않았다. 남들처럼 서울공부를 한것도 아니고 겨우 함주중학교를 다닌 자기같은 촌뜨기를 받아줄리 만무하지 않는가. 고급중학교에 붙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보면서도 오인범은 다만 불타는 향학열에 끌리여 행여나 하였다.

드디여 고중입학자명단이 게시되였다. 합격의 기쁨에 만세를 부르는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락심천만해서 돌아가는 《불행아》들도 눈에 띄웠다. 절망에 사로잡힌 불합격자들은 틀림없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수험생들일게라고 오인범은 단정하였다. 그는 자기 마음을 억제할수 없어 감히 게시판앞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먼발치에 못박혀 합격된 행운아들의 환희에 찬 들뜬 모습들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기만 할 때였다. 오인범은 어디선가 꿈속에서처럼 연연히 들려오는 부름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고중입학을 고대하여 함흥시에까지 따라와 외아들의 뒤바라지를 하는 어머니가 소리쳐부르는것이였다.

《얘야 인범아, 붙었어, 붙었다니까!》

《예?―》

어머니가 재차 환성을 질러서야 까닭을 알게 된 오인범은 그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격정에 사무쳐 어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행복에 겨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지 지금도 딱히 가늠할수 없었다. 아! 공화국은 나에게도 배움의 희망을 안겨주지 않는가!…

즐겁고 보람찬 학창시절은 청춘의 희열과 행복만 속삭여주는 가슴벅찬 나날들이였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도 곡절없는 자기 만족과 보람찬 생활의 길이 열려져있었을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 자신도 미처 예감하지 못했던 인생의 치욕을 안겨주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인범이네 학교에서도 너도나도 인민군대를 탄원하여 전선으로 떠나갔다. 물론 인범이도 탄원했지만 몸이 허약한탓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그는 몇몇 안되는 신체허약자들과 함께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하루수업이 끝나면 오인범이도 다른 동무들처럼 교사앞에 있는 학교게시판을 찾아가보군 하였다. 학교게시판에도 윤경이네 부락 농촌게시판에서처럼 남진하는 인민군대의 진격로에 따라 해방되는 남반부지역에 붉은 기발이 새겨지군 하였다. 벌써 부산가까이 밀양, 마산

에도 붉은 기발이 새겨졌다. 가슴벅찬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붉은 기발에 고무되여 그는 또다시 전선에 탄원하였다. 학교교원들은 전승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멀지 않아 전쟁이 끝날게라며 오인범이더러 학습에 전심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적들의 폭격에 교사가 불타고 허물어졌지만 교실도 전선으로 여기며 학과학습에 열중하였다.

가을바람이 불어드는 어느날이였다. 뜻밖에도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되였다. 교원들과 함께 학생들도 교재들이며 기밀문건들을 소개하고 뒤늦게 후퇴길에 올랐다. 그들이 함흥시를 떠날 때 오인범은 지척에 있는 자기 집에 잠간 들렸다 나오려고 하였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어머니는 날이 차지면 도지군 하는 신장병으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집을 떠나 후퇴하랴싶었다. 약 한첩없이 떠나면 외지에서 객사할것 같은 어머니였다. 오인범은 이제라도 약방에 들려 효험이 있다는 약을 몇첩 구해주어 떠나게 하고싶었다. 그는 후퇴대렬을 인솔하는 교장선생에게 보고하였다. 멀리 오리천 다리목에서 대렬을 따라잡기로 하고 그는 함흥약방부터 찾아갔다. 다행히도 약방에서 좋은 약을 몇첩 구해들었다.

어느덧 밤 9시경이 되였다. 함주읍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찾아들어간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방안아래목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그가 예견했던 신장병이 도져서 심하게 앓고있었다. 앞집 추옥아주머니가 와서 부엌아궁이에 불을 때며 어머니를 간호하였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이웃이 각근히 돌봐주고있었다.

오인범은 배낭을 뒤져 어머니에게 약부터 대접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아주머니, 제가 왔으니 이젠 가보십시오.》

《인범삼촌, 지금은 너도나도 인민군대를 따라가는데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자요.》

그러자 이불속에서 앓는 어머니가 응수하였다.

《나야 인제 죽으면 뭘하우. 남들한테 짐이 되느니 오히려 여기서 죽는게 낫지.》

《죽기는 왜 죽는다구 그러우.》 추옥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고 오인범에게 재촉하였다.

《오늘 밤엔 떠나야 하니 어서 어머니의 보따리를 싸놓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갈게.》

오인범은 선뜻 응할수 없었다. 추위가 닥쳐드는 이때에 몸을 뜨뜻이 덥혀야 이제야 조금 차도가 보이는 신장병으로 고심하는 어머니를 데리고 갈수 있겠는데… 하는 근심이 생겼다. 후퇴하는것이 얼마나 간고분투하는 행군인가 하는것을 내다본 오인범은 집을 두고 떠나는 그 길에서 어머니는 잃을것만 같은 우려가 밀려들었다.

《아주머니, 먼저 떠나라요. 어머니는 내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삼촌은 학교대렬을 따라가야겠지?》

《어쨌든 제 어머니가 아닙니까. 어서 가십시오.》

원추옥아주머니는 오인범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부엌에서 물러갔다.

오인범은 허청간에서 이웃들이 패놓은 장작을 한아름 안고나와 부엌아궁에 가득가득 밀어넣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다.

《어머니, 뭘 잡숫고싶어요? 제가 구해올게.》

어머니는 무척 고마와했지만 대렬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걱정하여 어서 떠나라고 떠밀었다. 그러나 인범은 병고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두고 훌쩍 떠날수 없었다. 하루밤이라도 편안하게 간호해드리고싶어 그날밤을 집에서 지새웠다.

어느덧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오인범이 어머니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한참 걸어 골목길을 지나 성천강동뚝길로 올라서는데 공교롭게도 《치안대》완장을 두른 장욱세패거리들과 마주쳤다.

《손들엇!》

학생복차림에 배낭을 멘 오인범의 앞에 몽둥이를 든 네놈의 우두머리인 장욱세가 권총을 내대였다. 오인범이 당황해하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는데 욱세가 빈정거렸다.

《아!－ 인범이구만.》 해방직후에 부모들을 따라 월남도주했던 소학교동창생인 지주의 아들 장욱세가 오인범을 알아보았다. 그놈은 인범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죽거렸다. 《네가 학생이 된걸 보니 공화국 치하에서 덕을 보는게구만, 응? 지금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는가구?》

오인범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돌연 권총을 잡은 욱세놈의 손목을 타격하려는데 어느새 곁에 있는 《치안대》놈들이 와 달라붙어 두 손목을 비틀었다. 우악하게 생긴 다른 한놈은 꼼짝 못하는 오인범의 면상에 마구 주먹질을 하였다.

《가만!》 장욱세가 한쪽손을 쳐들어 제지시켰다. 그는 오인범의 턱밑에 다가들며 지껄이였다.

《공화국이 뒤집혀지는데도 인민군대를 따라가? 이봐, 인범이. 다행히도 나를 만났으니 망정이지 어쩔번 했어.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인민군대를 따라가는 너를 살려줄것 같애?》

《어림도 없지.》

곁에 있는 《치안대》놈이 맞장구를 쳤다.

《인범이, 지금 미군은 함흥에 들어왔어. 래일이면 황초령을 넘어 인차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겠는데 그래두 인민군대를 따라가겠어? 며칠후에는 인민군대도 씨종자없이 전멸돼.》

오인범은 욱세놈의 횡설수설이 역겨웠지만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이젠 우리를 따라오는게 좋아. 네가 어제날 우리 집 작인의 자식이구 또 소학교동창생인 까닭에 내가 관대히 보구 받아들이는거야. 래일부터 군치안대에 나와, 알겠어?》

《〈치안대〉에?》

오인범이 두눈을 흡뜨며 놈들에게 잡힌 손목을 뽑으려고 모지름쓰자 우악한 그놈이 또 면상을 갈겼다.

《그만해!》 장욱세가 눈을 부라리였다. 《인범인 내가 잘 아니까 놓아줘.》

오인범이 《치안대》놈들한테서 놓여나자 욱세가 그루박았다.

《달아날 궁리는 아예말어. 우리 아이들의 눈은 못 피해.》

장욱세는 인범이앞에서 물러가려다가 다시 돌아섰다.

《래일 치안대에 나오지 않으면 너는 물론 네 에미까지 잡아들이겠어. 만일 네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날엔 네 에미를 죽여버리겠다. 명심해!》

욱세놈이 어찌나 표독스럽게 말했던지 인범이는 그만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장욱세패거리들은 인범이한테서 배낭을 빼앗고 물러가버렸다. 한동안 멍청하니 서있던 오인범은 또다시 흠칠 놀랐다. 어머니를 해치겠다구?… 아니, 어머니를?… 자기때문에 어머니가 잘못될듯 하여 오인범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후퇴할수도 없고 《치안대》대원이 될수도 없는 자신이 아닌가. 그는 비칭비칭 걸어 집으로 되돌아갔다.

앓는 몸으로 대문밖 멀리까지 따라서며 바래준 어머니는 지금도 방안에 들어가지 않고 부엌문앞에서 아들이 사라진쪽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대문안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 마주다가왔다.

《넌 어찌된 영문이냐, 응?》

오인범은 무어라 대답할수 없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살펴보았다.

《아니, 배낭은 어데다 두고 돌아왔니?》

《욱세놈한테 잡혔댔습니다.》

《욱세라니? 남으로 도망친 장구익지주놈의 아들 말이냐?》

《예.》

《그놈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음, 참…》

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들이 돌아온 사유가 짐작되는지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쨌든 너는 떠나거라, 무서워말구.》

오인범은 침침한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어서.》

《…》

《왜 그러고 서있니, 돌아서지 않구?》

오인범은 여전히 묵묵히 서있었다.

《인범아, 너는 꼭 인민군대를 따라가야 해. 죽어도 공화국을 위해 죽구 살아도 공화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오인범은 차마 뒤말을 이을수 없었다.

《그놈들이 네가 떠나면 나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게로구나. 죽이겠으면 죽이라지. 다 산 로친네를 죽인들 우리 공화국이 잘못되겠니? 비록 네가 죽고 내가 죽어도 공화국은 끄떡 안하니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 되여서는 안된다.》

《어머니,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못 떠납니다. 그놈들이 눈을 밝히고있습니다.》

《그럼 숨어있다가 어둡거든 떠나거라.》

오인범은 학생복차림으로 웃방에 숨어있었다.

점심참이 되였다. 누구인가 마당에 들어서더니 방문앞에서 인범이

를 찾았다.

《오인범이 있어? 응, 인범이?》

오인범은 몰래 뚫어진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치안대》완장을 두른 그 우악한 놈이 찾아왔다.

《인범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놈이 재차 부르더니 《왜 이리 잠잠해?》하고 부엌문을 왈칵 열었다. 그놈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아들이 어데 갔어? 대장님이 찾는다.》

대장이란 장욱세놈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욱세는 스스로 군《치안대》대장으로 자처하며 만행을 감행하고있었다.

이불속에서 앓음소리를 내던 어머니가 대꾸하였다.

《글쎄 어데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언제 오는가?》

《모르오.》

《모른다?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도망쳤다 그 소리구나, 응?》

《치안대》놈은 군화를 신은채 정주에 들어서더니 어머니가 뒤집어쓴 이불을 와락 제꼈다.

《아들이 도망치면 로친네를 죽이게 됐어. 자, 일어나!》

어머니는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우악한 《치안대》놈은 방바닥에 퉤 침을 뱉고 군화발을 쳐들어 어머니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어머니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비명소리를 내지 않았다. 《치안대》놈이 아들을 왜 놓아주었는가며 또 악행을 가하려는 순간이였다. 웃방에 숨어있던 오인범은 더는 견딜수 없어 벌컥 사이문을 열고 뛰여나왔다.

《이놈아, 내가 여기 있다. 어쩔테냐?》

《음, 네놈이 있으면서 까딱하지 않았구나?》

《치안대》놈은 인범의 가슴팍에 카빙총을 내대였다.

《우리 대장이 찾는다, 가자!》

오인범은 어쩔수 없었다. 잠간 어머니를 거들어준 다음 《치안대》놈에게 끌려 마지못해 걸음을 옮겼다.

군《치안대》사무실에 들어서니 장욱세가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인

범이앞에 《치안대》완장과 함께 《엠—완》보총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빨갱이숙청에 달라붙어.》
오인범은 묵묵히 서있었다.
《왜 받지 않아? 어머니를 죽이고싶어?》
오인범은 후— 한숨을 내불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그는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치안대》완장을 받아쥐였다.
그날밤이였다. 대문앞에서 《치안대》완장을 벗어 바지주머니에 쑤셔넣고 집안에 들어선 인범은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웃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의 눈앞에는 자기를 기다릴 학교동무들이 떠올랐다. 후주리를 지나 북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오리천다리목에서 따라잡기로 되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라도 그들을 따라갈수 없을가?… 그러면 어머니는?…
(아, 어머니!…)
오인범은 피눈물을 삼키며 여기에서 당장 떠날수 없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수 없어. 언제건 어머니를 살릴수 있는 적당한 기회가 생기면 내 꼭 인민군대를 따라가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 《치안대》완장을 둘러야 할 자신을 내다보며 생각을 굴리였다. 어떻게 하면 《치안대》놈들과 휩쓸려다니지 않을수 있을가? 될수록 그놈들과 떨어져 혼자몸으로 지내야겠는데?… 그는 온밤 뒤치락거리면서 《치안대》대원노릇을 회피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별로 신통치는 못해도 도수안경쟁이로 변신한다면 총을 쏘는 일에서 빠질수 있지 않을가싶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총을 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사형장에는 끌려나가지 않을수 있을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오인범은 돌아간 아버지가 쓰던 도수안경을 끼였다. 갑자기 그의 정상적인 눈은 무서운 란시를 일으키며 어지럼증을 자아내였다. 머리가 쑤시고 동통이 계속되였다. 눈을 못쓰게 만들어 앞으로 인민군대에도 못 나가는 병신이 될듯 하였다. 그는 도수안경을 벗어버렸다. 대신 길거리 가게집에서 산 무도수안경을 쓰고 근시인체 하였다.

오인범은 내내 무도수안경을 끼고 그것으로 강요되는 《치안대》직무에도 태만하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와 함께 도망칠 기회만 노리면서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치안대》대원의 굴욕적인 생활은 그로 하여금 전날에 누렸던 보람차고 행복했던 학창시절을 회억시키면서 뼈저린 치욕을 느끼게 하였다. 오인범은 나날이 과묵해졌다. …

《인범이, 자넨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공화국치하에서 행복했던 일을 회상하는게지, 응? 인범이?》

서명호를 죽이고 함주읍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김석근이 재차 묻는 말이였다. 오인범은 구태여 부정하지 않았다. 동무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꼴로 되였다는 수치감에 그는 될대로 되라는 배짱이였다.

《그런데 자넨 왜 후퇴를 안했나? 어째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우리 대렬에 끼였는가 말이네?》

《…》

《자네는 유다야, 유다! 바람이 부는대로 돛을 올리는 변절자구만. 사내답지 못해. 참 비렬한 인간이구만, 응?》

형언할수없이 야비한 그의 야유에 오인범은 얼굴이 화끈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모욕스러워도 항변할수 없는 자신이 아닌가. 한걸음 잘못 옮겨 시작된 나의 치욕스런 앞길은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데 이제는 김석근이와 같은 살인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다니?… 오인범은 후퇴대렬에서 떨어진 자신이 너무나 후회되여 막 자결하고싶은 심경이였다.

어머니와 함께 여기서 떠나갈 기회도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오늘 밤 이 길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지난날의 자기 오점을 덜어야 하지 않는가. 오인범이 줄창 이렇게 생각을 몰아가는데 앞에서 김석근이 걸어가며 약을 올렸다.

《자넨 아마 자기가 살아날 구멍수가 있다면 제 어머니까지 배반할거야. 원래 배반자란 그런 놈들이거던.》

그 바람에 오인범은 더는 참지 못했다.

《닥치시오, 그만!》

야음을 써는 그의 호령질에 앞에서 걸어가던 김석근이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당장 무슨 폭행을 가할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김석근은 다시 걸음을 옮겨놓으며 전과 조금도 다

름없는 어조로 빈정거렸다.
《그래, 내가 허튼소리를 하나?》
오인범은 자제할수 없었다.
《어쨌든 당신이야말로 제 애비도 살해할 사람이요!》
《음, 내가 고향사람 서명호를 죽였다구?… 그러니 내가 탈주분자 오인범이보다 비할바없이 비렬하구 잔인하다 그 말이겠지?》
《…》
《변절자보다 잔인하다?— 그럼 어디 시험해볼가.》 김석근은 이길로 곧추 읍《치안대》로 가자고 하였다.
《거기에는 자네가 다닌 중학교 교장선생이 갇혀있지?》
(아니, 이놈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가?)
오인범이 가슴이 철렁해지는데 김석근은 오늘 밤에 바로 그 교장선생을 총살하겠다는것이였다. 그것도 자기 눈앞에서 오인범이 직접 쏘게 할 결심이였다.
《인범이, 자네가 그렇게 선량한 인간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래도 자기 선생을 쏘라면 쏠걸. 왜냐하면 안 쏘면 내가 자네를 죽이겠으니… 자네는 제가 살기 위해 교장선생을 살해해야겠지?》
《…》
《자, 그래도 자네가 나보다 선량한가?》
《…》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 더 잔인한가?》
《…》
《거참, 재미있는 도락인걸. 멋진 투전이야! 인간의 량심을 시험하는 아주 그럴듯한 유희거던. 자, 어서 가자구.》
김석근은 별로 흥이 나서 발걸음을 다그쳤다.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는 큰 도박장으로 찾아가는 기분이였다.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제 고향사람들을 살해한 김석근이로서는 인간의 생명마저도 하나의 도박밑천으로 여길수밖에 없지 않는가. 오인범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내가 교장선생을 죽이다니? 우리를 위하여 평양에 올라가서 여러가지 참고서적들을 구해오기도 하였고 가끔 자기 방에 불러들여 학습정형을 알아보며 가슴부푼 향학열을 심어준 교장선생님이시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지망할 때 교장선생은 손수 이 오인범

을 고급중학교로 추천해주지 않았는가. 물리를 즐겨한다고 그렇게 도 아껴주며 도와주신 인정깊은 교장선생을 살해하라니?… 오인범은 이렇든저렇든 반역의 길로 내닫는 자기를 이때처럼 치욕스럽게 느낀적은 없었다. 이제라도 원래의 자기 모습을 찾고싶은 돌발적인 충격에 그는 그만 맹호의 울부짖음같은 소리를 지르며 안경을 벗어버렸다. 자기를 위장한 무도수안경을 벗어 땅바닥에 획 내동댕이쳤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하여 본의아닌 길에 들어선 지난날의 자기와 결별하려는 단호한 립장이였다. 오인범은 벽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이놈아, 꼼짝말아!》 어느새 석근의 뒤통수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나는 네놈을 죽이고말테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변절자의 죄행을 씻을수 없지만… 김석근이, 너는 그만큼 보잘것 없는 인간임을 똑똑히 알아두어. 그러나 뒤늦게나마 내 량심이 가리키는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나를 모욕했구 나를 인간백정으로 만들려고 했구 또 나를 안아키워준 스승과 우리 공화국제도를 매장하려는 너 김석근이를 나는 량심의 심판으로 처단하겠다. 저승에 가서도 이 오인범을 잊지 말라!》

단호히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격철을 떨궜다. 마땅히 《땅!》하는 총성이 터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인범이 쏜 《엠— 완》보총은 절커덕 빈소리를 내며 불을 토하지 않았다. 그의 총에는 총탄이 없었던것이다. 아까 서명호를 사살할 때 김석근의 강요에 못이겨 그 저주로운 총탄을 허공중에 대고 깡그리 쏘아버렸다는것을 오인범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것이였다. 그제서야 이때까지 한자리에 못박힌듯 우뚝 서있던 김석근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당황해하는 오인범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자기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 바람에 오인범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짓고 쏠테면 쏘라는듯이 그를 쏘아보았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태연자약한 모습이였다. 무슨 일이든 결심하기가 어려운것이지 일단 결심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장하고 엄청난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법이다. 목숨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던 오인범이 영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김석근이마저 달라졌다.

《자, 이걸루 쏘오.》 그는 자기 권총을 인범이앞으로 훌 집어던졌다. 《자네가 공화국의 변절자가 아니라면 역적인 나를 처단하시오. 지금의 김석근은 당신이 옳게 본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살인마요, 살인마!》

《그렇다, 너는 인간에게 조금도 리롭지 못한 살인백정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

오인범은 발부리에 떨어진 석근의 권총을 들었다. 그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눈 인범의 손은 와들와들 떨렸다. 이렇든저렇든간에 어쨌든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아직 살인과 만행으로 더러워지지 않은 순진한 오인범이였다. 그러한 그가 측은했던지 김석근은 별스레 조용히 말하였다.

《자넨 비로소 량심을 지키려고 하누만, 응? 그러니 자네처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나를 없애치우라구. 그리구 자네도 나처럼 인생을 더럽혔던 자신에게도 량심의 철추를 내리게. 나와 같은 운명을 겪어야 진정으루 인간이지. 그렇게 하겠나?》

《뭐라구?》

가슴을 찌르는 그의 말에 오인범은 더구나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왜 쏘지 못하나? 남을 심판할수는 있어도 자기를 처단할수는 없는게지? 아니, 자신에 한해서는 무자비할수 없는 모양이지?》

《…》

《음 참, 졸렬한 자식같으니…》

김석근은 쓰겁게 혀를 차고 돌아섰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오인범은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쑤의 손에 권총을 안겨준 김석근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듯 대범하게 량심의 철추를 바라는것인가?

《김석근이!》 오인범은 그를 불러 멈춰세웠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이것 보라구, 인범이. 남을 알려면 자기부터 알아야 해. 그래, 자넨 어째서 나를 죽이려 했나, 응?》

《…》

《나에게도 자네의 그와 같은 량심이 없지 않아서 지금의 김석근이 된거네. 알겠나?》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인간의 량심때문에 역적이 되였다니?》

《됐네, 이젠 놀음은 그만하고 권총을 이리 주게.》

하지만 오인범은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는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허리춤에 차며 김석근이 말하였다.

《여보게, 이 좋은 달밤에 이렇게 헤여질수야 없지 않나. 우리 한대포 하세나, 자네 집에 가서 말이네.》

《우리 집에?》

《왜, 무섭나?》

《흥!》

《어쨌든 이런 날에 마주앉지 않고 언제 마시겠나. 가세나.》

김석근이 앞서 걸음을 떼였다. 그의 뒤를 따라서는 오인범의 머리속에서는 김석근에 대한 종잡을수 없는 의혹만 떠올랐다.

오인범이네 집에서

쟁반같은 둥근달도 어느새 서켠하늘에 기울어졌다. 어데선가 먼 농가에서 새벽닭이 홰를 쳤다. 읍골목길을 따라 한참 걸어올라간 김석근은 별로 들뜬 기분으로 인범이네 집에 들어섰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범이네 대장입니다.》

밖에서 아들이 찾아서 방금전에 일어나 등불을 켠 정씨는 그의 인사에는 들은둥만둥이였다. 그는 벽가에서 외투를 벗는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얘 인범아, 나는 감기에 걸려 앓는 몸이다.》

정씨는 아래목에서 혼자 덮고자던 이불속에 드러누웠다. 빨간 꽃비단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뭐라며 앓음소리를 쳤다. 오인범이 걱정하며 어머니곁으로 다가서서 이마를 짚으려 하자 정씨는 벌컥 화를 내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저리 비켜라. 그런다고 내 병이 낫겠니?》

한 쉰살 됨직한 청상과부의 괴벽에 아들은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김석근이 그에게 물었다.

《인범이,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앓았나?》

이불속의 정씨가 먼저 대꾸하였다.

《오래되지, 보름전부터니까.》

《보름전이라?…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온 때부터구만.》

김석근이 하는 소리에 정씨는 다만 귀따가운 앓음소리를 내는것으로 대척할뿐이였다.

《하— 이거 어머니가 되게 앓는다. 어떻게 한다, 도로 갈수도 없고?》
김석근이 짐짓 난처한 기색으로 오인범을 쳐다보았다.
《어쨌든 앉아있소. 내 술상을 차리지요.》
오인범이 이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나가자 정씨는 한결 귀솔게 앓음소리를 쳤다. 그러는 속에서 김석근은 불빛이 훤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흰 종이로 정갈하게 도배한 벽가에는 분명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셨던 자리가 석연하였고 그아래에 가족사진액틀이 걸려있었다. 액틀속에는 정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지만 오인범의것은 한장도 없었다. 몇군데 빈자리가 있는걸 보아 아마도 거기에 끼웠던 오인범의 사진들은 전부 뽑아낸 모양이였다. 누가 그랬을가싶은 의혹어린 표정을 짓고 김석근은 벽가에 놓여있는 농짝들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자개박은 두개의 농짝들에는 누런 붕어자물쇠가 걸려있었는데 얼핏 보아도 무척 값나가는 가구들이였다. 하지만 김석근이 더욱 감탄한것은 아름다운 천연색장끼가 그려져있는 이불장이였다. 니스를 발라서 나무무늬가 한결 두드러진 이불장안에는 여러채의 비단이불들이 가득히 개여있었다. 게다가 벽시계며 재봉기까지 그쯘하게 있어서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혼자 탄성을 질렀다.
《이 집에는 없는게 없는데요!》
아래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정씨의 입에서 앓음소리가 뚝 멎었다. 김석근이 하는 소리에 필시 귀를 기울이는듯 하였다. 석근이 더 큰소리로 부러워하였다.
《해방전엔 정말 깨가 쏟아지게 살았겠는데요!》
이불속에서 정씨가 역시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해방전이라구? 거 모르는 소릴 좀 작작하우.》
《모르는 소리라니요? 이 집 시계두 그렇구 재봉기도 다 값진것인데두요?》
《그렇지만 우린 다 해방후에 장만했수다.》
《해방후에?… 그럼 어머님네도 우리처럼 해방후에야 부자가 되였겠소?》
정씨는 뒤집어쓴 이불을 와락 제끼고 얼굴을 내밀었다.
《가만, 해방후에 임자네도 덕을 봤나?》
《예, 우린 토지두 분여받구 소도 장만했지요.》

순간 정씨는 어쩐 영문인지 영 앓는 사람같지 않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런데 임잔 왜 완장을 꼈나?》

《완장을?…》 김석근은 정씨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다가 돌연히 음성을 높였다. 《그건 무슨 소리요? 〈치안대〉에 잡혀갈려구 그러오?》

그가 어찌나 무섭게 위협했던지 정씨는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뚝처럼 굳어진 자세로 멍청하니 앉아있던 그는 그제서야 김석근이 군《치안대》대장이라는것을 상기한듯 급기야 《아이고— 머리야, 가슴이야.》하며 이불속으로 들어가버렸다. 김석근이 남몰래 혼자 피씩 웃는데 오인범이 술상을 들고 나타났다.

《자, 우리 먼저 어머니부터 한잔 올리자구.》

전에없이 걸걸한 음성으로 말하며 김석근이 술을 부었다. 소주가 남실거리는 자그마한 유리잔을 들어 그는 누워있는 정씨에게 권하였다. 이불속에서 정씨는 아무런 대척도 하지 않고 그저 앓음소리만 질렀다. 실로 인사불성이였다. 곁에 있는 오인범이 민망해서 어머니대신 량해를 얻었다.

《그렇다구 우리 어머니를 지내 나무람하지 마오. 원래 성격이 그래놔서…》

《허허허… 어머니를 나무람하다니. 아마 자네 어머니가 군〈치안대〉대장인 이 김석근이를 그렇게 푸대접하지 않구 곰살스레 굴었다면 나는 벌써 가고말았을거네. 그러니 우리끼리 드세나.》

《그렇소?…》

오인범은 눈섭을 치켜뜨며 그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여겼다.

《뭐, 그렇다구 내 말을 음미하진 말게. 그저 그런거니까.》

하지만 오인범은 진짜 김석근이를 알고싶은 충동이 걷잡을수없이 치밀어올랐다. 그래 그는 자기딴의 어떤 계획밑에 김석근이 빨리 취하기를 바랐다.

《이거 뭐 술잔이 너무 작구만.》

오인범의 말에 김석근이 맞장구질이였다.

《그래— 이걸룬 성차지 않아. 사발들이하세나.》

김석근은 제법 혁띠까지 풀어놓고 꿀꺽꿀꺽 물마시듯 하였다. 어느덧 그의 얼굴은 진한 노을빛으로 변하였다.

《그런데 인범이, 자넨 왜 들지 않나?》
《난 대장처럼 주량이 세지 못하오.》
《대장? 내, 내가 군〈치안대〉대, 대장이란 말이지, 하하하… 어, 어쨌든 좋아, 조, 좋다니까.》
김석근은 연거퍼 두사발을 제꼈다. 《이, 인범이, 그저 이런 때는 술이 제, 제일이야. 그래야 노, 노래두 나오거던.》
그는 상체를 비틀거리며 저가락장단을 쳤다. 그러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혼자 노래를 불렀다.

백두산말기에 배,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 뻐꾹

그는 갑자기 노래를 뚝 끊고 가슴을 긁어내는듯 한 한숨을 내뿜과 동시에 주먹을 쳐들어 술상을 탕 쳤다.
《아— 뻐꾸기 울 땐 정, 정말 좋았지. 어머니, 그, 그렇지 않았소?》
정씨는 귀가 솔깃해졌는지 슬그머니 이불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앓음소리도 없이 김석근이를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밝은 기색이 도는듯 하였지만 선뜻 대꾸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 없소, 예? 〈치안대〉에 붙들려갈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내, 내가, 그렇소, 이 김석근이 〈치안대〉대, 대장이란 말이요! 마음놓소. 마, 마음놓으라는데두…》
김석근은 취기에 나자빠지며 구들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기를 기다렸던 오인범은 그에게 서둘러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김석근의 정체를 알고싶었던 그는 그길로 곧장 서명호를 학살한 바로 그리로 찾아갔다. 아니나다를가, 거기에는 오인범이 예견한대로 서명호의 시체가 없었다. 김석근이 그렇듯 무수히 발사한 탄알이 과연 어찌하여 명중되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 누가 서명호의 시체를 안아가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었다. 주민들이 모르게 끌어내여 불의에 감행한 총살이 아닌가. 더구나 김석근은 서명호세포위원장의 코앞에서 쏘지 않았는가. 오인범은 그때 자기곁에서 물러나 서명호의 앞으로 바싹 다가가던 석근이 떠올랐다. 그러한 그가?… 그렇다, 김석근은 서명호를

죽이지 않았다.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듯 가까이 접근해서 발사했다는 생각에 오인범은 김석근이 필시 위장된 《치안대》대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시 석근이를 만나 한번 속시원히 알아보리라 마음먹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벌써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그가 비지땀을 흘리며 십여리 길을 단숨에 달려오니 석근이는 아직 깨여나질 못하고있었다.

《넌 자지 않구 어딜 그렇게 싸다니는거니?》

방안에 들어선 아들을 보고 이불속에 있는 정씨가 볼이 부어 하는 욕이였다.

《어머닌 아직도 주무시지 않았나요?》

그때 자는줄로만 알았던 김석근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인범이, 자네가 그렇게 새벽서리를 차고다니니 나도 잠들수 없구만. 그래, 어디로 갔댔나?》

자는것처럼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에게 오인범은 전과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였다.

《사형장에 서명호의 시체는 없소. 그는 죽지 않았소. 자, 그래도 나를 속일 작정이요?》

《뭐라구?》 김석근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숱질은 눈섭은 하늘로 치달아올라갔고 매몰차게 쏘아보는 메밀눈은 금시 밖으로 튕겨나올듯 불거졌다. 《빌어먹을 자식, 다시한번 그따위 소릴 해. 용서치 않겠어!》

김석근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온다간다 말없이 묵묵히 떠나가버렸다.

2

《그렇지만 나는 김석근동무가 어떤 사람이란것을 보다 정확히 알아내고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부터 새 출발을 결심했기때문입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지만 최현무와 마주앉은 오인범의 추억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만일 석근동무가 우리 사람이라면 나는 그와 운명을 같이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자기를 드러내

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지요. 읍내 순찰경비를 교대하고 〈치안대〉 본부에 들어가는 나의 눈에 우연히 석근동무가 띄였습니다. 자정이 되였는데 그는 혼자 함주천동뚝으로 걸어가고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갈가싶어 나는 먼발치에서 누구도 몰래 미행했지요. 석근동무는 신작로를 가로질러 어둑시그레한 철공소울타리안에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당시 철공소는 적들의 폭격에 성한 건물이 없었는데 유독 높다란 굴뚝만은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석근동무는 바로 그 굴뚝밑에 다가가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방을 은밀히 살펴보고나서 굴뚝밑둥에서 벽돌 한장 빼내고 거기에 무슨 종이쪽지 같은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간 다음 거기에 가서 바로 그 벽돌장을 뽑아내고 석근동무가 감춰놓은 종이쪽지를 펴보았습니다. 달밤이긴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비밀암호쪽지라는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것을 누가 가져갈가싶어 허물어진 단조칸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닭이 두번째 홰를 치고 새별이 한창 밝을 때였습니다. 드디여 어디선가 인적기소리가 나더니 총이 센 개털모자를 쓴 웬 청년이 굴뚝밑으로 가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두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피였더니 석근동무의 비밀장소에서 암호쪽지를 꺼내는 그 청년이 바로 철공소 땜쟁이가 아니겠습니까. 함주읍시장에서도 종종 보았고 야간순찰때에도 이따금 서로 지나치군 한 땜쟁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석근동무가 우리 사람이고 무슨 비밀사업을 한다는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후부터 나는 그를 은연중 존경했고 그의 사업을 도와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사흘후였습니다. 시간은 바로 자정이 가까와오는무렵이였습니다. 〈치안대〉 사무실에서 나온 석근동무는 또다시 굴뚝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순찰근무를 서다말고 그를 미행하였습니다. 아니, 미행이라기보다 이번에는 그의 안전을 엄호하는 립장에서 뒤를 따랐습니다. 김석근동무가 파괴된 철공소울타리를 넘어설 때였지요. 울타리밑에서 갑자기 몽둥이를 든 〈왕초〉가 나타나는것이였습니다.
가만, 대좌동무는 〈왕초〉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그의 물음에 최현무는 며칠전에 함주려관에 찾아왔던 윤경이 떠올랐다.

《예, 그를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만나다니? 그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있다뿐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고향마을에서 안전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허허허… 안전원이라! 적강접시기 조무래기쓰리군대장이였는데 벌써 어른이 되여 안전원으로 근무한단 말이지!》
혼자말로 이렇게 뇌인 오인범은 한결 감회깊은 눈길로 창문쪽을 내다보았다. 미간을 흐리고 깊은 명상에 잠겨든 그의 갱핏한 얼굴은 잊을수 없는 지난날의 가지가지 무거운 사연들을 더듬을 때처럼 무척 컴컴하였다. 어찌보면 경건하게도 보이는 그의 모습에 현무의 심정마저 무직하였다.
《동무의 회억에서도 〈왕초〉가 나오니 그때 일이 점점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됩니다. 그래 〈왕초〉가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왕초〉는 이미 석근동무가 오는것을 보고 울타리뒤에 숨은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라문살됐음직한 조무래기가 글쎄 석근동무를 치려고 몽둥이를 쳐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치안대〉대장이여서 처단해버리자고 했겠지요, 허허허…》
오인범은 지금도 어처구니없어하며 껄껄거렸다.
《그때 내가 뒤에서 〈이녀석!〉하고 소리질렀지요. 〈왕초〉는 흘끔 뒤를 돌아보고 그만 뺑소니를 치더구만요. 그제서야 석근동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있는 나에게로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금전에 〈왕초〉로부터 조성된 위험천만한 순간은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눈총을 쏘았습니다.
〈왜 미행했어?〉
그의 추궁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의 안전을 지키려고 따라서는거야 응당한 본분이지요.〉
〈〈치안대〉대장을 지켜준다?〉
〈천만에, 나는 어제날의 오인범이 아니요!〉
〈그럼 자넨 누군가?〉
〈치욕스러운 길에서 량심을 되찾은 당신의 전우요!〉
〈전우라니?… 그러니 자넨 진짜 김석근이를 눈치챘구만. 자넨 죽어야 해.〉

그렇지만 석근동무는 권총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나도 무섭지 않았고.

〈그건 당신의 마음대루요. 하지만 당신이 위장속에 은폐된 진짜김석근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잔인한 〈치안대〉 대장의 립장에서 학살한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소.〉

〈그러니 배반자의 처지에서는 죽기 싫다는거군?〉

〈그렇소, 죽어서도 량심을 지킨 사람으로 남고싶소.〉

〈음—〉 석근동무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면 류달리 강한 의지가 필요해. 물러가라구.〉

나는 그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물론 석근동무는 굴뚝밑으로 찾아갔지요.

그후 어느날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데 석근동무는 당시 함흥시 〈C. I. C.〉 대장이였던 안병덕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치안대〉 사무실에서 떠나기 앞서 나에게 참으로 까닭모를 한가지 과업을 주었습니다. 함흥시 성천동에 가서 조경화라는 처녀를 체포하여 자기 방에 억류해두라는것이였습니다. 그 처녀로 말하면 함흥주둔 미10군단 첩보대 켈폰고문의 통역원인데 누구도 모르게 잡아다가 자기가 올 때까지 붙들어두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과업이였으나 석근동무가 처음으로 나를 믿고 주는 임무여서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 녀자의 집은 성천강동뚝옆에 있는 기윽자기와집이였습니다. 토방에 누런 라크칠을 한 판자들을 깔았는데 거기에도 드르릉거리는 밀차식유리창문들을 달았더군요. 나는 마당에서 그 녀자를 찾았습니다. 뒤미처 웃방문이 여닫기고 토방문이 드르릉 울었습니다. 한 스물대여섯나보이는 미모의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조경화였는데 어째서 집에 들어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그렇게 쉽사리 찾을수 있게 된것이 참으로 다행이였습니다. 항상 미군놈의 턱밑에서 돌아치는 통역이 아닙니까.

군 〈치안대〉 완장을 두른 나는 그에게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말하였습니다.

〈지금 미군고문관님은 우리 함주군 〈치안대〉에 와계십니다. 통역을 찾는데 어서 가십시다.〉

〈아니, 켈폰고문관님은 아까 함흥시 〈C. I. C.〉 본부에 들리셨는데요?〉

그 녀자의 의혹어린 대꾸였습니다. 나는 긴장해졌습니다.
〈아가씨는 나를 의심하는겁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배짱이 든든하게 돌아섰습니다. 가식없이 보이는 나의 태도에 통역원처녀는 믿음이 갔던지 더는 군소리없이 따라섰습니다.
그와 함께 군〈치안대〉에 돌아온 나는 석근동무가 과업준대로 그 처녀를 대장의 방에 가둬넣고 보초를 섰습니다. 한시간, 두시간… 밤은 깊어갔지만 석근동무는 돌아올줄 몰랐습니다. 가뜩이나 분개한 통역원처녀는 자기를 놓아달라고 막 위협하였습니다. 자기가 켈폰고문관님의 통역원이라는걸 모르는가? 후과가 두렵지 않는가? 등등의 위협적인 말로 항의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점잖게 굴었습니다.
어느덧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 처녀도 굶었고 나도 빈 배였습니다. 아침해가 솟아오르자 그 처녀는 어데다 감춰찬 권총을 뽑아들었는지 불쑥 나를 겨누었습니다. 출입문에 잠근 자물쇠를 열라는것이였지요. 나는 마지못해 응하는척 하다가 돌연히 접어들어 그의 손아귀에서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조롱속의 새가 되여버린 통역원처녀는 전과 다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측은한 목소리로 애원하는것이였습니다.
〈이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알몬드가 날아와요. 미 10군단장 말예요. 함흥시에 오는데 나는 그의 통역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어서 놓아줘요.〉
나는 그의 하소연에서 비로소 그날 알몬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활랑거렸습니다. 그놈을 어떻게 해치우지 못할가 하는 막연한 충동에 사로잡혀 저으기 흥분했던것입니다. 나는 처녀한테 분노의 눈초리를 돌렸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보고 그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쪽에서도?…〉
나는 어떤 예감을 받고 속으로 심히 놀랐지만 꽥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치시오!〉
어찌나 매몰찬 호령질이였던지 그후부터 처녀는 일체 함구무언이였습니다.

문득 성천강상공에서 직승기의 발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까지 의자에 잠자코 앉아있던 그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오락가락하였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창문너머 저쪽하늘가에 군단장이 탔다는 직승기가 나타났습니다. 서서히 하강하며 성천강상공을 뒤번 순회하다가 강기슭 백사장에 착륙하는것이였습니다. 정신없이 그쪽을 내다보던 통역원처녀는 그만 모든 작전이 파탄된듯 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눈에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수께끼를 안고있는듯 한 그 처녀에게 그렇듯 호기심이 동하는 그의 비밀을 묻고싶었지만 그럴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다만 석근동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지나고 오후 세시쯤 되였습니다. 그제야 석근동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통역원처녀를 억류한 자기 방으로 들어서는 석근동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알몬드가 왔습니까?〉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은 석근동무는 책상너머 저쪽켠에 앉아있는 조경화한테 물었습니다.

〈통역원은 모윤숙을 아오?〉

함흥출신 모윤숙은 녀류시인으로 자처하였지만 그보다는 화냥년으로서 이름을 떨친 괴뢰들의 어용나팔수였습니다. 1차남진때 모윤숙은 서울방어선에 있는 괴뢰군들을 찾아다니며 미군이 나온다는 선전을 하면서 위문품을 뿌린 친미주구이지요. 그녀는 임영신이 리승만의 애첩으로 사랑받는것을 시기, 질투하며 70이 넘은 로구의 애무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갖은 교태를 다 부린 화냥년입니다. 임영신은 전쟁전야에 뉴욕비행장에 도착하여 기자들에게 〈전진하여 북조선을 분쇄하는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줴친 괴뢰정부 상공부장관이였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리승만의 주위에서 돌아치며 아양을 떠는 모윤숙이였지만 조경화는 별로 꺼려하지 않고 석근동무의 물음에 대답하는것이였습니다.

〈모윤숙이와는 리화녀대 동창이예요. 그의 오빠는 모학복이라고 리승만박사의 정치고문이구요.〉

〈그렇소? 웬일인지 오늘 그들 오누이도 군단장과 동행하였소.〉

〈야—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오늘 연회는 무척 삼엄한 경계속에서 진행되였소. 적들이 그렇게도 신뢰하는 함홍이였지만 무려 열차례 수색받아야 연회장에 들어갈수 있었소. 어떻소? 생각되는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윤숙이 있지 않았나요.〉

〈천만에, 연회사에서 알몬드를 조선동부지역의 최고통치자로 받든다고 연설한 도지사 리구화도 례외되지 않고 검속받았는데 통역원 같은건 어림도 없었을게요. 자, 이젠 돌아가오.〉

나는 짐작컨대 알몬드를 사살하려고 시도한듯 한 그 처녀에게 권총을 돌려주었습니다. 석근동무와 단 둘이 남았으나 나는 그에게 조경화가 어떤 처녀며 무슨 관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석근동무와 손잡고 싸우는 지하공작원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비밀투쟁원칙을 준수하기로 마음먹었기때문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석근동무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성스런 투쟁에 합류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해서 가슴이 부풀어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나는 신작로를 따라 군〈치안대〉청사로 나가다가 함주읍 네거리 게시판앞에 서있는 김석근이를 보게 되였습니다.

네거리 대형게시판에는 〈알몬드장군 환영〉이라는 표제하에 미군의 전투〈성과〉들을 소개한 글들도 나붙어있었습니다.

김석근은 한동안 묵묵히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날더러 〈대한청년단〉주필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네거리곁에 있는 〈대한청년단〉사무실에 가서 도한석주필을 데려왔습니다. 김석근은 그에게 여기 글내용들이 시원찮다며 좀더 힘있는 구호를 써붙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게시판우에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것이다!〉라는 표어를 대서특필로 써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한청년단〉주필놈은 지켜보는 앞에서 군〈치안대〉대장의 명령을 시급히 집행하였습니다.

그 구호는 김석근의 가슴속에 응결된 신념의 분출이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승리를 확신하는 김석근이 아니겠습니까!》

오인범은 이렇게 말하고 문가에 시선을 던졌다. 창호지를 바른 출입문이 훤해지면서 새날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있었다.

3

오인범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후 어느날 해질무렵이였습니다. 나는 석근동무와 함께 함주군 주서리로 내려갔습니다. …》

주서리에서

함주읍에서 서남쪽으로 한 시오리 내려가면 논벌가운데 80여호 되는 자그마한 주서리가 자리잡고있었다. 함주군《치안대》본부에서 떠난 김석근은 오인범이를 달고 신작로에서 벗어나 주서리로 내려가는 달구지길로 들어섰다.

《석근동무, 오늘 저녁에…》

뒤에서 오인범이 입을 열자 김석근은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가만, 인범이. 어째서 또 동무란 말을 쓰오?》

《여기는 논벌밖에 없습니다.》

《버릇되면 장욱세앞에서도 동무라고 할수 있지.》

《알겠습니다, 대장님. 그런데 오늘 저녁에 왜 주서리로 내려갑니까?》

《이제 알게 되오.》

오인범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들이 주서리 뒤쪽 나지막한 둔덕길에 올라서는데 웬 로파가 마주왔다. 머리에 흰 수건을 쓴 꼬부랑할머니는 지팽이를 짚고 허위허위 오다가 《치안대》완장을 두른 석근이와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었다. 로파는 밑도 끝도 없이 성을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응, 네놈도 이런걸 둘렀구나?》 로파는 허름한 지팡막대로 석근이의 왼쪽팔에 낀 《치안대》완장을 툭툭 쳤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너같은 놈들한테 우리 며느리, 손자애까지 다 생매장당했어, 생매장을!…》

로파는 지팽이로 길바닥을 마구 찍어대며 애고대고 통곡하였다. 김석근은 함구무언으로 우두머니 서있었다.

《내 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갔다구 글쎄 그 불쌍한것들을 한구뎅이안에 밀어넣구 묻어버리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니, 이놈들아! 옛날부터 나라를 지켜싸우는것이 백성들의 도리인데 내 아들이 군대가 된것이 어째 잘못됐다는거냐, 응? 이 죽일놈들같으니.》

로친은 실성한 사람같이 마구 욕질하였다.

《온 식구들을 생매장하구서도 성차지 않아서 집까지 빼앗다니. 이 늙은것도 며늘애와 같이 죽여버릴게지 어째서 살려놓구 한지에 내쫓는거냐? 길바닥에서 얼어죽으라고 살려놨느냐? 이 벼락맞아죽을 악귀들아!》

가슴을 쥐여뜯으며 원통을 터뜨리는 로파의 가긍한 정상에 김석근은 심장이 유리쪼각에 찔리우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할머니, 할머니는 주서리에서 삽니까?》

김석근이 묻는 말에 할머니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래, 이 동네에서 살다가 지금은 며늘애한테 가는 길이다. 며늘, 손자애들이 언땅속에 누워있는데 내가 살아서 뭘 하겠어. 내 그 애들과 같이 저승에 가서 네놈들을 몽땅 물어메칠테다, 몽땅!…》

할머니는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지팽이를 짚으며 물러갔다.

김석근은 쌀쌀한 하늬바람에 홑적삼을 입고 허둥지둥 걸어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할머니, 주서리《치안대》놈들을 오늘까지 살려준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아니, 나라의 아들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 석근이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할머니!)

김석근은 아픔의 눈물, 후회와 분통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 내 기어이 할머니의 원쑤를 갚고야말겠습니다. 나라의 원쑤들을 두고 어찌 아닌보살을 할수 있으며 이 나라의 수난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김석근은 두주먹을 꽉 부르쥐였다.

《인범이.》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다. 《몰래 할머니를 따라 사형장으로 가게. 그곳이 주서리 〈치안대〉 놈들의 사형장이라는것이 확인되면 누구도 모르게 잠복해있게. 날이 어두워지면 주서리 〈치안대〉 놈들이 애국자들을 끌고 나올거네. 어떻게 하겠나?》

오인범은 인차 눈치차렸다.

《애국자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안대〉 놈들부터 소탕하겠습니다.》
《혼자서 자신있소? 적어도 네놈은 되겠는데?》
《적들은 독안에 든 쥡니다. 유인전술에 걸린자들을 소탕하는 기습전투가 아닙니까.》
김석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을 주었다.
《만일 그곳이 사형장이 아니면 즉시 돌아서오. 주서리 〈치안대〉에서 꼭 나를 만나야 하오.》
《알겠습니다.》
《적들을 소탕하면 곧 몸을 피하라구.》
《념려마십시오.》
《그럼 떠나라구.》
김석근은 선뜻 돌아서는 오인범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원래 김석근은 이 작전을 이미전에 계획했었다. 주서리《치안대》놈들은 군적으로 손꼽히는 악질들이였다.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데서도 악명을 떨치는 놈들인데 모두 대여섯놈에 불과하였다. 그자들은 부락의 무던한 유지인 옛 초학훈장을 리《치안대》대장으로 강압《추대》하고 그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감행하고있었다. 주모자는 서울로 도망쳤던 해방전 마름인데 부락사람들은 그놈을 《독사》라고 불렀다.
김석근이 오늘 주서리에 내려온것은 바로 그 《독사》를 처단하기 위해서였다. 현지에서 리《치안대》의 실정을 알아보는 형식으로 무슨 건을 잡아 《독사》를 군으로 데려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치우려고 계획했었다. 그래 오인범이와 함께 주서리로 내려오다가 뜻밖에도 길가에서 이곳 《치안대》놈들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할머니를 만나게 되였다. 며느리와 손자애들을 잃은 할머니한테서 김석근은 참을수 없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수난당하는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끓어번지면서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독사》만을 처단하려던 본래의 계획을 주저없이 변경시켰다. 주서리《치안대》놈들전부를 일망타진하리라 마음먹고 오인범을 그놈들의 사형장에 잠복시켰던것이다.

그는 뚜벅뚜벅 걸음을 다우쳐 곧장 주서리《치안대》사무실로 찾아갔다.

주서리《치안대》사무실은 리서기장의 6촌동생네 집이였다. 그리 높지 않는 토담울타리를 둘러친 세칸들이기와집이였다. 그 집에서 살고있은 리서기장의 6촌동생네 가족들은 《독사》한테 쫓겨 어데론가 멀리 피난가고 없었다.

김석근이 대문안에 들어서자 리《치안대》사무실 웃방에 돌미륵처럼 멍하니 앉아있던 리《치안대》대장이 나왔다.

《손님은 누구시오?》

리《치안대》대장이 묻는 말이였다. 그는 《치안대》완장을 두른 석근이를 눈여겨보면서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때까지 군《치안대》사무실에는 주서리를 대표하여 《독사》가 드나들었던 탓에 김석근이 역시 주서리《치안대》대장이 초면이였다. 석근이 《독사》를 통해 료해한 리《치안대》대장은 듣던바와 같이 바지저고리에 밤색조끼를 받쳐입은 고루한 유생이였다.

《나는 군〈치안대〉대장이요. 강독삼은 어데 있소? 불러와!》

강독삼이란 《독사》의 본명이였다.

《이제 올겝니다.》

《잔말말구 데려와!》

리《치안대》대장은 머리를 수긋하고 마지못해 응하였다. 그가 대문밖으로 나설 때 《독사》네 패거리들이 나타났다. 카빙총을 멘 세놈의 졸개들을 달고 온 《독사》는 세명의 녀인들을 잡아왔다. 그는 석근이를 보고 깍듯이 인사하였다.

《대장님이 오셨습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에게 김석근이 물었다.

《저건 웬년들이야?》

그는 잡혀온 녀인들쪽을 턱질하였다.

《예, 예, 저년들 말입니까? 저년들은 이웃동네 빨갱이들입니다.》

《이웃동네라니?》

《아래부락 동암리년들인데 이년은 인민군대후방가족 녀편네고 또 이년은 피난온 수흥리 서기장의 녀편네입니다. 저년은 동암리 열성농민의 녀편네인데 거기서 남편은 죽이면서 에미네는 내쳐둬서 우

리가 끌어왔지요.》

《음, 전부 빨갱이족속들이구만.》

《동암리놈들은 얼뜨기들이 돼서 우리가 손을 씁니다.》

《그래?…》

김석근은 미간을 쪼프리고있다가 불쑥 화를 내였다.

《괘씸한 놈들, 저년들을 끌어갓!》

《예예.》

《독사》는 오른손을 쳐들어 휙 어깨너머쪽으로 손짓하였다.

《대장님,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내 이제 주안상을 차리겠습니다.》

《여기 〈치안대〉 대장방에 차려.》

《예예, 알겠습니다.》

《독사》가 물러가자 김석근은 리《치안대》대장에게 호령하였다.

《옥방문을 열어!》

《저한테는 열쇠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든 어서 열어!》

리《치안대》대장은 수모받는 모욕감을 느끼는듯 한 불쾌한 표정으로 물러가더니 조금후에 열쇠뭉치를 들고 왔다. 그는 분명 《독사》한테서 가져왔음직한 열쇠로 리《치안대》사무실에 곁달린 창고문부터 열었다. 좁다란 창고안에 대여섯명의 로인들이 빼곡이 앉아있었다.

《령감, 령감은 왜 잡혀왔어?》

김석근은 출입문곁에 앉아있는 백발로인에게 물었다. 로인은 《흥!》하고 돌아앉았다. 김석근은 그의 곁에 있는 령감에게 물었다.

《령감도 〈흥!〉하겠소?》

《정 알고프면 말하지. 해방후 5년동안 흰쌀밥을 먹구 산것이 죄라더라.》

《그럼 저쪽 령감은?…》

《나 말이냐? 해방후에 토지를 분여받구 〈밭갈이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지었다구 죽이겠다는거다. 그런즉 네놈은 〈밭갈이노래〉를 안불렀겠지?》

《응 〈밭갈이노래〉를?…》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밭갈이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그 노래는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을 잊지 않게 하는 노래이고 장군님의 고마운 은혜에 보답하려는 우리 농민들의 의지를 굳혀주는 노래지! 적들에게는 총폭탄보다 더 무서운 노래이지!…

(아바이, 우리는 《밭갈이노래》를 안고사는 사람들이니 적들에게 굴복할수 없습니다. 장군님의 농민답게 굳세게 싸워나갑시다!)

김석근은 말없이 물러섰다. 다음 옥방문을 열게 하고 그는 그안에 갇히운 녀인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역시 비굴과 공포를 모르는 강의한 얼굴들이였다.

(장하오, 장해!…)

이윽하여 《독사》가 리《치안대》웃방에 주안상을 차려놓았다.

《대장님,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가만, 아직도 빨갱이들이 수두룩하구만, 응?》

김석근은 《독사》에게 눈총을 쏘았다.

《네가 난다긴다 하는 대원인줄 알고 크게 승급시키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빨갱이들을 저렇게 많이 살려놓구 승급을 론할수는 없지. 어째서 이렇게 앉아뭉개고있나? 제때에 처단해버리지 않구, 응? 강독삼이!》

《오늘, 래일 전부 없애치우겠습니다.》

《래일은 무슨 래일이야?》김석근은 오인범이 찾아오지 않아서 계획대로 작전하였다. 《지금 없애치워, 지금!》

《예?—》

《날도 어두웠겠다 독삼이 책임지고 대원들을 전부 끌고가.》

《그럼 술상은? 아, 알겠습니다. 대장님은 우리 대장과 먼저 드십시오.》

《아니, 기다리겠어. 실적 올린 독삼이를 축하하며 마셔야지.》

《독사》는 즉시 대원들을 내몰아 옥방들에 갇히운 무고한 주민들을 사형장으로 끌고나갔다. 이웃동네 녀인들까지 빠짐없이 내몰았다.

김석근은 주안상을 차린 방안으로 들어갔다. 나이지숙한 리《치안대》대장을 불러 마주앉혔다.

《거긴 해방전에 초학훈장까지 지낸 대단한 유지라는데 어떻게 〈치안대〉대장일까지 하오?》

《너무나 강박해서… 그저 하는일없이 자리지킴이나 하는데… 아 아니, 그런게아니라 저…》

리《치안대》대장은 석근의 눈치를 살폈다.
《왜? 내가 무섭소? 하긴 무섭겠지.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것도 죄가 되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오.》
《그러자면 〈치안대〉가 없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아 아니, 그런게아니라 저… 우리 술잔을 듭시다.》
《그것도 나쁘지 않소. 부으시오.》
김석근은 그가 부어주는 술잔을 비우면서 은근히 마을뒤 사형장쪽으로 귀를 강구었다. 《독사》네들을 소탕할 오인범의 총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렸다.
《자, 어른도 드시오.》
이때 멀지 않은 사형장쪽에서 밤정적을 썰며 총성이 울렸다. 다시 연거퍼 터졌다. 분명 오인범이 쏘는 총성이였지만 김석근은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독사》네들의 총성인체 하였다.
《음, 강독삼이 잘하누만!》
김석근은 벙글거리며 술잔을 들었다.
《아까 〈치안대〉원이 몇명 나갔더라?》
리《치안대》대장은 공포에 질린 컴컴한 얼굴로 대답하였다.
《독삼이까지 네명입니다.》
《그게 단가?》
《한사람이 더 있지만 그에게는 총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총이 없는데 뭘 하오?》
《〈치안대〉후방사업을 합니다.》
《빨갱이들의 소나 돼지 같은것을 그 사람이 걷어들이겠소?》
속으로 그놈을 처단하지 못하는것이 분했지만 김석근은 짐짓 웃는 얼굴로 잔을 들었다.
《자, 어른도 마시오.》
어느덧 총성이 멎은지도 좋이 한시간은 지났다.
《그런데 독삼이네는 왜 오지 않는거요?》
김석근은 술잔을 들다말고 리《치안대》대장을 쏘아보았다. 리《치안대》대장은 사납게 생긴 그의 눈총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글쎄 말입니다. 전같으면 벌써 왔겠는데?…》

《거 어른께서 한번 다녀와주시오, 독삼이네 집에.》
리《치안대》대장이 자리를 떴다. 한참 지나서 돌아왔다. 그는 겁에 질린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독삼이네 집에도 가보고 다른 대원들의 집들에도 모두 알아보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뭐라구?》김석근은 벌떡 일어났다.
《그들이 잘못된게 아닌가? 나를 따라오우.》
그는 밖으로 나갔다. 리《치안대》대장을 달고 사형장에 나간 김석근은 거기서 전멸된 《치안대》놈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일일이 눈여겨보며 죽음을 확인하였다. 총을 버리고 너부러진 《치안대》놈을 보고는 (인범이, 잘했어!) 하고 강독삼의 시체앞에서는 (정말 장해, 인범이!) 하였다.
강독삼이까지 모두 네놈이 황천객이 된것이 분명하였다. 오인범이 실로 자랑스러웠다. 그는 속으로 인범이가 무사히 철수했으리라 믿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이건 빨갱이들의 기습을 받은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서리《치안대》대장이 하는 말이였다.
《보시오, 독삼이 끌고나간 사람들은 한명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빨리 들어가 가족들에게 알리시오. 나는 군에 돌아가서 상급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겠소.》
김석근은 한시름 놓으며 천천히 읍으로 올라갔다. 어둠이 뒤덮인 사위는 쥐죽은듯 하였다. 그는 울퉁불퉁한 달구지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삼가 보고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오늘 오인범은 원래의 자기 모습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본의아니게 대오에서 탈선되였던 어제날의 오인범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는 지금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장군님을 따르는 이 나라의 참된 공민으로 어엿이 성장하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오인범은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강철같이 단련되며 장군님의 참된 전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할것입니다, 장군님!…)
또 한명의 장군님전사가 태여났다는 자부심에 김석근은 눈굽이 달아올랐다.
(김국성동지, 오인범동무와 손을 잡으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입니다.

그를 우리 대오에 떳떳이 세웁시다!)

그는 김국성한테 보고할 철공소 땜쟁이련락원의 비밀통로를 생각하며 힘있게 걸어갔다.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은 어둠속에 잠긴 대지에로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

《김석근동무는 이렇게 감금된 애국자들을 구원하려고 여러 부락 〈치안대〉 놈들을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오인범은 잠시 입을 다물고 눈을 간잔지런히 떴다. 추억하기조차 괴로와하며 그는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갑자기 우리한테 고원군 〈치안대〉 대장 장욱세가 나타났습니다.》하고 오인범은 김국성이 체포된 사실과 그를 함흥지구 《C. I. C.》에로 호송하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말하였다.

《이렇게 석근동지가 의도적으로 조성시킨 호송인데 그만…》

돌변적인 사건

김국성을 보내라는 함흥지구 《C. I. C.》대장 안병덕의 명령에 장욱세는 그가 보내준 찌프차를 타고 즉시 고원으로 떠나갔다. 함주군《치안대》대장의 사무실에는 석근이와 오인범이 남았다. 무거운 정적이 깃든 속에서 먼저 오인범이 입을 열었다.

《이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네생각엔?…》

《그를 구출해야지요.》

《그럼 철공소 땜쟁이를 만나주게.》

김석근은 수첩을 찢어 다급히 휘갈겨썼다. 오인범이도 알수 없는 비밀암호문들이였다. 김석근은 그것을 땜쟁이한테 전달하고 인차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로부터 반시간후였다. 오인범이 땜쟁이를 만나고 돌아오니 김석근은 그에게 《치안대》사무실근무를 서라고 하였다. 석근이자신은 찌프차로 김국성을 호송하는 장욱세패거리들을 소탕해버릴 습격전에 나갈 잡도리였다.

《저도 전투에 참가하겠습니다.》

《안되오, 뒤일을 고려해서 동무는 여기 남는것이 좋소.》
《그렇지만…》
《됐소, 시간이 없소.》
김석근은 별로 덤비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김국성을 구출하려고 제가 직접 나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오인범은 오래동안 서있었다. 신작로를 따라 고원쪽으로 걸어가는 석근이의 거뭇한 형체는 어느덧 희끄무레한 달빛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서야 길가에서 돌아선 오인범은 근심어린 무거운 심정으로 군《치안대》건물구내에 들어섰다. 개털모자를 꾹 눌러쓰고 보총을 어깨에 멘 그는 뚜벅뚜벅 구내를 순찰하면서 멀리 고원쪽신작로에 귀를 강구었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초조히 기다리는 총성은 쉽사리 들리지 않았다. 한바퀴, 두바퀴… 구내를 돌기 그 몇번. 드디여 밤공기를 썰며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오인범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온몸이 그대로 예리한 신경이 되여 그쪽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금시 터져나갈것처럼 울렁거렸다. 어떻게 될가?… 부디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신작로에 나서는데 미10군단 방첩대놈들의 찌프차가 함흥시쪽으로 질주하였다. 이자 들린 총성이 저 차와 맞불질한 소리가 틀림없는데? 그럼 석근이네가 저 차와 싸웠는가? 그렇다면 김국성동지는?…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다급히 아까 김석근이 간 신작로를 따라 부지런히 걸었다.
거의 암거 있는데까지 달려나온 그는 거기서 뜻밖에도 길가에 쓰러진 석근이를 발견하였다. 잔등에 《왕초》의 《심판장》이 붙어있는 석근이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인범은 그전에 굴뚝밑으로 찾아가는 석근이를 해치려고 철공소담장밑에서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왕초》가 떠올랐다. 김석근이 끝내 조무래기들의 손에 걸려들었다는것이 확인되자 오인범은 기가 찼다.
《이녀석, 〈왕초〉야! 네가 글쎄 무슨 일을 저질렀어, 응? 이녀석아!》
혼자소리로 이렇게 원망하며 오인범은 다행히도 지금까지 심장이 살아있는 석근이를 둘러업었다. 곧장 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아래목에 눕혔다. 아궁에 불을 지피고 정씨가 비상용으로 건사해둔 산꿀까지 쓰며 정성껏 간호하였다.
이윽고 김석근이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는 동녘이 들리는무렵이였

다. 서서히 눈정기를 모은 그는 머리맡에 앉아있는 오인범을 알아보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호송되여가던 사람은 어떻게 되였나?》

오인범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괴롭게 머리를 떨구며 눈길을 피하는 그의 얼굴을 보다말고 김석근은 황급히 일어나려고 하였다. 안깐힘을 쓰며 상체를 일으키던 그는 그만에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석근〈대장〉, 석근〈대장〉!…》

안타깝게 부르는 오인범의 웨침에 김석근은 다시금 눈을 떴다. 그는 오인범이 그렇게도 안정하길 원했지만 기어이 일어나는것이였다.

《그가, 그가 잘못되다니?…》

그는 열에 뜬 환자의 부르짖음처럼 뇌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다만 김국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애오라지 그 욕망에 사로잡혀 목숨을 내대고 함흥지구 《C. I. C.》로 찾아갈 잡도리였다.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오인범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를 심히 애를 써서 겨우 눕혀놓았다.

아침늦게야 자리에서 일어난 김석근은 아직도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놓으며 주동학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땜쟁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들은 주동학이 어제 밤에 나간 후로는 지금까지 한번도 얼씬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김석근은 《꿀통》이 있는 교전장에도 나가보았지만 주동학의 종적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오인범이와 함께 사방에 내탐하였으나 땜쟁이의 행처는 바이 알길 없었다. 혹시 어제 밤 습격전투에서 잘못되지 않았을가싶은 불안속에서 석근이는 김국성을 구출할 방도를 모색하며 군《치안대》사무실로 들어갔다.

혼자 있는 그에게 오인범이 찾아왔다.

《방금전에 장욱세가 왔다갔습니다. 석근동무가 없어서 갔는데 그놈은 오늘 아침에야 김국성동지를 파송했답니다.》

《뭐라구? 오늘 아침에?》 김석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제 밤에 호송하지 않구?》

김석근은 어제 밤에 안병덕이 전화를 걸어 고원빨찌산의 기습을 받을수 있다며 장욱세더러 날이 밝은 후에 김국성을 파송하라는 지시를 주었다는것을 전혀 알수 없었다.

《교활한 놈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꽝 쳤다.
《석근동무, 어제 밤에 총성이 울린 후 미10군단 방첩대놈들의 찌프차가 함흥으로 들어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주동학이 혼자서 그놈들과 조우전을 벌린것 같은데 혹시?…》
《음, 땜쟁이가 잘못 볼수도 있지.》
김석근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미군방첩대놈들과 조우전을 벌렸다면?… 아, 아니요. 그는 잘못될수 없소!》
김석근은 굳이 믿고싶었다.
무엇보다 그는 김국성을 구출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마침내 최후의 모험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후 어느날 그는 점심때를 앞두고 함흥지구 《C. I. C.》본부에 전화를 걸어 안병덕이와 통화하였다.
《제가 김석근입니다. 오늘 나한테 소회갓이 생겨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학교때부터 회갓료리라면 오금을 못쓰던 안병덕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양하였다.
《나를 위한 자네의 성의는 고맙지만 지금은 그런데 신경쓸 처지가 못돼.》
《혹시 김국성이 입을 열지 않아서?…》
《국성이? 흥, 그놈은 벌써 천당에 갔어.》
《천당에요? 그럼…》
《전화로 그런걸 묻는게 아니야. 회갓은 후에 먹자구.》
안병덕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김석근은 귀가에 든 송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채 말뚝처럼 굳어졌다.
(아니, 국성동지를?…) 그의 메밀눈은 무섭게 흡떠졌다. 어찌나 분노했던지 꽉 다문 그의 입안에서 어금이가 부서지는듯 한 소리가 났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내 기어이 복수하리라!)
김석근은 방안에서 나왔다. 즉시 조경화를 찾아가 그에게 김국성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미군고문의 통역원처녀는 그에게 안병덕의 야수적고문에 김국성이 희생되였다는것을 의심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형언할수 없는 비분에 잠겨 김석근은 성천강백사장으로 나왔다. 살을 에이는듯 한 차거운 강바람이 불어치면서 그의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리였다. 개개의 모래알마저 빛을 잃고 얼어붙은듯 한 백사장에서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희생된 그에 대한 애석함이 가슴을 파고들수록 감명깊은 지난날의 귀중한 사연들이 잊을수 없게 회억되였다.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1946년 11월 5일에 만났던 김국성의 모습은 석근에게 삶의 희망과 활력을 부어준 해빛과 같은 존재였다. 보안서원이 되려고 김석근이 군보안서장의 사무실에 세번째로 찾아갔을 때였다. 저녁해빛이 비쳐드는 방안에서 혼자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있던 김국성은 자기앞에 나타난 그를 알아보자 전에없이 벙글거렸다.

《음, 석근동무가 왔구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기다리고있은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동무가 이렇게 찾아올줄 알았소, 알았다니까!》

함흥영생중학교출신이여서 보안서원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두번씩이나 퇴짜를 놓은 그가 이러는 바람에 김석근은 저으기 어리둥절해하였다.

《자, 어서 여기 와서 앉소. 앉으라니까.》

석근이 그의 책상머리에 마주앉았다.

《석근동무, 오늘도 입대문제때문에 찾아왔겠지?》

《예, 저를 받아주십시오.》

김국성은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창문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한결 신중한 표정으로 석근이를 바라보았다.

《석근동무, 지금 적들은 우리 인민들의 새 조국건설을 저지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준동하고있소.》

남조선에서 미제는 지난해 11월에 《군정법령》 제28호로 《미군정청》안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괴뢰군을 조작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고있다면서 김국성은 적들의 북침야망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는 적들이 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첩보활동을 맹렬히 벌린다며 북에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박아넣는다고 말하였다. 지금 미중앙정보국에 《한국》인공작반이 있는데 크레마대좌가 책임고문이라면서 김국성은 물었다.

《석근동무, 동무는 윌리암 스코트선교사를 기억하고있겠지?》
《일제시기 함흥영생중학교를 경영한 선교사 말입니까?》
《옳소, 그놈은 말이 선교사이지 실상은 크레마대좌의 고문이요. 미중앙정보국〈한국〉인공작반 책임고문인 크레마대좌는 윌리암 스코트선교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거던. 지금 남반부에 도주한 영생중학교출신들이 리승만의 측근자로 맹활약을 하는데 그 거두들을 스코트가 쥐고있소. 그러니 크레마가 그의 손탁에 들지 않을수 있겠소?》
그의 말을 통하여 김석근은 남으로 도주한 자기의 동창생들이 스코트의 추천으로 미첩보대며 국방부와 내무부들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악질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제날에는 한학교에서 같이 배우며 한팀에서 축구경기도 했는데 이제는 서로 총부리를 마주대고있다는 충격에 그는 가슴이 아팠다.
김국성은 토지개혁당시는 물론 그 이후 애국미헌납때에 함흥지구에서 감행한 적들의 책동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도 주로 안병덕이 같은 영생중학교출신들이 두목이 되여 날친 만행이였다고 하였다. 김석근은 흠칠 놀랐다.
(그렇다면 우리 큰아버지도 그놈들이?…)
석근은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꽉 부르쥐였다.
《석근동무, 지금은 그놈들이 남반부에 도주해서 없지만 적들이 북침을 노리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 도주자들인들 가만있겠소? 미첩보대는 주로 도주자들을 흡수하여 첩보훈련을 주고 북반부에 침투시키오.》
김국성은 앞으로 함흥지구에 영생중학교출신 첩보대원들이 잠입할수 있다면서 석근이더러 함께 싸우자며 입대를 수락하였다. 그렇지만 보안서원정복을 입지 말고 비밀리에 활동하자는것이였다. 지금처럼 고향마을에서 그저 농사나 짓는 사람으로 일하면서 보안사업을 하되 안해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자기를 로출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련락원 한사람을 통하여 자기와만 련계를 가지자는것이였다.
《어떻소, 꽤 할만 하오?》
김석근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안해까지 모르게 자기를 숨겨내겠는지 그것이 우려되였던것이다. 김국

성이 말한것처럼 앞으로 의도적으로 간첩, 암해분자들과 내통해야겠는데 어떻게 안해 눈을 속일가싶었다. 그에게 위장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가슴아픈 오해를 사기가 십상이 아닌가. 지어는 역적의 루명까지 쓸수 있다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이 떨렸다.

그의 마음속 고뇌를 눈치차린듯 김국성이 입을 열었다.

《석근동무, 물론 비밀공작은 정복을 입고 보안서원으로 근무하는것보다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요, 위태롭기도 하구. 자칫하면 우리 사람들의 처단까지 받을수 있지. 그렇지만 석근동무.》

김국성은 반간첩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롭다고 외면할수야 없지. 더구나 석근동무는 지하투쟁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소.》

《예?- 서장동지가 그럼?…》

《동무가 보안서원이 되겠다고 해서 내가 좀 알아보았소. 동무네 반일학생회 책임자였던 안섭동무가 석근동무를 보증해주더구만.》

《그렇습니까?》

해방전에 김석근은 함흥농업학교에 조직된 비밀지하조직인 함흥반일학생회 성원으로 활동했었다. 안섭이 회장이였던 함흥반일학생회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국내에 진출하시여 함흥지구에 조직하신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였다. 함흥농업학교에 조직된 반일학생회는 함흥조국광복회의 영향하에 장차 함흥영생중학교에도 조직성원을 두려고 하였다.

당시 태권도사범이였던 안섭이한테서 훈련받은 김석근은 그의 영향하에 함흥영생중학교에서 맨 선참으로 함흥반일학생회 조직성원이 되였다. 학생들속에서 반일사상을 고취하기도 하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 원호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비난으로 영생중학교를 중퇴한 이후에도 함흥반일학생회성원으로 지하공작사업을 계속했는데 그후 인차 해방을 맞이한 석근이였다.

김국성은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동무의 동창 안병덕은 지금 회양 대북첩보대에서 함흥지구 총망책으로 활동하고있소. 그자는 자기 동창들과 결탁하여 간첩들을 침투시키고있는데 석근동무 역시 그의 동창이 아니요.》

김국성은 때문에 그놈들과 쉽게 손을 잡을수 있다면서 석근이더러 적들과 련계된 반간첩투쟁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김석근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석근동무, 동무는 누구보다 적임자인데 그래도 주저되오?》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앞으로 함흥지구에는 주로 석근동무의 동창생출신 첩자들이 침투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보안서장의 방에서 나온 김석근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안해가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남편한테 이번에도 보안서원으로 받아주지 않던가고 물었다. 김석근은 전보다 더 과묵해져서 그저 머리만 끄덕이였다. 안해는 《호!－》한숨을 내불었다. 땅이 꺼질듯 한 그의 한숨속에는 남편이 영생중학교를 다녀서 남들처럼 믿어주지 않는다는 서러움이 실려있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네들의 진심이 곡해되고 의심을 사지 않을수 있으랴싶은 한탄이 섞여있기도 하였다. 김석근은 그러한 안해에게 사실대로 말할수 없는 자기 처지를 새삼스럽게 의식하며 괴로와하였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오해를 사며 아픔을 겪겠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랴싶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수도 없고… 김석근은 오래동안 번민에 모대기며 논밭에 거름을 져날랐다.

이듬해 어느날 어둡이 깃드는 저녁이였다. 밥상을 물리고 《로동신문》을 보는데 이웃집 안로인이 마실을 왔다. 채수염을 길러 한결 풍채가 돋우보이는 70고령의 늙은이는 뻐금뻐금 대통을 빨며 시국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나라가 해방은 되였지만 둘로 갈라졌는데 남반부에서는 통일정부를 세울 궁리는 안하고 서로 반목질시하며 당파싸움질만 한다는것이였다. 해외 사처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들어 저마끔 무슨 당을 조직하여 나라를 통치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건너온 리승만은 《자유당》을, 상해에서 귀국한 김구는 《한독당》을 조직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당이요, 뭐요 하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당이 나와서 국민이 사분오렬된다고 말하였다.

《지난날에 잘살았소, 못살았소 하면서 패를 갈라 싸움질이지.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다같이 조선의 하늘밑에서 화목하게 살결 원하거던.》

난구집 채수염로인은 자기같은 교인들에 대해서 한참 자랑하다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자넨 보안서원이 되려다가 퇴짜를 맞았다면서?》

김석근은 잠자코 앉아있었다.

《글쎄 로동당도 사람을 배척한다니까. 자넨 영생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병덕이처럼 로동당의 버림을 받을수밖에 없지.》

채수염로인은 안병덕의 7촌할아버지였다.

《우리 병덕인 지금 남반부에서 〈대한청년단〉중앙위원일세. 자네도 로동당에 붙지 말고 우리 병덕이를 따라가라구. 그러면 자네도 7촌손자처럼 큰일을 맡아할수 있는데 어떻나? 병덕이를 찾아가겠나?》

김석근은 속으로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병덕이를 찾아가면 큰일을 할수 있다는 소리도 귀설게 들렸지만 남반부에 도주한 안병덕이 《대한청년단》중앙위원이 되였다는 소식이 더욱 놀라왔다. 주색에 빠져 싸움질밖에 모르던 망나니가 정치가로 출세하다니?…

《로인님, 병덕형님이 〈대한청년단〉중앙위원이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왜, 미덥지 않나? 여기서는 자네같은 영생출신들이 로동당의 배척을 받지만 남반부에서는 다르거던. 안병덕이 그녀석이 거기 나가 〈대한청년단〉중앙위원으로 되였네. 자네도 〈대한청년단〉에 들어가면 7촌손자처럼 큰 인물이 될수 있지. 어떻나, 그래도 로동당만 쳐다보겠나?》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든 석근이는 이 로인이 안병덕의 소식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있을가싶었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서는 앞으로 영생중학교출신들의 첩자가 침투될수 있다던 김국성의 예언이 생각났다.

(음!…)

벌써 이 로인한테 안병덕이와 련계된 어떤 녀석이 붙었다는것을 석근이는 눈치차렸다. 분렬된 조국은 한결 심각한 계급투쟁을 예고해주었다. 김석근은 스스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앞으로 김국성이와 손잡고 일하지 않으면 안될 자신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갈라진 조국의 절박한 요구였다.

《로인님, 로인님의 말대로 하면 나도 병덕형님처럼 사람구실을 할수 있겠지요?》

《암, 여부가 있나. 그럼 마음먹었겠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후 어느날 김석근은 남몰래 김국성이한테 편지를 띄웠다. 비밀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석근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고 편지로 알려주게 되여있었다.
김국성의 회답을 기다리던 그해 5월 9일이였다. 석근이는 오리틀포전에서 혼자 논갈이를 하였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김국성이 찾아왔다. 키가 작달막한 웬 청년과 함께 왔는데 그가 바로 김국성의 련락원으로 활동한 철공소 땜쟁이 주동학이였다.
일손을 놓은 김석근은 그들과 같이 포전머리에 마주앉았다. 거기서 석근이의 입대가 결정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토론되였다.
《석근동무, 이제부터 동무는 〈불새〉로 활동하오. 〈불새〉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불사조〉의 신념과 의지를 계승하자는 의미요. 그 어떤 애로와 난관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새〉, 절해고도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장군님만 따르는 〈불새〉가 되여야 하오. 동무는 장군님의 전사, 장군님을 옹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불새〉로 싸워야 하오. 살아도 영광, 죽어서도 영생하는 장군님의 전사라는것을 잊지 말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잘 싸워주오.》
김석근은 이렇게 말하는 국성동지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기같은 보잘것없는 농촌청년을 그렇듯 숭엄하고 긍지로운 장군님의 전사로 내세워주는 그의 앞에서 김석근은 한생을 영원한 《불새》로 살며 싸우리라 마음먹었다.
그후 석근이는 가지가지 고충을 겪으며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못내 불만스러워하는 안해의 눈총을 받으면서 김국성의 작전에 따라 난구집로인과 무척 가깝게 굴었다. 술상머리에 종종 마주앉기도 하고 미군이 어떻소, 리승만이 어떻다는 등 친미반역적인 이야기들도 꺼리낌없이 나누었다. 그러나 안병덕이와 련결된 놈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해에는 얼씬하지 않더니 다음해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였다. 논김을 매고 집에 들어온 김석근한테 난구집 채수염로인이 찾아왔다. 그는 저녁상을 받으려는 석근이더러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면서 한잔 나누자는것이였다. 김석근은 마

다하지 않고 로인을 따라 난구집에 들어갔다.

웃방에 이미 주안상을 차려놓았는데 웬 청년이 상머리에 앉아있었다. 김석근이 들어서니 형님벌이 됨직한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석근이겠지. 이렇게 와주어 기쁘오.》

《거긴 누군데?…》

어리둥절해하는 석근에게 주인집 채수염령감이 나섰다.

《응, 이 사람은 한교준이라구 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이네.》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하지만 나는 석근이를 이미전부터 알고있었소.》

한교준은 안주머니에서 웬 쪽지편지를 꺼내여 석근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생활상방조가 필요하면 교준이 도움을 받으라구. 안병덕》이라고 씌여있었다. 김석근은 속으로 저으기 놀랐다.

(안병덕이라니? 그럼 이자가?…)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김석근은 반가운 표정을 띄웠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오.》

《종종 찾아오게.》

김석근은 그가 내민 손을 힘있게 마주잡았다.

그들은 두리상앞에 나앉아 권커니작커니 하였다.

그후 김석근이 교준이와 두번째로 마주앉은것은 흥남시 해안거리 막걸리집에서였다. 시큼털털한 탁주를 마시며 그들은 상담하였다.

《일전에 부탁한 풍구는 어떻게 되였소?》

김석근이 물었다.

《응, 화학공장에 가서 최기택이를 만나게. 그럼 하나 줄걸세. 그런데 반룡구역체신소에 가보았나?》

《창길이한테 거기 편지를 전달해주었소.》

《수고했소. 그럼 이걸…》 교준은 주머니에서 밀봉한 편지봉투를 꺼내였다. 《이걸 그에게 전해주오.》

김석근은 머리를 끄덕이며 편지봉투를 넘겨받았다. 막걸리집에서 나온 그는 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었다.

자그마한 가정용풍구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석근은 이튿날 부지런히 걸어 함주읍에 있는 주동학이를 만났다. 그에게 교준이의 첩자들

이 분명한 최기택이며 박창길 같은자들을 사업대상으로 알려주었다.
《수고했소.》 주동학은 말을 이었다. 《지금 석근동무가 사업하는 한교준은 안병덕의 망원이요. 김국성동지의 정보자료에 의하여 남반부에서 〈대한청년단〉중앙위원으로 둔갑한 안병덕은 〈대북첩보대〉동부지구 간첩공작반에서 활동하는 함흥지구담당 총망책이요. 그자의 첩자들이 함흥지구에 벌써 여러놈 발을 붙였는데 한교준은 B조 망책이라오. 우리는 그자의 선을 들춰낼뿐아니라 다른 망도 적발분쇄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주동무!》
그들의 반간첩투쟁이 점점 심화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적들의 대북침투 간첩활동도 더욱 우심해졌다. 함흥과 흥남지역에만 아니라 일부 농촌마을에도 기여들었다. 김국성이 해당 지역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침투간첩들을 일망타진하는 대담한 작전을 전개하는데 갑자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되였다. 흥남항이며 화학공장에 잠입한 간첩들은 체포했으나 한교준이를 비롯한 얼마 안되는 다른 첩자들은 놓치고말았다.
부득불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국성은 적구활동을 작전하였다. 이때까지 로출되지 않은 석근이와 철공소 땜쟁이는 함흥지구 적구활동의 적임자였다.
그리하여 김석근이 오늘의 이 길을 걷게 되였는데 뜻밖에도 김국성을 잃지 않았는가. 그는 기회만 있으면 적정과 함께 국내, 국제정세도 알려주고 적구활동의 준칙과 방법까지 일일이 깨우쳐주며 눈을 틔워주군 한 스승이 아니였던가.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안겨주고 자기를 투쟁의 한길로 이끌어주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키워주던 귀중한 지휘관을 잃었다. 철공소 땜쟁이마저 행처불명이여서 이제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하는가? 절해고도에 홀로 남은것과 다름없는 자신이였다. 저절로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랠수 없어 김석근은 강바람이 불어치는 백사장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였다.

복 수

짧은 겨울해는 서산너머에 떨어지고 하늘은 피빛으로 물들었다. 군《치안대》사무실에 들어선 김석근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였다.

그는 맥없이 책상머리에 주저앉았다.

《후!ㅡ》 국성동지가 잘못되다니?… 그는 나어린 열일곱살때부터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란 항일혁명투사였다. 십여년간 항일혈전의 탄우속을 헤쳐온 장군님의 전사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려던 어제날의 지주집머슴이였다. 그 바쁜 군보안서장의 일을 하면서도 늘 땅을 그리워하며 농민들을 부러워하던 그였다. 산에서 싸울 때부터 조국이 해방되면 제손으로 곡식을 가꿔 장군님께 올리는것이 평생의 소원이였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애국미를 헌납해주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그 소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려고 그처럼 헌신했었지. 적들로부터 분여지를 지켜주고 장군님께 바치는 농민들의 충정심을 지켜주자고 얼마나 간곡히 말하였던가. 한생을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서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던 그가 잘못되다니?…

(안병덕이, 내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테다! 장욱세 네놈도!…)

무엇보다 국성동지를 체포한 장욱세를 복수하고싶었다. 이미부터 그놈을 처단해버리려고 했는데 적중한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벼르기만 하던차였다.

김석근은 방안에서 나왔다. 어느새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있었다. 그는 땅거미가 내리는 골목길을 따라 주동학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를 만나 상론하고싶었지만 주동학은 여전히 행처불명이였다. 김석근은 혹시 하는 생각으로 철공소굴뚝밑으로 갔다. 거기에 자기의 행처를 알려준 주동학의 비밀쪽지라도 있지 않을가싶었지만 역시 종무소식이다. 자기와 김국성의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그가 이처럼 오래동안 자리를 뜰수 없다는 비밀공작상원칙으로 보아도 주동학이 잘못된것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믿을수 없었다. 국성동지가 잘못되고 주동학이마저 희생되였다면 자기네 비밀공작선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엄청난 상실감은 석근이로 하여금 그것을 그렇듯 믿을수 없게 했던것이다.

김석근은 다시 걸음을 옮겨 주동학이 교전했음직한 도로를 따라 윤경이네 《꿀통》주변을 살펴보았다. 주동학이 희생되였다면 무슨 흔적이라도 있겠는데?… 벌써 눈이 하얗게 덮인 벌판을 메주밟듯 하며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그런 흔적은 찾아볼수 없었다. 약간이라도 불룩해보이면 손으로 눈을 쓸어버리군 했건만… 김석근은 혹시 윤경이

네 소매치기녀석들이 알고있지 않을가 해서 《꿀통》에 들어가보았다. 미국놈의 빈 통졸임통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져있는 《꿀통》안에는 윤경이네 조무래기들이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긴것이 분명한 어지러운 흔적만 남아있었다. 이제는 주동학이를 찾을 길은 바이 없었다.
《꿀통》에서 나온 김석근은 길가에 우두머니 서있었다. 펑펑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은 석근의 머리며 어깨우에 소리없이 내리며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듯 하였다. 그러나 주동학이마저 잃었다는 슬픈 상실감에 김석근은 또다시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싸워야 한단 말인가? 임무를 주는 사람도, 보고받을 사람도 없이 외토리로 남은 자신을 돌이켜보니 앞길이 막막하였다.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듯 한 좌절감에 맥을 놓고있던 김석근은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는 주저앉을수 없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주저앉다니?…)

김석근은 두주먹을 꽉 부르쥐였다. 그는 멀리 장욱세놈이 있는 고원쪽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리로 가자니 너무나 먼곳이였다. 그래 앞으로 만날 날이 올게라고 벼르며 그는 함흥시쪽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안병덕이놈부터 처단하고싶었다. 그는 어두워진 큰길을 따라 곧장 안병덕의 집으로 찾아갔다. 강건너 함흥시 동흥산기슭에 도사리고있는 그의 빈집에서는 사나운 개만 짖어대였다.

김석근은 발길을 돌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것을 결심하였다. 함흥지구 《C. I. C.》본부청사에 들어선 그는 현관에서 안병덕의 서기를 만났다. 퇴근하는 처녀서기는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왜 이리로 와요? 흥남에 가지 않고?》

《흥남이라니, 거긴 왜?》

《에그머니, 그럼 아직도 모르나요?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처녀서기는 안병덕의 지시라며 빨리 흥남《치안대》에 가라는것이였다. 《거기서 대장이 기다려요.》

(안병덕이?…)

김석근은 그가 어째서 불렀을가싶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안병덕을 만날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부터 울렁거렸다.

처녀서기와 헤여진 석근이는 신작로에서 지나가는 군용트럭을 잡아

탔다. 흥남《치안대》건물은 함흥시에서 30리밖에 있었다. 김석근이 흥남《치안대》대장의 방에 들어선것은 밤이 어지간히 깊어서였다. 너렁청한 방안에는 흥남시《치안대》대장 지용수와 안병덕이 앉아있었다. 어째서인지 그들은 전에 없이 시들머들해서 석근이의 인사를 받았다.

《내가 오늘 우리 축구팀의 포드와 윈을 만나는것은…》 안병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영생중학교시절의 축구팀을 상기시키는 포드와 윈이란 쎈타포드(중앙공격수) 석근이와 라이트윈(우측날개) 지용수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때 쎈타하프(중앙방어수)였던 안병덕이 이처럼 학창시절의 우정에 사로잡혀 말할 때면 례외없이 비밀에 속하는 중대사가 제기되군 하였다. 《그렇소, 내가 포드와 윈을 만나는것은 우리의 전선형편이 좀 달라지기때문이네. 지금 미군은…》 안병덕은 우거지상을 지었다. 그는 미군의 《감은절공세》와 《크리스마스공세》의 총파탄을 알고있었던것이다.

1950년 11월초에 미8군의 《감은절공세》는 아군련합부대들의 강력한 반타격전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 적들은 전선서부에서 수많은 병력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잃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미제는 변하지 않은 침략야망을 품고 전선동부에서 미10군단을 내몰아 황초령과 장진호반, 부전령, 백암, 청진계선에서 공격을 계속하였으며 미8군은 《크리스마스공세》를 준비하였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여났다는 12월 25일(성탄절)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적들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침략하겠다는것이였다. 《만만한 광신자》 늙다리 맥아더는 《속전속결》의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크리스마스축배를 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적들의 《크리스마스공세》는 11월 24일 10시에 박천－구장－덕천－녕원을 이은 100키로메터의 선을 출발선으로 하여 개시되였다. 아군은 적들의 발광적인 공격을 첫 순간에 꺾어버리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정주, 태천, 운산지역에서만 아니라 구장－녕원계선에서도 적들은 섬멸적타격을 받았다. 련이어 미2사주력부대도 개천지역에서 또다시 아군의 포위망에 걸려들어 전멸의 위기에 빠졌다. 사단장 케이저는 부하들에게 《각자는 능력껏 이곳을 탈출하라.》고 명

령하였으나 사단병력의 절반은 독안의 쥐신세가 되여 괴멸되고말았다. 28일 워커는 케이저사단을 구출하려고 뛰르끼에려단을 보냈으나 그들 역시 함정에 빠져 전멸되였다.

이와 같이 11월 24일 《크리스마스공세》를 개시한 미8군은 불과 3～4일동안에 전면적붕괴상태에 빠졌으며 그러한 미8군을 건져내기 위하여 워커는 괴뢰군 3군단을 신속히 전선에 투입하여 대포밥으로 내미는 한편 미8군 전군에 숙천－순천－성천－양덕－원산선에로의 퇴각을 지시하였다. 《크리스마스공세》는 총파탄되였다.

그 퇴각은 또한 절망적인 12월의 총퇴각의 서막으로 되였다. 압록강을 향하여 돌진하려던 이른바 전쟁을 끝내는 공세는 부산을 향해 퇴각하는 미륙군사상 최대의 참패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때문에 트루맨은 공세를 불행한 공세라고 하였으며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애당초 맥아더의 《북진》을 승산없는 모험이라고 비명을 질렀던것이다.

《그러나 대장님, 지내 비관해하지 마십시오.》

맥아더를 《승리의 화신》으로 우러러보는 지용수가 무거운 낯색을 지은 안병덕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맥아더사령관은 미10군단에 국군 1군단까지 진출시켜 두만강까지 진격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미10군단장 알몬드장군은 지난 11월부터 우리 흥남에 주둔하고있는 미1해병사단 사령부에 내려와서 전투를 지휘하고있습니다.》

《나도 알고있네. 맥아더사령관은 이미 〈감은절공세〉를 진행할때 전선동부 알몬드사령관에게 태백산분수령 이동지역의 공산군을 격파하고 국경까지 진격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었지. 허지만 알몬드장군은…》

안병덕은 미간을 찌프리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무거운 침묵이 깔린 방안에서 김석근은 생각하였다. 전선동부에서도 미제가 패망하는것이 분명하다고, 머지 않아 인민군대와 상봉할 그날이 다가온다는 기쁨속에서 느끼는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10군단장 알몬드는 전속력으로 돌진하라는 맥아더의 명령에 따라 우선 미1해병사단에 100키로메터 북진하여 하갈우리를 점령할것을 지시하였다. 미1해병사단 스미스사단장은 《북한》인민유

격대의 습격과 겨울의 엄동설한으로 하여 황초령을 넘는다는것은 위험하므로 함흥－흥남－원산지구를 확보하는 정도에 머물자고 주장하였다. 산악지대의 내륙길이 침입한다는것은 오라를 목에 걸고 스스로 무덤에로 기여가는것과 같다는것을 58살난 스미스는 륙감으로 느낄수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맥아더와 알몬드의 명령이므로 하는수없이 사형수가 교형리의 발걸음소리에 귀를 강구듯 주위를 살피면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한치한치 조심스레 하갈우리에로 전부대를 전진시켰다. 11월말에 사단장 스미스를 비롯한 미1해병사단이 장진지구에서 완전히 포위되여 전멸의 위기에 처하고말았다. 포위망에 든 스미스와 그의 부하들은 조선의 심심산곡에 기여든것을 후회하면서 죽음의 운명앞에 전률하고있었으며 그들 가족들의 소동과 울음소리는 더욱 처참하였다.

바빠맞은 맥아더는 워커와 알몬드를 도꾜에 호출하여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워싱톤에 정세보고를 하고 공세로부터 방어에로 이전할 의향을 알리였다. 이튿날 밤 9시 50분에 맥아더는 자기의 서재에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 거두들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작전상 문제를 가지고 거두들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개싸움질하였다. 풀이 죽어 맥없이 눈을 감고 부하들의 말다툼소리를 듣고만 있던 맥아더는 하는수없이 《반도의 허리까지 (평양－원산선)내려와… 보급선을 늘여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의 총퇴각명령이였다.

심야의 도꾜회담에서 돌아온 워커와 알몬드는 각기 자기 관할부대들에 퇴각명령을 내리였다.

적들은 퇴각하면서도 아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아 미2사단 사단장 케이저는 행방불명이 되였으며 사단은 인디안의 태형으로 도망쳤다.

미24사도 아군의 타격을 받았으며 워커의 8군은 포위될 위험에 놓였다. 워커는 평양방어가 곤난하므로 서울까지의 퇴각을 제기하였으며 맥아더는 38도선으로의 총퇴각명령을 내리였다. 8군은 륙로로 퇴각하며 10군단주력은 흥남에서 해상퇴각으로 부산에 상륙하여 8군휘하에 들어가고 괴뢰군 1군단은 리원에서 해상퇴각하기로 되였다.

8군은 12월초에 평양에서 퇴각하였으며 전선동부의 10군단 적들도 총퇴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내륙의 산간지대 깊이 침입한 미1해병사단에 있어서 살아서 돌아간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되였다.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1해병사단의 전위는 인천상륙시 월미도에서 갖은 살인귀적만행을 다한 3대대놈들이였다. 이놈들은 수많은 병력손실을 보면서 간신히 퇴각하였다.

강력한 항공 및 포병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우리로부터 홍남에 도착하기까지 1해병사단의 기본력량은 거의 소멸되였다. 스미스의 해병사단의 패배는 《크리스마스공세》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였을뿐아니라 《북진》의 전략적목적의 총파산을 의미하였으며 조선침략전쟁의 전도를 예고한 경종으로도 되였다. …

안병덕이 석근이와 지용수들과 밀담을 하고있는 당시는 사단장 스미스가 자기의 패잔부대들을 죽음에서 빼내려고 12월 3일 하갈우리로부터의 1해병사단의 퇴각을 명령한 사흘후였다. 우거지상을 하고있던 안병덕은 스스로 용기를 내려는듯 입술을 깨물고 말하였다.

《자네들도 다 알겠지만 미군은 전쟁을 이렇게 오래 끌 계획이 아니였소. 따뜻한 여름철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계속하다나니 미처 겨울철준비를 못했소. 그래 일시 퇴각했다가 진달래필 때 다시 진격하려고 하오.》

이것은 아직 비밀이지만 동창들이기때문에 사전에 알려준다며 안병덕은 금후 행동방향을 말하였다. 앞으로 3～4일어간에 자기 관할구역내의 《빨갱이》족속들을 씨종자없이 죽여버리라는것이였다. 반면에 첩보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빨갱이》들속에 깊숙이 박아두라며 그 명단을 자기한테 제출하라고 과업주었다.

《크레마대좌는 앞으로 우리가 게릴라작전을 벌릴게라고 하면서 첩보활동을 특별히 중요시하오. 자네들은 게릴라작전을 예견해서도 첩자들을 더 많이 박아놓아야겠는데 그럴만한 재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 석근이한테는 몇명이 있나?》

《글쎄?…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안병덕은 골살을 찌프리였다.

《그럼 용수한테는?…》

《한 댓명은 될것 같습니다.》
《다섯명?… 너무 적어. 적어두 100명은 돼야지.》
안병덕이 이러는 바람에 지용수는 물론 석근이도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왜 그렇게 놀라나.》
게릴라전을 벌리자면 도처에 첩자들을 두어야 할뿐아니라 정세를 봐서 그들에게도 총을 주어 싸우게 할수 있다며 안병덕은 말하였다.
《자네들은 이런것을 예견해서 준비해야 하네. 크레마대좌는 북한에서 진행할 게릴라전인만큼 여기출신들인 우리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네. 특히 우리 영생출신들이 한몫 할걸 바라네.》
《그럼 우리도 게릴라전에 참가하게 됩니까?》
지용수가 물었다.
《왜, 겁나나?》
《원,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럼 석근이는?…》
안병덕의 물음에 김석근은 속심과는 달리 대답하였다.
《전 대장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자넨 나의 쎈타포드야!》
안병덕은 껄껄 웃으며 만족스러워하였다.
그들은 밀담을 끝내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치안대》현관앞에 세워놓은 찌프차를 타면서 안병덕은 석근이더러 함께 가자고 하였다.
안병덕이 자신이 차를 몰았다. 미국제 찌프차는 적막한 야음을 째며 무인지경 신작로를 사납게 질주하였다. 김석근은 그의 곁에 앉았다. 복수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머지 않아 미군이 퇴각한다니까 안병덕이를 없애고 자취를 감추면 제기될것이 없었다. 적구투쟁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각을 놓치면 안병덕은 도망치고말것이다. 두번다시 마련될수 없는 단 한번의 기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김석근은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적들은 퇴각하면서도 게릴라전을 준비하지 않는가. 후방도 전장이 될것 같았다. 적들은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작전한다. 놈들이 도처에 간첩을 박아놓고 게릴라전을 벌리면 조국은 보다 준엄한 시련을 겪어야 하지 않는가. 도래할 전쟁형편은 석근이로 하여금 더 간고한 투쟁의 길로 부르고있었다.
(나는 적들의 게릴라작전을 방관시할수 없지 않는가.)

적들의 게릴라작전을 사전에 제압하려면 적구활동을 벌려야 한다는 자각에 김석근은 간고한 그 길을 자기가 걸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밀려들었다. 크레마의 작전에 안병덕이 조직하는 게릴라부대여서 적구활동의 적임자는 역시 자신이라고 인정되였다.

(그렇다면?…)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찌프차를 운전하는 안병덕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놈을 살려둔단 말인가?…)

눈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일었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진짜복수는 개인테로가 아니라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을 진정하였다. 하지만 내 너를 기어이 복수하리라, 천백배 복수하리라!… 김석근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적들의 게릴라부대에 침투할 결심을 굳히였다.

4

안병덕이와 헤여진 김석근은 자정이 되는무렵에 함주군《치안대》건물마당에 들어섰다. 그는 출입문곁에서 오인범을 만났다.

오인범은 석근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안병덕이 석근이를 불렀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은근히 석근이의 신변을 걱정하는 오인범이였다.

김석근은 그를 달고 류치장부터 돌아보았다.

군내무서가 자리잡고있었을 때 쓰던 단속칸은 물론 후방물자창고안에까지 숱한 애국자들을 감금해놓았다. 공로와 재부를 탐내는 악질적인 《치안대》놈들이 마구 체포해온 사람들인데 김석근은 그들로부터 비밀을 빼내거나 기타 반공희생물로 써먹어야 한다면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저런 리유를 붙여 군《치안대》대장이 직접 다스리며 끼고있는 애국자들이였다. 김석근은 그들을 자기가 모르게 없애치우지 않는가 해서 종종 돌아보며 점검하군 했었다.

오늘도 그래서 류치장을 찾는 모양이라고 오인범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김석근은 미군의 퇴각과 관련하여 감금된 애국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라는 안병덕의 명령에 대한 자기딴의 결심을 품고 돌아보는것이

였다.

창고앞에서 걸음을 멈춘 김석근이 문을 열라고 호령하였다. 《엠－완》보총을 메고 경비를 서던 백영달이 절컥 출입문을 열었다.

김석근은 컴컴한 창고안에 들어가서 전지불로 감금된 애국자들을 한사람한사람 여겨보았다.

《가만, 한놈이 없다?》 김석근은 혼자말로 이렇게 뇌이고 경비원을 찾았다. 《영달이, 읍거리 신문배달부는 왜 보이지 않는가, 응?》

《늙다리빨갱이 말입니까? 그놈은 지금 거마리의 감시하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경각성을 높여야 해. 늙다리 배달부이지만 그놈도 로동당원이야. 진짜 빨갱이란 말이야.》

《알고있습니다.》

《그럼 됐어.》

김석근은 다시 창고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젠 너희들과 결별할 때가 되였어. 미군이 일시 퇴각했다가 앞으로 진달래가 필 때 다시 오는데 너희들중에서 미군을 따라 남으로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러지 않겠다는 사람은 전부 총살이야. 미군이 퇴각하면서 여기에 원자탄을 떨군다. 그래서 밖에 있는 주민들도 남으로 나갈게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미군을 따라가야 살수 있는데 그래, 어떤가?》

얼음장같이 차거운 창고바닥에 앉아있는 그들중에서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월남할 사람은 밖으로 나가.》

역시 한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기서 죽는다 해도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석근이를 쏘아보고있었다.

《좋아, 그럼 모두 천당에 보내주지.》 김석근은 획 고개를 돌렸다.

《백영달이!》

창고문밖에서 영달이 뛰여왔다.

《이제 곧 미군연유창고로 가. 거기 가서 휘발유도람통을 가져와.》

김석근은 창고밖으로 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창고안의 빨갱이 몇놈 데리고 가서 가져와. 창고보초는 인범이한테 인계해.》
《알았습니다.》
백영달이 대답하였다.
김석근은 언땅을 떵떵 울리며 사납게 물러가버렸다. …

현무와 마주앉아있는 오인범은 천천히 담배를 빨며 잠시 입을 다물었다. 달빛이 비쳐드는 창문밖을 바라보던 그는 한결 진심어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때 백영달은 두명을 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걸 제가 다섯명을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나는 그때 석근동지의 의도를 알아차렸기때문입니다. 미군이 퇴각한다는것을 공개하면서 그런 연극을 꾸몄는데 그것은 곧 애국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라는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창고안에 붙들려있는 사람들에게 미군이 퇴각한다는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수단껏 탈주할게라고 보면서 바로 그래주기를 바란 석근동지라는것을 나는 즉시 눈치차렸습니다.
석근동지는 지난 시기 면〈치안대〉나 리〈치안대〉에 내려가서 감금된 애국자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애국자들을 살려내야 할 때에는 더없이 포악하고 잔인한 놈으로 둔갑하고 구원하군 했을뿐아니라 악질반동들을 처단할 때에도 그렇게 하군 했습니다. 제가 석근동지의 그 수법을 더욱 확고히 알게 된것은 서명호사건이후였습니다. 그것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초시기에 있은 일인데 그때 우리는 백운산 마영고개마루에서 〈내무원〉들로 가장한 함주군 고양리〈치안대〉놈들을 일망타진한적이 있었습니다.》
최현무가 그의 말을 성급히 가로챘다.
《아니, 그들이 〈치안대〉놈들이라니?》
《대좌동무도 그 사건을 압니까?》
《예, 백영달이한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영달이? 물론 석근동지가 진짜내무원들을 죽인걸루 말했겠지요?》
현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럴수 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였습니다. 백운산 소탕전을 성과적으로 치른 다음 산에서 내려온 석근동지는 나를 데리고 고양리 〈치안대〉에 들렸습니다. 물론 거마리를 비롯한 다른 군 〈치안대〉 놈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양리 〈치안대〉에 들린것은 방금 해가 솟는 이른아침이였습니다. 고양리 〈치안대〉 사무실에는 〈치안대〉 완장을 두른 한경준이란 놈이 혼자 있었습니다. 석근동지는 그놈에게 당장 리 〈치안대〉 대장을 불러오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조금후에 함주군 고양리 〈치안대〉 대장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놈은 한경준의 4촌형인 한교준이란 놈인데 매우 악질적인자였습니다. 그는 함주군 〈치안대〉 대장 김석근동지를 보고 벌벌 떨게라고 생각한 나의 상상과는 달리 오히려 아래사람을 대하듯이 반말질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석근이가 어떻게?…〉

〈교준이, 우린 전쟁전부터 손잡고 일해온 처지이지만 자네가 너무나 엄중한 과오를 범해서 용서할수 없구만.〉

〈과오라니? 그게 뭔데?…〉

〈마영고개에 내무원들이 잠복해있은걸 모르나?〉

〈응, 그것 말이나. 그건 저…〉

한교준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말듯 하면서 바재이는것이였습니다.

〈그러니 자네도 알고있었구만, 응?〉 김석근동지는 갑자기 발을 탕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겁쟁이놈아! 곁에서 내무원들이 우리 사람들을 쏴죽이는데 그놈들을 없애치우지도 않고 뭘하고있었어, 응?〉

석근동지는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당장 쏴죽일것 같은 그의 사나운 눈총에 한교준놈은 두눈을 커다랗게 치켜떴습니다.

〈아 아니, 대장님. 그 사람들은…〉

황황히 이렇게 말하고 그놈은 나를 흘끔 쳐다보는것이였습니다. 내 눈치를 본다는것을 알고 자리를 피하려다 말고 그놈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꺼려할건 없소. 우리는 지난밤에 그놈들을 전부 황천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려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그놈이 글쎄 기절초풍하듯 놀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구요?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아이쿠!―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예, 대장님!〉

이렇게 통탄하고나서 하는 말인즉 백운산 마영고개마루에 매복한 내무원들은 자기가 올려보낸 고양리 〈치안대〉 놈들이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후퇴하는 인민군대들이 바로 그 마영고개를 많이 넘어가기때문에 〈내무원〉들로 가장시키고 그들이 후퇴하는 인민군대며 진짜 〈빨갱이〉들을 소멸하게 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석근동지는 공중에 대고 탕!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한테 이미 보고했어야지. 그래 너한텐 상급도 없는가, 응?〉

그것만으로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석근동지는 한교준을 리 〈치안대〉 대장직에서 철직시켰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전쟁전부터 안병덕의 첩자로 활동했기때문에 그후 인차 승급되여 정평군 〈치안대〉 대장으로 만행했던것입니다. 후날 석근동지는 전쟁전에 그놈을 놓친것을 무척 분해하였습니다.》

오인범은 그놈을 회억하기조차 괴로운듯 미간을 찌프리였다.

《그런데 석근동무는 백운산 〈내무원〉들이 〈치안대〉 놈들이라는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작전을 벌렸습니까?》

최현무가 물었다.

《그건 철공소 땜쟁이가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백영달이 그의 집을 감시하고있었던 그날 저녁에 석근동지는 비밀련락장소에서 쪽지글을 꺼내보았던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백영달과 함께 주동학이를 만나서 비로소 아는것처럼 하고 작전을 벌렸던것입니다.

석근동지는 매번 이렇게 〈악질적인 주구〉로 둔갑하고 애국자들을 구출하군 했습니다. 미군이 퇴각한다는것을 알고 군 〈치안대〉에 갇혀있는 애국자들을 구출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참, 그들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휘발유도람통을 가지러 간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호송 〈치안대〉 놈인 백영달을 까고 도망쳤습니다. 바로 석근동지가 그러기를 바랐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읍거리에서 순찰근무를 서던 거마리패거리들에게 발각되여 추격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한명이 잘못되고 다른 네명은 구출되였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고 자빠진 백영달이도 거마리손에서 살아났던것입니다.》

오인범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담배만 태우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석근동지는 미군의 퇴각과 아울러 애국자들을 살해할데 대한 안병덕의 지령을 사흘동안이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군이 퇴각하기 시작한 그무렵에야 각 면에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월남하라는 명령을 떨구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면이나 리 〈치안대〉 놈들은 사방으로 삼십륙계줄행랑을 놓으며 저저마다 제 목숨을 부지하는데만 급급했던것입니다. 그통에 숱한 애국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오인범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미군 퇴각당시의 석근이를 회고하였다.

5

스스로 택한 길

드디여 미군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성천강동뚝이며 함주벌판에 참호들을 굴설하고 쟈크식 닭털이불속에 들어가 추위를 견뎌내던 미군은 살통을 만났다는듯 앞을 다투어 퇴각의 길에 올랐다. 읍거리에서는 열바리 군용트럭들과 땅크들의 아츠러운 동음들이 대기를 찢어대였다. 도주하는 《치안대》가담자들이며 그들의 가족들속에 원자탄 바람으로 이사짐을 이고지고 한 피난민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들은 흥남항쪽으로 내려가고있었다.

김석근은 함주군《치안대》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읍거리를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퇴각하는 적들을 따라 적구에로 침투해야 할 자신을 의식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상념에 하염없이 골몰하였다. 내가 월남하면 안해는?… 저절로 안해부터 걱정되였다. 역적의 안해로 수모받을 혜심이 아닌가?… 김석근은 두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 가슴을 긁어내리는듯 한 비명을 지르며 그는 몸부림쳤다.

《여보!…》

과연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적들은 퇴각하면서도 우리 후방

에서 게릴라전을 벌리려고 하오. 물론 후방을 교란하여 다시 북진하려는 제놈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조국이 그만큼 시련을 겪을게 아니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또 다른 난관이 조성된단 말이요.

혜심이, 그래도 내가 조국이 부닥치게 될 시련을 외면해야 옳겠소? 응, 여보?… 당신은 누구보다도 조국이 귀중한줄 알지. 조국이 있어야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가 생존한다는것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지 않소. 나는 인민군대를 따라가자고 그처럼 간절히 애원하던 당신의 모습을 정말 잊을수 없소. 어려운 때일수록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당신이였지!…

어느덧 그의 귀전에는 언제나 다정하고 애정이 흘러넘치는 안해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듯 하였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김석근은 용약 적구로 침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군《치안대》사무실에서 나왔다. 떠나기 전에 오인범을 만나고싶었다. 그는 골목길을 따라 인범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오인범은 대문앞에서 읍거리를 내다보고있었다. 김석근은 그더러 밖으로 나가자며 앞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읍거리를 지나 인적없는 성천강 모래불로 나갔다. 강안에서 이따금 얼음이 꺼져내리는 소리가 쩡쩡 울렸다. 김석근은 오래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는 자기마저 남으로 나가면 혼자 남게 될 오인범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치안대》완장을 두른 적기관만행자로 규정하고 해당한 제재를 가할수도 있었다. 설사 자기가 보증을 해주고 떠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 김국성동지는 희생되고 땜쟁이 주동학이마저 행방불명이 되여 우리곁에 없지 않는가. 분명 역적으로 처단되고말 오인범이였다. 물론 김석근이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빠져있었지만 지금은 오인범의 문제가 보다 긴급하게 제기되였다. 지난 시기 일시 배반의 길을 걸었지만 오인범은 뒤늦게나마 량심을 지켜 투쟁의 대오에 들어섰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싸우는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함께 죽으려는 귀중한 전우였다. 김석근은 그러한 오인범을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이 괴로왔다.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그가 지난날의 자기와 결별할 때 김국성동지

한테 보낼걸 그랬다고 후회하기도 하였다.

(정말 무슨 방도가 없는가?…)

안타까운 심정을 다잡지 못하며 암중모색하던 석근이의 눈앞에 조경화가 떠올랐다. (참, 그가 도와줄수 있지 않을가?)

알몬드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조경화였다. 그때 김석근은 주동학의 비밀쪽지를 통해 김국성의 지시를 받았다. 알몬드가 함흥에 도착하기 전에 미군고문의 통역원 조경화를 무조건 억류해두라, 그러다가 돌려보내되 그와는 일체 련계를 가지지 말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 않는가. 조경화가 김국성이와 련결되는 우리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라도 조직선을 타야 하지 않는가. 김석근은 앞으로 적들의 게릴라부대에 침투할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조직선은 등대와 같이 절실한것이였다. 그런데 조경화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그도 우리 사업의 준칙을 엄수하면 쉽사리 손을 잡을수 없는 일이였다. 석근은 그를 찾아가 만나려 했던 자신을 어리석게 여겼다. 하지만 오인범의 문제만이라도 해결받았으면 해서 김석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범이, 동문 조경화를 기억하고있겠지?》

문득스러운 그의 물음에 오인범은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갑자기 조경화 소리는 왜 합니까?》

《내가 보건대는 그가 우리 사람인것 같네.》

김석근은 조경화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하고나서 동을 달았다.

《이제 며칠후이면 인민군대가 나올거네.》

《정말 무척 기다렸습니다!》 오인범은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드디여 그날이 오는구만요!》

《그런데 인범이, 동문 인민군대가 나오면 뭘하겠나?》

오인범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지난날의 오점을 두고 량심의 가책을 받는 모양이여서 석근이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떳떳하지 못했던 어제날때문에 지내 구속받지 말게. 동문 훌륭하게 싸웠지. 사람들앞에, 조국앞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어.》

《그렇게 위안하지 마십시오. 나는 참된 투쟁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수치스러운 과거와 그것때문에 남긴 오점의 진짜 죄과를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더욱 커지구요.》

떳떳하게 살면 살수록 지난날의 오점을 저주하며 더 보람차게 살려는 오인범이였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쳐도 다시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석근이는 그가 더욱 귀중하게 여겨졌다. 설사 지하투쟁의 행동준칙을 어기는 과오를 범해도 오인범이를 보증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었다.

《인범이, 내가 편지를 써줄테니 조경화를 찾아가오. 인민군대가 나오면 조경화가 보증해주도록 편지를 쓰겠네.》

석근은 그에게 자기가 김국성의 지시를 받은 전사였다는것을 밝히면 전쟁이 끝난 먼 후날에 가서라도 조경화가 도와줄것 같았다.

《편지를 쓰다니요? 석근동지는 마치 여기에 내가 혼자 남는것처럼 말하는데 어째서 그럽니까?》

김석근은 그에게 구태여 숨기지 않았다. 적들의 게릴라전 작전기도며 그에 따라 또다시 적구에 침투할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하여 자초지종 말하였다.

오인범은 심중한 낯색으로 묵묵히 걸었다. 석근이가 도주하는 적들을 따라가면 과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조직선을 잃은 그도 자기와 다를바 없는 처진데 자칫하면 무주고혼이 될 그 길을 스스로 택하다니? 적구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역적의 루명을 쓰고 영원히 매장될수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김석근은 조국이 절박하게 바라는 길이여서 외면할수 없다는 립장이였다. 그렇다면 이 오인범은 외면할수 있는가? 설사 자기 한 개인의 운명이 가슴아픈 비극을 겪는다 해도 조국이 부르는 길에서 물러설수 없지 않는가?… 학교후퇴대렬에서 떨어졌던 지난날의 자신이 떠오른 오인범은 만회할수 없는 쓰디쓴 전철을 다시는 밟고싶지 않았다. 그는 자기도 석근이와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집에 있는 어머니가 떠올랐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아오는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해방전에 흥남비료공장에서 일하다가 가스폭발사고로 잘못되였다. 그때 오인범은 어머니의 잔등에 업혀서 자라던 시절이였다. 당장 입에 거미줄이 쓸 형편이여서 어머니는 농촌에 돌아다니며 삯김을 매주기도 하였고 삯빨래질도 하였다.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근 15년동안이나 뜨내기품팔이생활을 하면서 드문히 빌어먹기도 하였다.

매일같이 고역에 시달리며 근근히 연명해오던 어머니는 해방이 되여서야 사람대접을 받았다. 은혜로운 **김일성**장군님의 해빛같은 사랑은 그의 가정에도 삶의 희열을 안겨주었다. 길가의 조약돌같이 짓밟히며 버림받았던 어머니도 땅의 주인이 되였다. 논 천평에 밭 삼백평을 분여받았다. 분여말뚝을 꽂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하였다.

어머니는 논밭을 꽃밭처럼 가꾸었다. 해마다 풍년작황이였다. 첫해 농사를 지어 새집을 지었고 이듬해에는 재봉기까지 장만하였다. 생활이 풍족해질수록 어머니는 더욱 극성스럽게 일하였다. 아들이 고급중학교에까지 입학하자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애국미도 더 많이 바쳤다. 그러한 어머니앞에 자기는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나타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너무나 억이 막혀 그저 울기만 하였다.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어머니의 눈물에는 이 아들에 대한 원망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를 저버린 치욕이 담겨져있었다. 가슴을 저미는 어머니의 피눈물속에는 이제라도 새로운 아들이 되였으면 하는 소망이 고여있었다.

김석근이 집에 다녀간 후부터는 《너의 상관이 그리 못된 놈은 아닌것 같다.》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제발 못된짓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면서 죄는 죄대로 돌아간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오인범은 자기가 석근이와 함께 싸운다는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하루에도 열백번《어머니, 제가 〈치안대〉완장을 둘렀지만 미국놈과 싸우고있습니다. 사람구실을 한단 말입니다.》 라는 말이 치밀군 했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군 하였다. 미국놈들이 패망하면 이 아들도 적들과 싸웠다는것을 말해주어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주리라 마음먹었다. 사실 오인범은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가, 기다렸던가! 손꼽아 기다리고기다리던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또다시 《역적》이 되여 적구에 들어가게 되였다. 《치안대》완장을 벗지 못하고 패주하는 적들과 함께 남으로 도주하면 어머니는 기절초풍해서 쓰러지고말것이다. 한생을 자기 하나를 믿고 사는 어머니에게 나는 너무나 가슴아프게 굴지 않는가. 입에 풀칠하면서도 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40리밖에서 책상을 이고온 어머니였고 드문히 끼니를 굶군 하면서도 삯김, 삯빨래로 모은 푼전을 아껴 월사금을 쥐여주던 어머니였다. 오인범은 심장이 유리쪼각에 찔리

우는듯 하였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이 아들때문에 가지가지 마음고생을 할것이다. 어머니가 애처로왔다. 불쌍하였다. 너무나 가엾고 측은해서 오인범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였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버림을 받아도 석근동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머니!…)

오인범은 자기 량심이 가리키는 투쟁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그는 그 어떤 구속이나 강요에서가 아니라 조국의 준엄한 현실적요구를 자각하고 간고한 적구투쟁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석근동지, 만일 이 오인범이 석근동지의 짐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석근이한테는 그의 말이 실로 뜻밖이였다.

《적구에?…》

《아무데든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김석근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오인범을 바라보았다. 가짜안경을 끼고 자기자신을 기만하려 했던 오인범이 이토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김석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오인범이 자기를 위해서 조국의 운명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으로 여기려는 오인범이였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선택한 투쟁의 길은 결코 영광만 차례지는 길이 아니였다. 비록 량심을 지켜 성실히 싸워도 《반역자》의 루명을 쓰고 희생될수 있는 비극적인 길이기도 하였다. 아니, 살아서도 한생을 영원히 《반역자》로 몰릴수 있는데 과연 오인범이 그토록 가슴아픈 수난을 견디여내겠는지?

《인범이, 내가 지금 동지들을 잃고 혼자 싸우고있다는것을 자네도 알고있겠지?》

《예,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수 있는 길이지요.》

《그 길이 육체적고통이상의 아픔을 겪을수 있는 길이라는것도 생각해보았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는것을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석근동지처럼 누가 알아주건말건, 설사 역적으로 처단받는다 해도 시련을 겪는 조국을 외면할수 없고 다시 찾은 장군님의 전사된 도리를 저버릴수 없습니다. 저는 체험으로 배반자의 치욕을 맛본 사람이 아

닙니까.》

늘 지난날의 치욕을 잊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량심을 지키는 오인범이였다. 김석근은 그러는 그가 더욱 미더웠다.

《인범동무!…》

김석근은 눈굽이 달아오르며 목이 꺽 메였다.

6

부두에서

적들은 예상외에도 안병덕이 말한것보다 더 빨리 패주하였다. 미군의 퇴각을 보장하려고 성천강다리를 지키던 남조선 괴뢰군까지 부랴부랴 도망치는 바람에 김석근은 멀리 철원 친정집에 가있는 안해와 아들애마저 만나볼새 없이 《월남》의 길에 나섰다.

지금 오인범이와 함께 흥남항으로 내려가는 석근의 마음은 저으기 괴로왔다. 남편이 역적이 되였다고 집을 뛰쳐나간 안해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인민군대가 나와도 머리를 들고다니지 못할 안해인즉 그는 이 남편을 얼마나 원망하랴. 적들이 밀려가면 안해앞에 떳떳하게 나설게라는 희망을 안고 피눈물나는 고비고비를 넘으며 임무를 수행했건만… 그런데 또다시 《반역자》가 되여 적구속으로 들어가다니? 반역자의 루명을 쓰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이 길에 들어선 남편으로 해서 안해는 머리를 떳떳이 들지 못하고 살아갈게 아닌가.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안해인데 나를 찾아 수백리길도 마다하고 내처 걸어온 그가 글쎄 이 석근이때문에 사람들의 버림을 받다니?

여보, 나를 용서하오. 당신한테 《반동》의 안해된 치욕을 안겨주며 이 길을 선택한 나를 알아주오, 여보!…

김석근은 이렇게 부르짖을수록 떳떳한 남편이 되고싶었다. 안해의 자랑이 되고싶었다.

여보, 그날이 꼭 올게요. 당신이 원하는 남편이 되여 돌아올테니 부디 그날까지 기다려주오. 아무리 가슴아픈 일이 겹쳐들어도 그 고통

을 제발 이겨내주오!…

김석근은 속으로 이렇게 소망하며 성천강동뚝을 따라 흥남으로 내려갔다. 짧은 겨울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었다. 오인범이와 함께 청포비행장에서 흥남시로 들어가는 군자교근방에 이르렀을 때 김석근은 걸음을 멈추었다. 군자교와 잇닿은 구상리논벌에서 미군이 언땅을 파며 전호를 굴설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한개 대대가량은 됨즉한데 그 많은 력량으로 군자교를 지키자는것인가? 김석근은 믿어지지 않았다. 미군의 퇴각을 보장하려고 다리마다 괴뢰군들을 세워놓았던 적들이 아닌가. 하다면?…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여도 도저히 예견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리 때아닌 퇴각당시에 허허벌판에 전호를 굴설하는 그놈들이 청포비행장에서 인민군대의 기습전에 혼비백산하여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은 미10군단소속 제1해병사단 잔여분자들인줄 김석근이 어이 알수 있으랴.

미1해병사단장 스미스의 퇴각명령에 따라 청포비행장에 밀려든 3대대놈들은 인천상륙당시 가장 악질적으로 날친 놈들이였다. 청포에서 항공기로 퇴각하려던 그놈들은 비행장에서 인민군대의 기습에 되게 얻어맞고 부랴부랴 흥남항쪽으로 도망치다가 군자교앞에서 머물게 되였다. 퇴각로정에 없는 군자교가 장진군 하갈우리와 같은 죽음의 함정일수 있다는 공포심이 짙어가는 어둠과 더불어 가일층 무섭게 엄습했던것이다. 적들은 밝은 새날에 군자교를 정찰파악한 다음 넘어가려고 작전하였다. 하루밤을 견지하기 위해 진지 겸 잠자리를 파는것이여서 어느 놈이나 할것없이 죄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있었다.

김석근은 이런 내막을 전혀 알수 없었지만 퇴각하는 적들은 례외없이 공포심에 사로잡힌 얼빠진자들이라고 단정하였다. 적들이 제방귀에 놀란 노루로 보아지자 김석근은 그놈들을 내쳐둘수 없었다.

《인범이, 우리 저놈들을 천당에 보내주자구.》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동뚝우에 앉아서 한참 의논하였다.

드디여 어둠이 깃들었다. 검은구름이 뒤덮인 음산한 밤하늘은 전야에도 칠흑같은 암흑을 보태여주었다. 그들은 오래동안 기다려 거의 자정이 되는 무렵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계획한 작전대로 행동하였다. 오인범은 군자교앞에 길게 산개대형으로 전개한 미군전호의 남쪽 끝단

에 가고 김석근은 북쪽끝에 은밀히 접근하였다.

석근은 순식간에 보초병을 없애치웠다. 그놈한테서 로획한 전지로 첫 은페부안을 비쳐보았다. 대여섯놈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의 쟈크식 닭털자루안에 들어가 잠자고있는것이였다. 김석근은 그놈들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다. 연거퍼 쏘아대는 총성이 신호로 되여 오인범이도 은페부놈들을 겨냥하여 복수의 총탄들을 퍼부었다. 고요한 밤 정적을 깨뜨리며 터지는 총성에 모든 은페부들에서 선잠에 드는둥 마는둥 하던 미군들이 당황망조하여 뛰쳐나왔다. 가뜩이나 공포감에 질려있던 놈들인지라 적들은 눈앞에 나타난 제켠놈들까지 적으로 보고 저들끼리 마구 총질하였다. 숱한 사상자를 내고있을 때 석근이와 인범은 성천강동뚝으로 유유히 철수하였다.

한참 총격전을 벌리던 놈들이 비로소 병력을 수습하는 그때에 그들은 군자교를 넘어 흥남시 룡성땅에 들어섰다. 그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밝아올 새날을 기다리며 주인없는 폭격당한 빈집에서 눈을 붙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태양은 동녘하늘가에 높이 떠올랐다. 그들은 빈속으로 흥남항에 들어섰다. 쌀쌀한 겨울날의 해풍이 불어치는 부두에서는 해상퇴각에 광분하는 미10군단 잔여부대와 어울려 도주하는 《치안대》놈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들속에는 적들의 원자탄선전에 남행선박을 타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당시 미제는 멸망의 총퇴각을 개시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원자탄으로 위협공갈하였다. 미8군의 제14심리전대 대장 웰슨대좌와 그의 부하 죠지중좌는 북조선에 원자탄을 투하한다, 살겠으면 남으로 나가라, 진달래꽃이 필 때 다시 미군이 오는데 그때 귀향하여 《자유세계》에서 살라는 삐라와 류언비어작전을 벌렸다. 놈들의 악선전에 《치안대》놈들과 가족들, 미제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일부 무고한 백성들마저 원자탄공포증에 사로잡혀 월남의 길에 올랐다.

원자탄바람에 떠난 얼마 안되는 피난민들중에는 갓난애기를 업었거나 아이들의 손목을 잡은 녀인들이 있었다. 자식들을 살리려고 할수없이 괴나리보짐을 이고 나섰는가 하면 지어 부림소까지 끌고 나온 독실한 농사군도 있었다. 부두에는 한척의 미군군함과 세척의 어선들이 정박해있었다. 월남자들만 오르는 작은 어선에는 벌써 사람들이 승선하였다. 전부 《치안대》완장을 두른 놈들이였다. 그 배에 얼마 안되

는 무고한 피난민들이 오르려고 하였다.

김석근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남으로 나가려는 피난민들에게 적들의 악선전에 속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웨치고싶었지만 그럴수 없었다. 미군만아니라 보총을 멘 《치안대》놈들이 피난민들속에 끼워 같이 헤덤비고있었다. 김석근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며 피난민들을 바라보다가 부림소임자앞으로 다가갔다.

《령감, 이 소를 우리한테 바쳐야겠소.》 그리고 인범이한테 말하였다. 《빨리 가서 잡소.》

오인범은 그의 의도를 이내 눈치차렸다. 부림소임자더러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수였다. 그는 아바이한테서 소고삐를 나꿔챘다. 읍거리에 나가 돌려주려고 했는데 부림소 주인이 인범의 앞을 막아섰다.

《이눔, 그 소가 어떤 손줄 알구 빼앗아? 일곱명의 식솔이 명줄을 걸고있는 그 소를 잡아, 이눔!》

아바이가 달려들며 주먹을 쳐들었다. 너 죽고 나 죽어도 소는 못 뺏는다고 고함치는데 그의 식구들도 소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오인범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아바이한테 귀속말을 하였다.

《아바이, 원자탄선전에 넘어가지 말구 집으로 돌아가오.》

《뭐라구?》 아바이가 와뜰 놀랐다. 《원자탄선전에 넘어가지 말라구?》

《남으로 나가면 이 소도 빼앗기고 마오. 빨리 가요, 빨리!》

오인범이 아바이한테 고삐를 넘겨주는데 문득 가죽잠바를 입고 밤색캡을 눌러쓴 웬 사나이가 나타났다.

《야, 이 자식아. 너 빨갱이지?》

그놈이 권총을 뽑아들고 오인범의 가슴노리에 내대였다. 그때 김석근이 다가서서 그놈의 따귀를 갈겼다.

《이자식아, 네놈의 눈에 이 완장도 안 보여?》

오인범이 낀 《치안대》완장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얻어맞은 따귀를 만지며 그놈이 어리벙벙해 할 때 석근은 오인범에게 호령하였다.

《날 따라와!》

김석근은 배가 있는쪽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한순간을 모면했지만 그는 뒤에서 《개자식, 어디 보자.》 하며 이발을 가는 그놈과 후날

다시 맞서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덧 겨울해는 하늘높이 솟았다. 드디여 부두에서는 적 군함의 긴 고동이 울렸다. 출항을 예고하는 그 소리는 선창가에 음험하게 울려퍼졌다.

김석근은 오인범이와 함께 군함에 올랐다. 커다란 전투함선에 퇴각하는 미군과 《치안대》놈들이 시루안의 콩나물처럼 들어찼다. 갑판에도 발붙일 틈이 없는데 배를 타지 못한 《치안대》놈들은 더욱 기를 쓰며 매달리였다. 그러는 가위에 또다시 고동을 울리며 군함은 발동을 걸었다. 다른 세척의 어선들은 부두에서 떠나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석근은 뒤에서 어느놈인가 몰래 자기의 권총을 뽑아내는듯한 감촉을 받았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조무래기 《왕초》가 권총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녀석이?…》

권총은 해서 뭘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담?… 김석근이 잡으려고 하는데 《왕초》는 뺑소니쳤다. 사람들의 다리짬을 기여 이물쪽으로 달아났다.

(아니, 저녀석이 내리지 않구?!…)

벌써 군함이 움직이는데 《왕초》가?… 가슴이 철렁하였다. 김석근은 사람들을 밀치며 정신없이 그를 따라갔다. 이물에서 간신히 붙잡았다. 《왕초》는 그의 손탁에서 빠져나가려고 기를 쓰며 저항하였다. 짧은 한순간을 놓치면 《왕초》도 군함에 실려간다. 김석근은 군함이 잔교에서 멀어지는 그때에 《왕초》를 안고 뛰여내렸다.

《다친데는 없어?》

구원된 《왕초》는 그의 물음에 《흥!》하고 코방귀를 놓았다. 석근이같은 반동분자의 동정이 역겹다는 투였다. 김석근은 오히려 그러는 《왕초》가 기특하였다.

《녀석두! 어서 집으로 가.》

《왕초》는 물러갔다.

김석근은 군함에 다시 오를수 없었다. 어느새 마지막배마저 잔교에서 멀어져갔다. 오인범이 고물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석근형!—》

김석근은 그제서야 인범이와 헤여지게 된 자신을 의식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

《허참, 우리는 그래서 서로 헤여지게 되였는데… 참, 그녀석이 지금 안전원이라고 했지요?》

오인범이 물으며 현무를 바라보았다.

《자기 마을을 지키고있습니다.》

현무가 대답하였다.

《그러니 거기에 찾아가면 만날수 있겠구만.》

《예, 혹시 만날 일이라도…》

《예 예, 그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오인범은 저으기 황송해하였다.

《그럼 〈왕초〉부터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와줄수 없겠습니까?》

《필요하다면야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인범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갖추고 현무와 함께 대문밖으로 나섰다. 풍산 막바지 좁은 골짜기에서는 초겨울의 맵짠 바람이 불어쳤다. 벌써 총이 쎈 개털모자를 눌러쓰고 나선 오인범은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살펴보았다. 백산 까치봉꼭대기에 올라앉은 태양은 넝마같은 구름쪼각에 묻혀 빛을 잃고있었다. 날씨는 별로 음산하였다. 오인범은 풍산추위가 터지면 더욱 심하게 도지군 하는 어머니의 병환이 걱정스러웠다. 어머니는 풍산에 들어와서 더 종종 눕군 하였다. 함주군에서 살 때에는 지금처럼 자주 앓지 않았는데 바람세 맵짠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별로 효험이 없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같아서는 보다 뜨스한 함주군에 나가 살고싶지만 오인범은 그럴수 없었다. 그가 여기로 이사온데는 오인범이 혼자만이 알고있는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진짜기쁨을 드리는 일이였다. 지난날의 쓰라린 체험은 오인범이로 하여금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게 하였다.

아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어머니는 군말없이 풍산으로 들어왔다. 맵짠 풍산바람세에 병이 도져 자주 눕군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실로 고마운 어머니였다. 오인범은 걸음을 멈추었다.
《대좌동무, 아무래도 내가 좀 집에 들렸다와야겠습니다. 어머니한테 한가지 약을 더 쓰도록 안해에게 일러야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지극하였다. 최현무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7

《왕초》 윤경이네 집은 함주역에서 동남쪽으로 십여리 떨어진 상태리에 자리잡고있었다. 함주벌 동쪽기슭에 위치한 상태리는 성천강방뚝곁에 있는 모래흙둔덕이였다. 마을 웃쪽에는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떼를 입힌 공동묘지들이 놓여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조무래기들의 장난터였다.
현무를 따라 함흥역에서 내려 《왕초》네 부락으로 찾아가는 오인범은 감회깊은 눈길이였다. 일시적인 적강점시기 그는 김석근이와 함께 성천강방뚝을 따라 상태리에 다녀간적 있었다. 바로 서명호를 《학살》했던 그날 밤이였다. 저기 공동묘지에서 서명호를 《살해》하고 성천강방뚝으로 올라가는 달구지길에서 오인범이 석근이한테 총부리를 내밀지 않았던가. 치욕의 안경도 바로 저기서 벗어동댕이치지 않았던가. … 오인범은 잊을수 없는 그때를 더듬으며 감회깊은 걸음을 옮겨놓았다.

《왕초》네 집에서

윤경이네 집은 100여호의 농가가 있는 마을웃쪽 옛 석근이네 집 근방에 있었다. 기와를 인 두칸짜리 아담한 살림집이였다.
어렸을 때 《왕초》로 돌아쳤던 윤경은 집에서 점심상을 물리고 《로동신문》을 읽고있었다. 전쟁시기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벌써 협동농장에 나가 일하고 안해는 상점으로 나가서 그의 집에는 윤경이만

있었다.

밖에서 누구인가 주인을 찾기에 윤경은 웃방문을 열고 나갔다. 뜻밖에도 최현무대좌가 찾아왔다. 윤경은 그가 석근이문제때문에 먼길을 걸어왔다는것을 직감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눈여겨 살펴보느라니 후퇴시기 김석근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키꺽다리 《치안대》놈의 모습이 기억났다. 윤경은 속으로 와뜰 놀랐다.

(아니, 이놈이 어떻게?…)

윤경은 말뚝처럼 굳어져서 그를 쏘아보았다. 분명 자수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윤경은 키꺽다리를 당장 체포하고싶었다. 가슴속에서 이때까지 잠재하고있던 증오심이 돌연 활화산같이 타오르며 그의 심장을 쿵쿵 울리였다.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나 윤경은 키꺽다리가 최현무와 같이 왔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았다. 윤경은 그를 마지못해 방안에 들여놓았다.

키꺽다리는 윤경의 심중을 눈치차리고 오래 지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말할줄 몰랐다. 찾아온 용건을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표현하는것이였다.

《동문 부두에서 석근동지의 지갑을 따기했지?》

그의 말투는 윤경의 귀에 저으기 거슬렸지만 곁에 있는 현무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최현무부국장은 그들 셋이 서로 마주앉을 때 윤경이더러 개인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없이 키꺽다리만 혼자 찾아왔더라면 윤경중위는 당초에 마주앉지부터 않고 즉시 체포했을것이지만 군말없이 대답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지갑을 훔쳐서 어떻게 했소?》

오인범이 다그쳐 물었다. 그 지갑안에는 중요한 문건이 있었던것이다.

《어떻게 했는가구요?》

윤경의 눈앞에는 그때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따기한 문건

독자들은 윤경이네가 김석근이를 없애치우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그후 윤경은 비밀암거에서 떠나 흥남으로 내려갔다. 물론 그의 친구들도 함주에서 자리를 떴다. 김석근이 살아서 돌아치기때문이였다.

흥남에 내려간 윤경이네는 비료공장근방 물이 없는 하수도관안에 거처를 잡았다. 벽면에서는 물이 내배여 번들거렸지만 바닥은 그만하면 건조한편이였다. 그들은 거기에 미군의 방수포들을 훔쳐서 두툼하게 깔아놓았다. 가까운 흥남항에 나가서 역시 미군의 밀가루포대며 통졸임상자들을 훔쳐내여 먹었다. 그들은 미국놈들의 식량창고가 저들의 후방물자공급소로 되는것이 꽤나 고소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하수도관은 영원한 안식처로 될수는 없었다. 흥남시에 지하공작원들의 삐라가 나붙고 군수창고들이 털리우거나 폭파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적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수색작전을 벌렸다. 그 바람에 윤경이네 비밀아지트도 로출되였다. 어느날 밤 12시경에 흥남《치안대》놈들이 달려들어 하수도관안에서 단잠을 자던 그들을 전부 붙잡아갔다. 윤경이네는 놈들의 구류소에서 사흘동안 문초를 받았다. 다행히도 철없는 애새끼들로 인정되여 간신히 놓여나게 되였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이 패를 지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인지 한꺼번에 다 내놓지 않았다. 하루에 한두명씩 따로따로 내보냈는데 윤경은 닷새후에 혼자 나왔다. 먼저 나온 동무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동무들을 찾으려고 하루종일 돌아쳤지만 한명도 만날수 없었다.

당장 거처할데가 없었던 윤경은 이튿날 아침 고향마을로 찾아갔다. 놈들에게 집은 빼앗겼지만 고향마을에는 친척들이 있었다. 군자교를 건너 성천강동뚝을 따라 한 20리 올라가니 배가 고파 견딜수 없었다. 흥남《치안대》놈들의 구류소에서 하루에 한끼 식사를 했는데 그나마 멀건 뜨물죽이였다. 아마 일생에 그때처럼 배고파본적은 없

었을것이다. 윤경은 주린 창자를 채우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쓰리할만 한 대상도 없었다. 그는 무척 후회하였다. 흥남에서 떠나기 전에 미국놈의 창고를 털었더라면 이런 곤경에 빠지지 않았을걸 그랬다며 간신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어느덧 고향마을에 들어섰다. 무척 배고팠던 윤경은 어디 가서 요기할가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자기 집쪽으로 올라갔다. 먹을걸 노리는 그의 눈에 석근이네 집이 띄웠다.

(옳지, 그거네 집에서 쓰리해야지.)

윤경은 그 집 쪽대문을 열고 살금살금 고양이걸음으로 마당안에 들어섰다. 부엌문을 바라보니 뜻밖에도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져있었다. 해사하게 생긴 이 집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을가? 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토방을 짚고 올라서 방문 안쪽으로 걸어놓은 문안에 손을 들이밀어 열고 빈집에 들어섰다. 우선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사이문앞에 웬 쪽지편지가 있었다.

《…은섭이 아버지, 이제라도 제발 돌아서세요. 그러면 찾아오겠어요. 은섭이 어머니.》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갔을적에는?… 윤경은 은섭이 어머니의 심정이 리해되며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우리가 서로 이웃하고 가깝게 지낼 때에도 은섭 어머니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 설날에 세배할적이면 고모보다 더 많은 세배돈을 주군 한 아주머니였지. 그런데 내가 빈집에 들어와서 훔쳐낸단 말인가? 도적놈처럼?… 더구나 빈집에 들어와서 훔쳐내는짓이 도적놈이상으로 너절하게 여겨지며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윤경은 쪽지편지를 놓아두고 빈집에서 나오고말았다.

배고픔을 참고 윤경은 부락 웃쪽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찾아갔다. 놈들한테 집을 빼앗겼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보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해방이 되여 갓 지은 윤경이네 집은 두칸짜리 아담한 기와집이였다. 지금도 송진내가 풍기는듯 한 출입문마다에 《×》형으로 가시철조망을 쳐놓았다. 적들한테 몰수당한채로 있었다. 윤경은 문짝이 떨어져나간 대문밖에서 오래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럴수록 행복하게 살았던 저희네 가정의 지난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대손

손 지주놈의 소작농으로 가난에 쪼들리던 그의 부모들이 새집을 짓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집들이하던 날 아버지는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온 동네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들앞에서 아버지는 굵다란 피마주대로 만든 퉁소로 《신아우》곡을 불었다. 노래가락에 흥취된 마을사람들은 아버지더러 이제는 그 유명짜한 장고를 치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장고값을 높였다. 탁배기라도 한잔 마셔야지 그저 맨숭맨숭해서는 장고를 못 치겠다는것이였다. 집들이 구경온 사람들더러 오히려 한잔 내라는것이였다. 춤을 즐기는 마을사람들은 경우를 따지지 않았다. 가까운 이웃집 할머니부터 집으로 달려갔다. 걸죽한 탁배기 한사발 퍼들고와서 아버지에게 권했다. 술맛을 즐기는 윤경의 아버지는 탁배기 한사발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장고를 메고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는 《쿵, 덕 쿵덕…》 장단을 먹이며 노래를 불렀다. 멍석우에 앉아있던 마을사람들이 저마끔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었다. 참으로 즐거운 저녁이였다. …

윤경이 그때를 더듬으며 대문밖에서 떠나지 못하는데 《치안대》놈이 다가왔다. 그놈은 윤경이를 보더니 《빨갱이새끼로구나.》 하며 붙잡는것이였다. 윤경은 그놈에게 잡혀 《빨갱이소굴》로 끌려갔다. 《빨갱이소굴》은 부락 아래쪽에 있는 외딴집이였다. 남편이 인민군대에 나간 명순아주머니네 집을 몰수한것이였다. 놈들은 그 집에 《빨갱이》가족들을 가둬놓고 보초를 섰다. 앞마당에는 휘발유도람통들이 있었는데 놈들은 그것으로 부락에 남아있는 《빨갱이》가족들을 전부 화장해버리려고 작정하였다.

그안에는 윤경의 어머니도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놈들의 집단살해기도를 알고있는 어머니였다.

《이 철없는것아, 여기는 왜 왔니, 응?》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이제 다 불에 타죽겠는데 너만이라도 어서 도망쳐라, 어서!》

윤경은 어머니가 불쌍했다. 혼자 살고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는다면 자기도 죽고싶었다. 윤경은 어머니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욱 애타하며 빨리 도망치라는것이였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

머니 못지 않게 독촉하였다. 《치안대》보초놈이 앞뜨락에만 서있다면서 뒤울안으로 빠져달아나라며 이웃집 할아버지가 윤경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할아버지가 어찌나 세게 당겼던지 그는 질질 끌려나갔다. 그때 윤경의 머리속에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게 할수 없을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치안대》보초놈을 제끼면 달아날수 있겠다는 확신에 윤경은 총이 있었으면 하였다.

(그래, 총을 구하자.)

윤경은 흥남에 내려가서 권총을 한자루 훔칠것을 결심하였다. 《빨갱이소굴》에서 빠져나온 그는 흥남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올라앉았다. 성천강동뚝길을 내려가서 군자교에 들어설 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따꿍, 따꿍…》하는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귀가에서 탄알이 윙윙 아츠럽게 울어대며 날아갔다. 윤경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앞을 내다보았다. 다리너머 저쪽신작로에 미국놈들의 땅크가 줄느런히 서있었다. 20대나마 되는것 같았다. 한결같이 뚜크를 열어놓은 땅크우마다에는 두세명의 미군놈들이 올라앉아있었다. 그놈들이 《엠—완》보총을 쏘아대고있었다. 어째서 그럴가싶어 윤경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총질할만 한 목표물은 없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어른 한사람이 윤경을 따라잡고 앞서 걸었다. 《따꿍》총소리는 더욱 잦았고 귀가에서는 탄알이 날아가는 아츠러운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그래도 윤경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태연히 걸어갔다. 설마 나를 쏘랴. 미국놈들이 아무리 사람잡이에 이골난 야수들인들 죄없는 길손까지 죽이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걸어가던 어른이 쿵 자빠지는것이였다. 윤경은 또다시 멈춰섰다. 다리바닥에 쓰러진 그 사람의 머리에서는 마구 선지피가 흘러내렸다. 윤경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 사람을 마구 흔들며 소리쳐불러댔지만 그 사람은 기척이 없었다. 윤경은 더럭 겁이 나서 땅크쪽을 바라보았다. 한 땅크우에서는 미국놈들이 웃으며 떠들어대였다. 과녁이 명중된것이 기뻐서 웃어대는것이 분명하였다. 실로 치떨리는 인간백정들이였다. 윤경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였다. 가슴속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지만 어찌

할수 없었다. 그는 다리우에서 되돌아섰다. 적들이 쏘아대는 총성은 시간이 갈수록 몰방으로 터졌다. 때로는 그의 다리짬에서도 윙윙거렸다.

윤경은 성천강동뚝너머에 내려섰다. 해는 서산너머에서 피빛을 뿜으며 지고있었다. 그는 적들의 총성이 멎기를 기다리며 동뚝밑에 숨어있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적땅크의 아츠러운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윤경은 동뚝우에 올라서서 살펴보았다. 놈들의 땅크들은 함흥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는 다리를 넘어 흥남시에 들어섰다. 총을 훔치려고 《치안대》사무실도 엿보고 흥남항에 나가보기도 하였다. 자정이 넘도록 돌아쳤지만 뜻을 이룰수 없었다.

새날이 밝아왔다. 교외의 어느 농촌집 허청간 북데기속에서 윤경은 쪽잠을 자고 깨여났다. 배가 고팠다. 눈곱을 뜯기 전부터 먹을 궁리를 하였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집 처마에 걸려있는 명태를 훔쳐먹는것이였다. 그러나 무고한 사민집의 물건을 터는 일은 너절한 도적질로 여겨졌다. 그는 주인집에서 밥 한술 빌어먹고싶었다. 윤경이네 마을에서는 쪽박을 들고 빌어먹는 사람들을 《유거리》라 하며 경멸했다. 그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유거리가 되고싶지 않았다. 배고픔을 참고 부두에 나가리라 마음먹었다. 좀 멀긴 하였지만 거기에는 자기네 하수도관패들이 털어내군 한 미군놈들의 식량창고가 있었다. 윤경은 북데기속에서 나왔다. 눈곱을 뜯으며 거리로 나갔다. 큰길에서는 전에없이 사람들로 붐비였다. 거개가 《치안대》완장을 두른 놈들인데 그들중에는 미군이 도주하면서 퍼뜨린 원자탄선전에 남으로 나가는 피난민가족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윤경은 설사 원자탄이 떨어진다 해도 고향땅에서 피난가고싶지는 않았다. 인민군대를 따라 아버지가 나오면 온 가족이 다시 한집에 모여 행복하게 살게라는 느낌만 들었다. 그런데 지금 《빨갱이소굴》에 잡혀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였을가?… 어머니가 걱정되였다. 그는 부두로 나가려다말고 고향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부지런히 걸어 성천강 군자교에 들어서던 윤경은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섰다. 다리 저쪽에서 석근이가 마주오는것이였다. 원쑤는 외나무다

리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다리목에서 오인범이와 같이 오는 그와 마주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윤경은 당황해하였다. 그놈한테 붙잡히면 영낙없이 죽을것 같았다. 미국놈들이 패주하는 시기여서 가뜩이나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는 사람들속에 끼여들었다. 다행히도 석근이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앞서 걸어갔다. 윤경은 석근의 허리춤에서 흔들거리던 권총집이 생각났다. 그것을 훔치고싶은 욕망을 누를수 없었다. 윤경은 피난민들속에 끼여 그의 뒤를 따랐다.

석근이는 부두로 나갔다. 그도 배를 타고 월남하자는 기도가 분명했다. 윤경은 그의 빈집에서 보았던 은섭 어머니의 쪽지편지가 떠올랐다. 은섭 어머니는 반동이 되지 말라고 그렇듯 간절히 바라는데 저자는 종내 미국놈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격분에 윤경은 주먹을 부르쥐였다. 권총을 기어이 빼내리라 마음먹었다.

흥남항 부두에는 배를 타려는 도주자들로 끓어번졌다. 저마끔 배에 먼저 오르려고 밀치고 닥치는데 석근이는 인차 오르지 않았다. 무엇때문인지 사람들의 혼잡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며 무어라 지껄이기만 하는것이였다. 그가 그러는것이 윤경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다. 그는 석근이한테서 권총을 뽑아내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쉽사리 되지 않았다. 김석근이 웬 로인과 말할 때 권총집덮개를 열어놓았지만 손을 넣지 못했다.

석근이가 무슨 감촉을 받았는지 갑자기 열어진 권총집을 내려다보더니 다시 채워놓는것이였다. 그후부터 김석근은 줄창 권총집을 잡고 다니는것이였다. 윤경은 속으로 개새끼라고 욕질하면서 인내성있게 뒤를 따랐다. 해가 하늘높이 떠올랐을 때 김석근은 군함에 오르는것이였다. 윤경은 그의 권총을 기어이 빼낼 잡도리로 계속 따라갔다. 배가 떠나기 전에 권총을 뽑아내야 한다는 촉박감에 그는 저으기 헤덤비였다. 김석근이 갑판우에서 선실쪽으로 걸어갈 때 무작정 권총집에 손을 넣었다. 실로 쓰리치고는 매우 서툴고 우둔한 률동이였다. 윤경이네 패거리들은 쓰리동작을 률동에 비유하며 무용수보다 더 맵시나게 훔쳐야 《사범》으로 인정한다. 윤경은 그때 7명의 제자를 거느린 《고급사범》이였는데 그만 석근이한테 손목을 잡히고말았다. 여느때같으면 겁이 났겠지만 그는 《고급사범》으로서 망신당했다는 부

끄럼만 느끼며 분해하였다. 소위 《고급사범》의 명예를 만회해야겠다는 자존심이 북받쳐올랐다. 윤경은 그의 품에 안겨 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재주》를 발휘하였다. 김석근의 호주머니에서 감쪽같이 돈지갑을 쓰리하였다.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그의 지갑이 벌써 윤경의 빤쯔주머니에 들어가있었다. 석근이는 전혀 눈치차리지 못했다. (그럼 그렇겠지!) 윤경은 속으로 자기의 솜씨를 뽐내며 쾌재를 불렀다.

이상하게도 김석근은 그를 순순히 놓아주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것이였다. 석근은 떠나가는 군함에서 손을 저으며 소리치는 키꺽다리와 작별하고 무거운 얼굴로 돌아서는것이였다. 윤경은 부두에서 떠나 시내쪽으로 걸어가는 그를 오래동안 바라보기만 하였다. 다른 쓰리군같으면 이런 경우 그의 앞에 달려가 《형님!》 하고 엎드려 빌었겠지만 윤경은 그럴수 없었다. 김석근이, 그는 용서할수 없는 무서운 《반동》이라는 생각에 윤경의 가슴은 오히려 증오심으로 끓어번졌다.

그는 고향마을로 찾아가다가 성천강방뚝밑에서 석근이의 지갑을 뒤져보았다. 그의 지갑에는 무슨 암호로 되여있는 손바닥만 한 비밀쪽지가 있었다. 윤경은 그것을 마구 찢어버렸다. 빈 지갑은 하얗게 눈이 깔린 논판에 집어던지고 방뚝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다가 문득 비밀쪽지생각이 나며 그것이 혹시 이제 돌아올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문건이 아닐가싶었다. 윤경은 그럴수도 있다고 보아져서 다시 돌아섰다. 아까 찢어버린 곳에 내려가서 그 비밀쪽지들을 하나둘 찾아주어 역시 빤쯔호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다.

저녁무렵이 되였다. 윤경은 고향마을에 들어섰다. 곧장 집으로 찾아갔다. 출입문마당에 가시철조망을 쳐놓았던 그의 집 굴뚝에서는 재빛연기가 피여올랐다. 《빨갱이소굴》에서 뛰쳐나온 어머니가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며 불을 지피는 연기였다. 적들이 하루만 더 뒤늦게 도주해도 다 죽이고 달아났을게라며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윤경이네 마을도 해방되였다. 이튿날 저녁에는 인민군대를 따라갔던 아버지도 돌아왔다. 수염이 텁수룩하였다. 장진호반전투장에서 담가대원으로 부상병들을 후송했다고 아버지는 떳떳해하였다.

윤경은 아버지한테 쓰리한 비밀쪽지를 내보이였다. 아버지도 암호문을 해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건일게라며 아버지는 그것을 자기 지갑에 넣는것이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무척 대견해하였다. 지랄질은 배워도 도적질은 배우지 말라던 아버지가 이러는 바람에 윤경은 처음으로 쓰리질한 진짜기쁨을 느꼈다.

《아버지, 그 문건을 줘요. 내가 군내무서에 가져다 바치겠어요.》

윤경이 이렇게 마음먹은것은 아버지한테서 또 한번 용타는 칭찬을 받고싶어서였다. 장한 일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싶었다. 아버지는 아들애를 또다시 대견스레 바라보면서도 선뜻 내놓지 않았다. 자기가 가져다주겠다는것이였으나 윤경은 아버지에게 졸라서 끝내 넘겨받았다. 물론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내무서에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윤경은 어른이나 된것처럼 《뭐 내가 세살먹은 어린애나요.》라고까지 하면서 아버지앞에서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그는 군내무서로 올라갔다. 군내무서 정문에는 보초병이 있었다. 그는 보초병에게 군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물론 억지를 부리며 졸랐다. 그의 억지에 보초병은 어이없어하면서도 군관을 찾아주었다. 작은 별 세알을 단 키가 껑두룩한 사람이였다. 윤경은 그에게 따기한 문건을 넘겨주었다. 키꺽다리군관은 《따기문건》의 래력을 듣고나서 역시 윤경의 아버지처럼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용타고 칭찬해주는것이였다. 그는 윤경에게 돈 1원을 주면서 시장에 나가 사탕이나 사먹으라고 하였다. 윤경은 그 무슨 보수를 받는것 같아서 사양하였다. 실은 사탕을 사먹고싶었지만 돈을 받는것이 별로 시시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끝내 돈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아버지는 돈을 받지 않은 그를 두고 무척 대견해하였다. 윤경은 자기가 너절한 쓰리군이 아니였다는 자부심이 북받쳐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내가 과연 시시한 따기군이였는가? 그저 남의 돈주머니나 뒤진 너절한 쓰리군이였는가?…)

그는 범을 잡은 포수처럼 득의만면해하였다.

그후 어느날이였다. 윤경은 오래간만에 스케트를 타러 성천강으로 나갔다. 성천강스케트장에서 그는 적강점시기 자기랑 같이 하수도관생활을 한 《빠개》를 만났다. 《빠개》는 서명호세포위원장네 조카였는데 상태리 아래마을에서 살았다. 적들이 밀려가자 그도 쓰리군생활을 그만두었다. 성천강얼음판에서 그들은 재미나게 스케트를 탔다. 적강점기간에 못 탄 봉창을 하자며 점심도 건늬고 놀았다. 오후 세시쯤되여 배가 출출하였다. 윤경은 호주머니에서 생감자들을 꺼내였다. 집에서 떠날 때 몇알 집어넣은것이였다. 물론 불을 피워 구워먹으려는것이였다. 《빠개》도 생감자를 보더니 구워먹자고 하였다. 그들은 스케트를 벗어 어깨에 걸머메고 방뚝으로 나갔다. 방뚝에는 소똥들이 많았다. 주로 검부레기들만 있는 상태리벌에서는 마른 소똥으로 감자를 구워먹군 하였다. 마른 소똥불은 장작불 못지 않게 불담이 셌다. 그런데 방뚝에는 마른것은 별로 없고 젖은채 얼어붙은 소똥들만 있었다. 며칠전에 눈이 와서 젖어버린 모양이였다. 《빠개》는 윤경이보고 부락에 가서 나무를 구해오자는것이였다.

그들은 방뚝옆에 있는 윤경이네 부락에 들어섰다. 모래땅 논벌부락에서 장작개비를 줏자니 북데기속에서 낟알을 찾는것만큼이나 힘들었다. 《빠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줏는것이 싫증났던지 윤경에게 물었다.

《여, 이 집에 사람이 없는게 아니야?》

부엌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잠겨져있고 방문에서는 창호지가 풀러덕거리고있었다.

《응, 이 집은 군 〈치안대〉 대장하던 놈의 집인데 누구도 없어.》

《그래?— 거 빈집이구나.》

《빠개》는 나지막한 울바자를 넘어 석근이네 허청간에 들어갔다. 거기서 때다남은 장작을 한아름 안고 나왔다. 쪽대문안에 들어선 윤경은 밖으로 나가려는 그에게 서라고 하였다. 멀리 방뚝에까지 나가서 감자를 구워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윤경은 아예 석근이네 마당에서 불을 피우자고 하였다. 하긴 빈집인데 무서울것도 없지뭐 하면서

《빠개》가 쾌히 동의하였다.

그들은 석근이네 토방머리에서 불을 피웠다. 너무나 잘 말라서 장작개비들은 기름묻은 나무처럼 활활 불타버리는것이였다. 그들은 장작개비불담속에 감자들을 집어넣었다. 타지 말라고 이리저리 굴려가며 익히고있는 바로 그때였다. 쪽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애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손에 자그마한 보따리를 든 그 아주머니에게 《빠개》가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아주머니는 누군데 이 집에 들어서우? 이 집은 반동네 집이요.》

곁에서 윤경이 그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빨리 가자고 독촉했다. 어째서 그럴가싶어 의아해하는 그에게 윤경은 《이 집 아주머니가 왔어.》 하였다.

《아주머니라니? 〈치안대〉놈들은 에미네도 버리고 도망쳤는가? 허참!》

《빠개》가 하는 소리에 은섭 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빠개》는 속으로 《잘코사니야!》 하는듯 한 미소를 머금었다. 은섭 어머니는 토방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는데 그의 얼굴이 어찌나 창백해졌던지 마치 사형언도라도 받은 사람처럼 가련하게 뵈였다.

그들이 익은 감자를 주어 스케트모에 담아들고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주머니는 토방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남의 빈집에 들려 장작을 태우며 《란동》을 부린 조무래기들에게도 찍소리 한번 못했던것이다. …

《대좌동지, 보다싶이 그의 아주머니까지 반동의 처라는것을 인정합니다. 만일 김석근이 대좌동지가 찾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그의 아주머니는 그토록 절망스러워하지는 않았을겝니다. 아무렴 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눈치차리지 못했을가요?》

윤경은 흘끔 오인범을 훔쳐보았다. 그의 말에 현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다가 좀 갈린 목소리로 질책하였다.

《동무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까지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오?》

윤경은 저으기 어리둥절해하였다.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것 보오, 중위동무. 동무는 석근동무를 테로하려다가 실패했지?》

현무가 묻는 말이였다.

《예.》

《석근동무의 가슴에 붙인 〈심판장〉에 〈왕초〉라구 밝힌것도 사실이구?》

윤경은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너무나 뻔한 일을 어째서 캐여 묻는것인지 알수 없었다.

《동무는 그럼 석근동무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자가 〈왕초〉라는것을 안다고 보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주군에서 흥남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김석근이한테 화를 입을것 같았기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석근동무는 권총까지 훔치려는 동무를 붙잡고서도 놓아주었지?》

《그거야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겠지요.》

어른도 아니고 10살난 자기같은 아이한테 숱한 사람들이 보는데서 야수적인 만행을 가할수 없었을게라고 윤경은 단정하였다. 게다가 쫓겨가는 경황에 쓰리군아이같은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게라고 보았던것이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기요.》 대좌는 어디까지나 윤경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려고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석근동무가 배가 떠난다는것을 알면서도 어째서 동무를 안고 부두에 뛰여내린것 같소? 이물쪽으로 달아나는 동무를 우정 붙잡아서 왜 배에서 내려놓았는가 말이요?》

그제서야 윤경은 속으로 흠칠 놀랐다. 아니, 내가 그럼 김석근이때문에 군함에 실려가지 않았단 말인가? 아!— 그가 나를 안고 뛰여내리지 않았다면?… 윤경은 또다시 와뜰 놀랐다. 실로 그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군함에 실려갔을게 아닌가! 그래서 대좌동지

는 석근이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윤경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지만 너무나 상상밖이여서 좀처럼 믿게 되지 않았다. 제 고향사람마저 사형장에 끌고나간 석근이가 생명의 은인이라니? 무서운 살인마로밖에 보지 않았던 그에게도 사람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데가 있었는가?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목숨까지 아껴주다니? 과연 그에게 그처럼 뜨거운 인간애가 숨쉬고있었단 말인가? 하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적구활동의 시련을 이겨내랴싶었다. 적들의 만행을 목격하면서도 참아내는 의지도 그리고 안해며 일가친척들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진짜자기를 감추는 눈물겨운 그 강의한 정신력도 바로 자기 사람, 자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착이 있어서 체현되는것이리라. 하다면 석근이가? 석근이가 진정 그처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사람이였단 말인가?… 그럼 그에게서 훔친 따기문건도 우리 사람, 우리 인민을 위한 비밀문건이 되여야 하지 않는가? 윤경은 알아보고싶었다.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석근이를 보는 자기 눈이 도저히 달라질것같지 않았다. 하지만 윤경은 최현무의 앞에서 제 속심을 더는 드러내지 않았다.

살구나무밑에서

《어쨌든 중위동무의 따기문건이 제때에 군보안서에 들어갔다니 일은 제대로 되였습니다.》

오인범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최현무가 입을 열었다.

《중위동무, 일전에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였소?》

《예?―》

《석근동무네 집에 있는 살구나무밑을 파보라고 하지 않았소?》

그제서야 윤경은 알겠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렸다.

《파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다?…》

최현무는 고개를 기웃하였다. 공민증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꼭 있을것 같은데 없다니? 평범한 나날도 아니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김석근이 무엇때문에 살구나무묘목을 심었겠는가? 절대로 어떤 의의와 목적없이 심은것은 아닐텐데?… 그래, 그는 할일없어 준엄한 그 시기에 나무를 심었을리 만무하였다. 최현무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굳이 믿고싶은 그 예감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중위동무, 집에 삽이 있지?》

《있습니다만…》

《여러말 말고 그리로 가자구.》

최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인범이도 윤경이와 함께 그를 따라나섰다.

짧은 겨울해는 어느새 서켠하늘에 기울어졌다. 옛날 석근이네 집에 이른 그들은 주인집 할머니와 함께 살구나무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근 25년이나 뿌리를 내린 아름드리 살구나무는 찬바람을 맞으며 잠자고 있었다. 주인집 곡괭이로 언 땅을 쫏는 현무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철철 흘러내렸다. 저쪽에서 삽질하는 윤경이며 이쪽에서 곡괭이날을 먹이는 오인범이도 끙끙 뚝심을 썼다. 그들은 오래동안 겨끔내기로 뿌리밑을 들추었다. 그러는 가위에 무릎까지 파고들어갔으나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전에 윤경이 파낸것보다 한결 깊이 들어갔지만 현무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선자리에서 담배를 태우며 나무밑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기둥목같이 굵은 나무뿌리밑에 흙에 묻혀 알릴듯말듯 한 웬 단지가 누워져있는것이 띄였다. 현무는 손으로 와락와락 흙들을 파내여 밤색오지단지를 조심스레 꺼내였는데 그것은 뚜껑이 없는 빈 단지였다. 누구인가 파낸것이 틀림없었다.

《할머니, 이 단지를 누가 파낸 사람이 없었습니까?》

주인집 할머니는 함흥피난민늙은이가 살적에 있은 일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전후에 이사와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 윤경중위밖에 파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단지를 함흥피난민이 산 전쟁시기에 파보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현무는 그 피난민을 만나고싶었지만 행처를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 단지를 김석근이밖에 묻어둘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확고해지면서 여기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안해가 찾았다는 그 공

민증들을 보관했을게라고 현무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러고보면 여기에 오지단지가 묻혀있다는것을 김석근이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공민증들을 꺼낸 사람도 다름아닌 석근일것이다. 적구투쟁의 나날 고향집에 찾아왔을수도 있는 김석근일진대 그때 그가 공민증을 찾아가지고 갔을것만 같았다. 이렇게 믿게 되니 비록 빈 오지단지이지만 그것은 김석근이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물로 보이였다.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가슴속에 공화국을 안고살려는 그의 각오와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또한 후퇴의 그 시각에도 여전히 공화국의 《밭갈이노래》를 즐겨부른 해방직후의 김석근이 그대로였다는것을 우리모두에게 인정시키고있지 않는가!… 현무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굽이 달아올랐다.

제 5 장. 사랑과 증오

1

서산마루에 내려앉은 겨울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있었다. 현무와 함께 살구나무밑에서 자리를 뜨던 오인범은 대문곁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저녁해빛을 받아 한결 선명해진 옛 석근이네 집을 생각깊게 바라보았다. 10여년전에 한번 이 집에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때 이미 석근이네 가족은 여기 고향마을에서 뜨고말았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 딱히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오인범은 더 찾고싶지 않았다. 석근이네 가족을 만난들 별로 도와줄수 없는 자신이였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섰던것이였다. 그후 오늘까지 석근이네 가족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늘따라 별로 그리워지며 찾아가고싶었다. 석근이네 집을 알고있는 최현무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오인범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좌동무, 여기까지 오고보니 그냥 돌아갈수 없습니다. 석근동지네 가족을 한번 만나보고 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있겠는지요?》

최현무는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부지런히 걸어 함흥시에 들어섰다. 역전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였다. 영천행 협궤렬차를 타려고 역으로 나가는데 문득 최현무가 걸음을 멈추었다.

《가만 인범동무, 우리가 오늘 밤 자정이 되는무렵에야 석근동무네 집에 들어서겠는데 너무 늦어서 폐를 끼칠것 같구만. 래일 아침차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오인범이도 같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석근이네 가족을 만나본다는 기쁨에 그는 한초가 새로왔다.

《물론 여러가지로 미안한 일이지만 석근동지의 아주머니가 리해해

줄겁니다.》

《허허허… 전우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무의 심정을 알고서야 어떻게 래일로 미루겠습니까. 어서 갑시다.》

그들이 양혜심이네 집앞에 이른것은 마을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었는지 집집의 창문들에도 어둠이 깃든 때였다. 하지만 유독 혜심이네 집안만은 전등불이 환하게 켜있었다.

현무가 주인을 찾자 지금도 무슨 일인가 하고있은듯 한 혜심이 나왔다. 그는 어둠속에서 현무를 알아보고 무척 반기면서도 놀라와하였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어서 들어오세요.》 하던 혜심이 잠시 주춤거리다가 말하였다. 《저ㅡ 방안이 루추해서… 내 얼른 치울게 잠간만…》

《아 아니, 괜찮습니다.》

그들은 전등불이 환한 아래방에 들어섰다. 방안에는 혜심이 방금전까지 꼬고있은 새끼줄들이 무둑히 쌓여있었다. 남들이 단잠에 든 이 밤에도 혼자 새끼를 꼬고있은 양혜심이였다.

가슴이 후더워진 오인범은 현무와 함께 방안을 거두는 혜심이를 도와주었다.

이윽고 그들은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아주머니, 나와 함께 온 이 동무는 오인범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보았거나 들어본적 없습니까?》

현무의 물음에 양혜심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럴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머니를 처음 뵙는것이 아닙니까.》

오인범이 말하였다. 곁에 있는 최현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이 동무는 오인범이라고 이 집 주인과 같이 〈치안대〉 완장을 둘렀던 사람입니다.》

《예?ㅡ》 혜심은 상반신을 뒤로 젖히며 두눈을 치켜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여기까지?…》

혜심은 무거운 낯색으로 물었다.

《아주머니가 지금도 석근동지를 나쁜 사람으로 아는것 같아서…》

오인범이 하는 말이였다.

《온 참, 그거야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혜심은 더 들을 말이 없다는듯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아주머니, 좀 앉아계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아도 적어도 아주머니만은 똑바로 알고있어야 합니다. 석근동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월남도주했는데두요?》

《도주라니? 아니, 석근동지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패주하는 놈들을 따라 적구로 침투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예요?》

오인범을 쳐다보는 혜심의 눈에는 남편이 제발 그런 사람이였으면 하는 기대가 절절하게 어려있었다. 오인범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게 사실이라고 재삼 강조하였다. 생기도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혜심은 슬며시 눈을 감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해방후에도 목격한적이 있지만 특히 전쟁시기 내 눈에 비친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였는데…》

좀처럼 믿지 못하는 혜심일수록 오인범은 영웅전사 김석근이를 더욱 애틋이 추억하였다. 그는 언제인가 적구에서 석근이한테서 들은 사연부터 말하였다.

부두에서 헤여진 김석근

흥남항에서 오인범이와 갈라진 석근은 잔교에서 선뜻 돌아설수 없었다. 그는 저 멀리 수평선너머로 사라지는 군함을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겨들었다. 앞으로 오인범이를 다시 만나내겠는지? 그가 탄 저 배를 적들이 어디로 몰고가겠는지 김석근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오인범이 걱정되였다.

자칫하면 역적으로 락인받을수 있는 월남의 길에 나선 오인범인데 과연 그가 혼자서 어떻게 싸울가싶었다. 그 어디에 가서도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그가 아닌가. 김석근은 남으로 나가서 우선 오인범이부터 찾아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부두에서 떠났다.

그는 흥남시 《치안대》사무실쪽으로 걸어갔다. 흥남시 《치안대》 대장 지용수가 떠나갔는지 알아보고싶었다. 지용수는 서울에 월남한 아버지가 있는자여서 그와 함께 나가면 여러모로 유리할것 같았다.

하지만 흥남시《치안대》사무실에는 지용수가 없었다. 벌써 어제 서울로 도망쳤다는것이였다. 이젠 혼자서 나갈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다가 패주하는 군용트럭이라도 잡아탈 심산으로 행길에 나섰다.

문득 그의 곁에서 찌프차가 멈춰섰다. 찌프차에는 뜻밖에도 조경화가 앉아있었다. 물론 그의 곁에는 함흥지구 미군고문과 함경남도경찰국장 겸 《C. I. C.》대장 주철순이 앉아있었다.

《미스터 김!》

조경화가 한쪽손을 쳐들며 이렇게 소리쳐불렀다. 그는 석근이가 서울로 나간다는것을 알고 어서 찌프차에 오르라고 하였다. 김석근은 마다하지 않았다.

찌프차는 전속으로 달렸다. 흥남항에서 마지막배를 놓치고 원산으로 달리는것이였다. 만일 그들이 하루만 뒤늦게 떠났어도 고원읍을 해방시킨 고원인민유격대의 기습에 황천객이 될수도 있었을것이다. 다행히도 고원지구를 무사히 빠져달아났지만 목적한 원산항에는 들어갈수 없었다. 조선인민군 제2전선부대들과 각지 인민유격대들의 령활하고 적극적인 전투공세에 의하여 함흥—원산방향으로 패주하려던 미제침략군 제10군단과 괴뢰군 1군단의 퇴로는 끊어지고말았다. 바다로 달아나려는 길도 좁아졌으며 안변계선과 황주계선을 련결하는 《A선》방어를 실현하려던 적들의 기도도 완전히 파탄되였던것이다.

맥아더는 《흥남교두보의 방어》를 조직하고 《흥남철퇴작전》에 매달렸지만 찌프차는 그런것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원산교외로 빠져 사흘만에 간신히 철원읍에 들어섰다. 거기서 패주하는 미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전선부대들의 포위환에 있다가 며칠후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수리에 수리를 거듭하며 찌프차는 미친듯이 달려 련천에 들어섰지만 서울쪽으로 더는 진출할수 없었다. 역시 조선인민군 제2전선부대들이 서울에로의 퇴각로를 차단해버렸던것이다.

련천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였다. 때문에 적들은 련천방어를 강화하여 패주해오는 제놈들의 부대들을 구출하며 전선서부에서의 38도선중간방어계획을 성사시켜보려고 꾀하였다.

적들은 거듭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련천일대를 장악하려고 발악하면서 기계화부대의 지원을 받는 괴뢰군 2보병사단의 한개 련대와 새로운 예비대들을 련천지역에 더 들이밀었다. 어떻게 하나 38도선

중간방어를 조직하려고 미8군사령관 워커까지 련천에 기여들었다.
적의 중간방어기도를 짓부시기 위하여 1950년 12월 13일 밤 은밀히 련천을 포위한 제2전선부대들은 공격에 앞서 적들의 퇴로를 끊기 위하여 련천으로 잇닿은 모든 길들을 차단하였다. 적들의 가장 중요한 퇴로로 예견되는 련천—서울사이의 길쪽에는 보병들과 함께 지뢰를 가진 공병들로 무어진 매복조가 파견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먼동이 트자 3면으로부터 불의에 련천시가로 맹렬하게 돌격하여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살아남은 적들은 서울쪽으로 급히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중땅크 한대를 앞세우고 그뒤에 꼬리를 물고 도망치던 여러대의 차들이 아군매복조가 묻은 지뢰에 걸려 연거퍼 파괴되였다. 이 전투에서 8군사령관 워커놈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이 황천객이 되였다. 석근이가 탄 찌프차도 파괴되였고 미국인운전사는 행방불명이 되였다. 미10군단 첩보대 함흥지구 《C. I. C.》 파견고문 켈폰대위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채 실로 구사일생으로 서울까지 도주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김석근은 켈폰대위와 조경화를 따라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서울본부청사에 들어섰다. 켈폰대위는 조경화를 달고 본부 인사과에 들어가면서 석근이더러 접수실에서 대기하라고 일렀다.
너렁청한 접수실에는 북에서 월남도주한 일여덟명의 청장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속에서 고원군 《치안대》 대장 장욱세가 알은체를 하였다.
《이거 석근형이 아니요?》
(욱세가?…)
고원빨찌산의 습격을 받아 황천객이 되기를 고대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저도 모르게 복수심이 끓어번졌지만 김석근은 내색하지 않았다.
《응, 자넨 언제 왔나?》
《이틀전에 왔소.》
《그렇게 빨리?》
《빨리가 다 뭐요. 고원빨찌산새끼들이 들이치는통에 에미네까지 버리고 왔는데.》 아마 되게 혼난 모양이였다.
《저런, 아주머니가 무사할가?》
《본가집에 가겠지.》

《함주읍에 말인가?》
욱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럴 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지용수가 들어왔다. 손에 무슨 명단을 들고 나타난 그는 석근이를 보고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아니, 이거 석근이 왔구만. 응?!》
《자넨 벌써 일을 시작했구만.》
《응, 잘 왔네, 잘 왔어! 그런데 색시는 어떻거구?》
《이 란리통에 색시가 다 뭔가.》
《하하하… 자네같은 애처가마저 화랑도가 되였구만, 좋아!》
지용수는 석근의 어깨를 툭 치고 욱세네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손에 들고있는 명단을 보며 월남자청년들을 개개인 호명하였다. 장욱세까지 다 부르고나서 지용수는 지시하였다.
《이자 이름 부른 사람들은 즉시 부산으로 가야 하오. 거기에 〈북한취업소〉가 있는데 그리로 찾아가면 한자리 시켜줄게요. 자네들은 다 한다하는 사람들이여서 대우가 높을게요. 자, 그럼…》
용수는 장욱세에게 명단을 넘겨주면서 책임지고 인솔하라는것이였다.
《욱세, 〈북한취업소〉를 한철민이 책임지고있으니 꼭 그를 찾아가야 해, 알겠어?》
김석근은 속으로 무척 놀랐다. 한철민이라니?… 해방직후에 원산 송도원에서 양혜심이 들려준 바로 그 한철민이 아닌가. 원산에서 《K권투단》을 운영하면서 최일남이같은 깡패들을 길러낸 한철민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해방후에 강원도만 아니라 함흥지구에까지 손을 뻗친 망책 한철민은 원산공립중학교(남자중학교) 졸업생이였다. 그는 해방후에 《K권투단》성원들로 악질반동단체인《양호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책동하였다. 최일남을 부단장으로 둔 《양호단》이 적발 괴멸되자 그는 1947년도에 최일남과 함께 월남하였다. 그후 남반부에서 《회양대북첩보대》 동두천 파견대장으로 만행하다가 괴뢰군에 들어갔다. 그는 괴뢰 《륙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괴뢰군대위로 복무하였다. 1950년 9월 락동강전투에서 한철민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인민군대에 포로되였다.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그는 도주하여 1950년 11월에 《미중앙정보국》부산본부에 찾아갔다. 그때 부산본부에서는 그를 의심하였다. 포로되였을 때 인민군

대의 파업을 받고 도주했을것이라는 억측에 그는 한동안 여러가지 검토를 받았다. 아무리 진실을 력설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의 문제는 중앙본부에 보고되였다. 남조선 괴뢰《정부》 국방장관 신성모며 치안국장 장택산과 인연이 있어서 그들의 비호와 보증을 받았다. 그들은 한철민을 크레마대좌에게 소개하였다. 크레마는 한철민이 해방후 원산《양호단》단장이였다는 사실로 하여 특별히 관심하며 신임하였다.

그러한 한철민이 《북한취업소》소장이라면 취업소는 필경 크레마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대북첩보기관인것 같았다. 북반부를 노리는 적들의 책동은 점점 더 본격적으로 확대되고있었다. 김석근은 적들의 공세를 분쇄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바쳐 싸우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장욱세네 패거리들이 밖으로 나가자 서울본부청사 접수실에 용수와 석근이만 남았다.

《나도 욱세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석근이 묻는 말에 지용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자네는 나하구 〈부산공사(C. I. C.)〉에 가자구. 거기 가서 스코트선생부터 만나야 해. 》

《스코트선생이라니? 윌리암 스코트선교사 말인가?》

《응, 교장선생은 쎈타포드인 자네를 무척 좋아했지. 지금 스코트선생은 크레마대좌와 함께 〈한국〉게릴라조직에 분투하고계시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안병덕이 영도수용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게릴라대원들을 선발하여 〈북한취업소〉에 넘기게 되였는데 욱세네를 바로 그리로 보낸거네. 》

《그럼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할게 아니나. 》

《글쎄, 스코트선생이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한테 더 큰 중책을 맡길수도 있지 않나. 》

《알겠네. 》

김석근은 머리를 주억거렸다.

《그럼 인사과에 들어가서 등록부터 하자구. 》

김석근은 지용수를 따라 인사과에 들렸다. 거기서 해당한 절차를 밟고 이튿날 아침 용수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홀로 남은 오인범

《여기가 어디요?》

배에서 내린 오인범은 곁에 있는 웬 젊은이한테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소.》

그 젊은이는 어디론가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인범은 바다건너 저 멀리를 내다보았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수많은 전등불들이 반짝이였다. 번화한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 불빛들은 군함이며 이름모를 여러가지 배들이 켜놓은 불빛들이였다. 분명 어느 항이였다. 그렇다면 이쪽은 뭍에서 떨어진 섬이 아닌가? 오인범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다기슭을 따라 참대나무들이 숲을 이루었고 섬가운데로 보아지는 곳에는 나지막한 산들이 있었다. 그 산밑에는 게딱지같은 초가집들이 들어앉았다. 배에서 내린 어중이떠중이들은 저마끔 그리로 밀려갔다. 누가 오라는 사람도, 가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들은 숙소를 얻으려고 앞을 다투어 찾아갔다. 하지만 오인범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남의 집에 가서 폐를 끼치기도 싫었거니와 몇채 되지 않는 초가집들에서 그자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가싶었다. 게다가 이곳 기온은 봄철 못지 않게 푸근하였다. 고향땅 함주벌은 강물이 얼어붙는 한겨울을 겪고있었으나 여기에는 눈도 내린것 같지 않았다. 오인범은 숲속에서 하루밤을 보내려고 참대나무밭으로 들어갔다. 바람막이 될만 한 언덕 경사면에 자리잡고 풀대들을 꺾어 적당히 깔아놓았다. 맨손으로 와서 덮을것도 없었다. 다행히도 솜외투를 입어서 춥지는 않을것 같았다. 오인범은 옷을 입은채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하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들었다. 고향사람들은 나를 월남도주자로 보겠는데 어머니는 그들의 눈총을 어떻게 이겨내겠는지? 머리를 들고다니지 못할 어머니였다. 아니, 병석에 누워있어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어머니, 오금을 쓰지 못해도 때식을 끓여달랄 사람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는 실로 이 아들을 얼마나 원망하랴.

떠나올 때 어머니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었다. 종내 나라를 배반하고 남으로 도망친다며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었다. 이제라도 자

수하면 공화국이 용서해준다고 어머니는 얼마나 애절히 붙잡았던가. 그때 오인범은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석근이와 함께 적과 싸우러 나간다는 말이 혀끝에까지 치밀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었다. 그저 어머니의 병만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했었다. 어머니는 그러는 아들에게 자기는 역적의 어머니가 되고싶지 않다며 앞으로 무덤속에 들어가도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절규했었다. … 하지만 어머니, 이 아들은 결코 반역의 길을 걷는것이 아니라고 오인범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치욕스러운 지난날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며 그는 석근이를 생각하였다.

석근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흥남부두에서 다음 배를 기다릴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그런 배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가 륙로로 월남하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할수도 있지 않는가? 이름 모를 자그마한 이 섬에 억류된 자기가 그의 행처를 어떻게 알아내며 석근이 또한 자기를 어떻게 찾아낼가싶었다. 적들속에서 혼자 싸우게 될수도 있다는 예감에 오인범은 불안해지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자칫하면 만회할수 없는 운명을 겪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오인범은 눈앞이 캄캄해져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저쪽 주택지구에서 누구인가 꽥꽥 소리질렀다.

《썩 물러가, 물러가라니까! 여긴 〈북한〉 거렁뱅이들이 들 집이 없어!》

《뭐, 거렁뱅이라구? 여보시오, 나는 단천군 〈치안대〉 대장이요!》

《〈치안대〉 대장이라구? 핫 하하하… 당신두 우리가 실어온 포로요, 포로!》

《포로라구?》

《자, 여길 봐. 여길!》

그놈은 널대문쪽에 전지불을 비쳤다. 거기에 무슨 간판이 붙어있는지 그놈은 더욱 거드름을 피우며 으름장을 놓았다.

《보다싶이 여긴 부산영도수용소란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용소생활을 해야 해.》

월남자들속에서 겁에 질린 탄식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아 아, 그만들 떠들어. 섬에 갇히운 처지니 도망칠 궁리는 아예

말고 어디 풀밭에 가서 자기나 해.》
그놈이 집안에 들어가는지 삐거덕 대문 여닫기는 소리가 울렸다.
월남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오인범의 곁에도 웬 사람들이 다가와서 잠자리를 잡았다.
《에구— 괜히 따라와서 이 고생하면서…》
애기를 업은 젊은 아주머니가 괴나리보짐을 풀며 하는 투정질이였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담배만 피웠다.
《여보, 우리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을가요?》
《진달래가 필 때면 다시 간다질 않아.》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호— 피난민수용소에서는 남자와 녀자를 다 갈라놓는다는데 당신과 헤여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아무렴 애기를 둔 부부도 갈라놓을가, 쯔쯔쯔…》
《어쨌든 난 막 무서워요.》
그럴 때 수용소지휘부앞에서 누군인가 권총을 쏘아대며 소리질렀다.
《비상소집이다, 비상소집!》
어느 집에선가 괴뢰군 헌병놈들이 뛰쳐나왔다. 그자들에게 《북한》 월남자들을 집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열서너명 되는 헌병들은 저저마다 손에 전지불을 켜들고 참대밭이며 숲속을 뒤지며 월남자들을 몰아대였다. 어떻게나 살벌하게 다그어댔던지 어떤 사람들은 괴나리보짐마저 떨궈놓고 끌려갔다.
월남자들은 전부 포구에 모였다.
오인범이네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있었다. 놈들은 그들에게 하선작업을 시켰다. 커다란 화물선에는 식량뿐아니라 무기상자들이 가득하였다.
하선작업은 날이 밝아서야 끝났다. 월남자들은 다시 부두에 집결되였다. 키가 작달막한 헌병놈이 휘발유도람통우에 올라서서 이제부터 수용소소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라고 오금을 박았다. 그의 곁에 있던 수용소소장이 다른 도람통우에 올라섰다.
(아니, 저놈이?…)
뜻밖에도 안병덕이였다. 오인범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쥐였다.
시꺼먼 가죽잠바를 입고 색안경을 낀 안병덕은 옆구리에 찬 권총집을 잡고 력설하였다. 여기 부산영도는 군사훈련장이기때문에 월남

자들을 부산에 이송하게 되였다, 한꺼번에 다 나를수 없으므로 우선 아녀자들과 로인들부터 짐배에 오르라는것이였다. 월남자들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명령은 엄격히 집행되였다. 두명의 헌병이 선창입구에 지켜서서 로인들과 아녀자들만 통과시켰다. 다른 헌병들은 월남자들속에 돌아치며 그들을 골라내였다. 지난밤 참대밭에서 진달래가 필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던 젊은이에게도 안해를 먼저 보내라고 강박하였다. 애기를 업은 그의 안해는 남편과 함께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였지만 헌병놈은 더욱 포악하게 몰아대였다. 그놈은 남편의 손목을 잡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안해의 가슴팍을 총탁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의 안해는 땅바닥에 정신잃고 쓰러졌다. 치가 떨리는 만행이였다. 격노한 그의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였다.

《이놈아, 우리가 죄인이냐, 응? 이놈아!》

그가 주먹을 흔들어대며 목놓아 절규하는데 뒤에서 총성이 터졌다. 어느새 안병덕이 달려와서 그의 잔등에 권총을 쏘았다. 남편은 비칭거리며 돌아보다가 쓰러졌다.

《또 어느놈이 반항할테냐? 썩 나서라!》

안병덕이 고함치며 권총을 쳐들었다. 그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누구든 가차없이 쏴죽일 기상이였다. 월남자들은 예기가 질려 묵묵히 서있었다. 한동안 사위는 쥐죽은듯 하였다.

이윽고 로인들과 아녀자들은 다시 배에 올랐다.

어느덧 포구에는 장정들만 남게 되였다.

《붕!―》 고동소리 울리며 배는 서서히 움직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그 배가 다시 돌아왔다. 가족들과 헤여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포구에 나갔다. 어디서 실려왔는지 로인과 아녀자들은 한명도 없고 전부 장정들만 배에서 내렸다. 군사훈련장이 되여서 월남자들을 이송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을 또 실어오는지? 섬에 남은 월남자 장정들은 누구라없이 의아해하며 불안한 심정을 다잡지 못했다.

오후에 그 배는 어디론가 떠나가버렸다. 빈배로 가면서도 가족들과 헤여진 사람들은 실어가지조차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찍소리 못했다. 너무나 살벌한 분위기였다. 오인범은 무시무시한 적들의 흉계를

알아내려고 했으나 바이 알길이 없었다. 김석근이 있으면 알아낼것 같은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졌다.

예측할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떠도는 영도에 어둠이 도사리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바다에 쾌속정이 나타났다. 고물에서 물보라를 날리며 질풍같이 달려왔다. 곧바로 포구에 당도한 쾌속정에서 가죽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모두 일곱명인데 뜻밖에도 그들속에 권총을 찬 석근이도 있지 않는가! 오인범은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걸어오는쪽으로 마주 달려나갔다. 석근이를 모른체 할 필요가 없었다.

《대장님!》

그의 환성에 석근이도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뜨겁게 상봉하였다.

2

김석근의 불안

그날 저녁 김석근은 안병덕의 호출을 받았다. 안병덕은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

《석근이, 자네도 부산에서 왔겠지?》

《예.》

《크레마대좌를 만났나?》

김석근은 그렇다고 대답하고나서 크레마의 작전적구상에 대해서 말하였다. 크레마는 앞으로 영도에서 《한국》게릴라부대를 조직하려고 한다는것이며 그 부대는 북반부 월남자들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김석근은 말하였다.

《나도 알고있네.》이미 크레마가 파견한 한철민으로부터 게릴라부대조직과 관련한 몇가지 과업을 받은 안병덕이였다. 그 과업에 따라 안병덕은 수용소에서 로인들과 아녀자들을 부산에 이송한다는 미명하에 92호수용소에 실어보냈다. 지금 영도에 들여보내는 월남자들도 한철민이 다른 수용소에 찾아다니며 선발한 게릴라대원감들이였다.

한철민은 크레마의 지령에 따라 게릴라조직에 발벗고 나섰다. 《그런데 부산에서 자네와 함께 온 최일남은 어떤 인물인가?》

김석근의 머리속에 새겨진 최일남의 래력은 간단명료하였다.

가명:최제부
년령:27세
지식정도:원산공립중학교 졸업
해방후 원산 《양호단》 부단장
1947년도 한철민단장과 함께 월남
남반부 《서북청년단》중앙위원
회양동두천 파견대원으로 활약
적강점시기 《유엔군》사령부 정보국 《한국》인공작반 원산지구 책임자
적패주시 비행기로 월남
부산에서 한철민과 함께 크레마의 과업을 받았음…

이러한 최일남에 대해서 김석근은 그저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그도 크레마대좌의 신임을 받는 〈화랑도〉입니다.》

《음, 그래서 반말질인가?》 안병덕은 아까 크레마의 파견장을 내보이며 《우선 숙소부터 안내해.》하던 최일남이 떠올랐다. 《그래 최일남은 어떤 과업을 받았나?》

《크레마대좌는 그에게 수용소 인사과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소장님의 사업을 협력하게 하였습니다.》

《괘씸한 자식, 내밑에 있게 됐는데두 이래라저래란가?》

안병덕은 이를 갈았다.

《그런데 석근이, 자네 함주군에 몇명 박아놓았나?》

흥남《치안대》사무실에서 준 과업을 알아보는것이였다. 석근은 속으로 당황해하였다. 첩자를 박아놓고 퇴각할데 대한 안병덕의 그 과업을 김석근은 애당초 집행할 생각이 없었기때문에 한놈도 잠복시키지 않았던것이다. 석근은 그가 왜 벌써부터 그걸 알아보는것일가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11명을 잠복시켰습니다.》

《어디에?》

《천불산 범바위골에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음.》 안병덕은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내가 장욱세를 침투시키겠는데 그에게 자네 첩자들의 명단과 접선암호를 알려주게.》
《욱세가 어데 있습니까?》
《응, 그도 여기 와있어. 내가 만나게 해주지.》
《그럼 욱세한테 나의 첩자들을 넘겨주란 말씀입니까?》
김석근은 그렇게 할수 없다는듯 두눈을 치켜떴다.
《아니, 그런게 아니야. 백운…》 하다가 안병덕은 잠간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내처 말하였다. 《백운산에 나의 별동대가 있어. 한교준이 두령인데 그에게 대원들을 더 보충해줘야겠기에 그러는거네. 지금은 력량이 약해. 그것으론 별동대임무를 수행할수 없기때문이야.》
그제서야 납득이 된다는듯이 김석근은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안병덕은 한결 진지하게 대하였다.
《지용수 첩자들도 다 교준이한테 집결시켜 일판을 좀 크게 벌릴 계획이야. 크레마대좌도 모르게 무훈을 세워 백악관의 안중에 들면 이 안병덕이 어떻게 될가?》
《그런데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책임고문인 크레마대좌까지 모르게 하다가?… 그에게는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병덕은 휙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한철민이같은 원산패를 더 신임하는 크레마대좌가 알면 백운산별동대를 빼앗겨. 한철민의 밑에 들게 한단 말이야.》
《그럴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윌리암 스코트선생, 그래 나에게는 스코트선생이 있지 않나. 그 선이면 얼마든지 출세할수 있어.》
《그때엔 저를…》 김석근의 이 말에 안병덕이 그의 말을 재빨리 잘랐다.
《아 아, 자네야 언제나 나의 쎈타포드가 아니나. 나를 받들라구. 끝까지 충실하라구.》
《알았습니다.》
이럴 때 출입문이 열리며 최일남이 들어섰다. 그는 안병덕에게 크

레마의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석근이더러 나가라고 하였다.

김석근은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야산밑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앞으로 욱세놈이 함주군에 침투하면 안병덕에게 한 거짓말이 들장날수 있다는 느낌에 그는 어떤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어떤 수로 안병덕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그의 별동대까지 괴멸시킬것인가? 물론 장욱세놈도 복수해야겠는데?… 김석근은 줄창 그 생각만 굴리면서 걸음을 옮겼다. 석근이자신이 게릴라대원으로 북반부에 침투하면 얼마든지 처리할수 있다는 타산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장욱세가 먼저 갈수 있지 않는가.

아닐세라 며칠후에 장욱세가 떠났고 그때부터 안병덕은 욱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만일 그가 돌아오면?… 김석근은 불안을 금할수 없었다.

3

김석근은 ××호수용소 앞마당에서 오인범을 기다리고있었다. 지금 오인범은 수용소소장 안병덕의 방에 들고앉은 최일남이를 만나고있었다. 최일남은 아침부터 월남자들을 한명씩 불러내여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료해담화를 진행하였다. 주로 출신고장과 월남하기 전에 어디서 뭘 했는가 하는것을 알아내며 앞으로 조직될 게릴라대원들을 선발하는 담화였다. 영도 로천에 수용된 월남자들을 대상하여 진행하는 그의 료해담화가 엿새째되는 날이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오인범이 소장의 방에서 나왔다.

김석근은 그를 데리고 해변가쪽으로 나갔다.

포구마을 해변가에 있는 자그마한 료정앞에 이르렀을 때 오인범이 물었다.

《왜 여기로 오는겁니까?》

그에는 대답하지 않고 김석근은 료정에 들어갔다. 그는 접대원에게 인범이 좋아하는 명태자반이며 꿩고기볶음에 술까지 한병 청탁하여 보

자기에 싸들었다.
료정에서 나온 김석근은 음식보자기를 넘겨받으려는 인범이를 마다하고 해변가를 따라 한참 걸어올라갔다. 참대숲이 무성한 둔덕진 곳에 자리잡고 음식보자기를 풀었다. 김석근은 어리둥절해하는 오인범과 마주앉았다.
그는 료정에서 내온 자그마한 도자기잔들에 술을 붓고 먼저 오인범이한테 권했다.
《아니, 이거 오늘 웬일입니까?》
오인범이 사양하며 석근이더러 먼저 들라고 하였다.
《인범이, 오늘은 자네가 귀빠진 날이네. 어서 받으라구.》
《예?― 오늘이 내 생일이란 말입니까?》 오인범은 그제서야 머리를 끄덕이고 잔을 받았다.
《참, 대장님두! 이 란리통에 내 생일까지 알아주다니?!…》
《이런데가 아니라면 한상 잘 차리는건데… 자, 생일을 축하해서 들자구.》
《승리를 위하여!》
그들은 잔을 쪼았다.
한잔 두잔… 어느덧 석근이도 거나해졌다.
《인범이, 이런 때엔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지?》
《대장님도 가족이 보고싶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김석근은 숨을 길게 내쉬며 슬며시 땅바닥에 누웠다. 깍지낀 두손을 베개삼고 멀리 북쪽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봄기운이 실린듯 한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 머지않아 밭갈이철이 다가올것 같았다. 그는 해방된 고향땅에서 토지를 분여받고 안해와 함께 농사짓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하였다. 지난날의 가난뱅이가 땅의 주인이 되고 지주놈 부럽지 않게 유족한 삶을 누리던 그때가 더듬어질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이 더욱 마음속깊이 느껴지며 가슴이 후더워졌다.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휘파람소리에 《밭갈이노래》를 담아 조용히 불렀다.
《참, 인범이.》 김석근은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우리가 언제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을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장군님을 뵈옵겠습니까. 엄두도 못낼 일이

지요.》

《하긴 그이를 뵙는다는건 보통일이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잘 싸우면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실수도 있지.》

《우리가 말입니까?》

《앞으로 그이를 모신 통일광장 열병식때에 우리가 모범전투원으로 뽑혀 올라갈수도 있지 않나.》

《모범전투원으로?…》 오인범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말을 이었다. 《석근동지, 저도 장군님을 모실수 있을만큼 헌신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장군님의 〈불새〉가 되자구. 죽어서도 영생하는 그이의 전사답게 힘껏 싸우자구.》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불새》처럼 영생한다는 신념으로 몸바쳐 싸우자고 그들은 굳게 마음먹었다.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1951년 2월 하순이였다. 어느날 아침 영도상공에 직승기 한대가 날아들더니 포구마을에 있는 수용소 앞마당에 착륙하였다. 뜻밖에도 크레마대좌가 멜콘중좌만이 아니라 한철민을 비롯한 서너명의 《북한취업소》 성원들을 거느리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크레마는 안병덕이며 최일남의 영접을 받은 후 괴뢰군 헌병대놈들의 호위속에 수용소사무실로 안내받았다.

그로부터 반시간쯤 지나 수용소소장 안병덕이 비상소집을 일으켰다. 김석근은 오인범이와 함께 최일남이 새로 선발하여 수용소에 입소시킨 수백명의 사나이들속에 끼여 마당으로 뛰여나갔다. 집합된 그들의 앞에 크레마대좌와 멜콘중좌, 한철민이 나타나자 안병덕이 구령을 내렸다.

《기척! 크레마대좌님을 향하여 우향우!》

안병덕이 크레마에게 접근보고를 하였다.

《대좌님, ××호수용소 입소원들은 대좌님의 명령대로 전원이 집합했음을 신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크레마는 커다란 우멍눈으로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사나이들을 둘러보고나서 위엄있게 한쪽손을 쳐들었다.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최고고문으로 오래동안 활약한 그는 통역없이 괴뢰군장성들의 말투로 연설하였다.

《제군들! 나는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여 맥아더사령관의 이름으로 북에서 자유세계를 위하여 빨갱이들과 싸우다가 남하한 당신들, 북한용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바이요.

제군들은 이제부터 한국게릴라부대 전투성원들로 우리 미국의 신임과 대우를 받게 되오. 곧 부대가 편성되고 훈련에 진입하게 되는데 제군들은 게릴라훈련에서 온갖 용기와 슬기를 발휘하리라 믿는바이요.

대한민국의 국경선이 압록강에 이르게 되는 날 제군들의 앞가슴에는 무공훈장이 빛날것이며 각자의 공로에 따라 상금과 과분한 직무가 차례질것은 의심할바가 없는것이요. 우리 〈유엔군〉의 북상은 기정사실로 되고있는바 제군들은 여기서 훈련을 마치고 곧 북에 침투하여 제2전선부대에서 용맹장, 용맹병으로 립전무퇴하길 바라오.

이제부터 제2국민병부대인 한국게릴라부대 편성명령서를 멜콘중좌가 하달할것이요.》

《미중앙정보국》 한국인공작반 괴뢰륙군담당 고문인 멜콘중좌가 하달한 맥아더의 명령서에 따라 《한국》게릴라부대가 편성되였다.

해방직후 원산《양호단》 단장이였으며 괴뢰군 대위였던 한철민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게릴라부대는 산하에 《북한》과 《남한》게릴라부대를 두게 되였는데 이번에는 《북한》게릴라부대만 조직하였다.

《북한》게릴라부대 사령관으로는 역시 원산《양호단》 부단장이였던 최일남이 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함흥지구 《C. I. C.》 대장이였던 안병덕은 부사령관으로 되고 그의 졸개인 지용수는 참모장으로 임명받았다. 《북한》게릴라부대는 4개의 지대로 편성되였는데 지대장들은 전부 일본군장교출신들이 아니면 괴뢰군 복무자들이였다. 그들을 될수록 자기 출신군의 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석근은 월리암 스코트의 소개와 보증으로 크레마대좌의 신임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출신이 아닌것으로 하여 제1지대 3중대장으로 되였다.

1 000여명으로 조직된 《한국》게릴라부대의 총고문으로는 《미중앙정보국》한국인공작반 책임고문이며 남조선주둔 미8군소속 괴뢰군 총담당고문인 크레마대좌인데 그의 수하에 무려 30여명의 미고문들을 두었다.

무슨 큰일이나 칠것처럼 이렇게 《한국》게릴라부대를 요란스레 편성한 크레마는 《북한》지대대원들에게 즉시 미국제무기와 군복, 장구류들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이미 수용소창고에 적치한 군수품들이 지대별로 공급되자 《북한》지대 모든 대원들이 괴뢰군군복을 입고 미국제무기와 장구류들을 휴대하였다.

다시 집합구령이 내렸다. 수용소마당에 편성된 지대별로 정렬시키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한철민의 선창에 모든 대원들이 따라외웠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은 멸공에 살고 멸공에 죽어야 한다.》, 《…책임, 림전무퇴해야 한다.》는 《선서》를 끝내고 한철민은 엄하게 훈계하였다.

《이제부터 대한게릴라부대 국민병은 특수훈련에 진입한다. 일체 외출과 면회를 엄금한다. 국민병은 입으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 하고 섶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용맹장, 용맹병이 되여야 한다. 비밀을 루설하거나 사소한 명령불복도 전시법으로 즉결 처형한다. 게릴라부대의 특수한 행동준칙과 복종질서, 그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은 상하불문하고 똑같이 적용한다. …》

괴뢰군 대위출신인 한철민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국방군》군인의 책무 제×조를 다시한번 력설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이였다. 《북한》게릴라부대 부사령관 안병덕이 김석근을 불러내였다.

그들은 참대밭이 있는 해변가를 거닐었다. 누구도 없는 백사장이였다.

《석근이, 자네 첩자들이 천불산 범바위골에 있다 했지?》

《예, 거기 함박갈이집 주인령감과 내통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왜 소식이 없을가? 욱세가 떠난지도 벌써 20일이 지났는

데?》

안병덕은 귀가 들린 치째진 쥐눈으로 석근이의 눈동자를 찌르고있었다. 김석근은 한결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지용수참모장의 잠복대원들은 합류되였답니까?》

《음, 교준이 전파를 보내왔어.》

《저의 대원들도 이제 나타날것입니다.》

안병덕은 무슨 의심이 드는지 고개를 기웃하였다.

《어쨌든 좀더 기다려보겠네. 교준이더러 직접 확인해보라구 명령했으니…》

안병덕은 백사장에서 왔다갔다하다가 석근의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석근이, 자넨 가슴에 사자입묵을 했지?》

그가 문득 상기시켰다. 함흥지구 《C. I. C.》에서 안병덕의 충실한 맹수가 되겠다고 맹약한 징표를 상기시키는 바람에 김석근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그 사자는 변함없이 부사령관님과 운명을 같이할것입니다.》

《음, 석근이는 여전해!》

안병덕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누가 엿듣지 않는가를 알아보는 눈길이였다.

《자넨 앞으로 특별임무를 수행해야겠네.》

안병덕은 한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선발대가 신흥군으로 파견될거네.》 《북한》 사령관 최일남이 직접 책임지고 갈것이라며 그 소부대에 석근이를 망라시키겠다는것이였다. 그는 석근이더러 신흥군에 침투하면 최일남을 암살하라고 하였다. 《내가 그자를 왜 없애치우려고 하는지 알겠지?》

안병덕이 《북한》사령관의 자리를 탐낸다는것을 김석근은 눈치차렸다.

《알고있습니다.》

《내가 사령관이 되면 자네를 부사령관으로 두겠네.》

《그 믿음을 임무수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헤여진 김석근은 보다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신변이 위험해서가 아니였다. 최일남이 대신에 안병덕이 《북한》사

령관으로 침투하면 적게릴라부대소탕전은 보다 어려워진다. 안병덕은 원산출신인 최일남이보다 북부내륙지대를 더 잘 알고있었다. 해방전 일제강점시기 그는 함흥목재상의 아들인 지용수와 함께 신흥군이며 풍산군일대를 쏘다니며 사냥놀이를 하군 하였다. 그보다는 책략에서나 악랄성에서도 그는 최일남이 이상이였다. 그런데 둔하고 무능한 최일남이 《북한》사령관으로 된것은 총사령관 한철민의 신임을 받았기때문이였다. 해방후 원산 《양호단》시기부터 최일남은 그의 충실한 졸개로 활약했었다. 안병덕은 그들의 밀착관계를 알고 장차 한철민이까지 없애치울 계획이였다. 그는 자기가 《북한》게릴라부대 사령관으로 될 야심을 품었다. 허황한 야심이 아니였다. 악랄하고 교활한 안병덕은 한철민이 못지 않게 크레마의 신임을 받고있었다. 다만 한철민이보다 못한 측면은 그가 괴뢰륙군사관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나 이제 일본 쯔까사끼나 사이반도, 하리오 등지에서 진행할 《한국》게릴라부대 교육훈련을 받으면 크레마의 오른팔이 될수 있었다. 아니, 안병덕자신이 노리는것처럼 스코트선교사를 다리로 놓아 백악관의 안중에 드는 충견이 될수도 있지 않는가. 천추에 용서못할 역적이였다. 김석근은 그를 더는 살려둘수 없다고 마음먹었다. 공화국에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처단하고싶었다. 더구나 안병덕은 김국성동지를 살해한 놈이 아닌가.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북쪽하늘을 쳐다보았다. 뭇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에서 북두칠성이 반짝이고있었다.

김석근은 어둠속에서 빛을 뿌리는 저 별들처럼 마를줄 모르는 생기와 인생의 활력을 부어준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이 철지난 메뚜기같은 놈들이 공화국북반부땅에 침투하여 미제의 끈질긴 침략전쟁에 합세하려 하다니? 조국을 지키는 인민군대의 판가리싸움은 우리의 확고한 승리를 기약하고있는데 허장성세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미쳐날뛰다니? 네놈들이 사령관이요 뭐요 하면서 발광한다만 북에 침투될 너희들이야말로 독안에 든 쥐신세 면치 못할것이다. 각성높은 우리 인민들과 내무원들, 인민군군인들은 네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할것이다.

자기도 그들과 함께 한몸바쳐 싸우리라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고향땅에 돌아가 적들을 격멸소탕하고 자나깨나 잊

지 못하는 그리운 처자들과 마을사람들을 만난다면!… 아, 상봉의 그날엔 역적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영예로운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김석근이를 보여주리라! 적구투쟁을 서슴지 않은 자랑스러운 자기를 보여줄 그날이 올것임을 김석근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날을 앞당기고싶었다. 조국앞에 떳떳이 나설 그날을 갈망할수록 손가까이 존재하는 악당 안병덕이부터 인민의 준엄한 철추를 안기고싶었다. 더구나 항상 가슴속에 살아있는 김국성동지의 원쑤를 갚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이제라도 안병덕의 모략을 밀고하면 그놈은 적들의 손에서 총살될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수 없었다. 안병덕이 거부하면 오히려 석근이자신이 모해자로 희생될수 있었다. 둘이서 한 밀담을 누가 보증할 사람이 없어서 적들은 석근이보다 부사령관인 그의 말을 더 믿을것이 아닌가. 김석근은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복 수

며칠후 어느날이였다. 부대 인사반 반장이 석근이를 호출하였다. 《북한》게릴라부대에는 사령부산하로 인사반과 정보반, 파견반, 교육훈련반 및 무전반, 보급반들이 있는데 인사반은 가장 악질적인 만행자들로 꾸려졌다. 인사반장 안병호는 안병덕의 사촌동생이였다. 그는 석근이를 일본 쯔까사끼 교육훈련조에 보내겠는데 다른 의견이 없는가고 물었다. 김석근은 속으로 의아해하였다. 석근이 속하게 될 신흥군지대 선발대성원들은 규슈 하리오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혼슈 쯔까사끼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가 안병덕의 특수임무를 받았다는것을 인사반장이 모르고있었다. 그렇다고 하리오로 보내달라고 제기할수도 없었다. 안병덕이 자기의 4촌동생에게까지 비밀에 붙이고있다는 추측에 김석근은 의견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리오조에 들어가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안병덕의 역할에 달린것이였다.

《의견이 없다? 정말 없소?》 인사반장이 석근이의 눈을 지켜보며 재차 따졌다. 《〈북한〉 선발대는 하리오에 가는데 그래도 쯔까사끼에 가겠소?》

《〈북한〉 선발대라니? 어느 지대에 파견되는데?…》 김석근은

들으니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음, 역시 자네는 우리 사촌형님의 사자로구만! 좋소! 하리오에 가오. 래일 아침 배가 떠나오.》

그제서야 김석근은 인사반장이 자기를 떠보았다는것을 알았다. 교활한자였다. 아마 그들의 인척관계를 믿고 하리오조에 갔으면 하는 눈치를 조금만 보였더라면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는자로 안병덕의 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황천객이 될번 하였다. 김석근은 걸음마다 죽음이 따른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그는 인사반장의 방에서 나왔다. 황혼이 깃드는 저녁무렵이였다. 북쪽해변가에 자리잡은 중대병실로 걸어가면서 그는 안병덕이를 처단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안병덕은 사촌동생인 인사반장에게 특수임무를 로출시킨것이 틀림없었다. 아니, 인사반장과 같이 모략할수도 있지 않는가? 그는 머리속에서 무르익혀지는 작전을 여러번 검토하였다.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발길을 돌려 곧장 최일남을 찾아가던 김석근은 뒤미처 떠오른 한가지 생각에 걸음발을 늦추었다.

그것은 조국이 해방된 그 이듬해 봄에 있은 일이였다.

혜심이 찾아와서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된 김석근은 결혼식을 더는 미룰수 없게 되였다. 모든것이 부족했지만 큰아버지를 비롯한 동네사람들이 도와주어서 그럭저럭 결혼식을 치를수 있었다. 집에서뿐만아니라 철원읍에 있는 혜심이네 집에서도 큰상을 받았다.

어느날 처가집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렬차에 오른 김석근은 혜심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원산역에서 내렸다. 원산시 해안동에 있는 혜심이 고모네 집에 들린 그들은 거기서 또다시 행복의 축배잔을 대접받았다.

정말 즐거운 나날들이 흘러갔다.

이튿날 정오무렵의 원산하늘은 더욱 맑았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변가 유보도를 산책하던 석근이부부는 지금도 첫상봉의 자취가 어린듯 한 송도사진관앞에서 멈춰섰다.

《석근씨.》 아직도 《여보》란 말이 입에 붙지 않아서 혜심이 이렇게 불렀다. 《여기서 우리 만났던 일이 생각납니까?》

《그때 나는 동무앞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했소.》

《어째서요?》

《동무의 오빠 아니, 이젠 처남이지. 그 처남이 눈치를 채게 되니 동무앞에 서있는 내가 꼭 선녀를 넘보는 목동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소. 어떻게나 부끄럽던지…》

《호호호… 저 역시 그랬어요. 웬 명인의 앞에 서있을 때처럼 주눅이 들더군요.》

《허허허… 명인이라, 내가 말이요?》

혜심은 그렇다는듯 상긋이 미소하였다.

《음― 내가 선녀를 넘겨보듯이 동문 명인을 바란다는 소린데 그렇지만 나는 명인이 못되오.》

그래도 천상배필로 될수 있겠는가고 묻는듯 한 석근의 눈길에 혜심은 즐겁게 대꾸하였다.

《제가 선녀가 아닌 이상 어떻게 명인의 배필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초원의 자연미처럼 순결한 목동의 배필은 되고싶습니다.》

《그렇소?!…》

혜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나 대자연속의 목동이 되여줘요.》 하였다.

그럴 때였다.

《아니, 이게 혜심씨가 아니요?》

등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석근은 고개를 돌렸다. 보통키에 매우 다부지게 생긴 송도려관집《도련님》이 다가왔다. 《도련님》이란 청상과부로서 송도려관을 경영하는 그의 어머니가 부르는 애칭이였다.

《어마나, 일남씨가?… 그새 안녕하셨어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요?》

석근이를 턱질하며 일남이 혜심에게 묻는 말투였다. 혜심은 약간 무안을 타며 석근에게 말하였다.

《참, 인사하세요. 원산공립중학교 상급생 최일남씨예요.》

김석근은 일남의 턱질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저를 김석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함주군에서 삽니다.》

《함주군? 상당히 먼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김석근이 잠시 바재이는데 혜심이 말하였다.

《저, 저의 오빠와 가까운 친구예요.》

《오빠와?…》 최일남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오빠는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혜심씨,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해수욕장에 가기요. 거기서 뽀트놀이를 하면서…》

혜심은 저으기 당황해하였다.

《실례이지만 전… 그럼 안녕히…》

혜심은 머리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고는 총총히 물러갔다.

《아 아니, 혜심씨!…》

최일남이 이러며 어안이 벙벙해하였다. 그러는 그를 두고 김석근이 혜심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맞추며 해변가를 따라 송도원쪽으로 올라갔다. 문득 김석근이 뒤를 돌아보고나서 말하였다.

《혜심이, 최일남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있구만. 우리가 지내 무안하게 군게 아니요?》

《저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쌉니다. 색시를 얻고 살림한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뽀트놀이를 청하다니?》

《지난날 매우 가깝게 지냈던게지?》

《그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또래 녀중생들을 보면 별로 친절하게 구는데 원체 녀자라면 오금을 못쓰는 기질이랍니다.

저 사람의 4촌처남이 한철민이라구 원산에서 〈K권투단〉을 경영하는데 최일남이도 거기에서 권투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래 그런지 쩍하면 싸움질인데 무쇠주먹이라면 원산일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무슨 건덕지가 없어서 주먹을 못쓰는 저런 사람은 될수록 멀리하는게 좋겠기에…》

《음…》

석근은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깊게 걸어갔다.

얼마후 그들은 해안국수집에서 점심을 나누었다.

역시 오후의 해풍은 선선하였다.

그들은 송도백사장의 풍경에 심취되여 해변가에서 좀처럼 떠날줄 몰랐다. 밀려들었다가는 밀려가군 하는 잔잔한 파도소리에 귀를 강구기도 하면서 그들이 백사장에 조용조용 한쌍의 자취를 찍는데 문득 들려오는 소리.

《아가씨, 잠간만…》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낯모를 세명의 청년들이 따르고있었는데 그들중 제일 작고 똥똥한 청년이 혜심이 앞으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아가씨는 정말 절세의 미인입니다. 뒤모습을 보아도 천하절색이요, 앞모습 또한 금강산의 선녀 못지 않습니다.》

《아이참, 이 동무가?…》

혜심은 활딱 얼굴을 붉히며 황황히 물러가려 하였다. 땅딸보청년은 자기앞에서 돌아서려는 혜심의 손목을 덥석 끌어잡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흘깃 석근이를 훔쳐보고는 혜심에게 간청하였다.

《아가씨, 나는 여태껏 아가씨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녀성을 만나본적 없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아가씨같은 미인과 산보해보았으면 하는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인데 아가씨, 제발 저의 이 절절한 소망을 좀 풀어주십시오. 물론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후하게, 아주 후하게 드리겠으니 자, 이렇게 하고 걸읍시다, 이렇게요.》

곁에 석근이 있건없건 또 혜심이 아연실색해하든말든 그는 무작정 혜심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양혜심이 비명을 지르는 그때에 석근이 입을 열었다.

《동문 도대체 누구요? 누구길래 이렇게 함부로 무례한짓을 하는거요?》

《누구인가구?》 땅딸보청년은 석근이 이렇게 자기의 도발에 걸려들기를 바란것처럼 대뜸 종주먹을 대였다. 《나는 〈K권투단〉 강와새다. 이 주먹이 무섭거들랑 썩 물러가.》

그는 석근의 앞가슴에 주먹을 안기며 힘껏 내질렀다. 석근이 뒤로 비칭거리면서도 땅딸보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낚아채였다. 땅딸보는 어느새 백사장에 코를 박고 너부러졌다.

《야, 이자식이 사람을 친다?》

땅딸보와 같이 온 다른 두명의 청년들이 바로 이때라는듯 황급히 뛰여와 석근이를 에워쌌다. 그들이 막무가내로 주먹을 쓰는 바람에 석근이도 어쩔수없이 맞설수밖에 없었다. 뒤미처 땅딸보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1대 3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들 세명은 한철민의 《K권투단》성원들로서 최일남의 부추김을 받은자들이였다. 최일남은 아까 뽀트놀이하자는 자기의 청을 물리

친 혜심이가 괘씸하였다. 그는 분풀이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을뿐만아니라 혜심이와 산보하는 석근이에 대한 질투감을 누를길 없었다. 혜심의 면전에서 석근이를 두들겨패주고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그는 자기의 동료들을 내몰아 싸움을 걸게 했던것이다.

그들의 계략에 걸려든 김석근은 최일남의 예상과는 달리 펄펄 나는 싸움군이였다.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세놈의 적수들을 주로 발로 다스리는 석근의 반타격은 먼발치에서 남몰래 지켜보는 최일남의 눈에는 한다하는 태권도사범을 방불케 하였다. 그들의 싸움에 자기도 뛰여들리라 마음먹었던 최일남은 저도 모르게 예기가 질려 초기의 결심을 포기하고 다른 수를 썼다. 그는 싸움판에 달려가서 점잔을 빼며 모르쇠를 놓았다.

《김군, 이게 웬일이요, 응?》

김석근은 백사장에 뻗은 세놈의 적수들을 노려보며 쓰겁게 웃었다.

《원산에 저런 깡패들이 있는줄은 정말 몰랐구만.》

그는 손을 툭툭 털며 물러가려고 하였다.

《아니 김군, 이건 우리 원산의 수치이자 나의 치욕이요. 동기가 어떻든간에 어쨌든 내가 대신 사죄하는바이니 우리모두 해안각에 가서 화해하기요.》

이번 기회에 석근이를 자기 손탁에 넣자는것이였다. 자기네 《K권투단》에도 가입시켜 함주군에까지 손을 뻗칠 잡도리였다.

《뭐, 화해하자구? 혹시 군도 저따위 무뢰한들과 한속통으로 밀려다니는게 아니요?》

최일남이 재차 나타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밀려든 느낌이였다.

《뭐라구?》

《어쨌든 나는 저런 불망나니들과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소.》

김석근은 온다간다 말없이 해변가에 서있는 혜심이쪽으로 총총히 물러갔다. 또 한차례의 거절을 받은 최일남은 멀어져가는 그의 등뒤에서 뿌드득 이를 갈았지만 더는 어쩌지 못했던것이였다. …

그때를 더듬은 김석근은 이제 자기가 찾아가면 최일남이 어떻게 대할가싶었다. 지난 시기 그에게 몹시 불쾌한 존재로 나타났던 석근이고보면 과연 그가 자기 말을 믿어주겠는가 하는 의혹이 밀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최일남은 생사존망의 위기앞에서 그처럼 중대한 정보를 귀등으로 스쳐보낼만큼 담이 크거나 겁이 없는 위인은 아니지 않는가. 더구나 전번에 서울에서 만났을 때처럼 이곳 영도에서도 겉으론 골살을 찌프리며 아닌보살을 하는척 하면서 속으론 은근히 자기한테 숙어들기를 바라며 장차 제놈의 손탁에 놀아댈 충견이 될게라고 믿는 최일남이 아닌가. 김석근은 그러한 그를 결코 잘못 보지 않고있다는 생각에 더는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최일남이를 찾아갔다.

자기 방에서 허벅다리를 드러낸 무전반처녀와 나뽈레옹술을 마시던 최일남은 골살을 찌프리고 석근이를 쏘아보았다. 재수없게 왜 이런 때 찾아왔는가고 질책하는 눈길이였다. 하지만 석근이는 시간을 지체할수 없었다. 래일 아침 김석근은 일본 훈련장으로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사령관각하, 중요정보입니다.》

《뭔데?》

김석근은 비밀정보라고 대답하며 무전반처녀를 곁눈질하였다. 최일남은 마지못해 처녀를 돌려보내면서 반시간후에 다시 오라고 일렀다.

처녀가 나가자 김석근은 그에게 이미 준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방금전에 나는 인사반장으로부터 특수임무를 받고 곧장 사령관각하부터 찾아왔습니다.》 한시간을 지체해도 공모자로 취급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고 김석근은 이렇게 둘러쳤다. 《그자는 제가 〈북한〉 선발대에 뽑혔다면서 신흥군에 침투하면 거기서 날더러 선발대를 인솔할 사령관각하를 암살하라는것이였습니다.》

그가 한 선발대와 관련된 말들은 《한국》게릴라부대의 극비였다.

《뭐라구?》 최일남은 벌컥 일어났다. 《나를 없애라구? 사실인가?》

《부사령관 안병덕의 명령이랍니다.》

《뭐? 안병덕이?》

최일남은 눈거죽이 뒤집혀지며 동공이 튀여나올것 같았다.

《개자식!》

그는 이발을 갈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훈련반 교관들을 불렀다.

얼마후 무장한 교관들이 달려왔다. 최일남은 그들에게 우선 인사반장부터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교관들이 나가자 최일남은 석근이를 중대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는 한철민을 찾아갔다.

밤은 깊어갔다. 언덕길을 따라 중대병실쪽으로 걸어가는 김석근의 마음은 번거로왔다. 이제 인사반장이 제대로 불겠는지? 만일 그자가 총구앞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김석근은 머리를 저었다. 인사반장은 놈들의 불고문을 이겨낼만큼 강한 인물이 아니다. 목숨만 건질수 있다면 안병덕이 아니라 제 부모들까지 제물로 바칠 위인에 불과하다고 김석근은 판단하였다.

그의 판단은 정확하였다. 훈련반 지하고문실에 끌려간 인사반장은 이글거리는 불통앞에서 넋을 잃고 한시간만에 죄다 불었다. 그날 밤중으로 안병덕이도 체포되였다.

이튿날 저녁이였다. 포구마을백사장에 《북한》게릴라대원들을 전부 집합시켰다. 그들의 앞에서 한철민이 안병덕이와 인사반장에 대한 사형언도를 내렸다. 최일남에 대한 암살기도는 폭로하지 않고 다만 비밀을 루설했기때문에 처단한다고 선포하였다.

두명의 교관들이 나와서 손목을 묶인 안병덕이와 인사반장을 자그마한 매생이에 태웠다. 그것을 경비정이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뭍에서 200메터 떨어진 지점에 세워놓더니 경비정에서 견인바줄을 끊어버리는것이였다. 경비정이 돌아서며 매생이를 들이받아 뒤집어놓았다. 단말마적비명을 지르던 안병덕이와 인사반장은 가차없이 수장되였다.

해변가 백사장에서 그들의 운명을 목격한 대원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묵묵히 서있었다. 한철민은 대원들을 둘러보며 비밀을 루설하는 자는 그 누구든 저렇게 된다며 일장 력설하고나서 부대본부쪽으로 물러갔다.

김석근은 오늘에야 비로소 김국성동지의 원쑤를 갚았다는, 조국을 반역한 역적을 또 한놈 처단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하였다. 그는 중대병실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굳게 결심하였다.

(국성동지, 우리는 멀지 않아 아군의 후방에 침투될것입니다. 후방을 교란하려는 적들과의 투쟁에서 나는 변함없이 《불새》로 싸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전사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김석근은 뚜벅뚜벅 힘있게 중대병실로 걸어갔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갑자기 비상소집을 일으켜 대원들이 수용소앞마당에 전부 집합하였다. 한철민총사령관이 나와 인사변동을 선포하였다. 처단된 안병덕이 차지했던 《북한》게릴라부대 부사령관으로 지용수가 임명되였고 김석근은 제4풍산군 지대장으로 승급되였다. 전 풍산군 지대장 고봉옥을 부대 참모성원으로 돌려놓고 김석근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석근은 오인범이와 한지대에 있게 되였다. 오인범은 그의 지대 1중대 대원이였는데 며칠후 김석근은 그를 자기의 련락병으로 임명하였다.

그날 오후였다. 김석근은 자기 방에서 지대명단을 펼쳐놓고 개별적대원들의 경력을 료해하였다. 1, 2중대를 료해하고 3중대 명단을 들여다보던 그는 거기서 철원읍출신대원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한동찬, 스물세살이라. 이자가 혹시?…)

후퇴시기 본가집으로 간 안해의 소식을 알수 있지 않을가싶어서 김석근은 속으로 뇌이였다.

(이자가 철원읍 남구에서 살았다면 거기 서당집을 모를리 없겠는데?…)

그럴수록 처가집소식과 함께 안해의 안부를 알고싶은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안해는 지금도 거기서 사는지? 아니, 인민군대가 나왔으니 고향으로 돌아갔을수도 있지 않는가? 비록 남편은 《딴길》을 걷는다 해도 고향마을 상태리를 등질 안해가 아니지 않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여해주신 논과 밭이 있고 은섭이 태를 묻은 고장이기도 하였다. 성인학교사업으로 마을사람들과 친숙해진 안해이고 해방후에 새로 지은 기와집이 있어 더욱 정든 고향마을인데 아무렴 안해가 그 모든것을 버렸을리 없지.

이렇게 생각하던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무거운 낯색을 짓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공화국을 《배반》한 자기때문에 안해한테 미칠 불행이 련상되며 가슴을 아프게 긁는 바람에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방안을 왔다갔다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억제하였다.

여보, 나는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았소. 전쟁전에는 말할것도 없고 인민군대탄원을 《기피》한 전쟁시기에도 나는 공화국을 위해서 당신

을 속였소.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될 때 인민군대를 따라가자던 당신의 그 절절한 청을 귀밖으로 흘려버린것도 바로 공화국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였소. 그렇소. 내가 그때 인민군대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소? 적구투쟁을 하게 된 과업을 저버리고 일신의 편안과 가족의 안정을 찾아 후퇴한 사람으로 되고말았을거요. 나에게 있어서 후퇴는 배반이였고 적들과 《손을 잡는것》이 애국이였으며 당신을 기만하는것이 바로 참된 남편이 되는 길이였소. 그래 나는 당신의 눈앞에서 후퇴를 거절했지만 바로 그날 밤에도 공화국을 위해서 싸웠던것이요.

지용수놈이 후퇴하는 애국자들을 살해하러 가자며 나를 추동질하다가 응하지 않으니 저 혼자 나가버리지 않았소. 나는 후퇴하는 우리 애국자들에게 위험이 조성된다는것을 알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 없었소. 비록 조직에서 받은 과업은 아니였지만 나는 우리 부락 간부들의 후퇴를 보장해줘야겠다는 자각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것이요. 당신의 앞에서 온다간다없이 밖으로 나간 그때는 밤이 어지간히 깊었었지. 지용수네들이 준동할만 한 함흥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부락뒤 공동묘지길에서 후퇴하는 윤경이네 달구지를 멈춰세우는 놈이 있질 않았겠소. 나는 뒤에서 몰래 지켜보았소. 당시 리농민동맹위원장이였으며 리자위대 대장이였던 윤경이네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그놈이 바로 해방전 김건구마름놈의 아들 김성만이 아니겠소. 마침 그때 소달구지를 몰고간 사람이 윤치록위원장이 아니라 윤경의 맏형이였으니망정이지 어쩔번 했겠소. 손에 도끼를 든 김성만놈이 리간부들을 해치려고 다시 길목에 숨어버리기에 나는 그놈부터 없애치웠던것이요.

그길로 읍 땜쟁이 주동학이를 찾아갔소. 당신이 또한 알리 없지만 주동학동무는 언제인가 김국성동지와 같이 나를 찾아 포전에까지 왔던 전우요. 나는 그와 함께 내무원들을 발동시켜 성천강다리목을 지키는 지용수네 패거리들을 습격하게 하였소. 인민군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당신이 그렇듯 칭원했을 때에 나는 애국자들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보장해주는 일을 했건만 떳떳한 내 가슴을 어떻게 당신한테 보여줄수 있었겠소.

당신이 군《치안대》사무실에 찾아와서 서명호세포위원장을 살려달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의 뺨까지 치지 않았소. 여보, 거치른 이 손으로 글쎄 당신의 얼굴에 손을 대다니?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

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하지만 나는 그때 달리할수 없었소. 창문곁에서 악질반동인 장욱세놈이 우리 말을 엿듣고있었다는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수 있었겠소. 지금도 모르고있을 그 일로 해서 나를 영영 버릴수 있는 당신이기도 하오.

그렇지만 여보, 당신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지 않소. 내가 어째서 《밭갈이노래》를 그처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보안서원이 되려고 했는가 하는것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있지 않소. 한생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살리라 결심품고 나선 내가 과연 어떻게 나자신을 배반하겠소. 더구나 나는 해방전부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성원으로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내가 어찌 다른 길을 걸을수 있겠소. 나는 이미 함흥반일학생회 조직성원으로 싸운 그때부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흠모하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운명을 의탁하고 오로지 그분들만 믿으며 따르고있는것이요. 이제는 나의 심장과 혈관속에 피처럼 스며있는 그 신념을 내가 어떻게 저버리겠소. 그것은 죽어서도 변할수 없는 영생불멸의 신념이며 의지일진대 이 김석근은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믿어주오. 오직 시간만이 증명할 나의 그 신념을 적어도 당신만은 믿어주오, 당신만은!

여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요. 전승의 그날까지 부디 무사해주오. 내 이제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한테 죄다 말해주겠소. 그러면 당신의 가슴속에서 얼음덩이같이 들어앉은 나에 대한 멍이 눈석이처럼 녹아내릴게요!…

김석근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전승의 그날엔 떳떳한 남편이 되여 안해앞에 나타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두주먹을 꽉 부르쥐였다.

그때 오인범이 찾아왔다. 그는 전에없이 벙글거렸다.

《지대장님, 제가 포구마을에서 사진사를 데려왔습니다. 나가서 한장 찍읍시다.》

《사진을?…》

김석근은 저으기 어리둥절해하였다.

《제가 오늘 지대장님의 련락병이 되였는데 기념으로 한장 찍어주십시오.》

얼핏 듣기에는 매우 범상한 소원인것 같지만 그의 말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련락병이 되여 더 잘 싸우게 된 기쁨도 담겨있지만 그 어떤 위험이 부닥쳐도 서로 운명을 같이하려는 비상한 각오도 비껴있었다. 사실 그들의 앞에는 전보다 더 간고한 길이 놓여있었다. 안병덕의 사건으로 하여 김석근은 지용수의 불신과 경계를 받게 되였다. 지용수 역시 가슴에 사자입묵을 한 안병덕의 충실한 부하였다. 그가 이제부터 안병덕을 밀고한 석근이를 어떤 눈초리로 보겠는가. 약간만 꼬리가 잡혀도 석근이를 복수할 지용수였다. 그의 감시속에 든 김석근은 자신만 아니라 오인범이도 그러한 위험속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느낌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인범이, 련락병이 된 자네한테 어떤 위험이 생겼다는걸 잊지 말라구.》

《그런 의미에서도 사진을 찍자는겁니다.》

《음…》

김석근은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4

오인범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김석근이 산하 1중대 병실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사병이 찾아왔다.

《지대장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김석근은 괴뢰군 군복차림에 하이바모(수지로 만든 미국제 철갑모)를 쓴 그를 눈정기를 모아 살펴보았다.

《아, 이거 한명권이 아닌가, 응?》

《그렇습니다. 제가 온천 한명권입니다, 지대장님!》

《아,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말라구.》

《아닙니다. 지대장님, 지대장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어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대장님을 영원히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원, 사람두…》

어느덧 김석근의 눈앞에는 한명권이를 알게 된 사연이 삼삼하였다.
김석근이 량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였다. 학비난에 시달린 그는 해방전 그해 5월에 온천 이모네 집으로 찾아갔다. 조개잡이가 한창인 여름철에는 서해바다벌이가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던것이였다.
이모부는 석근이를 바다벌이명수인 안광원의 배에 오르게 주선하였다. 5월 하순에 안광원의 배는 남녀조개잡이군들을 가득 싣고 석치리에서 출항하였다. 출렁이는 밀물을 헤가르며 먼바다로 나가는 35마력 목선의 어창에 김석근이도 누워있었다. 자그마한 어창에 30여명의 남녀벌이군들이 시루안의 콩나물처럼 빼곡이 들어차있었다. 어창에 깔아놓은 벼짚북데기에서는 곰팡이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피워대는 담배연기에 숨이 꺽꺽 막혔다. 자그마한 어창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밑에서는 북데기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사방에서 쿨럭쿨럭 기침을 해대는 속에서 김석근은 멀미를 타지 않으려고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얘, 이번에 우리가 어느 밭으로 간대?》
곁에 있는 청년이 처녀에게 묻는 말이였다.
《번개골에 가는것 같아요.》
《아니야, 게등판에 간다 했어.》
또 다른 처녀가 하는 말이였다. 물밖에 보이지 않는 드넓은 바다물속에 번개골이요, 게등판이요 하는것들이 있다는것이 김석근은 그저 괴이하게만 느껴졌다.
시쿵덕시쿵덕… 하며 나무배는 전속으로 달렸다. 드디여 어선은 긴 고동소리를 내며 천천히 정박하였다. 어창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석근이도 갑판우에 나와 썰물지는 바다를 내다보았다. 흡사 장마철의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바다물속에서 처음 보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무리져 어디론가 헤염쳐가는것이였다.
어느새 긴긴 여름해는 서켠하늘에 기울어졌다. 썰물진 바다에는 군데군데 호수같은 물면을 둔 간석지가 무연히 펼쳐져있었다.
《여긴 게등판이야.》
《옳아, 저쪽건 왁새골이구.》
아낙네들이 떠들며 배에서 내리는것이였다. 이제부터 조개잡이전투

를 벌린다는것을 알고 석근이도 조개칼과 그물구럭을 들고 간석지에 내려섰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간석지를 조개칼로 뒤지며 어둡도록 조개를 잡았다. 동녘하늘에서 송편같은 상현달이 떠오를 때 밀물이 오르는것이였다. 석근이도 다른 벌이군들과 함께 제때에 배에 올랐다. 배는 서서히 물우에 떠올랐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간신히 들려오는 소리.

《사람 살려요—》

그 사람은 배에서 멀리 떨어진 간석지등판에서 소리치고있었다. 밀물속에 포위된 자그마한 등판에서 그 청년이 애절히 고함쳤지만 선주놈은 계집들과 같이 술만 처먹고있었다. 김석근이 선주놈에게 뛰여가 배를 몰아 그 청년을 구원하자고 했지만 취기가 오른 그놈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배가 그리로 가는 새면 그 둔덕도 밀물에 잠길것이고 따라서 그 청년도 없어질게라며 흥타령만 부르는것이였다.

격분한 김석근은 마침 눈에 띄는 선장실의 구명환을 벗기였다. 갑판에 내려와 또 하나의 구명환을 쥔 그는 오로지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만 안고 배에서 뛰여내렸다. 헤염을 잘 칠줄 모르는 그는 구명환의 도움으로 이제는 밀물에 밀려가며 허우적거리는 그 청년에게로 간신히 다가갈수 있었다.

석근은 그 청년에게 구명환을 주었다. 하지만 강물처럼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밀물을 거슬러 배가 있는데까지 헤염쳐갈수 없었다. 석근은 청년한테 소리쳤다.

《이제부터 곁에서 내가 하는대로 하오!》

김석근은 구명환을 착용한채 하늘을 향해 물우에 떠있었다. 밀물은 그렇게 떠있는 두 생명을 나르고날라 기슭에까지 밀어내였다. 그때는 동녘이 훤히 밝아오는무렵이였다. 무려 6시간동안 물우에 떠있으면서 김석근이 그 청년을 구원했는데 그가 바로 한명권이였다. …

《그래 명권인 몇중대에 있나?》

석근이 물었다.

《1중대 3소대에 있습니다.》

《우리 지대에?》

《예, 그래 찾아왔는데 지대장님, 저를 제대시켜주십시오. 저는 총쏠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명권이, 자넨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원자탄바람이지요. 미군이 원자탄을 떨군다는 바람에 처자들을 버리고 왔는데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월남해서 거제도수용소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나는 정말 군대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허리병이 있습니다.》

김석근은 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다가 물었다.

《자네도 〈치안대〉출신인가?》

《아닙니다. 그때 알섬에 가서 숨어있으면서 갈매기를 잡아먹으며 견뎠습니다.》

《인민군대에도 안나가구?》

《허리병이 있는데다가 에미네까지 발목을 잡기때문에 집에서 슬렁슬렁 농사만 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전에 바다에서 구원해준것처럼 한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때는 이미 늦었어. 이제와서 애걸복걸한들 소용이 없으니 잠자코 있으라구.》

김석근은 그의 앞에서 물러섰다. 뒤에서 야속하게 쳐다보는 한명권의 눈총을 받으면서 1중대 병실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5

안병덕의 사건으로 《북한》게릴라부대의 활동계획은 새로 작성되였다. 일본에 가서 특수훈련을 하게 된 비밀이 공개되는 바람에 일본에서가 아니라 영도에서 훈련하기로 하였다. 일본에 갖춰둔 훈련기재들이며 교관들을 끌어들이며 훈련준비를 다시 하는통에 원래 훈련계획보다 거의 보름나마 늦잡아졌다. 교관들의 병실도 더 짓고 훈련용참호며 여러가지 기재들을 수용소 뒤산에 전개하였다. 적들은 훈련기일을 앞당겨 하루속히 공화국북반부에 침투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대원들은 벌써 석달째 훈련받고있었다. 항공륙전대훈련에 여러가지 특수훈련을 받는데 그러한 적들이 배후작전을 벌리면 조국이 그만큼

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된다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이 저렸다. 그는 영도해변가의 참대숲을 거닐며 적들의 게릴라작전을 저지, 파탄시킬 자기딴의 방도를 모색하였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총동원하는 조국과 더불어 자기도 그날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위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싶었다. 전승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 통일된 광장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게 될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면 볼수록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싶은 심정이였다.

참, 지금 전선형편은 어떠한지? 저도 모르게 련천지구에서 겪었던 적아간의 공방전이 떠오르면서 전쟁광신자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인간백정 워커놈까지 황천객으로 만든 영용무쌍한 조선인민군대의 진격과 전투성과를 믿어의심치 않았다.

석근이 확신하는바와 같이 당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들을 단숨에 38도선이남으로 쫓아내였다. 급해맞은 미제는 전선사태를 전환시키려고 12월 총퇴각의 썰물속에서 무덤속에 들어간 살인마 워커의 후임으로 매튜 릿지웨이를 파견하였다. 제2차대전시기에 공정사단장과 군단장을 지냈고 2차대전후에는 지중해전역사령관을 거쳐 륙군참모본부 참모차장으로 있던 55살난 릿지웨이는 12월 26일 대구의 8군사령부에 날아들었다.

그는 자기의 군단장과 막료들에게는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으며 리승만에게는 조선에 《머물러있기 위해서 왔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2일간의 전선시찰을 하고 돌아오자 《…8군은 공격의욕을 잃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반격한다는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로부터 릿지웨이는 막료들에게 38도선으로부터 부산까지의 진지방어작전구상을 명령하였다. 이 저항진지구축을 위해서 3만명의 남조선로무자들을 강제징집하여 37도선까지 진지를 구축하게 하였다.

아군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제시하신 3차 작전방침에 따라 38도선계선의 적방어를 돌파하고 적들을 대량적으로 포위소멸하면서 37도선계선에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적들은 아군의 드센 공격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급해맞은 신임 8군사령관 릿지웨이는 찌프차를 타고 서울북쪽 의

정부계선에 나와 무기도 없이 패주하는 괴뢰군자동차대렬을 멈추어세우려고 고래고래 소리쳤으나 도망치기에 급급해난 괴뢰군들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화가 난 릿지웨이는 즉시 《락오자수용선》이라는것을 만들어 도주자들을 검문단속할것을 명령하였으며 로구 리승만역적을 련락기에 태워 의정부에 끌고가서는 락오자수용선에 저지되여있는 괴뢰군사병들앞에서 연설하게 하였다. 하지만 썰물처럼 밀려나는 패주대오는 멈춰세울수 없었다.

아군은 1951년 1월 상순에 벌써 서울과 원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해방하고 적들은 37도선까지 쫓겨갔다.

12월의 총퇴각과 1월의 패주는 적들에게 있어서 실로 참담하고 절망적인것이였다. 릿지웨이는 맥아더에게 《제8군은 일본에 철퇴하고 남조선군은 제주도에서 저항하는 사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는 비밀전보를 보냈다. 그후 맥아더는 워싱톤에 전쟁을 중국대륙에까지 확대해야 조선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보문을 날렸다. 워싱톤은 《일본의 방위》를 두려워하며 《조선은 세계대전의 장소는 아니》라는 답전을 보내여왔다. 그로 해서 맥아더와 워싱톤은 옥신각신하게 되였다.

미제는 전쟁확대냐, 현상유지냐 하는 갈림길에서 좌왕우왕하다가 결국은 전면전쟁의 림시포기를 결정하고 《교섭》의 간판을 내걸게 되였다. 1951년 봄에 미제는 정전담판을 제기하였던것이다. …

적들이 드디여 흰기를 들었다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이 뿌듯하였다. 그가 해변가의 참대숲을 거닐며 승리한 래일을 그려보는데 병실쪽에서 오인범이 찾아왔다.

《지대장님, 토핑 뉴스입니다, 토핑 뉴스!》

오인범은 별로 벙글거리며 말하였다. 실로 보통소식이 아닌 모양이였다. 가슴이 무척 후련한 소식이면 이렇게 외래어를 쓰군 하는 나쁜 버릇을 아직도 떼지 못한 오인범이였다. 김석근은 궁금하였다.

《그래 무슨 소식인데?…》

《지대장님, 맥아더가 해임되였습니다! 이게 토핑 뉴스가 아닙니까?!》

《허허허 사람두, 해임이 아니라 파면되였네.》

《그럼 지대장님도 알고있습니까?》

《나도 어제 저녁에야 알았네.》

김석근은 어제 저녁에 포구마을 다방에 들렸댔는데 그때 일본제 라지오를 틀어놓군 하는 다방주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었다.

《인범이, 적들은 지난봄에 정전담판을 제기하지 않았나. 우리한테 흰기를 들었는데 트루맨은 패전의 그 책임을 맥아더한테 들씌우려고 꾀하였지.》

석근의 말대로 트루맨은 늘 자기와 엇서나가며 대통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교만한 맥아더를 제거함으로써 그에게 패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은 체면을 유지해보려고 타산하였다.

이때까지 맥아더는 트루맨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톤의 정객과 군벌들을 상급으로 존경한적이 없었을뿐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을 얕보고 정부정책에 엇서나갔다. 아마 맥아더의 눈에는 트루맨이 1차대전시기 자기가 려단장으로 있을 때의 포병대대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

조선전쟁에서의 전략 및 작전상의 정치적영향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어느때 한번 발을 맞추어본 일이 없었다.

맥아더는 1950년 7월말 정부의 승인도 없이 대만에 날아가 조선전쟁에 대한 장개석의 지원문제를 토의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대만이 장래의 《아시아대륙에로의 작전의 기지》로 된다고 언명함으로써 트루맨을 분개케 하였다. 이 말은 미국정부가 감추고있는 대륙침략의 속심을 드러내놓은것이였고 기만적인 《대만중립주의》정책과 직접 저촉되는것이였다. 트루맨은 후에 이때에 맥아더를 해임시켰어야 할것이였다고 후회하였다.

또한 1951년초에 트루맨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에 의하여 입은 대참패의 후유증을 가시며 숨돌릴 시간을 얻으려고 미국정부가 이른바 평화교섭을 비밀리에 모색하고있다는것을 맥아더에게 알렸었다. 그에 대하여 맥아더는 3월 24일 조선전선시찰을 14번째 떠나면서 전쟁을 대륙에로 확대한다면 《중국을 군사적붕괴에로 몰아넣》을것이라느니, 자기가 《언제든지 전장에서… 회담할 용의가 되여있다》느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협공갈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궁지에 빠져 정전을 모색하는 자국정부의 기만적인 대외정책에 직접 저촉되는 최후통첩이였다. 또한 군사지휘관들의 정책적의견성명은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트루맨의 지령을 위반한것이였고 대통령성명으로 발표하기로 내정된 담판교섭제의를 한갖 전선사령관이 앞질러 공개한다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트루맨은 그것이 자기《명령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행위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모순과 대립은 한갖 동행자들사이에 있는 보폭의 차이에서 나온것에 지나지 않았다.

트루맨은 맥아더를 늘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했으나 그의 성망에 눌리워 지금까지 줄곧 맥아더에게 끌리여왔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선의 이동 및 미군의 국경연선에로의 침입, 압록강다리의 폭격은 모두 맥아더의 주장을 따른것이였다.

하지만 12월의 대참패에 대해서 트루맨은 더는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전쟁3단계에 있어서의 미제침략군의 참담한 패배는 맥아더가 파면당한 근본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지난 시기 트루맨과 국무장관 애치슨 등은 38도선 이북침공이 비싼 대가를 치를수 있다는것을 예감하였다. 때문에 트루맨은 맥아더의 공화국의 정복을 야망한 정부의 계획을 구체화한 《북진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쏘련과 중국의 개입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부대조건을 달아놓았으며 10월 15일 웨이크섬회담에서도 맥아더로부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언질을 받아낸 다음에야 국경에로의 진격을 명령하였다. 이것은 후날 12월의 총퇴각과 같은 패배가 지워졌을 때 그 책임을 맥아더에게 전가시키는데 유리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였다.

트루맨은 맥아더를 함부로 해임시키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그것은 전쟁패배의 책임을 맥아더개인에게 전가시켜서는 맥아더지지파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킬수 있기때문이였다. 앙갚음을 할 기회만 기다리던 트루맨은 1951년 4월 5일 국회에서 공화당 원내총무 죠세프 마틴에게 보낸 맥아더의 편지가 공개되자 즉석에서 《그 편지라면 그놈이 소위때 쓴것이라 해도 목》이라고 하였다. 그는 미국방장관 마샬, 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들리, 국무장관 애치슨의 동의를 얻어 맥아더를 파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1951년 3월 20일에 마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맥아더는 조선전쟁에 장개석군대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면서 정부의 대외정책을 《서유럽중심주의》라고 비난

하였으며 조선에서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정부의 정전담판교섭에 반기를 들고 전쟁확대를 로골적으로 주장하였다. 애치슨은 이 편지를 《대통령의 명령과 정책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말하였다.

트루맨은 자기의 심복들, 군부우두머리들과 거듭 모의한 끝에 1951년 4월 9일 아침 9시 맥아더의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새벽 1시 특별기자회견에서 보도관을 통하여 발표하였다.(후임으로 8군사령관인 매튜 릿지웨이가 임명되였다.) 원래 브래들리, 마샬 등은 맥아더의 친구인 미륙군참모총장 코린즈의 요청대로 정중하게 해임시킬것을 제기하였으나 실지과정은 복수적이고 례외적인것으로 되였다. 대통령의 해임명령서는 당시 조선전선에 가있는 륙군장관 페이스를 통해 맥아더에게 전달하기로 되였으나 쇼트보도관이 성명문을 읽은지 20분후에 그것이 도꾜의 방송회관의 외국통신사에 전달되여 본인보다 세계가 먼저 알게 되였다. 부관이 얻어듣고 맥아더 처에게 귀띔해준것을 맥아더는 손님들과의 오찬식탁에서 자기 처로부터 알게 되였다. 맥아더는 이 가혹한 방법은 《사상 류례없는》 일이며 사무소의 심부름군을 해고시킨다고 해도 이렇듯 《례절을 짓밟는 행위》는 없었을것이라고 격분하였다.

이 사실은 맥아더가 해임된것이 아니라 파면, 철직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아시아의 제왕》이 되려던 맥아더는 하루아침에 《련합국군최고사령관, 〈유엔군〉총사령관, 극동방면총사령관 및 미극동군사령관》이라는 어마어마한 모든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던 당시 기함 《마운드 맥킨레이》호를 타고 인천앞바다에 기여들어 직접 작전을 지휘한 호전장군 맥아더였으며 숙천과 순천지역에서 항공륙전대작전을 감행하던 시기에는 전용기 《스캬프》호우에서 항공륙전대의 락하정형을 지켜본 살인마 맥아더였다. 그는 《크리스마스공세》때에도 《스캬프》전용기를 타고 압록강연선을 날으면서 자기 눈으로 직접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동향을 확인하기까지 한 악명높은 전쟁히스테리였다. 아군의 보급선을 끊으려고 압록강, 두만강국경연선에 30～50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도 발악한 핵전쟁광신자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맥아더는 저와 꼭같은 침략자이며 세계제패의 광

신자인 트루맨의 손탁에서 파면되고말았던것이다. 조선전쟁에서도 패전을 모르는 오성장군으로 존재하였더라면 피에 주린 맥아더의 잔명은 운명하는 그날까지 핵전쟁을 부르짖었을것이였으나 악마의 괴수인 71살난 승냥이 맥아더는 전쟁으로 탈취한 《원수》칭호를 비롯하여 평생에 쌓은 피에 얼룩진 모든 《영예》와 《공적》을 조선땅에 묻고 1951년 4월에 하네다비행장을 떠나 자기 소굴로 쫓겨갔던것이였다.

미국 지배층들로부터 《미군의 미래》로 받들리우면서 자기를 《극동의 제왕》, 《동쪽의 나뽈레옹》으로 자처한 패전장군 맥아더의 파면은 미제의 힘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전쟁확대음모가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고 그것은 또한 미제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악당 맥아더를 제거하고 정부정책에 충실한 새 사령관을 임명함으로써 미제는 전쟁과 《평화교섭》의 량면정책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었고 정전담판의 기회를 얻는데 힘을 넣을수 있게 되였다. …

물론 김석근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몰랐지만 정전담판의 간판밑에 미제가 조선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전쟁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바로 영도에서 제2전선부대인 《북한》게릴라부대를 조직하고 미친듯이 훈련시키는 사실만 두고보아도 미제의 검은 속심을 알수 있었다.

《인범이.》 김석근은 해변가의 참대숲을 거닐며 조용히 말하였다. 《적게릴라부대는 머지않아 우리의 후방에 침투할거네. 우리는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적들을 괴멸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내무원들과 손을 잡아야 하네. 그들에게 적정을 알려주는 련락임무를 자네가 수행하게 될것 같네.》

《그건 념려마십시오.》

《걸음을 많이 걷는것도 힘들지만 보다는 우리 사람들한테 체포되거나 잘못되지 않게 행동하는것이 더 어렵지.》

적게릴라부대복장차림으로 경각성높은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도 그렇지만 생소한 내무원들에게 비밀련락쪽지를 넘겨주는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의심을 사고 체포하면 다른 출로가 없는것이다.

《지대장님, 나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운것은 우리들의 전투작전이 랑패를 보는것이지요.》

《고맙네, 인범이!》

김석근은 가슴이 든든해졌다.

그들은 천천히 참대숲속에서 나왔다. 병실로 내려가는 갈림길에서 인범이와 헤여진 김석근은 발길을 돌려 1중대 훈련장으로 올라갔다. 수용소 뒤산릉선에서 자기네 지대 1중대가 훈련하고있었는데 괴뢰군 소위의 계급장을 단 훈련교관은 바로 한명권이를 세워놓고 악청을 뽑았다.

《이자식아, 워커발 춤추기맛이 어떤가 봐라!》

훈련교관은 구두발로 연방 한명권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그때마다 명권은 껑충껑충 뛰여오르며 단말마적인 비명을 질렀다.

김석근이 다가서자 훈련교관은 한명권에 대한 기합을 그만두고 일장 훈시하였다.

《너희들 사병들은 인분, 인욕, 인고 즉 분노를 참고 욕을 참고 고통을 참는 습성을 키워야 진짜화랑도가 되는거다. 그런데 이자식(한명권)처럼 반발하면 명령에 불복하고 림전무퇴할수 없다. 알았는가?》

거개가 어제날 《치안대》출신인 어중이떠중이 게릴라대원들은 교관의 다짐이 불만스러운듯 침묵으로 대척하였다. 교관은 발끈하였다.

《아니, 이자들이 아직도 정신이 덜들었구만, 응?》 교관은 즉시 중대에 집체기합을 가했다.

《중대 포복전진!》

모두가 땅바닥에 가슴과 배를 붙이고 네발걸음으로 기여갔다. 땅에서 상체가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대가리박기기합이 가해진다. 누구인가 가슴을 쳐들었는지 교관의 악청이 다시 터졌다.

《대가리박고 포복전진!》

중대전원이 하이바모를 벗고 맨머리바람으로 돌이면 돌, 나무등걸이면 등걸을 받으며 포복전진을 하였다. 단 한걸음만 전진해도 이마가 터지고 코등이 째지는 기합이였다.

어느덧 야전포복훈련과 배합된 대가리박기 집체기합에 녹초가 된 그들은 《오전 학과 그만.》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땅바닥에 벌렁벌렁 자빠졌다.

《교관, 훈련강도가 지내 센것 같구만.》
훈련장에서 내려오며 김석근이 말하였다. 젊은 교관은 펄쩍 뛰였다.
《아닙니다. 지대장님, 명태는 두드릴수록 맛이 나고 사병은 때릴수록 고분고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장교들이 사병들을 통솔하는 수칙이지요.》
《음, 팽이는 쳐야 돌고 쫄따구들은 때려야 눈알이 팽팽 돈다, 그 소리지?》
《옳습니다. 지대장님, 사병들을 림전무퇴의 용맹병으로 키우자면 명태나 팽이처럼 다뤄야 합니다.》
그럴 때 오인범련락병이 찾아왔다. 그는 김석근에게 사령부에서 최일남이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훈련장에서 내려온 김석근은 최일남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방안에는 최일남이 혼자 있었다.
《음, 4지대장이 왔구만. 거기 앉으라구.》
최일남은 안병덕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석근이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것이였다.
《지대장, 우리 북한게릴라는 멀지 않아 이북종심에 전개하게 되오. 며칠후에 선발대를 침투시켜야 하는데 크레마대좌는 석근이네 지대에서 선출하도록 명령하였소. 이건 석근지대장에 대한 크레마대좌의 크나큰 신임인바 그 믿음에 보답해야겠소. 가장 우수분자들로 10명을 뽑아야겠소. 그들을 홍상범중대장이 인솔하게 되였으니 그와 합의해서 선발대대원들을 선출하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가보라구.》
김석근은 방안에서 나왔다. 지대부로 돌아오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오래지 않아 적게릴라부대가 공화국북반부에 침투하게 되는데 나는 과연 조국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때 김국성동지가 있어 투쟁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며 손잡아 이끌어준다면 그 어떤 난관도 웃으며 이겨내련만… 이러한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수록 희생된 김국성동지며 주동학에 대한 그리움을 누를수 없었다. 유일한 조직선이였으며 귀중한 전우들이였던 그들을 잃은 애석함과 더불어 전우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투쟁의욕이 배가로 더해졌

다. 비록 조직선이 없다 해도 비관해하거나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꿋꿋이 싸워나가리라 결심품었다.

그렇다, 나는 결코 혼자서 싸우는것이 아니다. 수천수만의 조국의 아들들과 함께 어둠속에서도 해빛처럼 안겨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나도 받고있지 않는가. 나의 심장속에 그이께 다진 맹세가 간직되고있는 이상 나는 석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된 자기의 모습을 조국과 인민이 지켜본다는 자각에 김석근은 걸음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홍상범선발대가 출동준비를 하던 그날 저녁이였다. 그는 선발대 대원인 한명권이를 지대부에 불렀다.

《내가 명권이를 어째서 선발대에 선출했는지 알고있겠지?》

김석근의 물음에 한명권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대답하였다.

《내가 쩍하면 기합을 받는 중대생활을 싫어하기때문이겠지요.》

《그보다는 명권이가 집에 두고온 처자들을 보고싶어해서라구.》

《그럼 내가 처자들을 만날수 있다는 소립니까?》

《거야 자신한테 달렸지.》

《나한테요?—》 한명권은 머리를 기웃하였다. 《거 모를 일인데요?— 글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수 있다는겁니까?》

김석근은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하였다.

《자수라는게 있지 않아. 넘어가서 자수하면 되는거지.》

《아니, 이거 롱담하는겁니까?》

《자수하면 죽을 일도 없구 좀 좋겠나.》

《정말입니까? 그래서 나를 선발대로 선출했단 말씀입니까?》

《누가 듣겠어. 롱질은 그만하구 빨리 가서 출동준비나 하라구.》

《지대장님, 나같은 놈도 자수하면 살려줄가요?》

김석근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야밤에 상륙하는데 못할것도 없지. 륙지에 붙으면 제꺽 찾아가라구.》

김석근은 사무실에서 나와 3중대쪽으로 걸어갔다.

6

그날 밤 홍상범선발대는 미제의 구축함을 타고 영도에서 떠났다.

퇴조군(당시)에 상륙하여 신흥군으로 진출하게 된 홍상범의 선발대가 출동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그들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무선련락이 오면 기본부대가 출동하게 되였는데 김석근의 작전에 걸려들었는지 종무소식이였다.

김석근이 귀띔해준것처럼 한명권이 자수했다면… 만일 그가 내무기관에 찾아가 자수하면 내무원들은 한명권의 자백에 근거하여 홍상범의 선발대를 일망타진할수 있지 않는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한명권이를 선발대에 넣었고 또 자수하기를 원했던 석근이였다. 오늘까지 소식이 없는걸 보면 홍상범의 선발대가 격멸된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철민총사령관은 홍상범의 무선련락을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최일남에게 명령하여 석근이네 리남수중대장이 10명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다시 침투하도록 하였다. 이번 선발대는 홍원앞바다를 통하여 풍산군에 진출하게 하였다.

리남수선발대의 풍산침투는 실현되였다. 그후 여름 어느날 영도《북한》게릴라부대는 출동명령을 받았다. 최일남과 지용수이하 1 000여명의 대원들이 비행기들에 나누어탔다. 김석근지대는 최일남사령부의 직속부대로 탑승하였다.

풍산지구에서의 첫 작전

칠흑같이 어두운 야밤이였다. 조국땅령공을 비행하는 김석근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울렁거렸다. 몸은 비록 적들의 비행기에 있었으나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듯 하였다. 땅에서 수백메터 떨어진 상공을 날면서도 그는 낯익고 정든 고향땅을 걷는듯 한 향수에 잠겨들었다. 슬며시 두눈을 감은 그의 눈앞에는 해방전 나어린 시절에 성천강얼음

판에서 스케트를 타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의 날씨는 류달리 푸근하였다. 김석근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집에서 새끼를 꼬고있었다. 오전 반나절이 되는무렵에 소꿉동무 마장수가 찾아왔다. 그는 과수원집 외아들이였다. 어깨에 까만 구두가 달린 스케트를 걸머메고 왔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스케트였다.

석근은 그의 스케트를 부러워하였다. 타고싶어하였다. 그 심정을 어머니가 알아주며 어서 장수와 함께 나가 놀라는것이였다. 김석근은 좋아라 새끼꼬기를 집어던지고 성천강으로 나갔다.

성천강얼음판에서는 숱한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있었다. 서쪽강안에서는 함주벌아이들이 놀았고 강안 동쪽에서는 주로 함흥시아이들이 무리져나와 붐비였다. 그들이 타는 썰매들도 거의 석근이의것처럼 바닥에 쇠줄을 댄 판자썰매였다.

김석근은 한낮이 되여서야 장수의 스케트를 빌려탈수 있었다. 방울이 달린 스케트모자까지 쓰고 얼음판을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숱한 아이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였다. 그가 어찌나 스케트를 맵시나게 잘 탔던지 얼음판을 건너가던 물고기장사군로친네마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까지 하였다. 석근은 한결 성수가 나서 스케트를 탔다.

문득 함흥시아이들이 밀려왔다. 판자썰매를 타고온 그 애들은 석근이보다 퍽 큰 애들이였다. 시내애들은 종종 이렇게 무리져와서는 농촌아이들의 썰매를 빼앗아가군 했는데 지금 다가온 그 애들도 스케트를 빼앗으러 온것 같았다.

김석근이네 애들은 그 애들을 피해 남쪽으로 밀려갔다. 석근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시내애들이 그를 둘러싸며 서라고 하였다. 그는 시내아이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야, 스케트를 좀 타자. 빨리 벗어.》

석근이보다 키가 어방없이 작은 곰보애가 말하며 다가섰다. 스케트를 뺏으려고 하는 수작인것 같았다.

《이건 내것이 아니야. 나도 빌려타.》

석근이 이러며 뺑소니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곰보애의 곁에 있는 키꺽다리가 나서며 그의 팔목을 거머잡았다.

《이새끼, 시시하게 놀지 말어. 한번 타보구 돌려줘.》

《정말?…》

《글쎄 돌려준다니까. 나는 〈치따〉처럼 빼앗는 놈이 아니야.》
김석근은 그의 말을 믿을수 없었다. 더구나 자기것도 아닌 남의 스케트를 빌려주었다가 잃어먹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도망칠 궁리만 하였다. 그는 스케트를 빌려줄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스케트앞날로 키꺽다리의 종다리를 걷어찼다. 키꺽다리는 숨이 넘어가는듯 한 비명을 지르며 얼음판에 나자빠졌다. 석근은 그 애를 뛰여넘어 포위망속에서 빠져나갔다. 최대의 속력을 놓으며 아래쪽으로 질주하였다. 그는 판자썰매로 뒤따라오는 시내아이들을 잠간사이에 까마득히 떨궈놓았다. 키꺽다리패거리들은 닭쫓던 개모양으로 멍하니 쳐다보다가 합흥시쪽으로 돌아가버렸다.
석근이는 마음놓고 스케트를 타게 되였지만 키꺽다리의 종다리를 걷어찬것이 마음에 걸렸다. 자기 스케트라면 한번 타보라고 빌려주었겠건만 남의것이 되여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후회되였던 것이였다. …
그때를 회억하며 김석근이 알짝지근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지휘기에서 최일남이 락하명령을 내렸다.
비행기에서 행동대원들이 뛰여내렸다. 석근이도 락하하였다. 깊은 수림속이였다. 거의 모든 락하산병들이 나무가지에 걸려 데룽데룽 매달렸다. 나무들이 어찌나 키높이 자랐는지 반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못하는자들이 많았다. 《북한》사령관 최일남이도 반시간후에야 겨우 땅에 내려섰다.
그는 무전수를 찾았다. 선발대로 침투한 리남수네가 맞아주지 않아서였다. 사령부가 자리잡을 본거지도 그들이 잡아주게 되였다. 최일남은 무전결속으로 리남수를 당장 호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무전수는 어디에 락하했는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최일남은 사령부직속 김석근지대를 집합시켰다. 산지사방에 떨어진 락하병들은 나무가지에 긁혀 얼굴이 째졌거나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절뚝거리는자들이 많았다. 최일남은 그런자들까지 죄다 내몰아 무전수를 찾게 하였다.
온 부대가 떨쳐나서서 수림속을 샅샅이 뒤졌다. 거의 한시간후에야 무전수를 찾았다. 사지가 찢어진 시체였다. 그것을 발견한 소대장은 최일남에게 보고하였다. 방금전까지도 풍산곰이 무전수의 시체를 뜯어먹고있었다는것이였다. 그는 풍산곰이 무전수를 찾는 자기네

일행을 보고 수림속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최일남의 앞에 무전기만 내놓았다.

최일남은 각 중대장들을 호출하였다. 그는 중대장들을 둘러보며 대원들속에 무전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가고 물었다. 중대장들속에 대답하는자가 없었다. 방도는 선발대 리남수의 무전기와 무전수를 데려오는것이였다. 리남수와 접선하는 문제는 더욱 급선무였다. 최일남은 전부대를 동원하여 리남수네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의 작전을 지용수부사령관이 반대하였다. 너무 많은 인원을 풀면 《북한》내무원들한테 발각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는 한개 중대만 동원시키고 나머지 중대들은 다른 곳에 은페시키자는것이였다. 그의 주장을 모든 중대장들이 지지하였다. 지용수는 확실히 최일남이보다 약은 놈이였다. 그는 리남수와 접선할 과업을 풍산군담당 지대장 김석근이한테 주자고 제기하였다. 머리가 아둔한 최일남은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다.

김석근은 남수와 접선할 과업을 받았다. 그는 1중대 대원들과 함께 락하지점에 남았다. 선발대 련락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느덧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왔지만 리남수의 련락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석근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자기네가 제정된 락하지점에 정확히 내렸는지 알아보고싶었다. 그는 군용지도를 펴놓고 현지를 확인하였다. 제정된 락하지점인 풍산군 안개등판에서 서쪽으로 한 40리 떨어진 안장령 2112고지에 내렸다는것을 비로소 알았다.

선발대장 리남수와 접선하려면 안개등으로 가야 했다. 접선후 그자들을 이끌고 기본부대로 돌아오자 해도 근 40리길을 행군할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100여명 되는 중대를 이끌고 류동하게 된 기회가 차례졌다. 김석근은 이 기회에 적들을 괴멸시키고싶었다. 어떻게 하면 내무원들의 잠복에 걸려들게 하겠는가? 김석근은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얼마후 그는 중대에서 다섯명의 대원들을 선발하였다. 주민부락으로 내려보낼 정찰조였다. 석근은 그들에게 내무서위치며 주민들의 동태를 알아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이 작전은 오인범을 파견하기 위한것이였다. 김석근은 5명의 정찰조를 오인범이 책임지고 인솔하게 하였다.

그는 오인범에게 비밀쪽지를 주었다. 안개등에서 리남수와 접선한

다음에 행군할 로정을 내무원들에게 알려주는 글쪽지였다. 안개등 서쪽 깊은 골짜기에서 내무원들이 매복전투를 벌릴수 있게 하는 통지서였다. 《불새》라는 대호를 밝혔다.
오인범은 떠났다. 늦어도 오후 2시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래야 내무원들에게 적들을 소멸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줄수 있었다. 김석근은 그것을 타산하여 자기네가 안개등으로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오인범이 임무를 수행하면 자기네는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녹아날것이다. 안개등 서쪽골짜기에 들어서면 독안에 든 쥐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물론 석근이자신은 죽음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리라 마음먹었다. 아니, 기어이 빠져나와야 했다. 장차 최일남이 지휘하는 사령부직속부대뿐아니라 함주, 신흥군일대에 침투한 위정사지대며 단천군이나 허천군 지대들까지 괴멸시키자면 계속 적들속에서 활동해야 했던 석근이였다. 하지만 그 누가 석근이를 알아보고 놓아준단 말인가? 내무원들에게 체포되여도 안되는데 과연 그 누가 석근이만 빠져나갈수 있다고 장담하랴. 자칫하면 내무원들의 총탄에 맞아 황천객이 될수도 있는 길이였다. 영영 역적의 루명을 쓰고 처단받을수 있는 길이였다. 아니, 오늘만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기약할수 없는 적구투쟁의 전과정이 바로 그러한 길이였다. 그러나 김석근은 그 길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설사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 해도 이미 자기 량심이 결정한 그 길을 끗끗이 걸어가리라 마음먹었다.
김석근은 중대에 휴식명령을 내렸다. 내무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여유를 주기 위한 휴식이였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솟아올랐다. 오인범이 돌아왔다. 그는 석근이가 준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였다. 김석근은 중대에 즉시 출동명령을 내렸다.
《련락병.》 그는 인범이를 불렀다. 《민가에 나갔던 정찰조는 여기서 휴식하라구,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석근이가 이렇게 오인범을 떨구려고 한것은 단순히 휴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돌아올 때 진행될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인범이가 잘못될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인범이는 그의 진의도를 알지 못하였다. 내무서에 전달한 석근이의 비밀쪽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는지 그

는 모르고있었다.

《뭐 힘들지 않습니다.》

오인범은 쉬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밤에 눈 한번 붙이지 못하고 50여리를 다녀왔는데두?》

《극복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쉬여야 해. 명령대로 하라구.》

석근이는 산골짜기로 내려가는 대오를 따라잡으려고 부지런히 걸었다. 정찰조 다른 놈들은 다 떨어졌는데 인범이만은 계속 뒤따라왔다. 김석근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버럭 화를 냈다.

《련락병!》 눈을 흡뜨고 김석근은 한동안 그를 쏘아보았다. 《명령을 집행하오, 명령을!》

그가 어찌나 강경하게 요구했던지 오인범은 더는 고집부리지 못했다. 그 자리에 못박혀 서있는 그를 바라보다가 김석근은 몸을 획 돌려 대렬을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

락엽이 깔린 안장령릉선에서 오인범은 자고있었다. 잠결에 어떤 총성이 들렸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강구었다. 어둠속에서 몰방으로 터지는 그 총성은 주로 내무원들의 중기관총사격소리였다. 적들이 휴대한 따쿵총소리는 안개등골짜기에서 터졌다. 오인범은 석근이네가 내무원들의 매복조에 걸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응?》

죽음의 함정에 빠진 석근이였다.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내무서에 석근이의 비밀쪽지를 전달했던 일이 떠오른 그는 다시한번 흠칠 놀랐다.

(음, 그래서였댔구나!)

오인범은 그제서야 김석근이 어째서 자기를 쉬게 했었는가를 깨달았다.

(석근동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자기한테 내무원들의 사격을 집중시킨 그였다. 자기 한몸을 그대로 목표물로 내바친 석근이였다. 그처럼 자기

의 목숨은 바치면서도 이 오인범의 목숨을 귀중히 여기다니!… 그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격전장으로 달려내려갔다. 석근이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죽음보다 더한것이라도 바치고싶었다. 그는 정신없이 뛰여갔다.

7

《예, 석근동지는 내무서에 보내는 비밀쪽지마다에 언제나 〈불새〉라는 대호를 썼습니다. 아마 안장령에서 전달한 그 쪽지에도 〈불새〉라고 밝혔을것입니다. 내가 그때 펼쳐보지 못했지만 그 쪽지에도 틀림없이 〈불새〉라고 썼을것입니다.

참, 내가 그때 그 쪽지를 읽어보지 않은것이 얼마나 후회되던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머리를 쳐들수 없습니다. 석근동지의 작전을 모르다나니 그의 명령대로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생사운명을 같이하려고 마음먹은 내가 글쎄 석근동지만 안개등판에 가게 했단 말입니다.》

혜심이네 집 아래방에서 최현무와 양혜심이를 마주하고 이야기하던 오인범은 괴로운듯 미간을 찌프리였다. 잠시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뒤늦게나마 내가 그리로 달려가니 내무원들의 매복사격에 적들은 무리로 쓰러져있었습니다. 전투는 이미 끝났던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석근동지를 구원하려고 달려간 내가 아닙니까.》

오인범이 후― 한숨을 내부는데 뎅, 뎅… 괘종이 새벽 3시를 알렸다.

《가만, 이제 영천역에 함흥행렬차가 몇시에 도착합니까?》

오인범의 물음에 현무가 대답하였다.

《한시간후에 오는것도 있지만 우린 아침 9시차를 탑시다.》

《9시면 늦습니다. 평양―혜산행렬차가 아침 7시에 함흥역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오인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심이네 집에서 영천역으로 나가자면 반시간나마 걸려야 했던것이다.

《아주머니, 나는 꼭 떠나야 될 일이 있기에 이렇게 자리를 뜨는데 량해하여주십시오. 앞으로 모든것이 제대로 밝혀질겝니다.》

남편의 소식이 너무도 놀랍고 꿈같아서 혜심은 지금도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오인범이를 그저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인범동무.》 현무가 말하였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로서니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사실 나는 풍산땅에서 하루도 떠나서는 안되는 몸입니다.》

오인범은 자기가 요즘 잠복간첩 한교준을 체포하려고 대단히 모험적인 작전을 벌렸는데 그에 따라 그놈이 숨은 정체를 드러낼것 같다고, 때문에 하루가 새롭고 빨리 돌아가서 그놈이 잠복해있을듯 한 백산 까치봉일대를 감시해야겠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직은 비밀에 붙여두어야겠기에 오인범은 그저 수수께끼같은 말만 하였다.

《후에 다 알게 되겠지만 그것 역시 석근동지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석근동지와 관련되다니? 그럼 오늘도 그와 무슨?…)

현무는 속으로 저으기 놀랐다. 언제인가 도안전국에서 한 대북첩보대 중앙파견과 주임 지용익의 진술이 떠올랐다. 그때 지용익은 북반부에 잠복한 간첩 한교준이와 접선하고 김석근의 행처를 알아오라는 크레마의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하다면?… 최현무는 자제할수 없었다.

《인범동무, 오늘 밤 이야기에서는 석근동지가 내무원들의 매복사격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참, 내가 미처 그 말을 못했구만요. 나는 그때 내무원들의 매복사격에 황천객이 된 적들의 시체를 하나하나 뒤지며 석근동지를 찾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많은 시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져보았지만 석근동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무원들에게 체포된줄 알고 풍산군내무서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데 글쎄 석근동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내무원들의 매복권에서 벗어나 내가 잠을 자며 쉬고있었던 그리로 갔다는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패거리들로부터 석근동지를 찾아 내가 격전장으로 뛰여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찾아왔던것입니

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석근동지의 작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최일남을 찾아갔던것입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오인범은 혜심이를 바라보았다. 《석근동지는 절대로 반역자가 아니라는것만은 믿어주시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더 많은 사실로 아주머니를 납득시키겠는데 지금은 그럴새 없는 처지입니다. 후에 다시 만나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오인범은 밖으로 나왔다. 혜심은 받아안은 소식이 실로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것이여서 방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인범이 대문앞으로 다가갈 때에야 뒤따라나왔다. 오인범은 그러한 혜심에게 진짜 김석근이를 찾아줄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으면서 걸음을 옮기였다.

×

인범이네를 멀리 동구밖에까지 바래주고 돌아선 양혜심은 머리를 다소곳이 하고 집으로 가면서 줄창 남편만 생각하였다. 그이가 글쎄 우리 사람이라니?! 가슴에 《C. I. C.》발톱을 쳐든 사자입묵을 하고 세포위원장에게 총질한 남편이 적구투쟁을 진행한 무명의 애국자라면?… 그가 난구집손님과 손을 잡은거며 인민군대입대를 《기피》한것도 적구활동을 위한것이 아닌가? 오인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이미 전쟁전부터 보안서원이 되여 비밀임무를 수행했음을 의미하는데?… 혜심은 그때의 남편을 다시한번 곰곰히 더듬어보았다.

(참, 그럴수 있어!)

보안서원이 되려다가 부결맞았다고 자기를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밭갈이노래》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두명의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간 그날에는 애기를 업고 제초기를 밀면서도 해종일 그 노래를 불렀지.

《여보, 그러다가 잔등에 업힌 애기마저 〈밭갈이노래〉를 배우겠어요.》

혜심의 말에 남편은 전에없이 들뜬 기분으로 흥그러워하였다.

《여부가 있나. 내 그러기를 원해서 자꾸 부르는거요. 알겠소? 허허허…》

《온참, 당신두!…》

《우리는 대를 이어 이 노래를 불러야 해!》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해야 한다며 제초기를 밀어대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오늘따라 그는 남편을 믿고싶었다. 큰아버지의 봉분앞에서 손에 총을 잡고 적과 싸우리라 굳게굳게 맹세하고 큰절을 올린 남편이 어찌 《밭갈이노래》를 저버린 다른 사람이 되랴싶었다.

방안에 들어선 혜심은 웃방 농짝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였다. 역적인 남편을 잊지 못해한다고 남들이 비난할것 같아서 몰래 감춰둔 사진이였다. 남편이 역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행여나 하는 기대를 누를수 없어 숨겨온 사진이였다.

은섭이 태여나서 백날이 되는 날에 찍은 가족사진에는 애기를 안은 남편이 혜심의 곁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머나먼 철원읍에서 고원이며 함주군에 이르기까지 수백리길을 걷고걸어 찾아와서 가정을 이룬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혜심은 왈칵 눈굽이 달아올랐다. 적구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며 싸워온 남편더러 역적이라며 원망했던 자신이 죄스러웠다.

여보, 나를 용서해요!

당신을 너무나 오래동안 저주했어요. 애기를 업고 친정집에 갈 때부터 은섭이 다 클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마 당신이 나의 그 심정을 알았다면 얼마나 원통해했겠어요. 생각만해도 가슴이 터질듯 한데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이고 싸웠군요. 이 혜심이 그렇게도 미덥지 못했던가요? 사자입묵을 보고 기절했던 이 혜심의 의지를 정말 너무나 몰라주었어요, 여보!…

그는 아픔의 눈물, 원망과 속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김석근이 소생시킨 사람

함흥역에서 평양—혜산행렬차를 기다리는 오인범에게 사과구럭을 안겨주며 최현무가 말하였다.

《풍산엔 이런게 귀하겠는데 약소하나마 앓는 어머니에게 대접해주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좌동무가!… 그런데

대좌동무는 언제 온천에 가보겠습니까?》
《북한》게릴라부대 첫 선발대를 따라 퇴조군에 침투했다는 한명권이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수일내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더 알아보고 풍산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수고합니다. 미안하지만 함주군안전부에 한번 더 들려주시오. 윤경이 따기한 문건이 정말 내무원들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범동무.》
그럴 때 붕!ㅡ 기적소리를 내며 혜산행렬차가 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럼 먼저 떠나시오. 내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들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역홈에서 나온 최현무는 함흥역대기실에서 조금 기다린 후 청진ㅡ평양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이튿날 아침 다시 평양ㅡ남포ㅡ온천행렬차를 타고 오인범이 알려준 한명권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한명권이 첫 선발대원으로 떠나면서 석근이와 함께 오인범이와도 작별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가 인범에게 알려준 집주소였다.
한명권이네 집은 온천군 운하리 룡반덕에 자리잡고있었다.
현무가 자기를 찾아온 리유를 알자 그는 창문밖을 내다보며 감회깊게 추억하였다.
《우리는 미군〈템프〉호 구축함에서 내려 세개의 고무배에 갈라탔습니다. 퇴조부두에 상륙하려다가 홍상범놈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머리를 돌려 그곁에 있는 세포리땅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뭍에 상륙하여 세포리뒤산에 오른것은 동녘이 훤히 밝아오는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루해를 보내고 날이 어두워지면 신흥군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침식사를 하고 모두 쉬게 했는데 홍상범선발대장놈은 날더러 보초를 서라는것이였습니다. 내가 도망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멀지 않은 퇴조군내무서에 가서 자수할수 있는 기회였지만 나는 서뿔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수하면 내무원들이 나머지 놈들을 체포하려고 추격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자들을 한놈도 놓치지 않고 다 잡을수 있겠는가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된것은 바로 석근동지의 의도를 알아차렸기때문입니다. 그가 날더러 자수하라면서 선발대에 넣어준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는것을 그때 벌써 눈치차렸던것입니다. 그렇지 않구서야 어떻게 그 위험한 말을 그처럼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나를 반신반의하면서 롱말처럼 했지만 여차직하면 그 말이 샐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석근동지는 절대로 무사치 못하게 됩니다. 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작전이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또한 나를 떳떳한 인간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맨입으로 자수하여 내무원들이 믿게 하는것보다 선발대놈들을 모조리 잡을수 있게 하면 그것이 나의 공로로 될게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놈들을 없애치울 방도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그놈들이 깨여나서 내가 없어졌다는것을 알면 즉시 자리를 뜰게고 그렇게 되면 그놈들을 놓칠수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놈들을 내가 없애치우고 내무서로 찾아가 자수하자고.

나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나까지 모두 11명이였으니 결국 1대 10으로 결판내게 되였습니다. 나는 조심조심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드러누워 자는 놈들에게서 무기를 회수하여 전부 한곳에 모아놓았습니다. 물론 탄알들은 다 뽑아버렸습니다.

나는 권총을 차고있는 홍상범선발대장놈부터 쐈습니다. 총성에 잠을 깨서 헤덤비는 놈들을 일격에 전부 없애치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한 15리 되는 군내무서에 가서 자수하면서 자초지종을 실토하였습니다. 나는 관대히 용서받았을뿐아니라 애국적인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나는 저으기 격앙되였습니다. 나같은 놈도 남들이, 특히 안해가 돋우보는 애국자로 될수 있지 않겠는가. 퇴조군내무서에서 교양받은데다가 찍하면 기합에 녹초가 되군 했던 적게릴라부대생활이 떠오르군 해서 나는 참된 삶의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게 인민군대에 탄원하였습니다. 더구나 〈한국〉게릴라부대장교까지 된 석근동지같은 사람도 조국을 위해 싸우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구석에 들어박혀 농사만 지을수 있겠는가 하는 자각이 나를 눈뜨게 했던것입니다. 나는 허리병을 앓는다는 너울을 벗어던지고 용약 전선에 나갔습니다. 영도에서 받은 특수훈련덕으로 나는 사단정찰병으로 싸웠던것입니다.

서울 적구투쟁에서 흉부에 치명상을 입고 제대된 나는 서해간석지사업소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한명권은 천천히 담배를 말았다.

《그런데 대좌동무, 북반부에 침투한 적게릴라부대는 일망타진되였다는데 지금 김석근동지는 어데 있습니까?》

《바로 그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음- 하지만 나는 그외 아는것이 없습니다. 그때 영도에서 작별한것이 마지막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최현무는 그와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대문밖으로 나서는데 한명권이 뒤따라와서 말하였다.

《대좌동무, 내 눈에도 김석근동지는 우리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크레마며 최일남의 신임을 받으면서 우리 일을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온천역으로 나가는 현무의 가슴은 저으기 후더워졌다. 반역의 길에 오른 한명권이를 구원하려고 그 위험한 모험을 하다니? 명권이 역적이 되여 석근이를 밀고하면 실로 어쩔번 했는가? 적게릴라선발대놈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역적의 나락에 떨어진 한 인간을 소생시키려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모험을 단행한 석근이의 웅심깊은 속내를 느끼면 느낄수록 머리가 숙어졌다.

8

불 새

최현무는 온천에서 떠나 기차를 갈아타면서 이틀만에 함주읍에 도착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윤경이 따기한 문건이 실지 군내무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싶어하는 오인범의 심정을 헤아리며 최현무는 그날 아침 함주군안전부로 찾아갔다. 늙수그레한 함주군안전부장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또 김석근이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예, 그새 더 나타난 자료가 없습니까?》

군안전부장은 안타까운듯 미간을 흐리였다.

《있기야 있지요. 헌데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책상빼람에서 웬 종이쪽지들을 꺼내여 현무앞에 내놓았다. 《어디 좀 보십시오. 이것들도 〈불새〉가 보낸것들인데 그게 누구인지 도저히 알아낼수 없습니다.》

마구 구겨졌던 비밀쪽지들이였다. 거의나 연필로 적은것들이였다. 어떤것들은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들이 벗겨졌거나 찢어져서 그 내용을 잘 알아볼수 없었으나 모두가 백운산이며 천의산과 같은 함주지구 지명들과 관련한 적정들이였다.

(천의산이라?…)

적게릴라 소탕전을 벌릴 때 김석근은 풍산일대에서 활동했는데 같은 시기에 함주군에서도 《불새》가 나타나다니? 김석근이 함주군에서도 활약했는가? 함주군은 풍산군에서 수백리 떨어진 곳이다. 한사람이 서로 수백리 상거한 두곳에서 활동할수는 없겠는데?… 서로 다른 두사람이 우연하게도 같은 《불새》로 활동한것 같았다. 풍산《불새》김석근은 최일남의 직속부대에서 투쟁했는데 함주군《불새》는 독립부대 위정사의 지대에서 싸우지 않았는가. 하다면 과연 함주군《불새》는 누구인가? 진정 김석근이 아닌 또 다른 《불새》가 있었단 말인가?… 최현무는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그런데 부국장동무, 이건 암호문으로 된 비밀문건인데 〈불새〉가 안병덕의 망원들을 적은것입니다.》

그가 현무에게 넘겨준 그 문건은 뒤등에 찢어진 자리를 붙인 흔적이 있었다. 최현무는 따기한 김석근의 비밀문건을 찢어버렸다가 다시 주어서 군내무서에 바쳤다는 윤경중위의 말이 상기되였다.

《가만, 이게 혹시 〈왕초〉가 따기한 문건이 아닐가?》

《〈왕초〉라니요?》

최현무는 군안전부장에게 언제인가 《왕초》한테서 들은것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문득 출입문이 똑똑 울리였다. 군안전부장이 들어오라고 하였다. 뜻

밖에도 윤경중위가 나타났다.
《허, 이거 범이 제소릴 하면 온다더니… 마침 잘 왔소.》
현무가 벙글거렸다.
《부장동무, 이 중위동무가 바로 〈왕초〉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동무가 〈왕초〉였다, 허허허…》
군안전부장은 어깨를 들썩이며 껄껄거렸다.
《그래 〈왕초〉동무는 무슨 일로 찾아왔소?》
윤경은 그에게 따기문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면 김석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판단할수 있겠기에 왔다는것이였다. 며칠전에 현무네들이 김석근이 우리 사람으로 싸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선뜻 믿게 되지 않아서 확인해보려는 잡도리였다.
《음, 그렇소?》 군안전부장은 그에 앞에 따기문건을 내밀었다. 《이것이 중위동무가 따기한 문건이 옳소?》
《왕초》는 찢어진 자리가 력연한 그 종이를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았다.
《옳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따기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문건입니까?》
《〈불새〉가 적은 간첩명단이요. 중위동무는 이 문건을 넘겨준 내무원을 알고있겠구만, 응?》
《상위동지 말입니까?》
《그게 누구요?》 군안전부장이 물었다. 《여기에 밝힌 간첩들을 체포한 사람을 만나면 이 문건이 간첩명단이 틀림없었다는것이 보다 실제적으로 확인되겠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닌지?》
《글쎄요, 어쨌든 제가 만난 그 상위동지는 키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그후 윤경은 더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때 군내무서정문에서 보초를 선 내무원동무는 알고있습니다. 그 동무가 상위동지를 불러냈는데 혹시 그를 만나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동무는 어데 있소?》
《장진군안전부에 있습니다.》
《장진군에?》 최현무가 말하였다. 《군안전부장동무, 〈불새〉의 공로도 알아보는겸 내가 중위동무와 함께 장진군에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내드리겠습니다.》

군안전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현무네가 탄 승용차는 곧장 장진군으로 달리였다.

그 사람은 장진군안전부에서 어느 한 부서를 책임진 과장으로 근무하고있었다. 과장은 《왕초》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였다.

《두병호동무 말이요? 병호동무는 지금 덕성군에 있소.》

《덕성군안전부에서 근무하오?》

최현무가 묻는 말이였다.

《아닙니다. 덕성군에서 산림보호원으로 일하는 안해의 간호를 받으며 집에서 병치료하고있습니다.》

《병치료를?… 어쨌든 우리 그리로 가기요.》

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진군안전부 과장은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그들이 찾아갔을 때 두병호는 자기 집 울타리밖에서 해빛쪼이기를 하고있었다. 그는 하반신마비로 침대에 누워있는 특류영예군인이였다. 침대에 누워서 무슨 책을 보고있던 두병호는 최현무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 비로소 그때 일을 더듬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윽고 그는 생각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그때 나어린 윤경동무가 가져온 비밀쪽지를 받은적이 있었지. 그것으로 숱한 간첩들을 잡았는데… 참, 그거야 당사자를 만나면 그 내막을 더 잘 알겠는데 어째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럼 동무는 김석근이 행처불명이 되였다는것을 모르고있습니까?》

《아니, 그럴수 있나? 〈불새〉가 행방불명이 되다니?》

《음—》 현무는 합주군《불새》도 다름아닌 김석근임을 알았다.
《병호동무, 우리는 지금 김석근동무를 찾고있습니다.》

현무가 하는 말에 두병호는 잠자코 있다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다나니 그런줄도 모르고있었구만.》

그는 후— 한숨을 내불었다.

《어쨌든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현무와 윤경은 그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어 방안에 들여놓았다.

두병호는 감회깊이 말하였다.

《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김석근이를 알고지낸 사람입니다. 물론 한마을 소꿉동무는 아니였지만 해방전에 성천강얼음판에서 내가 그의 스케트를 빌려타려고 한 그때부터 알게 되였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시절이였다. 성천강얼음판에서 스케트를 빌려타려다가 정갱이를 얻어맞은 키꺽다리 두병호는 참을수 없었다. 자기를 사포구역 《치따》같은 쓰리군으로 보고 업신여긴것도 괘씸한 일이지만 보다는 그까짓 스케트 하나 없어서 정갱이까지 얻어맞으며 멸시받은것이 더 분했다. 단단히 앙갚음을 하리라 마음먹었지만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듬해 겨울이였다. 성천강얼음판에서 병호는 외발기썰매를 타고있었다. 어느덧 해질무렵이 되는데 강 서쪽에서 김석근이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함흥시에 있는 작은아버지네 집으로 심부름 가는 길이였다.

두병호는 그와 마주섰다. 그는 1년전의 석근이를 인차 알아보았다.

《너 작년에 스케트날로 내 정갱이를 걷어찬 새끼지?》

《내가 너무했어.》

《뭐 그런다구 용서하겠어? 한번 겨뤄보자.》

두병호는 소매를 말아올렸다. 그는 석근이보다 세살이나 더 먹었다.

《난 이걸 작은아버지네 집에 갖다줘야 해.》

석근이는 한쪽손에 들고온 꾸레미를 쳐들었다. 빨간 보자기안에는 앓는 작은아버지한테 보내는 닭알들이 있었다.

《이새끼, 그냥은 못 가.》

두병호는 그의 손에서 보꾸레미를 빼앗아 얼음판에 콱 집어던졌다. 숱한 닭알들이 깨졌다.

《아니? 이새끼?…》

석근이도 주먹을 부르쥐였다.

《좋아, 우선 통성이나 하자. 나는 두병호야.》

《난 김석근이야.》

《작년에 네가 스케트날로 찼으니 나도 쟁기를 써야지.》

두병호는 주머니에서 팽이를 꺼내였다. 그것을 던지려는 잡도리였다.
《너도 들고싶은걸 들어.》
김석근은 적수공권이였다.
《난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1대 1로 하자면 하겠어.》
《맨손으로?》
병호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팽이를 얼음판에 휙 집어던졌다.
《자— 나도 맨주먹이다.》
둘이 주먹을 쳐들고 싸우려 하는데 웬 청년이 나타났다. 얼음판을 건너가던 청년이였다. 그는 두 싸움군을 욕하며 썩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헤여졌다.
그후 4년세월이 흘렀다. 함흥시에서 살던 병호네는 함주읍으로 이사하였다. 그해 여름 어느날이였다. 병호가 하루일을 마치고 성천강방뚝에서 도지소를 먹이고있는데 김석근이 내려오고있었다. 함흥영생중학교를 다니는 석근이였다. 그는 병호를 보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간만인데—》
김석근이 이죽거리며 다가왔다.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병호도 마주 다가갔다.
그들은 방뚝우에 마주섰다.
《이젠 좀 계산해볼가.》
석근이 웃동을 벗었다.
《좋두룩 하게.》
병호는 소가 걱정되여 방뚝아래 백양나무에 고삐를 비끄러매였다.
《오늘은 끝장을 봐야지.》
방뚝우에 올라와서 병호가 하는 말이였다.
《그런데 저 소는 네가 먹이는거니?》
《우리 집 도지소야, 왜? 닭알들을 깨뜨렸다구 소가 탐나는게지?》
병호는 《결사전》을 각오하였다.
《음— 그래?…》 김석근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병호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그만두자.》
《왜? 내가 뻗을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소를 잃어먹을수 있지.》

《천만에, 선심은 후에 써.》

하지만 김석근은 조용히 물러가버렸다.

그후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다.

조국이 해방되였다. 병호는 군보안서 보안원이 되였다. 석근이와 몇번 마주치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서로 말없이 피하군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도 지나갔다. 적들이 밀려가서 얼마 안되는 날이였다. 그날 두병호는 군내무서 직일관으로 근무를 서고있었다. 아침이였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찾기에 나가보니 여라문살 됨직한 조무래기가 와있었다. 윤경이였다. 그는 두병호에게 웬 종이장을 내밀었다.

《이건 군〈치안대〉대장하던 놈의걸 훔친건데 우리 아버지가 내무서에 갔다주라 해서…》

《군〈치안대〉대장이라니? 김석근이 말이냐?》

《예, 그놈의 돈지갑안에 있었어요.》

《음, 알만 하다.》

두병호는 주머니에서 1원짜리 지폐를 한장 꺼내였다.

《너 정말 용쿠나. 이걸루 사탕이나 사먹어라.》

《싫어요. 내가 뭐 장사군이나요.》

윤경은 종종걸음으로 물러갔다.

두병호는 지체하지 않고 과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부서성원들과 함께 암호문으로 적은 김석근의 비밀쪽지를 해득하였다. 물론 오래동안 고심해서 알아내였는데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는 기밀문건이였다.

안병덕의 망원들

1. 함흥시 백화점 판매원 한옥주.
2. 함주군 주서리 농민 백동욱.
3. 오로군 영천역 로동자 서만억.
4. 고원빨찌산 대원 김태수(함흥지구《C.I.C.》내조과 과원.)
5. 홍원군 수산사업소 어로공 김기철.

불 새

《불새》라니? 도대체 누구인가? 김석근의 돈지갑에서 빼낸것이므로 마땅히 그를 《불새》로 보는것이 옳겠건만 차마 악질반동 군 《치안대》대장을 비밀공작원으로 인정할수 없었다. 그가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입수한 문건일수도 있지 않는가?… 어쨌든 그것이 간첩명단인 이상 안병덕의 망원들을 적발소탕하는것이 급선무였다.

두병호네 내무원들은 해당 내무서와 짜고들어 그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벌렸다. 깊숙이 잠복한 간첩들이여서 좀처럼 책동하지 않았다. 오래동안 감시하며 추적하던 끝에 영천역 잠복간첩만 놓치고 전부 체포하였다. …

여기까지 말한 두병호는 잠시 묵묵히 앉아있었다. 2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때 놓친 서만억의 행방을 모색하는듯 두눈을 간잔지런히 뜨고 담배만 뻐금뻐금 빨았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대좌동무, 고원빨찌산에 침투한 김태수놈을 심문한바에 의하면 안병덕과 태수놈의 련락원은 고원군 〈치안대〉 대장 장욱세놈이였습니다. 욱세를 통해 안병덕의 지령을 받은 김태수놈은 고원빨찌산에 침투한 첫날부터 우리 내무서장 김국성동지를 해치려고 노렸던것입니다. 그러다가 양동리전투때 그놈이 국성동지의 다리에 총상을 입히고 또 국성동지를 업고 밤나무골 개울가에 은신시켰습니다. 그리구 욱세놈에게 련락해서 김국성동지를 잡히게 한 놈인데 적들이 밀려가자 고원빨찌산에서 나와 정평군내무서에 잠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악질적인 놈이였습니다.》

최현무는 비로소 김국성외삼촌이 체포된 경위를 알고 입을 꽉 다물었다. 한놈의 간첩이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가! 그는 대오안에 한놈의 간첩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격에 두병호에게 물었다.

《그래 영천역에서 도망쳤다는 그놈은 종내 못 잡았습니까?》

《예, 우리는 서만억놈을 잡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오늘까지…》

현무와 윤경 모두가 무거운 낯색으로 침묵하고있었다.

《그런데 병호동무.》 현무가 입을 열었다. 《체포한 간첩들을 심문할 때 그 〈불새〉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요, 심문받는 놈마다 〈불새〉를 아는가고 물었으나 어느 놈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 8월말경이였습니다. …》
어느날 밤 1시쯤 되여서 두병호는 군내무서에서 퇴근하였다. 집에 들어선 그는 웃방 책상우에서 웬 종이쪽지를 발견하였다. 그 쪽지에는 낯선 글자들이 깨알같이 적혀있었다.
《함주군 주서리 농민 백동욱은 안병덕의 잠복첩자임. 〈불새〉》
두병호는 저으기 의아해하였다. 도대체 《불새》란 누구인가?
그로부터 7일후였다. 밤 2시경에 두병호의 집에 불쑥 김석근이 뛰여들었다. 석근은 수수한 로동청년의 차림새였다. 하지만 두병호는 그가 적강점시기 함주군 《치안대》대장으로 만행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는 석근이의 가슴팍에 권총을 내밀었다. 김석근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다.
《병호, 어렸을 때에는 손에 들었던 괭이마저 집어던지지 않았나. 맨주먹엔 맨주먹으로 대하더니 이젠 겁이 많아진 모양이지, 응?》
《나는 지금 나어린 김석근이와 맞서고있는것이 아니야. 적수공권의 숱한 애국자들을 살해한 군 〈치안대〉 대장이였던 김석근이한테 총부리를 겨누고있다. 손을 들어!》
《이보게 병호, 나는 〈불새〉요. 적강점시기에도 〈불새〉였고 지금도 〈불새〉네. 전쟁전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불새〉란 말이네.》
《뭐, 〈불새〉라구?…》
병호는 한주일전에 보았던 《불새》의 종이쪽지가 생각났다.
《그래 백동욱을 알아보았소?》
《우리는 이미 지난 겨울에 그놈을 체포했어.》
《지난 겨울이라니? 어떻게 알고?…》
김석근은 《왕초》에게 쓰리맞힌 그 문건이 두병호의 손에 전달되였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로서는 짐작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두병호는 그 사연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다.
《석근이, 자네가 분명 〈불새〉라면 품에 감춘 권총을 내놓게.》
《참, 사람두… 지금도 의심하다니, 쯧쯧쯧…》
김석근은 품속에서 두자루의 권총을 꺼내여 두병호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젠 흉금을 터놓구 말해보자구.》 김석근은 방바닥에 앉았다. 《그래 주서리 백동욱을 어떻게 들춰냈나, 응?》
그에게 두병호는 《왕초》가 따기해서 가져다준 비밀문건이야기

를 하였다. 말없이 듣고있던 김석근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껄껄 웃었다.

《허허허… 그녀석이 나를 도와주었구만!》

김석근은 안병덕의 방에서 그 명단을 보게 된 경위부터 말하였다. 그것은 안병덕이 월남도주하기 전날이였다. 석근은 갑자기 그의 호출을 받고 저녁무렵에 안병덕의 방에 들어섰다. 그때 안병덕은 그에게 북반부에 박아놓을 첩자들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석근은 군내에서 몇명 선발하여 박아놓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그럴듯하게 꾸미여댔다. 그것을 적어놓는 안병덕의 필기장에 시선을 보낸 김석근은 거기서 바로 그 간첩명단을 보았던것이다.

안병덕의 방에서 나와 군《치안대》대장의 방에 돌아온 그는 기억을 더듬어 그 명단을 작성하였다. 한두놈의 주소는 아리숭했지만 그런대로 적어놓았다. 암호문으로 쓴 그 명단을 그전에 철공소 땜쟁이와 약속한 굴뚝밑에 넣어둘가 하다가 주동학이 없다는 느낌에 그만두었다. 앞으로 내무원들에게 넘겨줄 어떤 기회가 올게라고 믿으면서 돈지갑에 넣고다녔는데 그만 도적을 맞히지 않았는가. 김석근은 그것을 분실하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말하였다.

《그래 거기 놈들을 전부 잡았소?》

《서만억이란 놈은 영천역에서 도망쳤더구만.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사전에 없어졌다니까.》

《그놈이 이름을 바꾼 한교준이란 놈인데 매우 교활한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손에 꼭 걸려들거네.》

《그런데 석근이 이 사람, 자네는 어떻게 되여 군〈치안대〉대장완장을 두르고 우리 일을 하게 되였나?》

《병호, 그 이야기는 후에 하지. 당장 일감이 생겼네.》 며칠전에 적들은 《북한》게릴라부대를 투하했다고 김석근은 말하였다. 풍산군과 신흥군, 허천군과 단천군에 적게릴라지대들이 락하했다고 하면서 최일남사령부산하 각 지대들의 인원수와 무장장비들에 대하여 아는껏 이야기하였다. 그는 각 지대들의 무전접선시간이며 암호문들을 기록한 쪽지까지 넘겨주고 풍산군에 락하한 최일남사령부와 그 직속부대인 자기 지대에 대한 적정을 알려주었다. 《지금 최일남은〈북한〉게릴라사령부를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네.》

그가 풍산군에서 뜨려고 하는것은 선발대 리남수부대와 석근이네 1중대가 안개등골짜기에서 내무원들의 매복조에 걸려 녹아났기때문이였다. 그때 리남수는 황천객이 되였지만 김석근은 다행히도 목숨을 부지했었다. 불과 20여명밖에 남지 않은 적들을 이끌고 김석근은 최일남의 앞에 나타났었다.

최일남은 무엇보다도 무전기를 더 중요시했었다. 그러나 김석근은 그의 앞에 내무원들의 총탄에 마사진 무전기를 내놓았다. 최일남은 무척 당황해하였다. 무전기가 깨져서만 아니였다. 보다는 자기네 지휘부가 내무원들의 눈에 꼬리잡힐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최일남은 긴급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는 작전참모를 불러 허천군주둔 지대장에게 급파하였다. 그곳 실태를 알아보고 장차 지휘부를 허천군에 옮기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용수는 허천군보다 함주－신흥일대를 더 중시하였다. 함흥출신인 그는 신흥군주둔 위정사지대장을 오른팔처럼 믿고있었다. 그는 최일남에게 신흥군에도 련락장교를 파견하자고 제기하였다. 최일남은 수락하였다. 석근이를 급파하여 위정사를 만나게 하였다.

풍산군에서 떠난 김석근은 이틀후에 신흥군에 들어섰다. 저녁무렵이 되였다. 신흥군 절벽골에 이른 김석근은 그곳 제1접선지점에서 위정사의 망원을 만났다. 《초불》이라는 그 망원은 석근이한테 위정사지대장을 만나려면 10일후에 다시 오라는것이였다. 김석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성을 냈지만 《초불》은 귀밖으로 들었다. 부득불 열흘을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김석근은 신흥군을 돌아다니며 위정사부대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위정사지대는 전혀 활동하지 않고있었다. 지나칠 정도로 숨어있었다. 아마 단단히 잡도리하는 모양이였다.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적들이 책동하기 전에 손을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위정사지대를 일망타진하고싶었다. 내무원들과 행동하면 능히 소멸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그는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는 두병호가 떠올랐다. 병호와 련계를 가지면 내무원들이 동원될수 있을게라고 확신하였다. 그런데 두병호가 자기를 믿어줄는지?… 김석근은 우선 안병덕의 첩자들을 들춰내는 일로 그와 손을 잡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두병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전쟁전부터 살고있는

집이였다. 김석근은 누구도 모르게 웃방 책상우에 비밀쪽지를 올려놓았다. 《불새》의 이름으로 주서리 잠복간첩 백동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지였다.

그후 한주일이 지났다. 이젠 백동욱을 처리했을게라고 보아지는 그때에 김석근은 두번째로 병호네 집으로 찾아갔다. …

《이렇게 되여 김석근이 나의 앞에 나타났던것입니다.》 두병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위정사부대를 소탕할 그의 계획을 듣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크레마의 련락장교구실을 해야 했는데 꽤 해내겠는지 걱정되였습니다. 석근이는 주저하는 나를 격려해주며 〈자넨 키가 커서 그럴듯할게요.〉 하고 괴뢰군장교복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의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석근이는 매우 만족해하며 제법 이름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본명은 〈한국〉게릴라사령관 한철민의 사촌동생 한동민의 이름을 쓰게 하고 가명은 〈케이. 보.〉라고 하자는것이였습니다. 〈케이. 보.〉란 크레마의 보좌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해방전부터 끌어온 싸움을 그때에야 일단락짓고 비로소 화해한셈이지요.》

두병호는 껄껄 웃었다. 하지만 현무는 선뜻 웃어넘길수 없었다. 아무리 척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조국을 위한 서로의 지향이 일치하면 앙숙진 지난날의 개인감정도 초월하여 쉽게 손을 잡을수 있다는 생활의 철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때문이였다.

《대좌동무, 그후 나는 우리 내무서장동지와 련계를 맺고 석근동무의 작전대로 움직이였습니다.》

《그때 그 내무서장이 전후에 우리 도안전국 부국장으로 일하다가 돌아간분이 아닙니까? 강준혁이라구?…》

《옳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되였단 말입니까?》

두병호는 눈을 둥그리며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다.

《아니, 진정하시오.》 현무는 그를 안정시켰다. 《강준혁부국장은 10여년전에 병환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은 다 무고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도안전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음, 그래서 김석근이 〈불새〉로 싸웠다는것마저 쉽사리 고증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름없는 영웅들을 찾으려고 지금처럼 힘있게 내밀지 못했습니다. 또 무명의 공로자일수록 자기 공로를 내색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들은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싸웠다면서 그걸 응당한 일로 여기고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뭘 좀 알아보려면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평가를 바라는 사람처럼 여기고 게면쩍어합니다. 그래 묻는 말도 잘 대답하지 않고 피하기때문에 이름없는 영웅들을 찾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긴 제 자랑을 좋아하는 공로자는 없을겝니다.》

두병호는 갑자기 동통이 오는지 미간을 찌프리고 허리부위를 꾹꾹 눌렀다. 그러면서도 석근이를 알려고 하는 현무의 질문에 아는껏 대답하려고 노력하였다.

9

김석근은 한결 든든한 마음으로 두병호네 집에서 나왔다. 《초불》을 만나자면 아직 며칠이 흘러야 했다. 그는 천천히 오인범이네 집쪽으로 걸어갔다. 며칠전부터 한번 들리려고 한 그였다.

골목길을 걸어 이제는 인범이네 집앞에 이른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종종 찾아오군 한 오인범이네 집은 좀처럼 눈에 뜨이지 않았다. 이 골목, 저 골목 왔다갔다하다가 한참만에야 인범이네 집이 폭격을 맞았는지 형체도 없이 불타버렸다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럼 어머니는?…)

석근은 가슴이 무직하였다. 아들이 역적이 되였다고 그리도 괴로와하던 어머니, 대대로 이어온 가난을 해방후 공화국이 가시여주었는데 아들이 그 은정을 배반한다고 남몰래 가슴앓이를 하던 어머니, 《치안대》완장을 두른 아들이 보기 싫어서 생병을 앓으며 이불속에서 나오지 않던 그 좋은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인범이네 집에 들어설 때마다 흘겨보며 눈총을 쏘군 한 훌륭한 어머니, 어머니의 그 가시눈길을 받을적마다 공화국을 동경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헤아려지며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군 했었지. 적후투쟁이 아무리 간고해도 주저앉거나 변절하지 말자고 스스로 마음 굳히게 해주던 어머니의 그 가시눈총이 지금따라 더없이 소중하게 그리워졌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앞에서 오인범이 어떤 아들임을 알려주려 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들이 역적이 아니라 공화국을 위해서 적들속에서 싸운다는것을 어머님 혼자만이라도 알고계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만시름 놓고 기뻐하실 어머님을 보고싶어 김석근은 인범이네 집터에서 조금 동안뜬 반토굴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조용히 주인을 찾았다.

몇번 불러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 젊은 녀주인이 부엌문을 열었다.

《누구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오인범이네 어머니는 어디 가계십니까?》

녀인은 석근이가 오인범이 아닌가싶었던지 한참 눈여겨 훑어보다가 대답하였다.

《함흥시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인범이 어머니는 어데 다친데는 없겠습니다?》

《전번 폭격때에도 무사했는데… 손님은 뉘예요?》

《먼 친척인데… 그럼 안녕히 계시오.》

석근이는 그 녀인앞에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물러갔다.

검푸른 밤하늘에 삼태성마저 높이 떠올랐다. 성천강방뚝에까지 나온 김석근은 신흥군쪽으로 가려다가 발길을 돌려 고향마을로 찾아내려갔다. 별들이 총총한 이밤따라 가슴은 별로 향수에 젖어들면서 가족들이 그리워났다.

안해는 있는지? 자기 집도 인범이네 집처럼 폭격에 불타버리지 않았는지?… 귀여운 아들애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을 끝없이 산란하게 굴었다.

다행히도 정든 고향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김석근은 발을 저겨디디며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선뜻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곁에 서있었다. 한밤의 어둠속에서 형체만 드러난 뜨락의 과일나무며 울바자들을 감회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그전에 인민군대가 일시 적후퇴를 시작할 때 심어놓은 살구나무곁으로 다가갔다. 애어렸던 묘

목이 1년동안 억세게 자라나 벌써 아지들을 무성하게 치고있었다. 그가 류달리 추억깊게 바라보며 어루쓰는 그 나무밑에는 그때 안해가 석근이 없애치웠다고 그렇게도 야단했던 공민증이 보관되여있었다. 비물이 흘러들세라 정성스레 다져놓은 부드러운 흙밥들에 지금도 자기의 손자취가 어려있는듯 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어루쓸었다. 그럴수록 그속에 보관한 공민증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하얀 미농지에 싸고 또 싸서 오지단지속에 정히 넣어둔 공민증… 김석근은 그것을 언제한번 잊어본적이 없었다. 비록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멀리 떨어져있어도 그것은 언제나 조국과 그를 한피줄로 이어주는 삶의 증표였다. 진정 그 공민증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된 도리를 다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것이 있어 힘과 지혜를 얻고 사선을 헤쳐온 석근인지라 그는 저절로 눈굽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후더워졌다. 지난날 공민증이 담고있는 하많은 의미를 새기며 시련의 고비고비를 넘어와서인가 아니면 간고한 적구투쟁의 시련속에서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참된 가치를 절감해서인가, 김석근은 조국의 공민된 자각과 본분을 한결 가슴깊이 느끼며 공민증을 덮고있는 부드러운 흙을 자꾸자꾸 매만졌다.

이제는 안해한테 공민증을 쥐여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바로 이러한 오늘을 기다리며 그리워했던 고향집이 더없이 소중하였다. 실로 그 얼마나 안기고싶던 고향집인가! 안해 모르게 귀중히 보관한 공민증이 있어서 더구나 잊지 못하며 가슴에 안고 산 고향집이였다. 죽음의 사선도 네가 있어 이겨냈고 시련의 고비도 너를 지켜 헤쳐오지 않았던가! 고향집, 그것은 자기 희생정신의 뿌리이기도 하였고 용감성과 슬기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두려울 때에도 그것이 있어 비관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그것이 있어 주저앉지 않았다. 한줌의 흙에도 공기에도 사랑하는 처자들의 숨결이 배여있는 정든 집이여, 진정 너는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으로 심장속에 안겨있지 않았던가! 김석근은 지금따라 별로 더 애틋하게 여겨지는 자기 집을 오래도록 정깊은 눈길로 쓰다듬어주었다. 그럴수록 자그마한 고향집에 비낀 조국의 전체가 감수되는것이였다.

뭇별들이 총총한 밤하늘과 더불어 뜨락에도 마루에도 고즈넉한 정

적이 깃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방안에서 굳잠에 들었을 안해며 아들애의 안정을 시사해주는듯 하였다. 그들의 잠을 깨울세라 석근이는 조심조심 손을 놀려 살구나무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조국을 배반했다고 그렇게도 질시하며 원망하던 안해, 바로 그의 앞에 천만마디의 말보다 더 미덥게 자기를 보증해줄 공민증을 꺼내여 안겨주고싶었다. 그 어려운 적구투쟁의 나날 어느 한순간도 잊어본적 없는 공민된 본분을 지켜싸워온 자기를 안해는 그 어진 눈에 행복의 눈물을 머금고 맞아주리라!

김석근은 손으로 땅을 파다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삽을 써야겠기에 그전에 자기가 연장을 두군 한 헛간앞으로 다가갔다. 한참 새벽잠에 들었을 가족을 놀래우지 않으려고 가만가만 걸어가서 찾아보았더니 손때묻은 자기네 삽은 없고 낯선 호미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자루가 긴 그 호미로 살구나무밑을 조심조심 팠다.

이윽고 김석근은 자그마한 오지단지속에서 하얀 미농지에 싸고 또 싼 안해와 자기의 공민증들을 꺼내여 들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것을 들고 토방앞으로 다가서는데 문득 부엌문이 열렸다.

《게 누구시우?》

뜻밖에도 귀에 선 웬 늙은이의 목소리였다. 김석근이 살구나무밑을 팔 때 이따금 잔돌이 부딪치는 달그락소리가 나군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본듯 한 그 로파한테로 다가갔다. 늙은이는 부엌안에서 반쯤 연 출입문밖으로 머리만 내밀고 지켜보았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은섭이 삼촌인데 로인은 누구십니까?》

《은섭이 삼촌이라니? 어쨌든 들어오시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어데 가고 로인님이 와계십니까?》

《나는 지난달에 함흥에서 온 피난민로친네우다. 이 부락 열세네 웃방에서 딸과 함께 곁방살이하다가 동네에서 자꾸 이 집이 비였다며 들라고 하길래 사흘전부터 산다우.》

로친이 또다시 방안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김석근은 굳이 사양하였다.

《이 집이 비였다구요? 식구들은 어데 갔기에 빈집이였습니까?》

로인은 후— 한숨을 내불었다.

《들은 소린데 글쎄 동네에서는 이 집이 반동네 집이라며 젊은 색시를 몰아주었다오. 리당이나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그래서는 안된다구 했지만 동네늙은이들은 이 집 색시가 나타나면 우물가에서도 피했다누만. 젊은 색시는 더는 견딜수 없어서 애기를 업고 나갔는데 어데 갔는지 누구도 모른다우.》

김석근은 더 들을수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대문밖으로 나와버렸다. 터벅터벅 힘겨웁게 걸어가는 그의 가슴은 형언할수없이 괴로왔다. 그의 눈앞에서는 자기를 원망하며 피눈물을 삼켰을 안해의 가긍한 모습이 사라질줄 몰랐다. 안해는 아마 동네사람들의 미움을 받아도 제집에서 농사나 지어먹으며 아들애를 키우려고 친정집에서 돌아왔겠건만 그 소박한 꿈마저 실현할수 없었다. 얼마나 괴로왔으면 정든 자기 집에서 떠났겠는가. 어제는 제집을 버리고 떠났지만 래일에는 타고장 사람들에게서까지 박대받을것 같은 안해였다. 하늘아래 이 땅이 아무리 넓다한들 과연 안해가 마음편히 살아갈 곳이 그 어데 있으랴.

김석근은 불쌍한 안해를 두고 훌쩍 떠날수 없었다. 공민증과 더불어 진짜 자기를 드러내여 한숨과 눈물속에 살아갈 안해의 가슴만이라도 덥혀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그는 이웃집 고상팔이네 집에 찾아가서 안해의 행처를 알아보고싶었다.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고상팔이네 방문앞으로 다가가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해방후에도 물고기장사질에 농사일을 게을리하던 그들부부더러 분여받은 땅을 아낄줄 아는 부지런한 농사군이 되도록 도와준 자기를 누구보다 인차 알아볼게라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였다. 당장 위정사지대를 소탕할 작전을 눈앞에 두고 《역적》으로 체포되여서도 안될뿐아니라 본래의 자기를 드러내도 큰 랑패를 볼수 있다는 자각에 누구도 만나서는 안될 몸이였다. 실로 그 어느 집인들 자기를 몰라볼 사람이 있으랴.

(여보, 이런 때엔 과연 어쩌면 좋소, 응? 여보!…)

김석근은 허청거리며 걸어가다가 고향마을 동구길가녁에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

저 멀리 매봉산꼭대기에 상현달이 떠올랐다. 드넓은 앞내벌에도 푸

르스름한 달빛이 흘러내렸다. 언제인가 군내무서장 김국성이 와서 일손을 도와준 분여포전들도 내다보이였다. 석근은 가지가지 사연이 깃든 그 포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잊을수도 버릴수도 없는 지난날의 생활이 회억되여 석근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우리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그로 하여금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배가로 불타오르게 하였다.

(여보, 나를 용서하오!)

개인의 불행이 가슴을 저며낼수록 석근의 심장속에서는 투쟁의 각오와 의지만 굳세여지는것이였다. 그는 동구길가녁에서 결연히 일어났다.

제 6 장. 영 생

1

성천강동뚝을 따라 함주읍에 들어선 김석근은 도랑옆에 자리잡은 철공소쪽으로 걸어갔다. 적들의 폭격에 자그마한 철공소는 형체없이 파괴되였으나 별들이 총총한 검푸른 하늘밑으로 내다보이는 공장굴뚝은 전승의 그날을 내다보며 반토굴안에서 농쟁기들을 벼리는 로동자들의 영용무쌍한 기상인양 꿋꿋이 서있었다. 김석근은 그 굴뚝밑으로 다니며 비밀쪽지를 주고받던 그때가 더듬어지는 속에서 철공소 땜쟁이 주동학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나타나지 않았을가싶어 곧바로 주동학이네 집으로 찾아갔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여서 대문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주인을 찾았으나 역시 주동학은 행처불명이였다. 김국성동지를 구출하려고 욱세네와 교전할 때 희생된것이 분명하였다.

장욱세, 그놈은 지금 어데 있는지? 영도에서 안병덕의 피스톤으로 침투하여 어데서인가 간첩임무를 수행하고있을 그놈을 내쳐둘수 없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욱세놈의 처가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처가집은 함주읍 시장곁에 있는 가게집인데 해방전에는 크게 포목상을 하던 집이였다. 대문앞에서 주인을 찾았더니 욱세놈의 후처 한씨가 나왔다.

《아주머니, 내가 군〈치안대〉대장 김석근입니다.》

《알고있어요. 우리 주인이 고원군에 나가기 전에 집에 한번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랬던가. 나는 주인을 만나야겠기에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아주머니는 그의 행처를 모릅니까?》

한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였다.

《어쨌든 좀 들어와요.》

김석근은 그의 뒤를 따라 웃방으로 들어갔다. 8월의 무더위로 하여 열어놓은 사이문쪽으로 아래방에서 자고있는 늙은 내외가 보이였다. 한씨는 슬그머니 사이문을 닫고 석근이앞에 마주앉았다.

《그런데 아주버니는 지금 어데서 오시는 길이나요?》

한씨는 석근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에는 대답하지 않고 김석근은 말하였다.

《나는 이 집 주인을 영도에서 만났댔소. 이 집 주인은 영도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고 들어왔는데 본부에 그 정형을 보고하지 않아서 찾는중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여기에 한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소? 거 참 이상한데?…》

김석근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장욱세가 지용수의 첩자들을 인솔하고 한교준의 별동대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한두번 들릴수 있었겠는데?…

《아주머니, 앞으로 이 집 주인이 찾아올수도 있소. 그러면 그에게 내가 왔다고 알려주오. 본부에서 그의 보고를 기다린다고 전해주오. 후에 다시한번 찾아오겠소.》

김석근이 작별인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사이문이 벌컥 열리며 로친이 들어왔다.

《이보게, 임자.》 로친은 서슬이 푸르뎅뎅하였다. 《앞으로 그런 걸음을 할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구. 욱세 그놈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했으니 그리 알라구.》

《어머니…》

석근이한테 잘못될것 같았던지 한씨는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로친은 아무것도 꺼릴게 없다는듯 막무가내였다.

《내 딸이 시집을 잘못 가서 그런 반동놈의 새끼를 만났지만 이제는 갈라졌다구, 갈라졌어!》

《음—》

김석근은 무어라 말을 하고싶었지만 묵묵히 밖으로 나왔다. 김석근은 그들이 내무서에 신고하면 차후작전에 혼란을 조성할수 있다는 우려로 다우쳐 걸었다.

신흥군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줄곧 욱세놈의 행처를 모색하였다.

그놈이 분명 한교준의 별동대에 가담했을거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갔지만 아직은 그의 별동대에 침투할수 없었다. 우선 신흥군 위정사 지대를 소멸할 작전을 성숙시켜야 했다.

어느덧 위정사의 망원인 《초불》과 다시 접선할 날이 도래하였다. 저녁무렵이였다. 김석근은 신흥군 절벽골에서 《초불》과 두번째로 만났다. 오늘의 접선을 일각이 삼추같이 기다려왔는데 《초불》은 또다시 3일후에 접선하자는것이였다. 그때에는 새벽 5시 제6호지점에 오라며 함주군 천의산 토기골 너럭바위위치를 알려주는것이였다.

(아니? 신흥군에 주둔한 위정사를 함주군 천의산에서 만나게 하다니?…)

적어도 백수십리나 상거한 곳인데?… 김석근은 하마트면 《천의산에?》하고 반문할번 하였다. 《북한》게릴라부대의 비밀활동에서 그런 질문은 여러가지 의혹을 자아내게 하므로 묻지 않는것이 철칙으로 되여있었다. 석근이는 묵묵히 들었지만 속으로는 위정사부대가 천의산에 옮겨앉았다는것을 눈치차렸다.

(음, 그래서 신흥군에서 얼씬하지 않았군.)

천의산에서

3일후였다. 김석근은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련락관》두병호와 함께 천의산 6호지점으로 갔다. 《초불》은 정각 새벽 5시에 나타났다. 그자에게 석근이는 변장한 두병호를 크레마대좌의 련락관이라고 소개하였다. 《초불》은 《련락관》의 환심을 사려고 무척 곰살궂게 굴었다.

《련락관님, 저는 석근지대장님으로부터 련락관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우정 아침식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너의 성의는 고맙다. 그러나 나는 위정사지대장과 아침을 나누겠다.》

두병호는 이렇게 말하고 어서 위정사한테 안내하라고 하였다. 《초불》은 위정사는 아직도 먼데 있다며 식사를 하고 가자는것이였다. 두병호는 석근이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묻는 눈길이였다.

《련락관님, 바쁜 걸음이지만 〈초불〉의 성의를 봐서 잠간 들렸다 갑시다.》

김석근이 제기하였다. 《초불》과 련결된 그 집을 알아두고싶었던 것이다.

《그럼 안내해.》

두병호가 《초불》한테 말하였다. 《초불》은 감지덕지해하였다.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의 어느 외딴집으로 안내하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초불》은 뜻밖에도 절간으로 찾아가는것이였다. 해방전에 김석근이 영생중학교 동무들과 같이 구경왔던 백운사였다.

(이놈이 절간까지 틀어쥐고있는가?)

김석근은 적들의 활동반경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에 속으로 저으기 놀랐다. 절간에서 늙은 관리원이 나와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어수룩해보이는 관리원령감은 석근이네를 절간옆에 있는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다. 방안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져있었다. 관리원령감은 별로 잘 차리지 못했지만 많이 들라고 하면서 《련락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고맙다. 령감은 이젠 물러가.》

두병호는 그의 눈길이 싫었던지 이렇게 호령하였다.

《예—》

령감은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다. 부엌으로 나가던 그는 다시 돌아서서 《련락관님, 많이 자십시오.》하며 두병호를 유심히 살펴보는것이였다. 그때에야 김석근은 정신이 펄쩍 들었다.

(응?—)

저놈이 한교준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하지만 김석근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관리원령감을 청했다.

《령감두 이리 오라구. 같이 들자구.》

《원, 무슨 말씀을…》

령감은 마치 자기의 정체가 로출되는것이 우려되는듯 황황히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김석근의 눈앞에는 두병호를 눈여겨보던 그의 얼굴이 사라질줄 몰랐다. 꼬리 긴 메밀눈에 비낀 령감의 눈빛은 백발의 턱수염에 쪼글쪼글한 주름발이 돋은 용모에 비해 너무나 날카롭지 않는가? 이발이 다 빠진 오무라미인데 목대는 왜 저리도 팽팽한가?… 더

듣어볼수록 한교준이 변장한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김석근은 속으로 흠칫 놀랐다. 해방전엔 정평군에서 면서기를 해먹은 한교준이, 해방후에는 함흥기관구 로동자로 잠입한 그자는 때때로 흥남비료공장 자재인수원으로 둔갑하면서 안병덕의 첩자로 준동했지. 내가 저놈의 망원으로 침투되여 활동한 그때에도 내무원들의 눈에서 빠진 교활한 놈이였다. 적강점시기에는 함주군 고양리 《치안대》대장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그 잔인성과 포악성으로 하여 정평군《치안대》대장으로 승진하여 온갖 만행을 다한 악질반동이였지. 김석근은 적 일시적강점시기 백운산 마영고개마루에서 내무원으로 가장한 고양리 《치안대》놈들을 일망타진하고 한교준을 만났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한교준을 총살해버리려다가 마영고개《내무원》사건이 바로 함흥지구 《C. I. C.》대장 안병덕의 각본과 지령에 의해 감행된 만행임을 알고 처단해버리지 못했던것이다. 그자는 역시 영도에서 수장된 안병덕의 특별임무를 받고 월남도주하지 않았다. 안병덕의 총애를 받으며 공화국북반부에 깊숙이 숨어있는 망책이며 별동대대장인것이다. 그렇다, 그놈은 서만억이란 가명으로 영천역에 잠입했다가 도주한 교준이였지만 생이발을 뽑고 틀이를 하군 하면서 변장한다는것을 김석근이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살인에 중독된 그 눈빛이며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 야수적인 젊은 체취로 보아 한교준이 틀림없다고 김석근은 인정하였다. 하다면?… 위정사지대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저놈이 어떻게?… 교준의 별동대와 위정사지대가 련합하여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것인가?… 어쨌든 그 한교준이가 저 령감이라면?… 김석근은 별스레 자꾸 두병호를 눈여겨보던 그놈이 떠올랐다. 혹시 저놈이 두병호를 알아본것이 아닌가? 함흥기관구며 흥남비료공장일대를 돌아다닐 때 내무원 두병호를 본적이 있었다면?… 김석근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만일 두병호의 정체가 드러나면?… 위정사의 지대를 일망타진할 대담한 작전은 오히려 두병호자신의 죽음으로 끝날수 있지 않는가. 김석근은 령감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는 《초불》이 부어준 술잔을 들었다. 단숨에 마셔버렸다.

《카!— 제법 오르는데—》

《초불》이 그의 잔에 술을 부으며 귀맛을 돋구었다.

《이래뵈여두 찹쌀술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래!—》 김석근은 반색을 지으며 또 잔을 비웠다. 《그런데 이봐, 잔이 너무 작구만. 응?》

그는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령감, 고뿌를 들여와! 고뿌를…》

부엌에서 《예.》하는데 《초불》이 일어나려고 하였다.

《넌 앉아있어.》

김석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령감이 고뿌를 들고 들어왔다. 그에게 석근이 말하였다.

《한잔 부어.》

령감은 석근의 고뿌에 술을 부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두병호를 훔쳐보았다.

《이놈의 령감태기 왜 자꾸 쏘아보아.》

그만 두병호가 화를 내며 령감의 따귀를 갈겼다. 순간 두병호는 흠칫 놀랐다. 령감의 볼이 이상하게 탄력있었다. 늙은이 볼같지 않았다.

(응?) 두병호는 속으로 다시한번 놀랐다. (아니, 이놈이?…)

전쟁전에 함주천 다리목에서 만났던 흥남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이 아닌가?…

기억도 새로운 그날이였다. 내무원 두병호는 바로 그날에 소위로 승급되였다.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과에서 제기된 문제때문에 함흥으로 들어가려고 함주천 다리목을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뛰여왔다. 얼굴이 갱핏하게 생긴 그는 자기가 흥남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이라며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자기가 함주읍 철공소에서 전동기를 한대 구했는데 실어갈수 없다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달라는것이였다. 해방후 비료공장을 살리려고 전국이 지원하던 때였다. 두병호는 외면할수 없었다. 그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주려고 함주천 다리목에 2시간동안 서있었다. 자동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반나절이 지나갔다. 두병호는 더 지체할수 없었다. 그는 지나가는 달구지를 세웠다. 물고기장사군의 달구지였다. 다행히도 흥남포구로 물고기를 받으러 가는 달구지였다. 장사군 달구지주인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실어주겠다는것이였다. 전동기 1대에 3원을 물라고 하였다. 당시 3원이면 흰쌀 1말을 사고도 남았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내라고 하는 바람에 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이 노발대발하였다. 그는 나라사

정도 몰라보는 돈벌레라며 장사군더러 썩 물러가라고 소리질렀다. 하지만 두병호는 운임이 비싸다고 달구지를 그냥 보낼수 없었다. 그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3원을 물고 전동기를 실어보냈던것이다. …

두병호는 그때 보았던 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이제는 기억이 삭막하지만 꼬리긴 모밀눈이며 얄팍한 입술을 보아 저 령감이 그때 도와주었던 비료공장 자재인수원이 틀림없지 않는가. 이발까지 뽑아버리면서 변장한 놈이군!

두병호는 따귀를 얻어맞고 물러가는 령감을 쏘아보며 생각하였다.

(저놈이 나를 알아보았다면?…) 위정사부대를 소탕할 석근이의 대담한 작전은?… (아니, 석근동무의 운명은?…)

두병호는 자기보다도 석근이가 더 걱정스러웠다. 그는 변장한 비료공장 옛 인수원놈부터 처단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등뒤 문이 열리며 위정사의 참모장이 들어왔다.

참모장은 련락관을 모셔오라는 위정사의 령을 받고 내려왔다는것이였다.

석근이네는 참모장을 따라 천의산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넘고 또 넘어 어느 한 릉선에 올라서니 자그마한 숯막곁에 잇닿아 있는 숯가마가 나타났다. 그앞에서 한 서른살 되나마나한 장정이 참나무를 패고있었다. 그는 석근이 일행을 얼핏 훔쳐보고는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곳을 지나 석근이네가 찾아간 위정사는 천연동굴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숯불화로곁에서 위정사와 마주앉은 《련락관》 두병호는 책임추궁부터 시작하였다. 어째서 제 마음대로 근거지를 옮겼는가? 영도사령부에는 왜 보고하지 않았는가? 《련락관》은 위정사를 군법에 넘기겠다고 을러메였다. 군법에 걸리면 위정사는 지대장자리에서 철직된다.

얼굴이 백랍같이 창백해진 위정사는 루루이 변명하며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련락관은 그에게 자기의 과오를 전투마당에서 씻으라고 하였다. 그는 이번에 크레마대좌의 작전에 따라 《북한》게릴라부대가 풍산해방전투를 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북한》에 침투한 모든 게릴라부대가 풍산군에 집결하여 최일남사령관의 지휘밑에 그 전투를 하게 되였으니 빨리 부대를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위정사는 아무런 변명없이 받아물었다.

물론 이것은 석근이와 두병호가 꾸며낸 작전이였다. 천의산수림속에 숨어있는 위정사부대를 한곳에 모이게 하고 내무원들의 매복에 걸리게 하자는 계획이였다.
그런데 위정사는 부대를 여러 방면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내무원들의 기습을 받을수 있다며 중대별로 이동시키되 그것도 동시에 떠나보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련락관은 시간이 급박하다면서 그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론의하였다. 결국 2개 종대를 편성하고 행군하기로 하였다. 김석근이 인솔하는 종대는 이틀후에 떠나기로 하고 련락관이 책임지고 위정사가 인솔하는 종대는 사흘후에 출동하기로 하였다.
얼마 안 있어 음식상이 차려졌다. 그때 뜻밖에도 틀이까지 물어 한결 젊어보이는 한교준이 나타났다. 백운사에서 변장하고있은 바로 그 《령감》이였다. 하지만 석근이도 두병호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해방후 안병덕의 첩자로서 김석근의 망책이였으며 적강점시기 《치안대》대장이였던 교준이만 알아보는체 하면서 김석근이 반색하였다. 그들은 서로 《반갑게》상봉하였다.
《그런데 교준이.》 김석근이 물었다. 《지금 장욱세는 어데 있나?》
《욱세? 나도 모르네.》
《모르다니? 욱세가 영도에서 안병덕의 지령을 받고 자네한테 찾아왔겠는데… 그때 지용수 망원들만아니라 나의 망원들까지 다 인솔하구 왔겠지?》
《아, 그 소린가? 그런데 자네 망원들은 못 데려왔더구만. 천불산 범바위골에 두번씩이나 갔지만 종내 접선하지 못했네.》
그럴수밖에 없었다. 원체 석근이한테는 공화국북반부에 박아놓은 첩자들이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김석근은 시치미를 뚝 따고 말하였다.
《내가 접선암호까지 죄다 알려주었는데, 욱세가 혹시 접선암호를 잊은게 아닌가?》
한교준은 그제서야 속을 주었다.
《이제 욱세를 만나면 알거네.》
《그래 그가 지금 어데 있나?》
《앞으로 만나게 될거네.》
한교준은 석근이더러 동굴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따로 둘이서 만

나자는것이였다. 그들은 동굴밖으로 나갔다.
《석근이, 자넨 저 련락관을 언제부터 아나?》
한교준이 문득 물었다.
《왜?》
《글쎄, 언제부터 아는가 말이야?》
분명 두병호의 정체를 알고있는 교준이였다. 만일 이자의 입에서 두병호가 내무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정사가 지금처럼 호락호락 말을 듣지 않을것이다. 영도사령부에 알아보려고 시간을 끌것이다. 석근이네 작전은 큰 암초에 부딪치게 되지 않는가. 위정사의 귀에 닿기 전에 한교준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안되였다. 마침 김석근은 그럴듯한 묘안이 떠올랐다.
《부산 영도에서부터 알게 되였네. 안병덕의 사건때 만났는데 왜 그러나?》
《안병덕의 사건이라니? 그건 무슨 사건이요?》
안병덕의 특별지령을 기다리고있는 한교준은 석근이 예견한대로 반응하였다.
《참, 자넨 안병덕이 처단된줄 모르겠구만.》
《뭐라구? 안병덕이 처단되다니? 우리한테?》
김석근은 머리만 끄덕이였다.
《아니, 그게 사실인가? 어째서 처단되였소, 응? 어째서?》
《그건 저 련락관보구 물어보우, 련락관이 체포했으니까…》
《련락관이? 그래 무슨 일로 체포했다는거요?》
김석근은 마지못해 입을 여는척 하였다. 부산 영도에서 《한국》게릴라부대를 조직할 때 안병덕은 최일남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련락관이 들춰냈다고 하였다.
《련락관은 한철민의 사촌동생일뿐아니라 최일남사령관의 처남이네. 그러니 저 련락관이 자기 매부를 죽이려는 안병덕을 용서할리 없지 않나. 아마 안병덕의 총애를 받는 사람씨종자까지 없애치우려고 할거네. 자네두 조심하라구.》
《나도? 나는 왜?》
《여보, 눈감구 아웅하지 마오. 자네가 안병덕의 특별지령을 받고 잠복해있다는걸 내가 모르는줄 아오? 그래 백운사에서 자네가 〈령

감〉으로 변장하고 나타난것도 내가 몰라본줄 아오?》
《아니, 자네가 그걸?…》
《사람두… 그렇게 우둔하게 노니 따귀까지 얻어맞지. 그래 련락관을 왜 그렇게 쏘아보았소?》
《아 아니, 그저…》
한교준은 련락관이 내무원같다는 소리를 입밖에도 내지 못했다. 그 소리가 석근이를 통해 련락관의 귀에 들어가면 무사치 못할게라고 생각하는것이 틀림없었다.
《어쨌든 조심하라구. 련락관은 용서없는 사람이야.》
김석근은 교준이더러 동굴속에 들어가 점심이나 먹자고 하였다. 그러나 한교준은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김석근은 수림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후― 안도의 숨을 내불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적마다 저도 모르게 내부는 긴숨이였다. 하지만 그는 마음놓을수 없었다. 한교준이 분명 두병호의 정체를 눈치차린것이 틀림없지 않는가. 오늘은 비록 림기응변으로 위험한 순간을 간신히 넘겼지만 저놈이 일단 의심을 품은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바이 가늠이 가지 않았다. 다만 저자의 감시망에 든 자신을 의식하며 앞으로 자기네 투쟁이 한결 더 어려워질수 있다는 위구를 금할수 없었다. 그럴수록 적구투쟁의 신들메를 더욱 단단히 조이리라 마음먹으며 김석근은 위정사의 동굴속으로 들어갔다.
위정사는 어느새 무전수를 불러들였다. 무전수는 련락관 두병호의 앞에서 최일남사령부를 찾고있었다. 최일남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행동명령을 받으려는 모양이였다. 김석근은 은연중 긴장해졌다. 무전수가 없는 최일남사령부에서 무전을 받을리가 만무한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해방전에 일본륙군사관학교졸업생으로서 김석원련대에서 부련대장까지 해먹은 위정사는 다른 지대장들보다 의심이 많고 매우 로회한 놈이였다. 자칫하면 놀랄수 있는 위정사에게 최일남사령부에 무전수가 없다거나 무전기가 파손되였다고 하면 영도사령부에 알아보려고 할것이 아닌가. 김석근은 은근히 불안한 마음으로 무전기를 지켜보는데 마침 최일남사령부에서 답전이 왔다, 속히 풍산으로 진출하라고… 그것이 두병호가 알려준 함주군 내무서에서 날리는 무전일것이라고 짐작하며 김석근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2

풍산으로 돌아온 김석근

위정사부대는 두차례 결치는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일망타진되였다. 김석근은 풍산에서 뜨려고 하는 최일남부대를 천의산에 진출시키려고 하였다. 두병호더러 내무원들의 매복전을 조직하게 하고 김석근은 풍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최일남에게 위정사부대가 《든든히 자리잡았다.》고 보고하였다. 최일남은 매우 만족해하며 《북한》사령부의 근거지를 천의산에 옮기자는 지용수의 제기를 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인차 이동할수 없었다.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렵게 제기되여서였다. 지난달에 락하할 때 지참했던 쌀은 물론 전투비상용건빵마저 거덜이 나고있었다. 영도본부에 련락하자 해도 무전기를 수리하지 못했다. 참모성원 한놈을 영도에 띄웠지만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였다. 주민부락에 식량략취조로 나간 졸병들은 거의나 빈손에 돌아오는가 하면 대다수의 인원들은 내무원들의 손에 걸려 아주 잡히고마는것이였다. 그 바람에 제2호지점에 옮겨앉았다. 하루에 건빵 두세쪼각으로 연명해나가는 사령부의 참모성원들은 굴속에 들어박혀 반도체라지오에만 귀를 강구고있었다. 전선형편이 저들에게 호전되기를 바랐지만 미군이 계속 수세에 빠진다는 일본방송의 객관보도에 모두가 초상집상제의 몰골로 앉아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사령관님, 천의산 위정사부대에는 무전기도 있고 식량도 넉넉합니다. 영도파견련락관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빨리 천의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석근이 강경히 제기하였다. 곤경에 빠진 최일남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드디여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는 산하부대들을 인솔하고 풍산군에서 떠났다. 마땅히 부전군이나 신흥군쪽으로 빠져나와야 했지만 내

무원들을 기만하려고 그 반대쪽인 북쪽갑산방면으로 진출했다가 허천군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였다.

행군로정은 멀었다. 1951년 10월초 어느날이였다. 심산의 가을해가 저물어가는무렵에 신덕수뒤산 깊은 수림속에 들어선 최일남은 문득 행군을 멈추고 휴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릉선에 올라서서 쌍안경을 들어 앞을 살펴보았다. 골짜기 앞내벌을 살살이 훑는 그의 시야에 비탈밭에서 금시 가을한 강냉이이삭들을 듬뿍 싣고 멀리 신덕수부락쪽으로 소를 몰아가는 한채의 발구가 비쳐들었다. 릉선아래 그리 멀지 않은 우차길에 있었다. 그는 입가에 쾌재를 부르는 무언의 미소를 띄우다가 곁에 서있는 병졸을 불렀다.

《련락병, 저기 소발구를 몰아가는 령감을 잡아와!》

이마가 좁고 군턱이 진 자그마한 련락병은 짧은 대답소리를 지르고는 여우처럼 날래게 골짜기아래로 내리달렸다.

얼마후 카빙총을 멘 련락병이 별로 풍채좋은 늙은이를 끌고왔다. 최일남은 그에게 먼저 여기가 어딘가 하는것부터 확인하고나서 재차 물었다.

《그래 이 산골마을에도 내무원이 있나?》

인민군대 련대장복장에 권총을 차고도 한쪽손에 등산지팽이를 짚고 서있는 최일남을 발구군로인은 유심히 쳐다보았다. 위엄을 부려 늘 등산지팽이를 짚고다니는 최일남은 로인의 속통을 투시하는듯 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로인은 그의 앞에서 공손히 굴었다.

《이런 산골에 무슨 내무원이 있겠습니까.》

《저기 자리잡은 목재소에도 없나?》

《내무원은 군에나 있지요.》

《알만 해.》 최일남은 자기의 예측과 들어맞는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로인, 로인의 눈엔 우리가 뭘루 보이나?》

발구군로인은 주저없이 선뜻 대답하였다.

《뭐인 뭐이겠수, 인민군대루 보이지.》

《거짓말. 이래두 인민군대라 하겠어?》

최일남은 등산지팽이로 꺼먼 가죽잠바를 입고 서있는 김석근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래도 로인은 태연하였다.

《왜요, 인민군대는 그런 옷을 못 입습니까?》

《그럼 이건?…》
최일남은 련락병이 멘 카빙총을 가리켰다.
《어떤 군대는 그런 총도 메고다닙디다.》
《이것 봐라? 령감은 여간 음흉하지 않다? 여기서 놓아주면 즉시 우리를 신고할 령감태기가 제법 연극을 잘 노는데, 응?》
순간 그의 허리춤에서 단도가 나타나더니 눈 깜박할사이에 발구군 로인의 심장에 쿡 박혔다. 로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서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최일남은 참모장에게 명령하였다.
《길가에 서있는 저 황소를 빨리 잡소. 강냉이는 각 중대장들에게 나눠주오.》
그리고 사령부천막안으로 들어가버리는것이였다.
김석근은 너무나 돌발적인 살인행위에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자기의 심장마저 떡 멈춰선것처럼 우뚝 굳어져있는 그의 눈앞에 일시적후퇴시기 원산에서 숱한 애국자들을 살해한 《양호단》 패거리들의 《공적》을 자랑하던 최일남의 독기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실로 그자신의 말처럼 극도로 악랄한 살인귀였다.
(천추에 용서 못할 살인마!)
김석근은 속으로 이렇게 씹으며 두주먹을 꽉 부르쥐였다.
바로 그날 밤, 검은구름이 덮인 깊은 밤이였다. 소를 잡아 한껏 배를 채운 최일남악당은 수림속에서 포식하며 휴식중에 있는 전체 부대에 비상소집구령을 떨구고 련이어 전투명령을 내렸다. 불의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덕수목재소습격전투를 벌렸던것이다.
적수공권의 로동자들밖에 없을 목재소를 습격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당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김석근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덕수목재소에서 내무원들이 대응사격을 하였다. 그러나 내무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것 같았다. 자칫하면 내무원들도 잘못될수 있지 않는가.
《인범이, 나를 따라오라구.》
김석근은 어둠을 리용하여 최일남사령부의 뒤쪽경사면으로 뛰여갔다. 오인범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최일남으로부터 불과 50메터 되나마나한 거리에 있는 바위뒤에 숨었다.

《인범이, 최일남을 쏘라구. 최일남을!》

뒤미처 총탄들이 날아갔다. 갑자기 배후기습을 당한 최일남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빨리 부대를 철수시키라고 웨치던 그는 석근이네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발구군로인의 원쑤를 갚았다. 인민의 원쑤를 처단하였다. 그래도 성차지 않아 석근이네는 더욱 맹렬히 사격하였다. 원한서린 복수의 총탄들이 우박치는 가운데 적들은 최일남의 시체를 버리고 도망쳤다. 김석근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혼잡을 이룬 적들속으로 들어갔다.

3

검덕산계곡에서

적들은 허천군에 도망쳐와서야 대오를 다시 수습하였다. 최일남이 대신 《북한》게릴라부대 사령관으로 지용수가 되였다. 약삭바른 지용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함주군 천의산진출을 일시 포기하고 제가 직접 인솔하는 김석근지대 잔당들을 허천군 검덕산수림속에 숨어있게 하였다. 로출된 저들의 형체를 깊숙이 감추자는것이였다.

허천군 남대천상류인 검덕산계곡에 자리잡은 지용수는 우선 허천군지대장 위의섭을 만나려고 하였다. 그는 김석근을 호출하였다.

사령부곁에 지대부천막을 친 김석근이 인차 나타났다.

《지대장, 련락병을 파견하여 위의섭지대장을 찾아오라구.》

허천군주둔 위의섭지대는 검덕산과 만탑산일대를 장악하고 장차 미군이 북상할 때 인민군대의 퇴각로를 차단할 임무를 받고있었다. 지용수는 그의 지대에서 무전수와 만신창이 된 김석근지대에 인원을 보충해주려고 계획하였다.

《3지대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근이 물었다.

《황곡리 뱀바위굴에 파견해.》

황곡리라면 검덕산에서 100여리 상거한 만탑산아래에 있는 부락이였다.
《련락병과 함께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좋두룩 해.》
지용수앞에서 물러선 김석근은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
날은 어둑어둑해졌다. 오인범이와 함께 한 30리 내려온 김석근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굴뚝에서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르는 동기와집이였다. 김석근은 주인을 찾았다. 60살 되나마나한 늙은이가 나왔다.
《아바이, 우리는 읍으로 나가는 길손들인데 날도 저물고 해서 하루밤 쉬여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로인은 석근이일행을 유심히 훑어보다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마음같아서는 하루밤이 아니라 열밤도 재워드렸으면 좋겠건만 요즘 내무원들의 숙박검열이 심해서…》
《내무원들이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그럼요. 어제 저녁에도 왔댔수다.》
《그렇습니까?》
로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여기 심심산곡에도 내무원들의 눈길이 미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미 두병호에게 《북한》게릴라부대 각 지대들의 락하지역을 알려주었으니 이곳 내무원들도 선손을 쓸수 있다고 김석근은 생각하였다.
《아바이, 혹시 이곳에 무슨 적정이 생긴게 아닙니까?》
《그럼 손님들은 황곡리사건을 모르우?》
《황곡리요?》 석근이네가 찾아가는 마을이였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참, 온 허천군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걸 모르다니? 손님들은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우?》
《우린 풍산사람들입니다.》
《풍산?…》 로인은 별스레 놀라와하였다.
《그래 거긴 조용하우?》
《예, 그런데 황곡리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인은 이곳 만탑산에 숱한 적들이 락하했는데 그들이 황곡리에 쳐들어가다가 매복한 내무원들한테 무리죽음을 내고 멀리 다른 군으로 도망쳤다는것이였다.

《다른 군이라니? 어느 군으로 도망쳤습니까?》

《소문엔 덕만령을 넘어 길주, 명천쪽으로 올라갔다누만.》

《멀리도 달아났구만.》

김석근이 다른 집에 들려 확인해보려고 로인앞에서 돌아서는데 문득 웃방문이 벌컥 열렸다. 색안경을 낀 웬 사나이가 석근이앞으로 다가왔다.

(응? 이게 위의섭이 아닌가!)

김석근이 내무원복장을 한 위의섭지대장을 알아볼 때 로인이 입을 열었다.

《조카, 이 사람이 풍산에서 나왔다누만.》

《다 들었소. 그래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는 사람이 아니겠소, 응? 석근이!》

해방전에 허천군경찰서에서 악질순사로 악명을 떨친 위의섭은 석근이를 눈아래하급장교처럼 대하면서 색안경을 벗었다.

《이거 지대장님이 어떻게?…》

김석근은 짐짓 탄성을 질렀다.

《어쨌든 들어가자구.》

정주에 들어선 위의섭은 부엌에서 동자질하는 로파에게 일렀다.

《외삼촌어머니, 귀한 손님들이 왔으니 한상 잘 차리오. 참, 석근이, 알고지내라구.》

위의섭은 뒤따라서는 로인더러 자기 외삼촌이라고 소개하였다. 원래는 멀리 중평리에서 사는것을 자기가 이사시켰다고 하였다.

《우리 일을 위해서 내무원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집 주인들은 없애치웠네. 광천군에 이사간걸루 하구.》

김석근은 그제서야 눈치차렸다, 방금전에 마당에서 한 외삼촌의 말은 위의섭지대가 멀리 다른데로 이동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였다는것을… 하다면 황곡리사건도?…

《자ㅡ 앉으라구, 어서!》

그들은 뜨뜻한 구들에 마주앉았다.

《석근이, 석근인 풍산지대장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위지대장님을 찾아 황곡리에 가는 길이였습니다.》
김석근은 지용수가 《북한》게릴라부대 사령관이 된 사연을 말하였다. 그는 지금 검덕산계곡에 자리잡은 지용수의 명령으로 위의섭을 데리러 왔다고 동을 달았다.
《사령관이 나를 찾는다? 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삼촌이 말한것이 사실입니까? 황곡리사건 말입니다?》
위의섭은 골살을 찌프리고 후— 한숨을 내불었다.
《우리도 첫전투에서 패했어. 내무원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진격로에 매복했는지 정말 수수께끼네.》
《지금 대원들은 어데 있습니까?》
《여기 이 근방에 분숙하고있지만 허천군에선 안되겠어. 우리가 로출된데다가 내무원들의 눈총이 지내 예리하거던. 그래 우리도 풍산군에 들어가려고 예까지 올라왔는데… 그쪽도 여기와 같구만.》
김석근은 비로소 위의섭이 어째서 만탑산본거지를 버리고 검덕산골짜기에 옮겨앉았는가를 알았다.
술상이 들어왔다.
《카— 이젠 어디로 간다?》
위의섭이 하는 걱정이였다.
《지용수사령관은 장차 신흥군 아니면 함주군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위지대장님도 신흥군쪽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신흥군에? 참, 그쪽은 어떻나?》
《신흥군 위정사지대장님은 벌써 여러 마을을 타고앉았습니다.》
《우리 형님이! 역시 일본륙군사관학교졸업생이 다르구만! 하긴 일정시기 함흥 김석원 74련대 부련대장까지 했으니까 우리와 같을수야 없지! 자, 들자구.》
위의섭은 득의만면해서 술잔을 비웠다.
《나도 그쪽으로 뻗겠네. 거기서 형님과 같이 싸워야지!》
《사령관님도 동의할겝니다.》
《동의구 뭐구 있나. 내가 결심하면 되는거지.》

이튿날 아침 위의섭은 비상소집을 일으켜 숲속에 숨어있는 지대원들을 전부 집합시켰다.
좁다란 골짜기에 200여놈 모인 앞에서 위의섭은 일장 기염을 토했다.
《제군들, 사기를 내시오. 신흥군지대장 우리 형님은 벌써 신흥군을 절반 찾았소. 해방시켰단 말이요.》
김석근은 코웃음을 쳤다. 위의섭이 그렇듯 믿고있는 위정사지대는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괴멸되고말았던것이다.
위의섭은 한결 목청을 돋구어 연설하였다.
《우리도 그쪽으로 진출하여 우리 형님과 련합해서 싸울 결심이요. 제군들은 나의 의도를 받들구 곤난극복용맹병이 되길 바라오. 이제 신흥군에 진출하면 제군들에게 과분한 대우와 함께 계집들도 보장해주겠소. 그렇소, 해방지역에서는 제군들의 자유요! 자유세계 만세!》
몇몇 악질분자들이 짜락짜락 박수를 쳤다.
《제군들, 이제부터 강행전진하여 우선 검덕산계곡에 와있는 사령부부터 찾아가겠소.》
위의섭은 한번 군기침을 깇고나서 구령쳤다.
《지대 기척!— 대한민국 군인은 멸공에 살고 멸공에 죽어야 한다!》
모두가 따라외웠다.
《대한민국 군인은 멸공에 살고 멸공에 죽어야 한다!》
《지대 출발!》
뱀꼬리같이 길다란 행렬이 검덕산골짜기에서 나와 사령부쪽으로 진출하였다.
김석근은 자기의 의도대로 이동하는 적들을 따라가며 차후작전을 모색하였다.
그날 정오무렵이였다. 사령부에 도착한 김석근은 위의섭과 함께 사령부천막안에서 지용수와 마주앉았다.
《위지대장, 우리가 풍산군에서 사령부 작전참모 한우를 허천군지대에 파견했는데 그를 만났소?》
지용수의 물음에 위의섭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마 내무원들한테 잘못되였을겝니다. 허천군내무원들의 감시가 여간 아닙니다.》
《그래 허천군지대실정은 어떻소?》
위의섭은 황곡리사건부터 보고하였다.
허천군지대 역시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녹아났다는 비보에 지용수는 한동안 침통한 기색으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사령관님, 우리 지대는 신흥군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위의섭이 하는 말이였다. 지용수는 침울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령부가 그쪽으로 진출할 예정인데 허천군지대까지 옮겨앉으면 이쪽은 누가 맡겠나?》
《여기는 비워둡시다.》
《비우다니? 허천군저지선작전은 미군의 전략이요. 〈유엔군〉사령부의 전략이란 말이요!》
《그럼 사령부가 맡소!》
《뭐라구?》
지용수는 버럭 화를 내며 무릎을 쳤다. 위의섭이도 눈살이 꼿꼿해져서 마주 고함쳤다.
《우린 못 있겠소! 풍산에서처럼 우리도 로출됐단 말이요!》
《지대장! 군인의 책무 5조를 잊었는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를 상기시켰지만 위의섭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다.
《어쨌든 우린 뜨겠소!》
의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위지대장님.》 김석근이 입을 열었다. 《좀 자중하시오. 방도가 있습니다.》
《방도가?》
위의섭이 석근이를 쳐다보았다. 김석근은 지용수에게 말하였다.
《사령관님, 허천군지대도 로출된 이상 당분간 비워두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허천군저지선작전은 미군이 북상할 때 형성하는 작전이므로 앞으로 미군이 진격할 때 돌아와도 늦지 않을것입니다. 그때면 허천군지대도 대오를 보충하고 전투경험까지 얻을게 아닙니까.》
위의섭이 성수가 나서 그의 말을 받았다.

《그렇소. 우리가 신흥군지대와 련합해서 싸우면 실전경험도 쌓을게고 유생력량도 강해질게요. 그때엔 내무원같은건 아무것도 아니요. 로출되여도 당당히 싸워이길수 있단 말이요!》

지용수는 전같이 우기지 않았다. 그는 무슨 생각을 굴리는지 잠자코 있었다. 그를 대신해서 김석근이 말하였다.

《위지대장님, 신흥군지대와 합세하는 조건이라면 위지대장님네 무전수를 사령부에 넘기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흥군지대에는 무전수가 있지만 사령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의섭은 한동안 말없이 서있다가 퉁명스레 대답하였다.

《사령부란것이 무전수도 없이… 우리 애를 쓰오.》

위의섭은 천막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가만.》 지용수가 그를 멈춰세웠다. 《내가 영도사령부에 통고하겠으니 무전수를 빨리 보내오. 대원들은 사령부주변에 자리잡게 하고 기다리오.》

얼마후 무전수가 나타났다.

지용수는 무전기를 메고온 무전수에게 영도본부에 전파를 날리게 하였다. 위의섭지대를 일시 신흥군지대와 련합작전을 벌리도록 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수송기로 식량과 탄약을 보내달라는 무전을 치게 하였다.

며칠후였다. 영도본부에서 답전이 왔다. 위의섭지대문제는 지용수사령관의 결심대로 하라는 지령과 함께 식량과 탄약수송날자를 알려주었다.

예정된 바로 그날 밤이였다. 자정이 되는무렵부터 석근이와 위의섭지대 대원들이 각기 자기 지점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식량수송기가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여 검덕산상공에서 둔중한 비행기소리가 들려왔다. 배가죽이 말라붙은 대원들이 환성을 지르며 상공을 쳐다보는 속에서 수송기는 검덕산일대를 두번 순회하더니 연줄연줄 락하물자들을 투하하였다. 목을 빼들고 쳐다보는 대원들앞으로 탄약과 식량궤짝들이 나무가지들을 꺾으며 내려앉았다. 대원들은 이리떼처럼 달라붙어 식량궤짝들을 부신다, 굴린다 하며 야단법석을 쳤다. 어떤 놈들은 서로 끄당기다가 주먹찜질을 하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총부리까지 내대며 뺏으려고 발광하였다. 실로 가관이였다. 먹이를 놓고 으

르렁거리는 개들인들 그렇듯 사나우랴.

저쪽릉선에서는 위의섭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혼잡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쪽릉선의 김석근은 골살을 찌프리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짐승보다 못한 개자식들! 저런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어째보려고 하다니? 내 네놈들을 용서치 않으리!)

김석근은 두주먹을 부르쥐고 지대부천막쪽으로 내려갔다.

투 항

검덕산계곡에서 부랴부랴 자리를 뜬 지용수는 위의섭지대까지 통솔하며 덕성군 대덕산수림속에서 겨울을 보내고있었다. 로출될수 있는 저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오래동안 숨어있었다.

1952년 1월 중순이였다. 그만하면 내무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을것이라고 타산한 지용수는 드디여 출동명령을 내렸다. 위의섭지대는 신흥군쪽으로 진출시키고 자기가 직접 통솔하는 김석근지대는 사령부와 함께 단천지구로 행군하게 하였다.

그는 단천군 정봉문의 지대와 련합하여 단천군내무서를 기습할 계획이였다. 흥남앞바다에 들어와있는 미군전함을 단천앞바다에 접근시켜 함포사격을 가하도록 요청하리라 마음먹었다. 전함의 지원까지 받게 되면 단천읍을 타고앉을 결심을 품고 그는 대덕산에서 떠났다.

지용수부대가 덕성군에서 나와 단천군 관암산골짜기에 이른것은 다음날 새벽이였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오는무렵에 단천군지대가 주둔하고있을 괴벽골에 들어서는데 뜻밖에도 석근이네 지대가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렸다. 물론 석근이도 예견하지 못한 매복전이였다. 사면팔방에서 쏘아대는 내무원들의 화력이 어찌나 셌던지 머리를 쳐들수 없었다. 석근이네는 독안에 든 쥐가 되였다. 바빠맞은 지용수는 계곡의 너럭바위밑에 숨어서 석근이더러 반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김석근은 장마철에 패인 구뎅이안에서 각기 살구멍을 찾아 여기저기 숨어있는 졸병들을 향해 돌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어느 한놈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용수가 있는 너럭바위밑으로 기여갔다.

《사령관님, 우리는 포위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므로 우리는 일시 투항했다가 케를 보아야 합니다.》

김석근의 말에 옆에 있는 참모장이 권총을 빼들었다.

《뭐라구? 투항하자구?》

석근이도 마주 권총을 내대였다.

《가만!》

지용수가 벽력같이 소리쳤다. 이때 내무원들의 집중사격이 가해졌다. 너럭바위주변에 내무원들의 탄알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속에서 참모장이 즉사하였다.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둥지를 터쳐놓은 개미떼처럼 사방으로 도망치는것이였다.

《지대장!》 지용수사령관이 석근이를 불렀다. 《투항신호를 하라구, 빨리!》 하고는 제가 먼저 흰 수건을 쳐들었다. 내무원들은 사격을 중지하였다. 그 틈을 타서 빠져나가려고 작정한 지용수는 무전수를 달고 관암산쪽으로 내뛰였다. 전 부대를 희생시켜서라도 제 목숨만은 건지려고 투항한 지용수인지라 그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언 땅에 미끄러지며 마구 릉선에 오르는데 소나무수림속에서 기관단총을 겨눈 내무원이 불쑥 나타났다.

《손들엇!》

지용수는 와뜰 놀라며 우뚝 멈춰섰다. 눈앞에 내댄 기관단총의 총구가 보이는 순간 그는 두손을 번쩍 쳐들었다. 《무공훈장》과 《과분한 출세》를 탐내여 군내무서를 기습하고 단천읍을 《해방》하려던 미제의 고용병인 《북한》게릴라부대 사령관도 영용무쌍한 내무원들의 총구앞에서 포로병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또다시 천의산으로

불과 20여명밖에 안되는 내무원들이 근 200명 되는 《북한》게릴라포로병들을 호송하고있었다.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포로병대렬은 새끼줄처럼 길었다.

석근이도 인범이도 포로병대렬에 끼여있었다. 그들은 포로병들을 호송하는 내무원들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 김석근은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신흥군쪽으로 진출한 위의섭지대가 천의산의 한교준과

접선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 별동대놈들은 나의 정체를 알게 되지 않는가. 련락관이 왔다는것이며 위정사부대를 풍산군에 진출시킨 일들이 죄다 드러날것이다. 이제는 더는 적구활동을 할수 없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살아있는 다른 적들과 더불어 또다시 천의산의 한교준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아니, 적들을 두고 주저앉다니?… 김석근은 포로병대렬에서 탈출할 기회만 엿보았다.

《인범이, 이제부턴 수용소생활을 하겠는데 도망치지 말구 기다리라구. 내가 꼭 찾아오겠소.》

포로병대렬의 중간에서 호송되여가면서 석근이 하는 말이였다. 누구든 도망치려다가 잘못될수 있어서 오인범이 걱정스러웠던것이였다.

《꼭 찾아오겠다니? 그럼 지대장님은?…》

《더 묻지 말게.》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이윽고 포로병대렬은 산굽인돌이를 지나가고있었다. 김석근은 앞뒤를 살펴보다가 슬쩍 수림속에 몸을 감추었다. 락엽이 깔린 산릉선에서 멀어져가는 그의 발자취소리가 울리였다. 포로병대렬을 뒤따르던 내무원인솔자가 도주병이 났다는것을 눈치차리고 그쪽에 기관단총련발사격을 퍼부었다. 긴 포로병대렬때문에 추격하지는 못하고 그저 어방대고 몰사격하는 그의 총탄들은 석근의 주변에서 콩튀듯 하였다. 이리저리 몸을 숨기기도 하고 엎디였다가는 기여가기도 하며 간신히 그 내무원의 사격권에서 벗어난 그는 천만다행으로 다친데 없이 탈주할수 있었다.

김석근은 사흘후에 함주군에 들어섰다.

그는 한밤중에 두병호네 집으로 찾아갔다. 그들은 반갑게 만났다. 김석근은 그에게 풍산게릴라부대의 실태를 말하고나서 신흥군으로 진출하는 허천군지대를 소멸하자고 하였다.

《그건 념려마오. 이미 지용수가 다 붙어서 어제부터 길목을 지키고있소.》

《빈틈없겠지?》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할거네.》

《그럼 나는 천의산에 들어가겠소.》

《교준이때문에?》

《자네도 그 〈령감〉태기를 알아보았군.》

김석근은 그에게 한교준이가 안병덕의 특별임무를 받은 별동대 대장이라고 하였다. 두병호는 그의 말을 부정하였다.

《아니요. 한교준은 별동대대장이 아니라 백운 특공대대장이네. 수하에 락하병 12명을 포함해서 70여명의 전투성원이 있는 특공대장이요.》

두병호는 며칠전에 식량구입으로 주민부락에 내려온 특공대원 2명을 체포했다고 말하였다.

《그놈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모장은 장욱세라구 후퇴시기 고원군에서 〈치안대〉대장을 했던 놈이라니까 자네도 알겠구만.》

《음, 그래? 거 참 흥미있군.》

드디여 장욱세와 결투하게 되였다. 김국성동지의 원쑤를 갚으리라 김석근은 굳게 마음먹었다.

《그런데 장욱세 그놈은 교준이와는 달리 백운산수림속에 분산배치해놓은 대원들을 집합하여 주민부락이나 목재소 같은것을 습격하여 겨울식량을 해결하자고 한다누만. 지금은 한겨울이여서 식량사정이 급선무이지만 한교준은 부대를 절대로 로출시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한두명씩 소편대로 나가 식량을 구해오도록 하는 수를 쓴다네. 그러면서 미군이 북상할 때를 기다린다오.》

그것은 교준이놈만 아니라 북반부에 침투한 다른 잔여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달래꽃이 필 때 꼭 온다던 미군이 금년 봄에는 오겠는지? 못 오면 경각성 높은 인민들과 내무원들의 소탕전에 황천객이 된다는 불안속에서 적들은 짬만 있으면 반도체라지오에 귀를 도사리군 하였다. 라지오에서 울리는 일본방송까지도 전쟁에서 미군이 수세에 빠져 다시 북으로 쳐들어가기 불가능하다는 어쩔수 없는 객관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적들은 미군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북진》할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엄동설한의 식량사정으로 적게릴라잔여분자들은 주민부락을 습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 부림소며 닭, 돼지 같은 집짐승들을 닥치는대로 략탈해가군 하였다. 어떻게 하나 미군과 합세하여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악랄하게 만행하고있었다. 김석근은 하루속히 소탕해버려야 할 적들과의 투쟁에서 한목숨바쳐 싸울 각오를 다지였다.

《그런데 병호, 교준의 특공대가 받은 임무란 뭔가?》
《어리석은 놈들이지. 안병덕의 별동대가 있다는것을 보고받은 크레마란 놈은 교준의 별동대를 특공대로 승격시키고 미군이 쳐들어가면 주로 간부들을 살해하라는 과업을 주었다오. 특히 한교준이 특공대의 주력부대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강행진격하여 최고사령부를 어째볼데 대한 특수임무를 받았다누만.》
《특수임무를?…》
김석근은 두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 어딘가를 응시하는 그의 눈에는 최고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한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섬광이 번뜩이였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적특공대놈들을 일망타진하고야말 단호한 결심이 어려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김석근은 주먹을 부르쥐였다. 《모든 미국지배층들이 그러하듯이 크레마 역시 하루강아지요, 하루강아지!》
《물론이지. 그래 특공대를 소탕할 이번 작전은 어떻게 하겠소?》
두병호의 물음에 김석근은 한교준의 일당을 백운사에서 소탕하자고 하였다. 석근은 자기가 그들속에 침투하여 적들을 백운사에 전부 집결시켜놓겠으니 두병호더러 내무원들이 포위진을 치게 하라는것이였다.
《그럼 자네 혼자서 들어가겠다는건가?》
《이번에는 련락관이 필요없소. 오히려 거치장스럽다니까.》
두병호는 강경히 반대하였다.
《안돼! 혼자서는 위험해!》
《원, 걱정두…》
석근이 이렇게 나무람하며 련락관이 재차 나타나면 가뜩이나 의심하는 한교준의 눈에 걸려들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특공대 소탕전은 수포로 돌아가오.》
《실정이 정 그렇다면 할수 없지. 그런데 석근이, 특공대포위전은 신흥군전투다음에 할 전투겠지?》
《물론 그렇게 작전해야지.》
《그럼 나는 신흥군전투부터 참전하겠소.》
신흥군전투는 허천군 위의섭지대는 물론 풍산쪽에서 퇴각하여 함주

군 천의산쪽으로 진출하려는 적게릴라잔여부대들을 신흥군에서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계획한 전투였다. 그 전투는 함주군 내무원들만 아니라 도내 다른 군내무원들과 련합작전을 벌리는 대규모의 소탕전이였다.

《병호, 그 전투에 단천지대장 정봉문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단천군내무원들도 참전할거요. 전투를 끝내면 그들을 꼭 만나주오. 나의 전우가 지금 그들에게 체포되여 감금되여있는데 그는 군 〈치안대〉에 있은 때부터 적구에서 나와 손잡고 싸워온 유일한 전우이네. 오인범이라구 키가 큰 친구요. 잊지 말구 그를 보증해주어 나한테 돌아오게 해주오, 같이 싸우게…》

《그건 자네가 더 잘 보증할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내무원들은 역적으로 알려진 나보다도 내무원 두병호를 더 신임할게 아니나. 이보게 병호, 자네 주동학일 모르나? 철공소 땜쟁이라구 김국성내무서장의 비밀련락원 말이네.》

《주동학이?…》 두병호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모르겠는데— 글쎄 내가 전 서장동지의 비밀련락원을 어떻게 알겠소.》

《하긴 그래. 그렇지만 자네 그 사람을 좀 찾아주게. 우리는 전쟁전부터 같이 싸우다가 적강점시기에 헤여졌는데 그때부터 그의 행처를 모르고있소. 찾으면 나와 련계를 맺게 해주게. 알겠나?》

《그것도 내가 자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때문이겠지?》

《물론이지.》

《그럼 약속하네. 이번 전투를 끝내고 어디서 만나자나?》

《여기서.》

두병호네 집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좋아!》

두병호는 자기 집에서 승리의 축배잔을 나누게 될 그날을 믿어마지않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

여기까지 말한 두병호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침대에서 일어나앉으려고 하였다. 윤경이 그를 부축해주었지만 두병호는 척추를 몹시 다쳐서인지 잠간 앉아있는척 하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후 나는 석근이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헤여져서 이틀이 되는 날에 나는 신흥군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현무도 그 전투에 참가했었다. 그때 적게릴라부대는 후치령일대에서 재편성되였다. 도처에서 얻어맞은 적들은 분산된 각 지대 패잔병들로 다시 대오를 지었는데 주력부대는 허천군지대였다. 거기에 단천지대며 풍산지대 패잔병들을 끌어넣어 소위 《북한》게릴라부대의 제2전선을 전개하려고 시도하였다. 적들은 풍산지구에 대한 내무원들의 공세에 견딜수 없어서 신흥지구에 옮겨앉으려고 하였다. 허천군지대장 위의섭이 지휘하는 적게릴라주력부대는 허천군에서 빠져나와 차일봉을 넘어 신흥군 범바위골로 진출하였고 다른 한 잔여부대는 신흥군 참나무골에 들어섰다. 당시 도내무국소대에 소속된 나어린 최현무는 범바위골에서 40여리 상거한 참나무골전투에 참가했었다. 하지만 그는 구태여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두병호의 말에 귀를 강구었다.

《나는 그때 범바위골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적들을 일망타진하는 범바위골전투는 매우 치렬했습니다. 위의섭지대장놈은 자기가 직접 기관총까지 쏘아대며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대항했는데 나는 그만 그 전투에서 척추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오래동안 치료받다가 몇년전에야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침대에서 뭉개다나니…》

그는 김석근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는 자신을 무척 민망스러워하였다.

《사실 병원에 있을적부터 전쟁시기 함께 싸운 전우들이 그리웠지만 이렇게 운신하지 못하다나니 찾아다닐 엄두를 못냈습니다. 게다가 주소도 잘 몰라서 편지 한장 띄우지 못했는데 동무들이 이렇게 찾아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석근이 동무앞에서 주동학만아니라 오인범이까지 보증해주었는데 앞으로 모든것이 제대로 밝혀질것입니다.》

현무가 말하였다. 두병호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길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것은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눈길이였다. 최현무는 그에게 조국앞에 가장 떳떳한 전우들을, 당의 품속에서 영생할 김석근이며 주동학, 오인범들을 찾아줄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4

오인범

목화송이같은 함박눈이 쉬임없이 내리고있었다. 집에서 점심상을 물린 오인범은 허름한 양털외투를 껴입고 총이 센 개털모자를 눌러썼다. 그는 바람벽에 걸어놓은 사냥총을 메고 방안에서 나왔다. 마당에 내려선 그는 휙— 휘파람을 불었다. 허청간에서 7마리의 풍산개가 뛰여왔다. 일곱쌍둥이처럼 자란 흰털사냥개들이였다.

《〈왕호〉!》

코등이 하얀 사냥개가 오인범을 쳐다보고 눈우에 엎드렸다. 오인범은 또 불렀다.

《〈추기〉!》

류달리 발통이 큰 사냥개가 꼬리를 저으며 《왕호》의 우측뒤에 가 엎드렸다.

《〈독수〉!》

눈섭우에 노란 반점이 있는 사냥개가 컹, 컹 짖으며 《왕호》의 좌측뒤에 가서 엎드렸다.

오인범은 련이어 《방초》, 《성타》, 《차루》, 《부크》 순서로 호명하였다. 《방초》는 《추기》의 우측뒤에, 《성타》 는 《독수》의 좌측뒤에, 《차루》는 《방초》의 우측뒤에 가서 엎드리고 《부크》는 《성타》의 좌측뒤에 전개하였다. 마치 날아가는 기러기떼모양처럼 편대를 지었다. 오인범은 한결같이 정확히 자기 위치를 차지할줄 아는 사냥개들을 흐뭇이 바라보았다.

그는 딱 손벽을 쳤다. 개들은 동시에 일어나서 《왕호》, 《추기》, 《독수》… 순서로 일렬종대를 지으며 오인범의 뒤를 따랐다.

사방은 온통 눈이 덮였다. 벌써 발등을 치는 숫눈길을 따라 오인범은 골짜기로 올라갔다.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왕호》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같은것을 내며 인범의 앞으로 뛰여나와 엎드리는것이

였다. 무슨 형체가 나타났다는 보고였다. 아닐세라 앞 멀리 고개길에서 웬 사람이 내려오고있었다. 오인범은 눈여겨 바라보며 마주 걸어갔다. 보위색외투에 밤색들가방을 든 그 사람은 다름아닌 최현무대좌였다. 눈내리는 궂은날에 수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를 보는 순간 오인범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한 인간을 소생시키려고 이처럼 수고하는 최현무였다. 모자며 외투들에 어찌나 많은 눈이 묻어있는지 마치 눈사람을 방불케 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인범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름없는 한 전사를 두고 얼마나 심려하고계시는가를 더욱 깊이 느꼈다. 어버이수령님을 받들고 충실하게 싸워온 전사라면 죽어서도 영생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계시기에 최현무대좌와 같은 법기관일군들마저 한 인간의 운명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는것이 아닌가! 수십년동안 역적으로 락인되여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석근이같은 사람에게서도 묻히고 묻힌 공민적량심과 순결을 엿보시고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에 오인범은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진정 인간에 대한 그이의 열렬한 사랑이 계시기에 알아볼수록 난감해지군 했다는 최현무마저 과거의 석근이를 살려내지 않는가! 진짜벗과 원쑤를 갈라보게 하지 않는가! 이 인범이도, 그 누구도 소생시켜주지 못한 석근이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덕정치에 의하여 본래의 김석근이로 영생할게라는 생각에 오인범은 그 고마움에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최현무를 전에없이 귀중한 손님으로 여기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현무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사냥개들을 바라보며 자기도 사냥놀이하고싶다고 말하였다. 고개넘어 멀리 걸어온 피곤도 무릅쓰고 굳이 따라서겠다는것이였다.

《그럼 가방을 이리 주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최현무는 별로 무겁지 않다며 넘겨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산판에 가방을 들고다니겠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릴테니 어서 주시오.》

최현무는 마지못해 가방을 넘겨주었다.

오인범은 그의 가방을 《부크》앞에 내밀었다. 《부크》는 선뜻 가

방손잡이를 물고 주인을 쳐다보았다. 오인범은 딱, 딱 두번 손벽을 쳤다. 그러자 《부크》는 집으로 쏜살같이 뛰여갔다. 스스로 웃방문을 열어 가방을 들여놓고 돌아왔다.

최현무는 너무나 신기해서 그저 허허 웃었다.

《대좌동무, 그쪽에서 좀더 알아낸것이 있습니까?》

오인범이 걸음을 옮겨놓으며 물었다.

《예, 천의산에서 석근동무와 싸운 동무를 만났댔습니다.》

최현무가 이렇게 말하자 오인범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석근동지와 같이 싸운 사람이라니? 그게 누굽니까?》

《두병호라구?… 혹시 그런 이름을 들은적 없습니까?》

《두병호?… 두병호?…》 오인범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천의산에서 함께 싸웠답니까?》

《예. 거기서 위정사부대를 일망타진했답니다. 그후 석근동무는 풍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답니다. 두병호동무는 그때 자기 집에서 석근동무를 마지막으로 만났더군요.》

《그게 석근동지가 천의산으로 두번째 들어갈 때였지요?》

《그런가봅니다.》

《음ㅡ》

오인범은 땅이 꺼질듯 한 신음소리를 내며 생각깊게 걸어갔다. 발밑에서는 뿌드득거리며 눈밟히는 소리만 아츠럽게 울리였다.

(개자식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오인범의 눈앞에서는 잊을수 없는 지난날이 지워질줄 몰랐다.

포로된 오인범

단천군에서 김석근이와 헤여진 오인범은 지용수게릴라부대투항병들과 함께 ㅂ장소에 억류되여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김석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인차 찾아오겠다던 석근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어디에 갔는지?… 혼자서 싸우고있을 그를 생각하면 ㅂ장소에서 탈출하고싶었지만 기다리라는 석근이의 말을 어길수 없었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오인범은 내무원의 호출을 받고 예심원과 마주 앉았다. 늙수그레한 예심원은 오인범의 나이며 출생지를 적고나서 매우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학교를 다녔소?》

《예.》

《중학교를?…》

오인범은 그렇다고 대답하고나서 함흥고급중학교에서도 공부했다고 말하였다.

《음, 그렇소?》 예심원은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보다 장군님의 배려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째서 반역의 길을 걸었소?》

《적강점시기 집에 들려서 앓는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놈들한테 끌려다녔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다녔겠소?》

《하지만 그건 보름도 못되는 한때였습니다. 그후 나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에 예심원은 저으기 놀라와하였다.

《스스로 선택했다? 그건 왜?》

《저… 예심원동지, 나는 이 심문이 주동인가, 피동인가를 갈라놓는 매우 중요한 예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심문이지만 지금은 더는 말할수 없습니다. 당분간 미뤄주십시오.》

오인범이 이렇게 제기한것은 앞으로도 석근이와 함께 적구활동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였다. 김석근이 올 때까지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예심원은 더욱 의아해하였다. 그는 책상에 손가락방아를 찧으며 오인범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좋소.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는데 그래, 며칠후에 만났으면 좋겠소?》

오인범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김석근이 언제 찾아올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딱히 정할수는 없지만 어쨌든 후에 불러주십시오.》

실로 수수께끼같은 그의 요구에 예심원은 심중한 낯색을 짓고 묵묵

히 앉아있었다.

《그러나 한가지만 재차 묻겠소. 당신이 스스로 반역의 길을 걸었다는것이 사실이요?》

《지금은 그렇다고밖에 대답할수 없습니다.》

《대답이 참 묘하구만. 당신은 이 문건에 수표할수 있소?》

예심원이 내미는 심문장에는 《01호》라고 표기되여있었다. 오인범은 그것이 악질주동분자들만 넣는 장소임을 모르지 않았다.

《당장 갈라놓아야 한다면… 수표하랍니까?》

그의 물음에 예심원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인범은 예심원의 방에서 나와 01호구역으로 호송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단천지대장 정봉문과 같은 악질반동들과 함께 지냈다.

며칠후 01호실에 《초불》이라는 첩자가 들어왔다. 그자는 정봉문을 알아보고 그에게 체포된 경위를 자초지종 말하였다. 열흘전에 천의산 백운특공대에 김석근이 찾아왔다는것이였다. 그런데 김석근은 북한공산군이 침투시킨 간첩으로 지목되여 한교준특공대장이 은밀히 알아보고있다고 하였다. 그가 적으로 의심받는것은 위정사부대가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일망타진될 때 거기서 단 한사람 《박쥐》가 살아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교준은 최일남이 위정사부대를 풍산으로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를 알아보라고 《박쥐》와 함께 《초불》을 파견했다는것이였다. 물론 련락관문제도 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초불》은 그 과업을 받고 《박쥐》와 함께 풍산으로 들어가다가 신흥군경내에서 천의산으로 이동하는 허천군지대장 위의섭부대를 만났다고 하였다. 거기서 알아보니 련락관이 왔다는것도 거짓말이고 위정사부대를 풍산해방전투에 참가하라고 불렀다는것도 죄다 김석근의 연극이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말하면서 《초불》은 이발을 갈았다. 신흥군에서 위의섭부대도 석근의 작전에 따른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괴멸되였다고 하였다. 《초불》은 바로 그 전투에서 체포되였다면서 가슴을 쳤다. 하지만 《박쥐》는 매복전에서 빠져나가 천의산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러니 석근이 이놈! 네놈의 목숨도 멀지 않아. 멀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넉두리하며 《초불》은 너무 분해서 엉엉 울어대였다.

곁에서 그 소리를 엿들은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쥐》가 돌아가면?…) 한교준은 김석근이를?… 오인범은 다시한번 와뜰 놀랐다. (아니, 그럴수 없어. 죽어서는 안돼!)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오인범은 달려갈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이 사실을 내무원들에게 말하고싶었지만 선뜻 믿어줄것 같지 않았다. 설사 믿는다쳐도 백운특공대가 어디에 자리잡고있는지 모르는 그들로서는 석근이를 제때에 구원할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야 하는가?… 오인범은 그날 저녁부터 온밤 모색하였지만 신통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며칠전에 오인범이를 심문했던 내무원이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였다. 오인범은 자그마한 방안에서 그와 마주앉았다.

《당신은 첫 예심에서 자기를 후에 다시 불러달라고 했지? 그래, 무엇을 자백하려고 했소?》

오인범은 석근이 돌아오면 하려던 말을 지금 터놓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자기가 이곳에서 놓여나 위험에 처한 석근이를 구원할수 있을것 같았다.

《내무원동무, 나는 이제부터 사실을 고백하겠는데 믿어줄수 있습니까?》

《그거야 당신의 솔직성여하에 달린거지.》

내무원은 그의 앞에 만년필과 필기지를 내놓았다. 자백서를 쓰라 하고는 방안에서 나가버렸다.

오인범은 《자백서》를 썼다. 반역의 길을 걷던 자기를 구원해준 김석근과 함께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것을 요약하여 적었다.

거의 두시간후에 다시 찾아온 내무원은 그의 《자백서》를 보고나서 물었다.

《그래, 이것을 누가 보증할수 있소?》

《다른 동지들은 다 희생되고 김석근동지밖에 없습니다.》

《조직선도 없이 싸웠단 말이요?》 내무원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김석근은 포로되였다가 도망쳐서 지금 천의산쪽으로 나갔다는 지대장인데 그를 보증설 사람도 없지 않소?》

《그는 〈불새〉로 싸우고있습니다.》

《〈불새〉?… 듣느니 처음이요.》

《어쨌든 저를 놓아주십시오. 석근동지가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소?》
오인범은 그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음, 여기서 나가려구 자백했다?》 내무원은 랭소를 머금더니 보초병을 불렀다. 《이 포로병을 01호실에 넣소.》
《내무원동지, 시간이 급합니다.》
오인범은 그에게 김석근이 위험하다고 그렇듯 간절하게 내놓아달라고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누구도 보증할수 없는 《자백서》를 믿고 어떻게 포로병을 내놓겠는가고 딱 잡아떼였다. 비로소 오인범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판단했는가 하는것을 통절히 느끼였다. 석근이와 함께 걸어온 자기들의 싸움길을 과연 그 누가 보증하랴. 내무원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자기더러 《역적이 애국자로 둔갑한다.》고 비난할것인즉 그러한 나를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사람들을 기만하는 또다른 형태의 추물로밖에 되지 않는 자신이였다. 오늘만 아니라 장차면 후날에도 그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할게라는 느낌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오인범은 락심천만해하지 않았다. 그 누가 인정하건말건 량심이 가리키는 성스러운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였다.
다시 01호실에 감금된 오인범은 《초불》과 같은 악질분자들과 같이 있었다.
또 하루가 지났다. 위험에 직면한 석근이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오인범은 드디여 한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새벽 2시경이였다. 오인범은 《초불》을 깨웠다. 《초불》은 눈곱을 쥐여뜯으며 왜 그러는가고 짜증을 냈다. 그에게 오인범은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여기서 뛰자구.》
그 바람에 《초불》은 정신이 펄쩍 들었는지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달아날수 있어? 보초가 있는데?》
《붙잡혀도 죽지는 않아.》
《쳇, 잡히기 전에 깜장콩알을 먹어.》
《겁쟁이. 나 혼자서라도 도망치겠는데 백운특공대는 어데 있어? 거길 찾아가게 암호도 대줘.》

《너 정말 뛰겠어?》
《시간이 없어.》
《초불》은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나서 소곤거렸다.
《좋아, 한번 시도해봐? 가뜩이나 〈박쥐〉가 제대로 가겠는지 걱정스러운데…》 《초불》은 백운특공대의 위치를 대주었다. 《암호는 〈청룡〉하면 〈백호〉라고 대답해. 가서 석근이 정체를 꼭 발가놔야 해. 알겠어?》
《절대비밀이다?》
《자, 빨리 가.》
이렇게 등을 떠밀며 《초불》은 망을 보아주었다.
오인범은 《초불》의 도움으로 01호실에서 탈출하였다.

복 수

오인범은 걷고 또 걸었다. 석근이를 구원하려고 밤낮없이 강행군을 하였다. 한교준을 찾아가 《박쥐》의 보고를 뒤집어놓을 궁리를 하면서 사흘만에 천의산으로 들어갔다. 산릉선을 톺으며 《범의굴》로 올라가는데 릉선너머 백운사쪽에서 총성이 터졌다. 몰방으로 터졌다. 적아간의 교전이 틀림없었다. 석근이도 거기에서 싸우는것만 같았다. 오인범은 백운사쪽으로 다급히 내리달렸다. 수풀속을 헤치며 정신없이 달리는데 문득 눈앞에서 또 다른 총성이 귀청을 때렸다. 그는 우뚝 멈춰섰다. 앞을 살펴보던 오인범은 와뜰 놀랐다.
(아니, 석근동지가?…)
그의 눈에는 숯가마앞에서 쓰러지는 석근이가 띄웠다. 석근이를 쏜 한교준은 무전수와 함께 벌써 숲속으로 도망치고있었다. 오인범은 한교준을 노려보다가 석근이한테로 뛰여갔다.
《석근동지!—》
그는 붉은 피로 가슴을 적신 석근이를 안고 마구 흔들어대며 부르고 또 불렀다.
이윽고 김석근이 슬며시 눈을 떴다. 한참만에야 오인범을 알아본 그는 천천히 화색을 짓더니 떠염떠염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교준이… 한교준이는 잠복, 잠복한 특, 특공대장이요. 나,

나를 대신해서 기, 기어이 처단해주오. 그, 그리고…》
김석근은 눈을 감았다.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석근동지, 석근동지!》
그래도 말이 없었다. 기척없는 그의 모습에 오인범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석근동지가 잘못되다니?)
아니, 그럴수 없다, 그래서는 안돼! 그는 석근이를 둘쳐업었다. 무조건 살려내려고 하였다. 오인범은 정신없이 내달렸다. 주민부락을 찾아 뛰였다. 그는 골짜기아래에서 초가막 외딴집을 발견하였다. 무작정 그 집으로 뛰여들었다.
외딴집에는 령감, 로친이 있었다.
《로인님, 이분은 적들속에 들어가 싸운 내무원입니다. 살려주시오. 무조건 살려주시오.》
로인은 감동어린 낯색으로 석근이를 바라보다가 안로인더러 웅담을 가져오라, 꿀물을 타라 하며 응급처치에 달라붙었다. 석근의 상처에 오징어뼈가루를 바르던 로인은 갑자기 오인범을 쳐다보았다. 그의 컴컴한 낯색에 오인범은 성급히 물었다.
《왜 그럽니까? 예, 로인님?》
로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벌써 잘못되였수다.》
《잘못되다니? 아니요. 그럴수 없소! 그럴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오인범은 석근이를 불렀다.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김석근은 심장의 박동을 멈추었다.
《석근동지!—》
그는 피눈물을 삼켰다. 너무나 절통해서 두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한교준이, 내 네놈을 기어이 복수할테다!》
그렇다, 한교준이를 처단하는것—그것은 이 오인범이 석근동지로부터 받은 마지막임무이자 과업이 아닌가. 그것은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상급의 명령이며 잊을수도 저버릴수도 없는 전우의 유언을 풀어주는 필생의 의무였다. 한해 아니면 두세해를 두고 아니, 한생을 바쳐서라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그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석근동지의 원쑤도 갚으리라 마음먹고 오인범은 결연히 일어났다.

그날 저녁 오인범은 합주군내무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였다. 혼자서 적들속에 들어가 싸울 형편이 못되여서만 아니였다. 도망친 한교준이를 복수하기 위해서도 《자수》하는것이 옳았다. 《자수》자로 살면 한교준의 친척과 련계를 맺고 장차 그놈의 행처를 알아낼수도 있지 않을가싶었다.

그는 《자수》할 때 적구에서 활동한 사실을 구태여 입밖에 내지 않았다. 누구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것을 이미 ㅂ장소에서 뼈속깊이 절감한 오인범이였다. 사실대로 말하여 사람들을 기만하는 너절한 추물로 비난받느니 도망친 교준이를 체포하여 김석근의 원쑤를 갚음과 동시에 그것으로 자기의 량심과 결백성을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오인범은 관대히 용서받았다. 그는 합주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한교준이를 적발체포하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남몰래 그의 가족이며 친척들의 행방을 알아보던 어느날 그는 갑자기 합주읍에서 소개되여 고양리 함박골에 이사하였다. 합주읍 분주소장과 다퉜던 오인범은 자기가 어째서 추방되였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교준이를 잡아내 기어이 애국자인 김석근이를 찾으리라 마음먹었다. 이듬해에 오인범은 다시 집을 옮기였다.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양리 함박골보다 더 깊은 산속인 천의산 돌박골로 이사하였다. 오인범은 생명이 경각에 이른 석근이를 안고 찾아갔던 그 로인으로부터 천의산 숯구이쟁이가 바로 한교준의 4촌동생이라는것을 알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한경준의 숯가마앞에서 석근이 희생된 사실을 서로 련결시켜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더구나 한경준이 적 일시적강점시기 4촌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어딘가 내통되여있는듯 하였다. 그래 오인범은 경준이네 집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맞은켠 릉선에 자리잡고 살았다. 남몰래 감시했으나 그의 집에 수상쩍은 사람은 얼씬하지 않았다.

물론 오인범은 한교준의 얼굴을 모르지 않았다. 적 일시적강점시기 백운산 마영고개 《내무원》사건때에 합주군 고양리《치안대》대장이였던 그자의 방에서 석근이와 함께 만난적 있었다. 또 석근이를 살해하고 도망치는 그놈의 자태도 보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

러서 한교준의 얼굴이 점점 흐리터분하게 기억되는것이였다. 그래 오인범은 자기가 경준의 집에 드나드는 한교준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것이 아닌가싶어 그놈의 고향마을에까지 찾아가서 조용히 알아보기도 하였다. 한교준의 친척, 친우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는데 그러는 과정에 동무들과 함께 찍은 그놈의 사진도 한장 얻게 되였지만 그 모색과 비슷한 사람을 여직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어느덧 한경준에 대한 오인범의 감시가 점점 무디여지고 그 어떤 다른데서 한교준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숱한 걸음을 걷기도 하면서 추적하던 오인범은 어느날 참으로 뜻밖의 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근 16년동안이나 별일없이 조용하게 지내던 한경준이네가 갑자기 이사하는것이 아닌가?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이 일어난 그해 가을에 경준이네는 풍산군 백산 까치봉골짜기로 옮겨앉는것이였다. 수상한 예감에 오인범이도 그 이듬해 이른봄에 자리를 떴다.

함주읍에서 천의산으로, 천의산에서 다시금 풍산군 백산골짜기로 이사하는 그의 마음은 마치 연추에 짓눌리는듯 하였다. 오늘은 가뜩이나 날이 차지면 병세가 도지군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찬눈바람이 몰아치는 풍산군 막바지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제 거기서 병환에 시달릴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저 죄스럽기만 하였다.

실로 이 아들은 불쌍한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것인가.

이 아들이 인민군대를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원한의 눈물을 흘렸고 《치안대》완장을 두르고다닐 때에는 절망의 눈물로 나날을 보낸 어머니였다. 이 아들이 《월남》할적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고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린 어머니, 어머니는 바로 이 못난 자식때문에 기나긴세월을 한탄과 원망의 고통속에서 보내는것이였다. 멍이 들고 재만 들어찬 가슴을 달랠길 없어 그저 죽기만 바라는 어머니인데 나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오늘도 고생만 시키지 않는가.

오인범은 땅이 꺼질듯 한 한숨을 내불었다. 글쎄 언제면 불쌍한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줄는지? 과연 이 오인범이 진짜석근이와 함께 사람으로 보일 날은 언제인지?… 설사 그날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는 석근의 원쑤를 갚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백산 까치봉골짜기에 자리잡은 오인범은 짬만 있으면 《사냥놀이》를 하였다. 물론 한교준이와 관련된 어떤 흔적이라도 띄울수 있지 않을가싶어 진행하는 《사냥》이였다. 주로 까치봉일대를 메주밟듯하며 《사냥》하였다. 벌써 8년세월이 흘렀다.

오늘도 오인범은 변함없이 그 일대로 《사냥놀이》를 나가는것이였지만 현무는 그 사연을 전혀 모르고 따라나섰던것이였다.

어느덧 눈발이 성글어졌다. 까치봉골짜기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추기》가 쏜살같이 내달렸다. 앞산릉선으로 재빛산토끼 한마리 올리뛰는것을 추격하는데 오인범은 딱, 손벽을 쳐서 멈춰세웠다. 《추기》는 추격하다말고 사냥개들의 대오에 들어서서 오인범을 따랐다.

(음, 산토끼는 성차지 않는게로군.)

최현무는 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이윽고 한 릉선에 오른 인범은 주위를 깐깐히 살피고나서 또 다른 골짜기로 들어갔다. 참나무들이 우거진 골짜기에서 노루가 한마리 나타났다. 그래도 인범은 사냥구령을 내리지 않았다.

《노루가 보호동물이여서 사냥하지 않는거요?》

현무가 물었다.

《보다는 더 큰놈이 맞다들것 같아서 〈왕호〉네들의 힘을 좀 저축하자는겁니다.》

《그럼 범이라도 나타나야겠군.》

《대좌동무, 이리 좀 오시오.》 오인범은 그를 가까이 불러놓고 한쪽손을 쳐들었다. 《저기 저 집이 보입니까?》

멀리 까치봉골짜기에 자리잡은 독립가옥이 선명하게 내다보이였다.

《저게 누구네 집인데?…》

《그게 바로 〈두더지〉 한교준의 4촌동생네 집입니다. 이젠 제가 왜 여기로 〈사냥놀이〉를 나온줄 알겠습니까?》

《음, 그렇습니까?》

《이렇게 눈오는 날에 동작하면 쉽게 띄울수 있겠는데…》

하지만 해종일 《사냥놀이》를 했건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눈이 와서 더욱 얼씬하지 않는 모양이였다.

이튿날이였다. 오인범은 밥상을 물린 현무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제 밤까지 내가 아는 자료들을 거의 말씀올렸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아직 공개할수 없어 극비에 붙이는데 그것도 차차 알게 될겝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작별할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동무의 그 비밀이 어렴풋이 짐작됩니다. 그래 〈사냥놀이〉를 언제 다시 나가겠습니까?》

《이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오인범은 또다시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창문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눈이 내릴 때에는 산판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문을 닫아매고 집안에서 감자구이를 하는 때니까 밤처럼 인적기가 뜨음합니다. 〈두더지〉가 활동할수 있는 맞춤한 때이기도 해서…》

《그럼 〈두더지사냥〉에 나도 한몫 끼웁시다.》

《어제처럼 허탕치기가 일쑤인데…》

《괜찮습니다. 어서 갑시다.》

그들은 어제처럼 사냥개들을 달고 까치봉쪽으로 올라갔다. 한동안 머츰해지던 눈발은 다시금 뽀얗게 일었다. 수림이 우거진 추락골로 들어가던 오인범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길에 웬 발자국이 띄웠던것이다. 하얀 눈속에 찍힌 그 발자국은 까치봉쪽에서 나와 한교준의 4촌동생 경준이네 집방향으로 내려간 흔적이였다. 오인범은 눈정기를 모아 발자국을 추적하였다. 경준이네 집이 있는데로 내려간 그 발자국에는 이상하게도 그쪽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눈이 덮여있었다. 어째서 후에 밟은 발자국에 전에 난 발자국에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는가? 이것은 발자국주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까치봉으로 들어간 놈이 경준이네 집방향으로 내려간 흔적을 내였다.

(교활한 놈!)

오인범은 가슴이 후드득 뛰였다. 드디여 오늘에야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오인범은 뒤에서 따라오는 최현무를 돌아보았다.

《이거 참 일두 별나게 됩니다. 대좌동무가 이렇게 모처럼 따라나서서인지 드디여 오늘에야 이런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차직하면 좀 안될 일이 생길수 있으니 대좌동무는 삼가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원, 욕심두… 나를 생각하는체 하면서 혼자 재미를 보자 하누만.

이거야말로 진짜사냥이니 나도 그 진가를 좀 맛봅시다.》
《허허허… 거참, 대좌동무의 취미가 여간아니군! 그럼 어디 한번 진짜사냥을 해볼가.》
오인범은 《왕호》, 《추기》… 순서로 사냥개들에게 발자국냄새를 맡게 하였다. 사냥개들은 별로 사기가 나서 꼬리들을 저었다. 오인범은 《〈부크〉!》하고 소리쳤다. 사냥개들은 《부크》를 중심으로 한 기러기떼 편대를 짓고 발자국을 추적하였다. 중심에 선 《부크》가 발자국들을 냄새맡으며 달렸다. 사냥개들은 멀리 앞서가군 하다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오인범이 따라설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릉선을 하나 넘었다. 골짜기를 지나 다시 령마루에 올라섰다. 드디여 발자국주인이 나타났다. 그자는 골짜기를 따라 까치봉쪽으로 올라가다가 무슨 기미를 차려서인지 아니면 생활속에서 굳어진 습성에서인지 문득 뒤를 돌아보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자기를 뒤따르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아본듯 그는 전보다 더 종종걸음을 놓았다. 까치봉쪽으로 오르던 그자는 갑자기 방향을 꺾어 우측릉선으로 넘어가는것이였다. 오인범이네도 더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지만 그자와 더불어 그의 발자국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산릉선에서 오인범은 산지사방을 샅샅이 눈빛질해도 찾아낼수 없었다. 실로 괴이쩍었다.
사냥개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냄새를 맡고있었다. 이윽고 저쪽 멀리에 있는 까치봉아래쪽에서 《추기》가 컹컹 짖어대였다. 오인범은 그리로 달려갔다. 《추기》는 커다란 바위밑에 세워놓은 웬 나무단들을 치우려고 앞발로 마구 허비여대고있었다. 지금도 내리는 눈이 그대로 수북이 쌓여있는 여러개의 나무단들은 누구인가 이미 오래전에 해놓은듯 깨깨 마른 참나무가지들을 묶어놓은것들이였다. 오인범은 《추기》가 긁어대여 눈들이 흘러내린듯 한 나무단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였다.
《응?…》
가운데나무단을 치웠더니 글쎄 천연바위굴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냥놀이》로 이 일대를 메주밟듯 한 오인범이마저 처음 보는 원시림속의 동굴이였다. 추적받는 그놈이 눈우에 찍힌 발자국을 지우며 멀리 에돌아 여기까지 왔는가? 오인범은 딱, 딱 두번 손벽을 쳤다. 《추기》는 물론 《왕호》를 비롯한 모든 개들이 인범의 곁에 산개대

형으로 엎드리였다.

오인범은 《차루》를 불러 굴안에 밀어넣었다. 오소리잡이명수인 《차루》는 발발 기여가더니 동굴안의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얼마후였다. 갑자기 동굴안에서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차루》의 단말마적비명소리가 들렸다. 《차루》는 즉사한것이 틀림없었다.

오인범은 어깨에 멘 사냥총을 벗어 손에 틀어쥐였다. 6마리의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한걸음, 한걸음 동굴안으로 들어갔다. 최현무도 그의 곁에서 키를 낮추고 전진하였다. 굴간은 어지간히 깊었다. 그들은 어둠속에서 벽을 짚으며 가만가만 움직였다. 문득 앞에서 와르륵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굴간을 울리였다. 그들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적탄이 언제 날아들지 몰랐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앞을 주시하였다. 어쩐 영문인지 사위는 쥐죽은듯 하였다. 오인범은 사냥총으로 위협사격을 가했다. 한번 또 한번 총성이 굴간을 진감했지만 대응하는 놈이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갈마들어 오인범은 성냥불을 켜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간첩놈의 거처지인듯 밥상이며 이불 등속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아 한놈만 숨어있은것이 아닌것 같았다.

그런데 적들은 한놈도 없었다. 오인범은 간첩놈이 쓰던 기름등잔에 불을 켜들고 여기저기를 깐깐히 살펴보았다. 무전기를 놓아두었던 자리인듯 한 궤짝의 옆면에 커다란 청룡을 그린 화폭이 걸려있었다. 오인범은 얼핏 그전에 포로수용소에서 《박쥐》가 알려준 《청룡》과 《백호》라는 백운특공대의 암호들이 떠올랐다.

(하다면?)

그때 벽가에 걸려있는 청룡화폭이 바람에 불리여 흔들거리는것이였다.

《아니?…》

오인범은 또다시 눈을 치켜뜨고 청룡화폭을 쳐들어보았다.

《응?…》

화폭에 가리운 굴길이 있었다. 그제서야 간첩놈들이 비상출구로 빠져나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닐세라 그 굴길로 조금 들어가니 밖으로 통한 출구가 나졌다.

하얗게 눈이 덮인 출구밖 산릉선에 두놈의 발자국이 찍혀져있었는데 아름드리 참나무앞에서 서로 갈라진 흔적이였다. 인범이와 최현무

는 마치 약속이나 한것처럼 좌, 우로 갈라져 추격하였다.
우측발자국을 추적하는 오인범의 앞에서는 《왕호》를 축으로 한 편대를 짓고 사냥개들이 쏜살같이 내달렸다. 오인범이도 사냥총을 들고 뛰여갔다. 원시림이 들어찬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산경사면아래로 도망치는 간첩놈이 눈에 띄웠다. 어느새 사냥개들은 그놈을 거의 따라잡았다. 그제서야 간첩놈은 추격하는 개들에게 권총을 쏘아대였다. 하지만 아름드리나무들사이로 빠져나가며 질주하는 개들에게 그놈은 사면포위되였다. 간첩놈이 마구 헤덤비며 권총을 란사할 때였다. 번개처럼 날랜 《추기》가 뛰여오르며 권총을 잡은 그놈의 손목을 물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왕호》가 그놈의 목덜미를 무는 순간이였다. 《독수》며 《방초》, 《성타》들이 거의 동시에 육박하여 그놈의 팔이며 다리들을 물고 늘어졌다. 그놈은 정신을 잃고 너부러졌다.
오인범은 《부크》가 물고온 그놈의 권총을 받아쥐고 뛰여갔다. 그는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사냥개들은 그놈한테서 물러났다. 그놈의 주변에 빙 둘러 포위진을 치고 엎드려있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린 그놈은 눈을 뜨고 오인범을 쳐다보았다.
《일어나.》
오인범이 말하였다. 그놈은 간신히 일어났다. 오인범은 그놈에게 군패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놈은 시치미를 딱 떼였다.
《군패? 나는 그런걸 모르오.》
군패가 없다면 게릴라대원은 아니였다.
《그럼 백운특공대소속인가?》
그놈은 의아해하였다. 사냥총을 멘 사민이 어떻게 백운특공대까지 아는가 하는 눈치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백룡〉관구에서 싸운 〈북한〉게릴라대원이였다. 너는?》
《아, 그렇소! 우린 서로 같은 사람이구만.》
그놈은 너무나 때이르게 반가와하였다.
《그래 너는 어느 소속이냐?》
《난, 나는 백운특공대대장이였소. 지금은 까치봉에서…》
그놈은 자기를 지내 빨리 로출시킨다는 느낌이 들었던지 갑자기 입

을 다물어버렸다.

《뭐라구? 백운특공대대장이라구?》

오인범은 그제서야 한교준이를 알아보았다. 이제야 드디여 석근이를 살해한 악당 한교준이를 만났단 말이지?! 오인범은 눈에서 불이 일었다. 한교준이, 네놈때문에 귀중한 전우를 잃었고 바로 네놈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그만큼 더 시련을 겪었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 한교준이, 숱한 사람들을 살해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피눈물나는 아픔을 안겨준 만고의 역적 한교준이… 쌓이고쌓인 분풀이로 칼탕을 쳐죽여도 시원찮을 한교준이였지만 오인범은 리성을 잃지 않았다.

《이놈아, 나를 똑똑히 보라. 나는 내무원 김석근동지와 함께 싸운 빨갱이 오인범이다! 그렇다, 나도 빨갱이다!》

《뭐라구?》

《손을 들어!》

《손을?…》 한교준은 어느새 단도를 쳐들었다. 《〈대한민국〉 특공대장은 투항할줄 모른다!》

더러운 잔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멸공 용맹장》으로 죽으려는 천추에 용서 못할 악질반동이였다. 벌써 제정신이 아닌 그놈은 으르렁거리는 미친개의 악상으로 오인범이 사냥총을 들었건간에 마구 칼부림하며 달려들었다.

오인범은 그만에야 벽력같이 소리쳤다.

《〈성타〉! 번개!》

《번개》란 타격하라는 명령이였다. 순간 《성타》는 7도도약으로 허양 뛰여오르더니 어느새 한교준의 얼굴에 송곳같은 길다란 발톱을 푹 박았다. 거세차게 허비였다. 한교준은 단말마적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자빠졌다. 《성타》는 연거퍼 발톱타격을 안겼다. 눈우에 피가 랑자하였다. 그래도 오인범은 성차지 않았다.

《〈독수〉! 번개!》

《독수》가 뛰여들며 그놈의 의복을 발기발기 찢었다. 순식간에 그놈은 뻘건 몸뚱이를 드러냈다.

《〈방초〉! 〈부크〉! 번개!》 오인범은 연거퍼 소리쳤다.

《방초》와 《부크》는 제각기 그놈의 다리를 하나씩 물고 끌었다.

한교준은 개들이 뒤걸음질하며 끄는데 따라 눈우에 질질 끌려갔다. 한교준은 반죽음이 되였다. 하지만 오인범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북받쳐 올랐다.

《석근동지—》

그는 가슴을 쳤다.

5

며칠후였다. 최현무는 부전—함흥행 렬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가에 앉아 함주벌을 내다보는 현무의 눈앞에는 어느덧 한교준과 그의 일당을 체포, 처단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인범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였다. 풍산군 평당리분주소에 들려 현무가 체포한 무전수놈을 넘겨주고 한교준을 처단한 사연을 보고한 인범이와 현무는 즉시 한경준이를 체포하는 작전을 벌렸다. 한교준의 4촌동생 한경준은 전쟁시기부터 오늘까지 교준의 손발이 되여 간첩활동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무전수의 진술에서 판명되였던것이다.

현무네들이 안전원들과 함께 한경준이까지 체포하고 땅거미가 내리는무렵에 인범이네 집으로 돌아왔다.

사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선 오인범은 전에없이 들뜬 기분이였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연방 이렇게 큰소리로 부르며 웃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도 여전히 이불속에 들어있었다.

《어머니, 한교준이를 처단했어요! 드디여 오늘에야 복수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한교준이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석근형님을 살해한 원쑤를 처단했단 말입니다. 근 24년동안 추적했더니 오늘에야 내 손에 걸렸습니다, 내 손에. 예, 이 오인범의 손에 걸려들었단 말입니다, 허허허…》

오인범은 너무나 통쾌해서 어깨를 들썩이며 껄껄거렸다.

《어머니, 나는 그놈을 잡으려고 천의산에서도 살았고 여기 풍산땅에도 이사해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더 도지게 하는 곳들이지만 나는 눈물을 삼키며 이사하군 했습니다. 저때문에 어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오인범은 어머니앞에 머리숙여 엎드리며 용서를 빌었다.

《원, 자식두… 에미두 모르게 혼자 싸웠구나!》

그의 어머니는 소매자락으로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고 아들을 장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나라앞에 떳떳한 일을 했다니 내 병도 저절로 나을것 같구나!》

어머니는 만병을 턴 사람처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웠다. 오인범이 대오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온이래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의 기쁨어린 모습이였다.

《어머니, 고마워요!》

비로소 진짜아들로 여겨주는 어머니앞에서 오인범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실로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든 눈물인가. 그들모자를 바라보는 현무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늙은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처럼 애를 쓰면서도 어머니의 병이 더 심해지는 풍산땅에까지 이사한 오인범이 아닌가. 그것은 흡사 집안에서 추위에 떠는 어머니를 얼음강판에 내몬것과 다름없는 행위인데 그때 오인범의 가슴은 어떠했으랴. 하지만 그는 심장을 저며내는듯 한 아픔도 이겨내며 꿋꿋이 싸워왔다. 석근이의 원쑤를 갚는 길, 그 길은 조국의 원쑤들과 싸우는 투쟁의 길이였다. 어머니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오인범은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불타는 애국심과 열렬한 헌신성을 지닌 사람만이 부모앞에 진짜아들구실을 할수 있다는 삶의 철리를 깨닫고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기를 바쳐 싸워왔다. 참된 아들로 되였다. 최현무는 뜨거운 눈으로 오인범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앞에서 돌아선 오인범은 현무한테 다가왔다.

《대좌동무, 이제는 나한테 유한이 없습니다. 석근동지의 원쑤를 갚은데다가 저렇게 어머니까지 기뻐하니 정말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오인범은 만시름 놓는듯 한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최현무는 그와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물었다.
《이제는 석근동무의 원쑤까지 갚아주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살겠습니까?》
이제라도 오인범의 소망이 풀리도록 노력하고싶었다.
《아닙니다.》 오인범은 선뜻 대답하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가까운데서 석근동지네 가족들을 돌봐주고싶습니다. 참, 은섭이 그녀석은 결혼식을 언제 할는지?》
《인차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제구실을 못하다나니 대좌동무가 수고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은섭이도 만나보겠는데 그에게 전할 말이 없습니까?》
《내가 말입니까? 참 대좌동무, 잠간만…》
마당에 내려선 오인범은 갑자기 방안으로 되들어갔다. 잠시후에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에는 미농지에 싼 그 무엇이 들려있었다.
《대좌동무, 이것은 석근동지와 그의 아주머니 공민증들입니다. 전사한 석근동지의 품에서…》
오인범은 목이 꺽 메여 다음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최현무는 그것이 어떤 연고로 오인범이 보관하게 되였는가를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피의 얼룩이 진 미농지속에 싼 공민증들에도 석근이의 붉은 피가 적신 자취가 지금도 력력하였다.
김석근이, 그는 적구활동의 그 위험천만한 환경속에서도 공민증을 품고 싸운 공화국의 참된 아들이였다. 아니,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그것을 품고 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였건만 그는 이때까지 무서운 반동으로 버림받지 않았는가.
《석근동지, 동지는 정말…》
현무도 눈굽이 달아올라 이렇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오인범이와 헤여질 때에도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을 다는 터놓지 못했다.
《인범동무, 이제 동무네들의 숨은 공로는… 예, 눈물겨운 그 사연은…》 하고 눈굽을 훔친 최현무는 그들의 공민증을 품속에 정히 간수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석근의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오인

범이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최현무는 풍산땅에서 떠났던것이였다. …
도안전국에 도착한 최현무는 그날 아침에 도안전국장의 방에 들어갔다. 국장에게 그간의 사업정형을 보고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국장에게 방금전에 풍산군안전부에서 현무네들이 체포한 간첩들을 압송해왔다고 보고하였다.
《마침 잘되였소. 여기에 부국장동무도 있으니 우리 함께 심문해봅시다.》 국장이 말하였다.
《과장동무, 우선 그 무전수놈부터 만나보기요.》
과장이 데려온 무전수는 그들의 앞에서 백운특공대장한교준이를 따라다니면서 목격한 김석근의 최후까지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김석근의 최후

함주읍에서 내무원들을 천의산 백운사주변에 매복시키게 하고 두병호와 헤여진 김석근은 그날 밤으로 수십리길을 걸어 한교준이를 찾아갔다. 한교준은 천의산 범의 굴에 틀고앉아있었다. 그는 석근이가 나타나자 긴장한 표정을 띠였다.
《혼자 왔나?》
분명 련락관 두병호한테 신경쓰는 물음이였다.
《그렇네.》
《그럼 련락관은?》
아닐세라 한교준은 두병호를 요시찰인으로 경계하는 눈치였다.
(이자가 혹시 두병호의 뒤를 캐는 거마리를 붙인게 아닌가?)
두병호를 의심한 교활한 교준이고보면 십분 그럴수 있었다. 하지만 김석근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련락관은 지금 사령관부대와 함께 여기로 오고있네.》
《여기로 오다니?》
한교준은 못내 의아해하였다.
《최일남사령관은 우정 자네문제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네.》
그러면서 이제 세시간후면 련락관과 함께 여기에 도착할게라고 동을 달았다.

최일남이 신덕수전투에서 황천객이 되였다는것을 아직 모르고있는 한교준은 김석근의 말에 더욱 긴장해졌다.

《내 문제때문에? 무슨 문젠데?》

《자네한테 특공대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나?》

한교준은 선뜻 대답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실토하였다. 석근이까지 알고있어서인지 이때까지 비밀에 붙인 특공대를 더는 숨겨둘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모양이였다.

《있네. 그런데 어쨌다는건가?》

《사람두 참…》 김석근은 이렇게 나무람하며 동정어린 측은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길은 이제 한교준에게 미치게 될 불행을 벌써부터 예고해주었다. 《특공대까지 가지고있으면서 보고하지 않다니? 최일남사령관이 풍산해방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은 자네를 그저 내버려둘것 같나?》

《그럼 우리한테도 풍산해방전투에 참가할 의무가 있었단 말인가. 응?》 천의산특공대는 부산영도에서 한철민이 처단한 안병덕의 비밀별동대로 조직된것이였지만 이제는 크레마의 지령만 받게 된 특공대였다. 《그런데두 우리 특공대가 움직여야 옳단말인가? 응, 석근이?》

《자넨 괜한 억지를 쓰는구만. 최일남사령관도 크레마의 지령을 받는다는것을 자네도 알지 않나?》

《그렇지만 영도본부에서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과업준 사람도 없지 않나. 나는 지금 새 지령을 기다리는중이네.》

《이보게, 교준이. 크레마대좌의 지령에 따라 풍산해방전투에는 북한에 있는 부대들이 전부 참가하게 되였네.》 그런데 한교준의 특공대는 비밀리에 존재해서 부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김석근은 《북한》게릴라사령부에 특공대가 있다는것을 보고하지 않고 숨어있은 교준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에 진행한 풍산해방전투가 승리로 끝났으면 몰라라 실패했기때문에 더욱 문제시되는것이라고 하였다. 《사령관은 자네네 특공대를 안병덕이 조직했다는것도 알고있네. 그러니 안병덕이한테 살해당할번 한 최일남사령관으로선 자네네 특공대가 위험한 존재로 생각되지 않을수 없거던. 그가 오죽하면 여기 천의산에까지 찾아오겠나.》

한교준은 그제서야 불안해하였다.
《그래 나를 어떻게 처분할것 같나?》
《그건 자네도 짐작하겠는데 —》
《군법에 넘길가? 응, 석근이?》
《문제는 자네가 안병덕의 화랑도라는데 있지. 말하자면 자네가 안병덕의 복수를 노리는 최일남사령관의 적수로 된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네. 그러니 사령관이 자네를 제거하지 않을수 없지.》
《그럼 나를?…》
총살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교준은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그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석근이를 바라보았다.
《이보게 석근이, 나를 도와달라구. 내가 안병덕의 복수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납득시켜달라구. 응, 석근이?》
김석근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한교준은 더욱 안절부절 못해하면서 만일 자기를 도와주면 제 고향 정평군에 있는 땅 2만평을 넘겨주겠다는것이였다.
《교준이, 자넨 나의 가슴에 안병덕이 새겨준 사자입묵이 있다는걸 모르나? 나 역시 자네와 다를바 없는 사령관의 요시찰인으로 되여있네.》
김석근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묵묵히 담배를 빨던 그는 그 어떤 용단을 내릴 때처럼 물었던 담배를 휙 집어던졌다.
《교준이, 우리 이렇게 하자구. 지금 최일남은…》
이렇게 말하던 김석근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교준의 뒤에 앉아있는 무전수를 훔쳐보았다. 그를 꺼려하는 눈치였다.
《걱정말게. 우리 무전수는 나의 처남이네.》
《하지만…》
《원 사람두, 나의 처남은 고원군에서 200명의 빨갱이들을 처단한 화랑도네.》
《음…》 김석근은 믿을만 하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리고나서 자기 계책을 말하였다. 지금 최일남은 《북한》게릴라부대를 자기네 원산 《양호단》출신 패거리들이 장악하려고 함흥패 장교들을 하나하나 제거한다고 김석근은 말하였다. 무슨 건덕지가 없어서 함흥패들을 축출하지 못한다면서 그는 앞으로 자기는 물론 지금 부사령관으로 활약하

는 지용수도 잘못될게라고 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있겠나? 안병덕의 원쑤를 갚는겸 이번 기회에 최일남이를 저승에 보내자구. 어때, 교준이?》

《아니, 사령관을?…》

《무섭나? 안병덕의 복수를 하는데도 속이 떨리나?》

지난 시기 스스로 안병덕의 화랑도라고 뽐내던 한교준에게 있어서 그 말은 심히 모욕적인 질문이였다. 어느덧 그의 퉁방울눈에서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같은것이 번뜩이였다.

《그럼 지용수가 사령관으로 되겠지?》

한교준은 석근이앞에 더욱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야 물론! 자네도 달라지지.》

《나도 달라진다?…》 한교준은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물었다.

《그런데 전선형편은 어떤가? 진달래가 필 때 다시 돌아온다던 미군은 왜 오지 못하는건가?…》

《개구리도 움쳐야 뛰여간다고 미군도 준비해야 할게 아닌가.》

미제는 1951년에 감행한 《하기공세》와 《추기공세》에서 크게 패하였다. 그러자 8군사령관 밴프리트는 통천지구에 상륙하여 전선을 금성—평강—통천선으로 밀어올릴것을 망상한 《해시계계획》이라는 새로운 공세계획을 제기한바 있었지만 맥아더의 후임 릿지웨이와 워싱톤의 군벌들은 그것을 승산없는 모험으로 간주하고 기각하였다. 그밖의 《북진》계획에 대해서도 릿지웨이는 그것이 《희생을 보상할수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미8군에 《방어에로의 이전》을 정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8군은 전반적으로 방어에로 이전하게 되였으며 조선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할 때까지 단 한번도 대규모적인 공격작전을 벌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미제는 《하기 및 추기공세》의 파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으려 할 대신 인민군대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며 새로운 공세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고 더욱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자국내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고 군비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조선전선에 계속 병력을 투입하고있었다.

미제는 이미 조선전선에서 만신창이 된 미군사단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대신 일본에서 훈련을 받고있던 미제침략군 40, 45보병사

단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한편 괴뢰군을 정비확장하기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이에 대처하여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갱도방어진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방어전에서 적의 유생력량과 기술기재를 끊임없이 소모약화시킬데 대한 령활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습격조활동을 비롯하여 저격수조활동, 비행기사냥군조활동 등 독창적인 전법들로 도처에서 적의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손실을 주며 적들을 피로케 하고 늘 공포에 떨게 하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는 군사적활동을 맹렬히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미제는 다시 정전담판에 끌려나왔다. …

그러나 김석근은 한교준의 귀맛을 돋구려고 짐짓 허세를 부렸다.

《그새 미군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였네. 이번에는 〈유엔군〉 100만의 병력으로 남포와 함흥을 상륙하여 단숨에 〈북진〉할것이라고 크레마대좌는 말하였네.》

《그게 정말이나?》

《사람두, 이렇게 늘 굴안에 엎뎌있으니 굴밖 세상에는 영 깜깜이구만. 응? 머지않아 미군이 들어오겠는데 그래 이러구만 있겠나?》

김석근은 또다시 최일남을 제거하자고 말하였다. 한교준은 잠시 생각하고나서 드디여 입을 열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구.》

그는 신심에 넘쳐 석근이의 어깨를 힘있게 탁 쳤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하였다. 범의 굴에 주안상을 차려 최일남이를 대접한다, 그때 열입곱놈의 호위병들도 취할게다, 교준의 특공대원들이 들어와서 최일남을 비롯한 그의 호위병들을 무장해제시킨다는것이 김석근의 안이였다. 내무원들을 백운사주변에 매복하게 하고서도 석근이 이렇게 제기한것은 한교준의 속심을 꿰뚫어보았기때문이다. 한교준은 특공대 자기 부하들에게도 범의 굴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참모장과 무전수, 두세명의 망원들만 드나들게 한 범의 굴에서 최일남일행에 대한 소탕전을 벌리자고 할리 만무하였다. 아닐세라 한교준은 석근이 예견한대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좁다란 굴안에 대주안상을 차리기는 어렵소. 최일남을 백운사에 안내하고 아예 거기서 처리하기요.》

예상밖에도 너무나 쉽사리 뜻대로 되는 바람에 석근이는 속으로 자못 놀라와했지만 짐짓 시틋해하며 동의하였다.

다음날 새벽이였다. 한교준은 특공대참모장 장욱세에게 비상소집명령을 내렸다. 천의산주변에 숨어있는 특공대원들을 급히 백운사에 집결시켜 일부는 최일남일행의 아침식사를 마련하게 하고 대다수의 다른 대원들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사령관일행을 호위할수 있게 대기시키게 하였다. 최일남일행에 대한 소탕작전은 그만하면 비교적 면밀하였다.

어느덧 동녘에 적갈색의 노을이 피였다. 석근이는 무전수를 달고다니는 한교준이와 함께 범의 굴에서 나와 백운사로 내려가는 릉선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참나무숲속 자그마한 공지에 있는 숯가마앞에 이르렀다. 한교준이 걸음을 멈추고 숯구이군을 찾았다.

《경준이.》

반토굴숯막에서 경준이 나왔다. 한교준은 그에게 석근이를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 북한게릴라풍산지대장이야. 앞으로 나와 손잡고 싸울 사람이니 무사통과시키라구.》

《예.》

《그럼 올라가봐.》

비여있는 동굴을 지키라는 소리였다.

《그런데 형님, 지금 한창 숯구이를 해서 그러는데 조금후에 올라가면 안되겠소?》

한교준은 검은 연기가 타래쳐나가는 굴뚝을 쳐다보며 재촉하였다.

《가마뚜껑을 단단히 닫고 어서 올라가.》

한경준은 더는 군말없이 자리를 떴다. 전문 숯구이군처럼 도끼와 지게를 지고 올라갔다.

《저 사람은 내 4촌동생일세.》

석근이더러 믿으라는 의미였다.

사실 그의 4촌동생 한경준은 교준에게 충실한 충견이였다. 숯구이군으로 가장한 그는 산아래마을 자기 집으로 오르내리면서 식량을 날

라오기도 하고 《적정》을 알아오기도 하였다. 동굴로 통한 외통길에서 숯구이하며 보초를 서는데 내무원들만 아니라 마을사람들도 전혀 눈치차리지 못했다. 정말 잘 위장된 동굴지기였다.

《앞으로 자네한테 련락보낼수도 있으니 똑똑히 봐두게.》

《아무렴 내가 자네의 충복을 몰라보겠나.》

《그럼 됐네. 가자구.》

그때였다. 릉선아래길쪽에서 웬 젊은이가 마주 올라왔다. 물날은 밤색 캡을 쓴 그 젊은이는 한교준을 보고 다급히 뛰여왔다.

《대장님.》 그는 석근이를 손가락질하며 말하였다. 《바로 이, 이놈은 빨갱이입니다. 진짜빨갱이입니다.》

(응?)

김석근은 속으로 흠칠 놀랐다. 그자는 적들이 패주할 때 흥남부두에서 오인범이 《빨갱이》라며 권총을 빼들었던 놈이였다. 그때 김석근은 밤색캡을 쓴 그자의 뺨을 갈기며 오인범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했던것이였다. 하지만 김석근은 그자가 한교준이 《초불》과 함께 파견한 《박쥐》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구나 그자가 내무원들이 진행한 신흥군매복전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놈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으랴. 김석근은 자못 의아해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배포유하게 대척하였다.

《내가 빨갱이라— 그럼 처단해버려야지. 왜, 총이 없나?》 김석근은 가슴노리 속주머니에서 자기의 권총을 꺼내여 《박쥐》한테 내밀었다. 《자— 이걸루 쏘라구.》

김석근이 하도 태연해서인지 아니면 쏘아보는 그의 눈길이 너무나 위압적이여서인지 《박쥐》는 그저 두눈을 휘둥그래 뜨고 뒤걸음질만 하였다. 석근은 경멸에 찬 쓰거운 미소를 머금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자식같으니…》

그는 속주머니에 권총을 도로 집어넣었다.

《〈박쥐〉.》 한교준이 불렀다. 《〈초불〉은 왜 안 오고 너만 왔어?》

《박쥐》는 겁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황황히 대답하였다.

《〈초불〉은 포로되였습니다.》 신흥군에서 위의섭지대가 내무

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녹아날 때 《초불》이 포로되였다면서 《박쥐》는 말하였다. 여기 천의산을 향해 이동하고있던 허천군 위의섭지대를 신흥군 범바위골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알아본데 의하면 사령부에 련락관이 온적도 없고 천의산 위정사지대를 풍산해방전투에 부른적도 없다 하였다. 《사령부에서 풍산해방전투를 작전했다는것은 빨갱이들이 음모한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빨갱이들의 책동이 틀림없습니다.》

《음!…》 한교준은 천천히 석근이 앞으로 다가왔다. 《〈박쥐〉는 내가 풍산사령부에 급파한 망원인데 듣다싶이 그의 보고에 의하면 자네의 총구가 나를 겨냥하고있구만. 응, 석근이?》

《〈박쥐〉가 어떤 경력으로 무슨 공로를 세워 자네의 신임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김석근이보다 더 믿는자라면 나를 처단하게. 후과를 책임질 용의가 있다면 말이네.》

《음— 참, 도대체 무슨 갈래판인지 종잡을수 없구만.》

한교준은 진실로 어리벙벙해하면서 석근이의 앞을 왔다갔다하였다.

《이보게 석근이, 일단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상 나는 자네를 경계할수밖에 없구만. 자네가 청백하구 또 명실공히 안병덕의 〈사자〉가 틀림없다면 권총을 이리 주게. 무장해제를 당한다구 모욕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신의를 보여주게.》

무기를 빼앗고 알아보려는 작정인데 한교준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게라는 생각에 김석근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그렇다, 이제는 정체도 운명도 시간상문제로밖에 되지 않는다. 하다면?… 김석근은 저도 모르게 권총을 잡았다. 손쉽게 한교준이를 처단해버리고 자취를 감추고싶었다. 그것은 눈앞에 직면한 죽음의 함정에서 살아나고싶은 본능적인 충격이였다. 생에 대한 감성적인 애착에서 북받치는 응당한 욕망이였다. 하지만 김석근은 그러한 자기를 스스로 억제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투쟁의 이 길에 들어설 때 마음먹었던 그 결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리라는 초기의 맹세대로 그는 다만 한교준의 특공대를 일망타진할 궁리만 하였다. 이제 최일남일행으로 변장한 내무원들이 백운사에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적들을 전부 거기에 집결시킬수 있겠는가? 문제는 한교준이로 하여금 비상소집명령

을 철회하지 않게 하는데 있었다. 이제 몇분만 견지하면 적들도 다 모여들게고 사령관일행으로 변장한 내무원들도 도착할게라는 확신에 김석근은 드디여 용단을 내렸다. 한교준에게 권총을 넘겨주어 귀중한 그 시간을 얻으리라 마음먹었다.

《교준이, 이 사람. 자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작전을 벌렸다는것을 잊지 않았겠지? 또 자네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거사를 앞두고 이러면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것도 알고있겠는데 그래도 이 김석근이 더 두렵다면 자, 권총을 받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빨갱이부터 경계한다는걸 자네도 알지 않나. 물론 자네를 꼭 빨갱이로 보는건 아니지만… 용서하게.》

그러고서도 한교준은 후과가 우려되였던지 잠시 주저하다가 석근의 권총을 받아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박쥐〉, 너는 너의 보고에 착오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걸 알겠지?》

역시 뒤가 켕겨서 을러메는 말이였다. 죽음을 예고하는 그의 위협에 《박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주춤거리다가 대꾸하였다.

《위의섭지대장이 내무원들한테 붙잡히기 전에 내가 직접 그에게서 들은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로 최일남사령관이 도착하는데 그래도 틀림없는가?》

《예?—》

《사령관한테 물어보면 명백해질게 아닌가?》

《저… 최일남사령관은 갑산군 신덕수목재소 습격전투에서 희생되였다는데 그가 온단 말입니까?》

《뭐라구?》

한교준은 다급히 권총을 빼들고 석근이를 돌아보았다. 독기어린 그의 눈길은 석근이더러 어서 대답해보라고 재촉하였다. 김석근은 태연하게 대척하였다.

《자네는 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코방귀놓을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라는건가?》

《하긴 그렇지. 〈박쥐〉, 너는 이제 곧 백운사로 내려가. 가서 참모장에게 백운사에서 부대를 철수시키라고 해. 그리고 참모장을 여기

로 데려와. 빨리!》

《박쥐》가 달려가려 하자 교준이 다시 소리쳤다.

《가만, 우선 이자부터 숯가마속에 밀어넣고 가!》

석근이가 도망치거나 대항할것 같았던 모양이였다.

그의 명령대로 《박쥐》는 석근이 앞으로 다가왔다. 김석근은 그놈을 엄하게 쏘아보았다.

《네놈이 감히 대한민국 장교를 모해해?》

이제 몇분만, 그 몇분을 지탱하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석근이는 불의에 《박쥐》의 관자노리를 타격하였다. 급소를 얻어맞은 《박쥐》는 찍소리 못하고 즉사하였다. 그러자 한교준이 석근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고 황황히 소리쳤다.

《꼼짝말앗! 쏜다!》

석근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다.

《이보게, 교준이. 진정하라구. 나는 다만 게릴라장교를 모해한 악당을 징벌했을따름인데 그래도 이렇게 총구를 겨눠야 옳겠나?》

《뻔뻔스러운 놈! 네놈은 풍산해방전투에 참가하려고 여기서 떠난 위정사부대도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 괴멸되였다는걸 이 한교준이 모르는줄 알겠지?》

(응? 이놈이 그걸 어떻게 알고?)

하지만 김석근은 애써 여유있게 응수하였다.

《허허허… 항간에서는 시라소니를 보고서도 범을 보았다기가 일쑤데 교준이는 민간에서 떠도는 뜬소문에 지나치게 귀가 밝구만. 응?》

《이놈아, 그 함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박쥐〉란 말이다. 〈박쥐〉! 그래 내가 풍산사령부에서 위정사지대를 불렀다는 련락관과 네놈의 말을 확증하려고 〈박쥐〉와 함께 〈초불〉을 파견했다는것도 네놈은 몰랐지? 련락관도 네놈과 결탁한 내무원이지?》

김석근은 자기가 이미 예견했던바와 같이 교준이 련락관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거마리를 붙였다는것을 알았다. 이자와 함께 특공대를 소멸하지 못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각성에 김석근은 한결 태연하게 대척하였다.

《교준이, 〈박쥐〉가 위정사지대와 위의섭지대가 몽땅 괴멸되였다고 하면서도 저만은 두번 다 살아났다는것인데 그래 〈박쥐〉는 위정

사나 위의섭지대장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탄우속에서도 죽지 않는 귀신인가? 또 어떻게 되여 〈박쥐〉가 끼여있은 지대들만 내무원들의 매복전에 걸려들군 했는지 그런건 의심스럽지 않나?》

《그건 〈박쥐〉를 의심하라는건데, 이놈아! 〈박쥐〉는 위정사지대장의 동생이야, 동생! 그래도 나를 속이려 들엇?》

한교준은 이미전부터 위정사와 서로 내통했는데 그 련락임무를 수행한것이 바로 위정사의 동생 《박쥐》였다.

(음— 그러니까 이자가 내 말을 믿을리 만무하지.)

김석근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야산너머 백운사쪽에서 야무진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기다리던 내무원들의 소탕전이 벌어지는것이 틀림없었다. 미구하여 한교준의 특공대도 전멸될것이다. 수십명의 적들을 소멸할 이 시간을 끝내 지탱해냈다는 생각에 김석근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였다. 스스로 말아안고 스스로 수행하는 량심의 임무였지만 그는 그것을 위하여 적들의 총구앞에서도 그처럼 태연할수 있었던것이다.

한교준이 다가와서 치를 떨었다.

《자— 저래도 아닌가, 네놈은 빨갱이지?》

내무원들의 소탕전이 벌어지는 백운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따지고드는 교준에게 김석근은 가슴을 쭉 펴고 그렇다고 대답하고싶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전사, 〈불새〉다!》라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실로 얼마나 터놓고싶은 이름인가! 정말 얼마나 자랑높이 웨치고싶은 《불새》인가! 심장속에서 《밭갈이노래》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신념이 영원불멸하는 《불새》,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장군님께 충정다하려는 의지도 영원히 꺾이지 않는 《불새》, 그러한 《불새》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영생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라고!… 김석근은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진정을 누를길 없어 속으로 조용히 부르짖었다.

(위대한 장군님, 드디여 백운산특공대는 괴멸되고있습니다. 머지않아 적게릴라잔여부대도 기필코 전멸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반간첩, 반게릴라투쟁은 위대한 승리로 이어지고있습니다. 간고한 적구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오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슬기를 안겨주시고

힘과 용맹을 심어주신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싸워이기는것입니다. 저는 비록 적들의 총구앞에서 다르게 될수 없는 몸이지만 장군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고싶은 욕망이 어쩌면 이렇게도 강렬해지는것이겠습니까.

적들은 나를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였던 《함흥반일학생회》성원으로 싸워온 그때부터 위대한 장군님만 따르며 우러러 받들어모시는 나의 신념과 의지를 적들은 결코 꺾을수 없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적구투쟁의 지난날처럼 장군님의 은덕을 순간도 잊지 않는 이《불새》를 적들은 결단코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불새》는 영원히 이깁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답게 싸워이기겠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하늘땅이 진감하도록 소리높이 웨치고싶었지만 김석근은 죽음의 이 순간에도 적구활동의 래일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소탕하지 못한 적게릴라부대들이 있고 장차 더 깊숙이 침투할 적구가 있는 이상 투쟁은 계속되여야 하지 않는가. 나 아니면 오인범이 그렇다, 오인범의 활동을 보장해주려면 최후의 이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금은 오인범이 잡혀있지만 앞으로 기필코 적구투쟁을 이어갈게라고 믿으며 김석근은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충동을, 긍지롭게 웨치고싶은 그 충동을 애써 억제하였다.

《나는 〈북한〉게릴라지대장이다. 그렇다. 지대장이야, 지대장!》

《지독한 놈! 그전에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영고개의 〈내무원〉들을 살해한것도 네놈이 그들이 우리 치안대원들임을 알고 그랬지? 개자식!》

그때 《치안대》대장으로부터 강직처분당했던 분풀이를 하는듯 한교준은 이를 갈며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놈이 어떻게나 악을 썼던지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려던 초기의 기도를 감감 잊고 미친듯이 쏘고 또 쏘아대였다. 김석근은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백운사쪽에서 들려오는 내무원들의 귀에 익은 총성에 귀를 강구었다. 마지막기력을 다하여 듣고 또 들으려고 애를 썼다.

그 전투에서 백운특공대참모장 장욱세 외 여러놈은 도주하다가 체포되고 반항하던 대다수의 특공대놈들은 전부 멸살되였다. 김석근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어리석게도 우리의 수뇌부까지 노리던 적 특

공대를 전멸시켰던것이다!…

무전수놈의 진술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방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사람이 없었다. 도안전국장이며 최현무도 깊은 생각에 잠겨 숭엄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6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함흥시 동흥산에서 진달래며 함박꽃들이 피여난 어느날 저녁이였다. 최현무는 위대한 장군님께 올릴 김석근에 대한 보고서작성을 비로소 마감짓게 되였다. 김석근의 장렬한 최후까지 확증하고서도 이때까지 그이께 보고올리지 못한것은 땜쟁이 주동학의 운명을 확증하지 못해서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왕초》였던 윤경이를 통하여 철공소 땜쟁이가 희생되였다는것은 알고있지만 그가 주동학이라고 보증서는 사람은 없었다. 김석근은 물론 공장사람들도 주동학이를 행불로 인정한 이상 그가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라는것을 자료적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더구나 그때에 철공소 땜쟁이로 불리운 사람이 한명만 아니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이때까지 희생된 철공소 땜쟁이를 석근이 련락원으로 인정한것은 어디까지나 추리로 확인한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윤경이자신도 보증하지 못할뿐아니라 철공소 땜쟁이의 시체마저 없어진 2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을 밝혀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최현무는 숱한 걸음을 놓으며 무진 애를 썼다. 마침내 윤경이네 조무래기들이 철공소 땜쟁이를 묻었던 밭주인을 찾았다. 지금은 안악군 맏아들네 집에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그 밭주인은 적들이 퇴각한 다음해 봄에 밭갈이를 하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주인없는 그를 멀리 산중에 옮겨묻었다는것이였다. 시체를 찾은 현무는 주동학이네 가족들과 함께 그가 바로 다름아닌 김석근의 련락원이였던 주동학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주동학이 애용하던 만년필과 같은 증거품들을 찾았던것이다. 현무는 드디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였다.

도안전국 사무실에서 벌써 사흘째 쓰고있는데 문득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이 현무를 찾아왔다. 그 일군은 지금 함흥지구에 내려오시여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무를 찾으신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안겨주었다.

그이께서는 수수한 려관방에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무를 소탈하게 맞아주시고 김석근에 대한 료해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현무는 《불새》를 찾는 사업을 너무 오래동안 끌어서 보다 빨리 보고드리지 못한 자신을 죄송스럽게 여기며 그이께 자초지종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무의 수고를 과분하게 치하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제는 김석근동무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싸우다가 희생된 〈불새〉였다는것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는 잃을번 한 혁명전사를 찾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영웅적으로 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를 또 한명 찾았단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영원히 버림받을번 한 혁명전사가 소생하게 되였습니다.》

《현무동무, 그건 나의 덕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석근이처럼 묻혀있는 이름없는 영웅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곁을 떠난채 묻혀있는 이름없는 애국자들을 다 찾아 영생하도록 하시려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갈뿐입니다. 그이의 품에 안긴 혁명전사들은 그 누가 몰라주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영생하는 품입니다!》

최현무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바로 그 품이 있어 석근이처럼 묻혀있는 애국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는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삶의 철리를 더욱 깊이 느꼈다.

《현무동무, 이제는 석근동무의 공로를 전부 종합할수 있는데 며칠

이면 되겠습니까?》

《예. 래일 그에 대한 보고서를 당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석근동무의 공로문건을 〈로동신문〉사에 보내시오. 먼저 지상에 널리 소개선전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석근동무는 소원대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녀야 합니다.》

《석근동무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지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의 충의심은 영원히 당과 함께 빛날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최현무는 눈굽이 달아올랐다.

7

화창한 봄날이였다. 성천강반의 물버들이 파랗게 물오르며 잎새들마다 길둥그런 자기 모양으로 되살아나는 계절이였다. 최현무는 오늘에야 비로소 혜심이를 찾아가게 되였다. 석근이네 부부의 공민증들을 전해주려고 언제부터 간다고 하면서 여직껏 미뤄오다가 김석근의 영웅적투쟁실기를 《로동신문》사에 제출하고서야 짬을 냈던것이다.

최현무는 아침차로 달려 한시간후에 영천리에 도착하였다. 먼저 리당사무실부터 들린 그는 리당비서로부터 실로 뜻밖의 소식에 접하였다.

《아니, 은섭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구요?》

최현무는 이렇게 놀라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어제 밤에 은섭이가 방목지에서 젖소를 한마리 잃었습니다. 축산반 사람들과 함께 은섭이 어머니도 산중에 들어가 젖소를 찾았답니다.》 온밤 상동골방목지를 샅샅이 훑었는데 그러다가 발밑의 돌이 허물어져내리는 바람에 은섭 어머니는 절벽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와 가슴들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리당비서는 말하였다. 《새벽녘에야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차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당비서와 함께 군병원으로 찾아갔다.
중태에 빠져 1층 소생실에 누워있는 양혜심은 여직껏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의 침대머리말에는 수심어린 은섭이 앉아있었다. 의사며 간호원들이 안타까운 얼굴로 혜심이를 소생시키려고 애를 쓰고있었다, 산소호흡도 시키고 주사도 놓으며…
혜심이 마침내 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간신히 눈시울을 드는것이였다.
《어머니!》
은섭이 불렀다. 혜심은 힘겨웁게 입을 열었다.
《젖소, 젖소는 찾았느냐?》
《찾았어요. 하동골 거부기등판에서 찾았는데 하나도 다친데가 없습니다. 어머니!》
《정말이냐?》
《예. 어머니!》
《온 참, 다행이구나.》
혜심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애틋이 잡았다.
《은섭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지. 응?》
《어머니, 명심하고있습니다.》
《조그마한 흠집도 내서는 안되는데… 녀석두…》
그리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 혜심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면서 이그러지는것이였다. 무엇인가 마음속 고통이 되살아나는 모양 슬그머니 눈을 감더니 《호—》하고 큰숨을 쉬다가 다시금 의식을 잃었다. 최현무가 보건대 양혜심은 남몰래 제스스로 구속받는 괴로움과 남들보다 떳떳치 못한 자기들의 처지를 남편의 오점과 결부하여 생각한것 같았다. 아니, 현무는 굳이 그렇게 믿었다. 언제인가 오인범이 김석근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던 혜심이 아닌가. 오랜 세월 가슴에 옹이처럼 들어앉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 아픔이 되살아나서 심장을 압박했을것이라고 현무는 인정하였다. 그러한 혜심에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의 남편을 더듬게 한다면…
《은섭동무.》 현무는 조용히 불렀다. 《동무의 아버지가 좋아한 노래를 불러주오.》
은섭은 어리둥절해하였다.

《어머니에게 〈발갈이노래〉를 불러주라니까. 어서!》

그제서야 은섭은 현무의 말속에 담긴 의미를 눈치차렸다. 그는 주먹으로 눈굽을 훔치고나서 은은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 가세

눈물을 머금고 부르는 은섭의 노래가락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담고 감회깊이 우러나왔다.

주인된 새땅엔 기쁨도 넘실넘실
새로 푼 논에는 봄물결 출렁출렁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묵이랴 밭갈이 가세
…

혜심의 남편이 사랑한 그 노래, 그의 심장속에 피처럼 용해된 그 노래, 그 노래소리는 현무에게도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려는 김석근의 깨끗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였다. 이제 그 노래 들으면 혜심이 남편의 심정이 느껴지고 김석근이를 생각하면 자기의 심장에도 그의 심장에 뿌리내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심이 자리잡는것만 같았다. 하거늘 혜심이 어찌 그 노래소리를 무심히 들으랴, 남편의 심정을 돌이켜보지 않으랴.

은섭의 노래소리는 고요한 방안에서 추억깊게 들려온다. 저 멀리 협동벌에서는 구성진 뻐꾸기노래소리가 울려퍼지며 화창한 밭갈이계절의 풍경을 한층 감회깊게 장식한다.

이윽고 양혜심이 슬며시 눈을 떴다. 은섭의 노래소리에 눈정기를 모아 귀를 강구려고 모지름을 썼다. 현무는 그에게 낮은 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아주머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주머니의 남편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내세워주셨습니다!》
혜심은 눈시울을 치켜올리며 현무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한테 어버이수령님께 충실하였던 남편을 찾아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석근동무를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무자신도 하늘같은 그이의 사랑에 너무나 가슴뜨거워 눈물이 핑 돌았다. 젖은 유리를 내다보는듯 한 그의 시선에 병석에서 일어나앉은 혜심이가 보이였다.
양혜심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듯 현무를 쳐다보았다. 현무는 그에게 다시한번 말하였다.
《이제 세상사람들이 다 알게 〈로동신문〉에 김석근동무의 사진과 함께 투쟁기사가 실릴겁니다.》
《그래요?!…》
혜심은 물기어린 눈으로 창문밖을 내다보았다. 저도 모르게 군병원 울타리곁에 서있는 살구나무에 시선을 준 그의 머리속에서는 남편때문에 남몰래 속을 썩였던 일이 어제인듯 떠올랐다. 남편의 고향마을에서 살수 없어 스스로 이사짐을 꾸렸던 사연이며 은섭이 앓을적에는 병원의사들앞에서도 애아버지가 《월남도주자》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괴로움이 저절로 되살아났다. 사람들앞에 실로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던가. 좋은 일이 생겨도 자연 자기네를 속박하며 남의 눈치를 보았었지. 혜심은 은섭이를 사랑하는 미화를 두고도 불행한 자기네 처지를 한탄했던 일이 더듬어졌다. 정말 그때처럼 조국앞에 떳떳한 남들을 부러워한적은 없은것 같았다. 과연 그때 《반동》이 된 남편을 실로 얼마나 원망했던가.…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이 영영 없어지게 되다니? 나라에서는 조금도 차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를 속박하며 괴로와했던 마음속의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되다니? 아니, 가슴속의 온갖 멍을 다 씻어주시고 이때까지 그렇듯 부러워하며 돋우본 남들처럼 우리들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한 가족으로 내세워주시지 않았는가! 만사람한테 버림받았던 남편을 글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에 안겨주시다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양혜심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뜨거운 격정에 사무쳐 어깨를 마구 떨었다. 은섭이도 울었다.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에 겨워 북받치는 행복의 울음이였다. 김석근이처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심을 지니고 영원히 자기를 바쳐 헌신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가 담긴 흐느낌이였다. 그 울음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김석근이처럼 자기의 전부를 바쳐 보답하려는 강의한 정신력과 열망의 웨침이였다. 그렇다. 그들도 석근이처럼 깊은 의리심을 품고 자기 희생성을 발휘할 때만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할수 있다는 삶의 철리를 깨닫지 않았는가. 그처럼 수령관이 확고히 선 《불새》이길래 조직선이 없는, 절해고도와 같은 적구속에서도 굳세게 싸워이긴 영웅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절감한 그들이였다.

창문너머 저 멀리에서는 여전히 밭갈이계절의 뻐꾸기가 울어예고있었다. 오늘따라 《불새》처럼 느껴지는 저 뻐꾸기의 울음소리마저 《밭갈이노래》같이 들려오며 현무의 가슴을 한결 뜨겁게 덥혀주었다.

편 집 후 기

장편소설 《불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속에 침투하여 영웅적위훈을 세운 내무원 김덕근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공화국영웅 김덕근의 이웃부락에서 살았던 필자는 전쟁시기 《치안대》완장을 두르고 적기관에서 활동한 그를 늘 악질반동으로 보아왔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김덕근이 고향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척과 버림을 받았겠는가를 가히 짐작하리라 믿는다. 실로 고향사람들 모두가 퇴각하는 적들과 함께 《월남도주》한 그를 조국과 민족의 배반자로 저주하였다.

세월은 흘러 무려 20여년이라는 년륜을 새기게 되였어도 흐르는 그 세월과 함께 가족들의 마음속 고충은 가셔질길 없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김덕근을 애국자로, 영웅으로 찾아 내세워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등진 《반역자》로 배격받던 남편이 애국자라고!… 아니, 그게 사실인가? 믿고싶은 욕망은 강렬했지만 그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였다. 김덕근의 안해는 물론 다 자란 자식들마저 생시로 믿지 못하던 그 기쁨을 찾아주시고 소생과 더불어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워주신분은 그 누구시였던가! 그이는 바로 우리 인민의 가장 친근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심금을 울린 그 사연은 이미 청춘기에 들어선 필자로 하여금 시대앞에 무엇인가 자기의 의무와 도리를 지켜 붓을 들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 하였다. 지난날 김덕근을 천추에 용서 못할 원쑤로 오인했던 아픔이 강렬해지면 질수록, 간고한 적구투쟁의 길에 몸바쳐나선 영웅앞에 만회할수 없는 《적》으로 맞서나섰던 죄의식이 그처럼 괴롭게 북받치면 칠수록 필자는 김덕근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 조국이 알고

민족이 아는 영웅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실로 금할수 없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창작과에서 공부하게 된 필자는 이미 그때부터 김덕근의 삶의 흔적을 취재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는 물론 고향에 내려가서도 도안전국(당시)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을 찾아 그의 투쟁자료를 추적하며 탐구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공화국영웅 김덕근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 《불새》를 창작하게 되였다.

필자는 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굴함없이 싸운 전사는 수령의 품속에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삶의 철리를 예술적으로 밝혀주었다.

편 집 부

장편소설 **불 새**

저 자	**윤 원 삼**
편 집	**김 강 휘**
표지, 삽화	**김 광 석**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정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9월 1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9월 20일

ㄱ－16328 값 19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83－4